

---

# 튀르키예 PPP 진출 가이드

---





## 머 리 말

본 PPP 진출 가이드 시리즈는 2020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 제작되는 것으로, 해외건설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주 확대를 염원하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동남·서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유럽 1개국(튀르키예), 남미 2개국(과라과이, 칠레), 아프리카 1개국(케냐) 등 PPP 진출 유망국 10개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발간에서는 튀르키예와 칠레를 신규 국가로 선정해 시리즈에 포함하였으며 앞으로도 발간 국가를 확대해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가이드에 담긴 정보는 KIND 해외인프라협력센터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국가별 정보 및 최신 동향, 사업 환경과 PPP 주요 제도, 진출 사례 및 인적 정보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진 엔데믹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대외여건이지만 본 가이드와 함께 올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강훈



# 목 차

<b>Executive Summary</b> .....	<b>3</b>
<b>I. 국가 개요</b> .....	<b>10</b>
1. 국가 개황 .....	10
2. 정치, 행정 체계 .....	29
3. 경제 현황 .....	36
4. 주요 사회 개발 지표 .....	45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49
<b>II. 최신 동향</b> .....	<b>68</b>
1. 정치 동향 .....	68
2. 경제 동향 .....	73
3. 사회 동향 .....	98
4. 산업 동향 .....	109
5. ESG 관련 동향 .....	139
<b>III. 사업 여건</b> .....	<b>150</b>
1. 인프라 여건 .....	150
2. 한국 투자 현황 .....	162
3. 주요 PPP 사업 전망 .....	175
4. 발주 예상 PPP 현황 .....	192
<b>IV. PPP 주요 제도</b> .....	<b>222</b>
1. PPP 제도 및 관련법 .....	222
2. 외국인 투자 환경 .....	248
3. 조세제도 .....	298
4. 노동 관련법 .....	316
<b>V. 진출 사례</b> .....	<b>346</b>
1. 프로젝트별 사업 현황 (EPC, PPP 사업 등) .....	346
2.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	360
<b>VI. 인적 정보</b> .....	<b>379</b>
1. PPP 관련 발주기관 현황 .....	379
2. 해당 기관별 Key Person .....	393
3. 현지 Developer 현황 .....	405



## Executive Summary [ 튀르키예 ]

### □ 정치·경제·사회 동향

- 튀르키예 공화국은 대통령제 정부형태, 입법부는 단원제로서 2019년 8월 재취임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임기 5년을 2024년 8월 27일까지 수행 예정
  - 여당인 정의개발당의 안정적인 정치기반으로 2024년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하며 30년 집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이며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음
-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 다르다넬스 해협은 매우 중요한 관문
- 인구는 약 8,500만명,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3.5배이며, 민족은 튀르키예족이 75% 이상을 차지하며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형제국을 자임하고 있어 향후 튀르키예 접근성이 양호하며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인당 GDP는 약 9,600달러, 경제성장률은 7.6%~11%대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업률이 10%대로 높고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약 80%를 웃도는 수준이며 환율이 상승하는 등 거시 경제지표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상승하고 있으나 튀르키예는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달러화 대비 현지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여 현지화 수입으로 외화 차입금이나 투자금을 상환/회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음
- 정부가 적지 않은 외채 및 해외 단기 자금 유입 문제를 안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외환 보유고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
  - 한편 금리 인하 기조를 통한 수출을 장려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신경제모델(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한-튀르키예 FTA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은 신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튀르키예 인프라 투자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모범 프로젝트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었음

- 향후에도 추가 진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두 나라간 문화,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

## □ 사업여건

-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과 튀르키예 리라화의 가치 하락은 현지 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튀르키예는 넓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보건(병원) 인프라, 발전 인프라 확충에 많은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PPP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 투자청이 중심이 되어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세계에서 매우 활발한 국가이며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인프라 PPP사업은 총 262건, 총 계약금액 1,840억 달러였음
  - 2035년까지 고속자동차도로 8,200km, 인프라 투자 중 60%는 철도에 목표를 두고 있음
-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인프라 투자액은 4,050억 달러이며 동 기간 동안 교통 인프라 투자액은 총 5,631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음
  - 이 중에 도로가 4,990억 달러, 철도 630억 달러, 항만이 11억 달러. 에너지 투자는 2,420억 달러가 필요함
-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인프라 투자 비율은 도로가 61%, 철도 20%, 공항 10%였으며 2003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도로는 6,101km에서 28,284km로 증가, 고속철도 1,213km 신설, 공항은 26개에서 56개로 늘어남
- 고속자동차도로는 2022년 현재 총 연장 3,532km 인데, 2023년 4,461km, 2035년 8,187km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젝트 단계로까지 진행이 완료된 철도 길이는 3,567km, 예비조사 및 연구가 진행 중인 철도 길이는 6,682km에 달함
- 1986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된 PPP 모델은 총 1,840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BOT 방식은 1,060억 달러, TOR(운영권 양도) 방식은 580억 달러, BLT방식은 120억 달러, BO(BOO) 방식은 80억 달러였음
- 동기간 총 262건의 PPP 계약 중에 BOT 계약은 123건, TOR은 116건, BLT는 18건, BO(BOO)는 5건이었음
- 주요 인프라 PPP 프로젝트는 이스탄불 신공항(65억 달러), 야부즈 술탄 세림 교량(35억 달러), 게브제-오르항가지-이즈미르 고속자동차도로(65억 달러), 유라시아 터널(12억 달러), 차나칼레 대교(28억 달러)임
- 보건 PPP 프로젝트는 설계, 건설, 금융 및 시설관리 유지는 민간 부문에서 책임을 지며, 핵심 의료 서비스는 보건부가 책임을 짐
- 통합 헬스케어 캠퍼스 형태의 병원 PPP 프로젝트들은 건설 중인 것이 6건 (11,779병상), 서비스가 완료된 것이 13건(17,836병상)임
- 튀르키예는 최근 전국에 통합 헬스케어 캠퍼스 건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소개했고 공공투자 계획 중인 것이 11개, 기타 계획 1건이 있음
- 발주 예정인 PPP사업은 폭 275미터, 깊이 21미터, 길이 45km의 이스탄불 운하, 213km의 게브제-할칼리 철도, 347km의 앙카라-이스탄불 고속철도 (56억 유로, BOT방식, 건설기간 5년, 30년 운영), 120km의 앙카라-키리칼레-델리체 고속도로, 163km의 안탈야-알란야 고속도로, 필요스 항만, 칸다르리 항만, 메르신 컨테이너 항만 등이 있음
- 튀르키예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1,2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신재생 에너지,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전을 포함함
- 금융시장 불안, 환율 인상, 인플레이션 폭등으로 인해 튀르키예의 국가신용 등급은 2022년 9월 30일 S&P가 B등급(stable), 2022년 8월 12일 Moody's가 B3등급(stable), 2022년 7월 8일 Fitch가 B등급(Negative)으로 평가됨

- 일반적으로 투자등급은 BBB급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은 낮은 수준임
- 건설부문에 있어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BOT 등의 PPP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22년 4월 “Transport Vision 2053” 회의에서 2053년까지 약 1,9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계획을 발표함 :
  - 철도노선(8,554km) : 고속철도(6,196km), 재래 철도(1,474km), 고속열차(622km), 초고속열차(262km)
  - 물류센터 증대(13개에서 26개로 증대)
  - 화물처리량 증대(254,343,000톤에서 420,978,000톤으로 증대)
  - 항만 증대(217개에서 255개로 증대)
  - 공항 증대(56개에서 61개로 증대)
- 튀르키예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 인프라에 1,7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79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낸 바 있음
  - 신규 인프라 사업을 통해 교통시간 절약, 연료비 절감, 사고비용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으로 총 약 1,760억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를 대비하기 위해 튀르키예는 2053년까지 Aydın-Denizli 고속도로, Çanakkale-Savaştepe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총 연장 3만 8,060km의 도로망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며 철도는 2만 8,590km까지 늘릴 예정
- 현재 217개인 항만은 255개까지 증설하고 2029년 교통계획 모델에 포함되는 운하사업으로 물동량을 감당한다는 계획
  - 공항은 56개에서 5개를 더 건설해 총 61개를 유지할 전망
- 튀르키예 진출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으로 리라화 가치하락이 정치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경제불안 요소도 여전함

-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계획대로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지연의 우려 또한 존재
- 정부재원 부족으로 인해 PPP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 운영수익 보장 등의 정부보증을 최대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불안감은 여전함

## □ PPP 제도

- 튀르키예에서 단일의 PPP framework law는 없으며 PPP 모델은 헌법 자체와 다수의 법률들에 흩어져 있음
- 1986년 이후로 PPP 모델을 도입하고 1994년 법률 제3996호 입법 후 고속도로부터 공항, 마리나, 세관 게이트들에 적용됨
  - BOT 모델에 추가하여 여러 발전 프로젝트들은 1990년대에 BO(BOO) 모델로 실현되었으며 운영권 이전(TOR)도 도입됨
- 2013년에 PPP 모델은 도시 병원 프로젝트들의 조달에서 BLT모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6428호가 도입됨
- 2020년말 현재까지 계약금액 1,560억 달러에 달하는 총 249건의 PPP 프로젝트들이 BOT, BO(BOO), BLT, TOR 모델에서 실현됨
- 외국인 투자자들의 PPP 프로젝트 참여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이 없음
- PPP 분야는 고속자동차도로, 철도, 고속철도, 공항, 병원, 항만, 발전소, 학교 등
- PPP사업 발주기관들은 에너지천연자원부, 운송인프라부, 보건부, 국가공항총국, 고속도로총국, 국가철도총국 등이 있음
- PPP 프로젝트 신청 및 승인과정은 이행기관이 준비단계에서 PPP 투자 전략 계획서류(PPP 개발계획, 중기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PPP 투자 프로그램, PPP 투자분야별 전략, 사업타당성보고서를 포함)가 준비되어야 함

- 재무부와 전략예산실 검토를 받아 대통령에 PPP 프로젝트 승인 신청을 함. 이행기관의 PPP사업 승인 신청을 받은 대통령은 재무부와 전략예산실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PPP사업을 승인
- PPP 사업을 위한 입찰기준은 법률에서 결정되며 BOT 사업은 가장 짧은 운영기간 제시 또는 공공당국에 최대이익을 제안해야 하며 BLT 사업은 공공당국에게 최대이익을 제안해야 함
- 민간제안형 PPP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부입찰형 PPP사업이 실행됨
-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들은 비록 입찰이 낙찰 없이 취소될지라도 행정기관 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도 청구할 수 없음
- PPP계약은 인플레이션 또는 환율변동에 대한 보호조항을 포함함
-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PPP사업들은 투자기간 동안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되며 운영기간 중에는 세금 인센티브가 없음
  - 국내 설비 사용관련 인센티브가 있으며 토지할당, 이자율 지원, 관세 면제, 세금감액, 사회보장보험료 지원 등이 있음
- 정부는 재정투자보증, 채무인수보증, 최저수익보증, 구매보증 등을 제공함
-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민간부문에 대한 보상은 민간 당사자의 지분, 금융이자를 포함하여 파이낸싱비용과 일부 분야들에서는 이익의 손실을 보장
- 당사자들은 관련 PPP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결정할 수도 있음
- 대부분은 중재를 통한 PPP 프로젝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허용하며 또한 튀르키예는 뉴욕협약 가입국임
- 수용과 같은 정치적 위험 또는 법의 변경 또는 불리한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PPP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때때로 일어날 수도 있음
  - 정치적/ 법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공공 당사자들에 의해 인수됨

## □ 종합

- PPP사업은 대통령실 산하 투자청, 전략예산실, 재무부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고 입찰됨
- 대통령실 산하에서 PPP사업을 총괄하며, 단일한 PPP 법적 프레임워크는 없지만 헌법과 다양한 PPP 모델법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PPP 법적 프레임워크는 안정적인 구조
- 튀르키예의 경제성장률을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PPP 사업기회 파이프라인에 존재한다: 고속자동차도로, 철도, 고속철도, 공항, 항만, 운하, 병원 등등
- 그러나 튀르키예의 경제적 불안, 재정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리라화 가치 하락 등은 PPP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고려해야 함

# I. 국가 개요

---

## 1 국가개황

---

### 가. 일반현황

- 국 명 : 튀르키예 공화국(Republic of Türkiye)
- 수 도 : 앙카라(Ankara, 인구 574만명, 2021, 외교부 자료)
  - 주요도시 : Istanbul, Izmir, Antalya 등
- 인 구 : 8,534만 1,241명(2022년, KOSIS, 통계청, UN), 8,468만명(2021)
- 국토 면적 : 약 779,452km<sup>2</sup>(한반도의 3.5배, 남한 면적의 7.7배)
  - 아나톨리아(Anatolia, 아시아) : 755,688km<sup>2</sup>(97%)
  - 트레이스(Trace, 유럽) : 23,764km<sup>2</sup>(3%)
- 민 족 : 튀르키예족(75%), 쿠르드족(19%, 약 1,200 ~ 1,400만명), 아랍인(50만명), 아르메니아인(5만명), 기타 그리스인, 유대인 등
- 언 어 : 튀르키예어
- 종 교 : 전 국민의 99.8%가 이슬람교도(수니파 다수, 시아파 소수)이며, 기타 기독교, 유대교, 그리스정교 등이며 헌법상 정치와 종교는 분리함
- 국가체제 : 공화국
- 정부형태 : 대통령제(임기 5년, 연임 가능)
  - 2017년 4월 16일 개헌 국민투표를 통하여 94년 만에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되었음. 2018년 6월 24일 대선부터 적용함
- 대통령 :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 2003년 3월 14일에 총리가 되었으며, 2014년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
  - 2014년 8월 28일 취임해 2018년 7월 9일에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 8월 28일에 대통령으로 재취임해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기는 2024년 8월 27일까지임
- 주요 인사 : 부통령(푸앗 옥타이), 외교장관(메블뤝 차부쉬오울루)
- 의 회 : 단원제, 총 600석, 임기 5년

- 주요 정당: 정의개발당(AKP, 295), 공화인민당(CHP, 146), 인민민주당(HDP, 67), 민족운동당(NHP, 49), 좋은당(Iyi Party, 43) 등
- 사법제도 : 법원조직은 이심제로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은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으로 구분됨
  - 상급법원 : 헌법재판소, 최고 법원, 최고 행정법원
  - 하급법원 : 민사법원, 형사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급 민사 및 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 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 국경일 : 10.29. (튀르키예 공화국 선포일)
- 유엔가입일 : 1945.10.24.
- 국내 총생산(GDP) : 2020년(7,199억 달러), 2021년(8,153억 달러, 세계은행)
- 대외 무역(2021년) : 수출 2,253억 달러 / 수입 : 2,714억 달러(외교부)
- 1인당 GDP : 2020년(8,597 달러), 2021년(9,586.61 달러, 세계은행)
- 경제 성장률(연간 GDP 성장률) : 2021년(11%), 2022.08.(7.6%, 세계은행) 2022.10.(9.6%, Economic tradings)
- 물가 상승률 : 2022.10.(83.45%, Economic tradings)
- 금리(2022.11.) : 예금 금리(7.5%), 대출금리(10.5%, Economic tradings)
- 외환 보유고(2022.11.) : 766.2억 달러(Economic tradings)
- 통화/환율 : 튀르키예 리라, TRY18.65/USD, 1리라=69.92원(2022.12.12.)
- 시차 : 한국이 6시간 빠름
- 국기 : 붉은색 바탕에 흰색의 초승달과 별로 구성되어 있음
- 공휴일 : 국정 공휴일과 종교 공휴일이 있으며, 국민 다수가 이슬람을 따르고 있으나, 정치와 종교 분리로 금요일은 근무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임
  - 국정 공휴일
    - 신정(1월1일)
    - 노동절(5월1일)
    - 민주주의 국민통합의 날(7월15일)
    - 공화국 선포 기념일(10월29일)
    - 국가 주권일 및 어린이날(4월23일)
    - 청소년 스포츠의 날(5월19일)
    - 승전 기념일(8월30일)
  - 종교 공휴일(매년 이슬람력에 따라 날짜 변동함)
    - 쉐케르 바이람(Candy Holiday, End of Ramadan)
    - 쿠르반 바이람(Sacrifice Holiday, Feast of the Sacrifice)

- 국제기구 가입 : UN, ILO, FAO, UNESCO, WHO, IFC, IDA, IMF, OECD, UPU, NATO, WTO, G20 등(출처: 외교부 외교간행물, 2022.02.)

## 나. 지리적 위치

- 튀르키예 정치 지도



(출처: <https://www.nationsonline.org/oneworld/map/turkey-map.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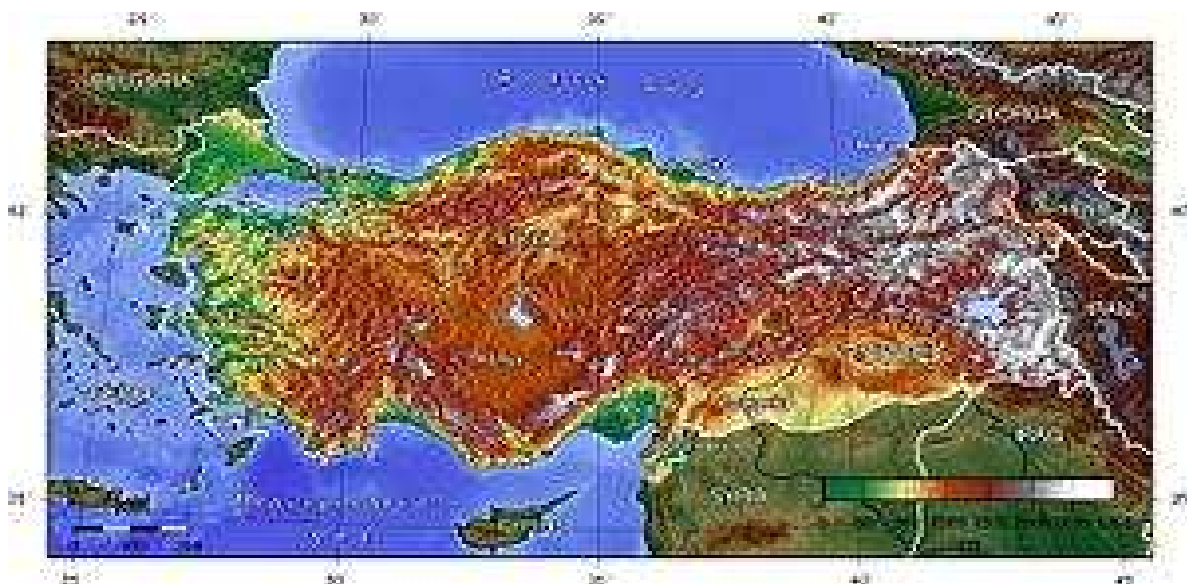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실 “외교간행물” )



- 위 치 : 북위 35° ~ 42° , 동경 25° ~ 45° 에 위치함
  - 아시아 대륙의 서부에 위치하며, 유럽 대륙 동남부와 연결
  -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와 다르다넬스 해협에 의해 트레이스 반도(유럽 부분)와 아나톨리아 반도(아시아 부분)로 구분됨
  - 북쪽은 흑해, 동쪽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남쪽은 이라크, 시리아 및 지중해, 서쪽 유럽부분 영토는 그리스 및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함
- 시 차 : 대한민국 시간은 튀르키예 시간보다 6시간 빠름(튀르키예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8:33이면, 대한민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2:33임)

## 다. 지리와 기후

- 지 리 :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
  - 아시아 쪽 튀르키예 영토(주로 아나톨리아로 구성)는 국토의 97%를 차지하며, 보스포러스 해협, 마르마라해, 다르다넬스 해협(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함)을 끼고 있는 유럽 쪽 튀르키예 영토는 국토의 3%에 불과함
- 튀르키예 영토는 길이 1,600km, 폭 800km에 이르며, 대체로 직사각형 모양임
  - 호수를 포함한 튀르키예의 육지 면적은 783,562 제곱 킬로미터이며,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영토는 755,688 제곱 킬로미터이고, 유럽 대륙에 속한 영토는 23,764 제곱 킬로미터



- 튀르키예의 유럽 영토인 동트라키아는 그리스와 불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
  - 아시아 쪽 영토인 아나톨리아(소아시아)는 중앙에 고원 지대와 좁은 해안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로 북쪽에는 키프로올루산맥과 도우산맥(폰토스산맥)이, 남쪽에는 토로스산맥(타우루스산맥)이 뻗어 있음
  - 동부 튀르키예는 산악 지형이 더욱 발달되어 있으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라스강 등 여러 강의 수원지이고, 반호와 튀르키예 최고봉 아라라트산(높이 5,165m)이 있음
- 튀르키예는 7개의 인구 조사용 지역으로 나뉘는데 마르마라 지역, 에게해 지역, 흑해 지역, 중앙아나톨리아 지역, 동아나톨리아 지역, 동남아나톨리아 지역, 지중해 지역으로 나뉘짐
  - 흑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북부 아나톨리아의 울퉁불퉁한 지형은 길고 좁은 띠 모양임
  - 이 지역은 튀르키예 총 면적의 1/6을 차지함. 일반적으로 아나톨리아 내륙 고원은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형이 험해짐
- (지질과 지진) 튀르키예의 다양한 경관은 복잡한 지각 운동의 산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형성하였으며 상당히 잦은 지진과 이따금 일어나는 화산 분출은 지금도 일어나는 지각 운동의 좋은 증거임
-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은 오늘날의 흑해를 형성한 튀르키예의 단층선 때문에 생겨남
  - 국토 북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북아나톨리아 단층 때문에 규모 7 이상의 1939년 에르진잔 지진, 1944년 볼루-게레데 지진, 1999년 이즈미트 지진 등이 일어나기도 함
  - 튀르키예 동부에는 성층 화산인 아라라트산이 있음



(1900-2017년 튀르키예의 지진, 위키백과)

- 북아나톨리아 및 동아나톨리아 단층을 따라 많은 지진이 발생함을 볼 수 있음
- 기 후 : 내륙 지방은 대륙성 기후이며, 해안 지방은 해양성 기후
  - 지중해 및 에게해 연안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은 대체로 고온 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다습함. 연평균 기온은 18℃ ~ 20℃
  - 흑해 연안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서 연중 고른 분포의 강우량(연평균 2,500mm)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온의 일교차가 거의 없음(연평균 22℃ ~ 24℃)
  - 북동부 및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는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어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림. 1-2월이 가장 추우며, 겨울철 평균기온은 0℃ ~ 10℃ 임
  - 봄, 가을은 짧으며, 4월, 11월, 12월이 우기에 해당
  - 평균 고도 : 902m
  - 평균 기온 : 11.8℃(최저: -24.9℃, 최고 :40℃)
  - 평균 습도 : 60%
  - 연평균 강우량 : 367mm
  - 특기사항 : 건조하고 일교차가 현저함

## 라. 역 사

### 1. 튀르키예의 기원

- 튀르키예는 기원전 2,000년에 중앙아시아 동남부에서 기원했으며, 튀르키예 민족의 조상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 족(혹은 “돌궐” 족)으로, 중국 사람들은 기원전 220년에 수립된 테오만 야브구왕국을 “흉노” 라고 부름
  - 튀르키예 민족은 중앙아시아 동남부에서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서기 10세기 내지 11세기부터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함
- 튀르키예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아랍문자를 도입하여 사용
  - 그러나 조상 전래의 자연숭배 사상과 풍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습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면이 적지 않음

### 2. 고대국가 시대

- 오늘날의 튀르키예 영토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아나톨리아반도는 아시아와 유럽이 상호작용하는 장소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함
- 지구상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인류가 거주하던 땅이었으며 차탈회워(신석기 3기), 차외뉘(신석기 1기에서 신석기 3기), 네발리 코리(신석기 2기), 하클리야르(신석기 3기), 괴베클리 테페(신석기 2기), 메르신 등 초기 신석기 시대 거주지는 지구상 최초의 인류들이 살던 거주지로 여겨짐
- 트로이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로, 철기 시대까지 취락이 지속되었으며 역사 시대로 접어들면 아나톨리아 사람들은 인도-유럽어, 셈어, 카르트벨리어를 비롯하여 기원이 불확실한 여러 언어를 썼음
- 사실 고대 인도-유럽어인 히타이트어와 루위아어를 놓고 서구 학자들은 아나톨리아가 인도-유럽어를 확산시킨 중심지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쿠르간 가설에 밀려 인정받고 있지는 않음
- 튀르키예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장소인데 아시리아 제국이 존재하였음

- 이 땅에 들어선 최초의 제국은 히타이트로 기원전 18세기에서 13세기까지 존속함
- 그 다음은 인도-유럽 계통의 프뤼기아인들이 패권을 잡았으나, 기원전 7세기에 킴메르인의 침략으로 멸망함. 프뤼기아의 가장 강력했던 후계 국가는 튀디아, 카리아, 튀키아였음
  - 기원전 2000년~1500년 : 청동기 시대 도시국가 생성, 발전
  - 기원전 1500년~1200년 : 히타이트 시대
  - 기원전 1200년~기원전 220년 : 동부 우라루트 왕조, 서부 프리기아 왕조가 융합했으며, 중부에는 히타이트 도시국가가 잔존
- 기원전 1200년경부터 아나톨리아 해안에는 아이올리스와 이오니아의 그리스인들이 정착하였음
  - 이 지역은 기원전 6~5세기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되었으며, 이후 기원전 334년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지배를 받게 됨
  -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제의 시기에 시작되어 비잔티움 제국 시기까지 지속되었고 셀주크 튀르크인들이 11세기부터 이 지역에 나타남
  - 1243년 룸솔탄국이 나타났으며 13세기 후반, 오스만 튀르크인들이 점차 베이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였음
  - 헬레니즘 시대에 아나톨리아는 비튀니아, 카파도키아, 페르가몬, 폰토스 등 여러 헬레니즘계 소왕국으로 분열되었으며, 기원전 1세기 중엽에 모두 로마에 복속됨
  - 기원후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비잔티움을 로마 제국의 새 수도로 삼아 노바 로마( '새로운 로마' , 나중에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이스탄불이 됨)라고 개명하였음
  -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에도 이 도시는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변영함
- 기록에 의하면,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역사적으로 약 30개의 민족이 거주한 바 있고 그중 약 15개 민족이 문화유적과 유물을 남기고 있음
  - 오늘날 아나톨리아 반도를 포함한 튀르키예 영토 도처에서 이러한 유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스탄불, 앙카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고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 산재해 있음

- 튀르키예인의 조상인 흉노제국의 멸망 이후 6세기경 중국 변경에서 세워진 돌궐제국도 튀르키예인의 조상으로 확인됨
  - 돌궐제국은 흉노제국에 이어 중국 변경 스텝지역을 통일한 튀르키예계 대제국임
  - 돌궐제국은 그들의 근거지인 오르혼강 지역에서 719~735년 사이에 돌궐 비문을 남김
- 튀르키예인의 조상은 흉노제국, 돌궐제국에 이어 위구르 제국, 셀주크 제국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국의 역사를 기록했음

### 3. 오스만 제국 시대(1299~1922)

- 크르크(Kinik) 오우즈 튀르크족은 10세기경 무슬림 세계의 변방이었던 카스피해와 아랄해 북쪽인 오우즈 연맹의 압구 칸국에 살던 사람들임
- 셀주크 가문은 이들의 분파였으며, 11세기에 셀주크 일파는 아나톨리아 동부로 이주하였으며,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말라즈기르트)에서 승리하며 이 땅은 오우즈 튀르크족의 영토가 되었음
- 셀주크의 승리로 아나톨리아의 셀주크 술탄국이 부상하여, 중앙아시아 일부와 이란, 아나톨리아, 서남 아시아를 아우르던 셀주크 제국의 개별 분파로 성장함
- 1243년에 제국의 패권은 점차 사라졌으며, 오스만 1세가 지배하던 튀르크 공국이 정복 활동을 벌여, 몽골 제국을 정복하여 몽골인들을 복속시키고 아나톨리아와 발칸반도, 레반트를 아우르는 오스만 제국으로 발전되었음
- 오스만 제국은 1354년 유럽에 진출, 정복 활동을 개시했으며, 1453.5.29.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함으로써 팽창 정책은 절정에 달함
  - 16세기에는 에게해와 흑해를 오스만 제국의 내해로, 에티오피아, 예멘, 크림리아를 국경으로 삼았으며, 비엔나까지 그 영토가 확장됨
  - 오스만 제국의 팽창은 셀림 1세의 재위기에도 계속되었고, 술탄이만 대제의 시대에는 오스만 제국이 유럽 남동부 대부분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방까지 장악하며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떠오름

- 16~17세기에 오스만 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었으며, 신성 로마 제국에 맞서 지중해의 제해권을 지키고자 합스부르크 에스파냐, 베네치아 공화국, 성 요한 기사단이 신성 동맹을 결성하였음
- 동아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고대 해상로를 독점한 오스만 제국은 인도양에서 포르투갈과 자주 대립하였으며, 1488년 희망봉의 발견 이래 점차 타협이 이루어졌음
- 오스만 제국은 17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쇠퇴를 막기 위하여 마흐무트 2세가 19세기 초에 근대화 개혁을 실시하며 군대, 봉건제, 사회 등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크게 개혁하였음
  - 1912~1913년 발칸전쟁으로 불가리아의 마리차강까지 후진, 축소되었고, 1913년에 젊은 군 장교들을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음
  - 이들의 지휘 아래 오스만 제국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 시 패전국인 독일측에 가담하여 결국 패배
  - 이때 오스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잔혹한 학살을 자행하였으며 오스만 제국과 그 동맹국들이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하였고 유럽 국가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오스만 제국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음
  - 1918년 10월 30일 무드로스 정전 협정으로 승전국인 연합국은 1920.8. 연합국과의 세브르강화 조약을 체결해 오스만 제국을 분리시키려 하였으며, 콘스탄티노플의 배후지와 튀르키예의 발생지인 아나톨리아 고원만 보유하게 됨
-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연합군이 이스탄불과 이즈미르를 점령하며 튀르키예의 민족 운동 촉발. 갈리폴리 전투에서 공훈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장군의 주도로 세브르 조약 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튀르키예 독립 전쟁 발발
  - 사후 튀르키예의 국부(Atatürk, 아타튀르크, “튀르키예의 아버지”라는 뜻)로 추대된 무스타파 케말파샤(Mustafa Kemal Pasha)는 세브르 조약을 무효화하고 실지 회복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동 조약은 비준되지 않음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제국의 분열로 인해 튀르키예의 정치 권력은 국민당 당수 케말파샤가 주도하는 민족 독립운동에 귀속되었음
  - 케말파샤는 1920.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20~1922년간 그리스와 해방전쟁을 치러 그리스군을 이즈미르와 트레이스반도에서 축출 하였음
  - 1922년 9월 18일, 이스탄불과 이즈미르에 있던 연합군은 퇴각하였으며, 1922년 11월 1일에 마침내 술탄제를 폐지

#### 4. 공화국 시대(1923~현재)

##### 1) 터키 공화국 수립과 케말파샤 개혁정치 실시(1923.10.~1938.11.)

- 케말파샤는 1923.10.29. 터키 공화국(현재의 튀르키예 공화국)을 선포 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며, 해방전쟁에 참가한 2개의 항쟁 조직을 결합하여 공화인민당을 창설하고 공화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종래의 이슬람 전통을 크게 탈피한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수행
- 1923년 7월 24일 연합국과 로잔(Lausanne)조약을 체결하여 세브르 조약으로 상실하게 된 아나톨리아 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회복하였음
  - 신생 터키 공화국(현재의 튀르키예 공화국)은 오스만제국의 후계 국가로서 그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1923년 10월 29일에 새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공화국(현재의 튀르키예 공화국)이 정식으로 건국을 선포
-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 공화국(현재의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구 오스만의 잔재를 털어내고 이슬람식 종교 재판 및 종교 교육 폐지, 새로운 세속 공화국의 건설을 목적으로 여러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함
  - 서구 사상을 들여왔고 튀르키예 정부에 민주주의, 자유와 같은 가치들을 주입. 1924년에 케말은 632년 이래 13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칼리프제를 폐지하였고, 튀르키예 공화국의 기본 정신인 정교분리 세속주의를 법으로 제정



- 1925년에는 복장 개혁을 시행하여 여성들의 복장을 해방시키고, 과거에 금지되었던 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해 남녀 평등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슬람력을 폐지하여 유럽식 그레고리력(서양력)으로 대체함
- 1926년에는 민법을 개정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였으며, 1928년에 튀르키예어의 아랍문자 표기법을 폐기하고 로마자(라틴) 표기법으로 변경하였음
- 1930년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음. ‘가족명에 관한 법’에 따라, 1934년에 튀르키예 의회는 무스타파 케말에게 ‘아타튀르크’라는 명예 성명을 부여

## 2) 케말파샤 사후와 군사쿠데타(1938.11.~1960.5.)

- 1938.11.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사망하고 이스멧 이뇌누가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 세속주의를 근간으로 한 서구화 정책을 지속함
-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튀르키예는 중립을 지키다가 1945년 2월 23일에 의례적인 의미로 연합군 측에 참전하였으며, 1945년 유엔의 창립 회원국이 됨
- 소비에트 연방이 튀르키예 해협에 군사 기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옆 나라 그리스에서는 공산주의자와 내전을 벌이면서 위기 상황이 조성되자, 1947년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하게 됨
  - 이 독트린에서 미국은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그 결과 미국이 대규모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게 되었음
  - 전후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여, 1950년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 튀르키예는 한국과 형제의 나라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키프로스 그리스계 탄압 문제와 쿠르드족 탄압으로 논란 중임
  - 1952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여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소련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음

- 국내적으로 194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65석을 확보하여, 공화국 수립 이후 지속되던 공화인민당의 일당체제가 종식되고, 195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함
- 민주당은 경제분야 정부 통제 완화, 사기업과 농업발전 정책 등을 통해 집권 초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종교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1960.5.27. 군사 쿠데타가 발생함
- 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신헌법을 제정하여 1961. 10. 15. 상·하원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함
  - 민간으로의 평화로운 정권이양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나, 향후 군부의 정치개입의 전례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3) 정치적 안정을 위한 군사개입의 반복과 신헌법 제정

- 1960. 5. 27. 군사쿠데타 이후 1961년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된 헌법은 특히 학원 자치, 사상 발표의 자유,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으로 좌파 사회주의 세력과 공산세력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 및 정치 혼란이 계속되었음
  - 이후 키프로스에서 십여 년간 내전이 벌어졌고, 1974년 7월에 그리스인들의 군사 정변으로 마카리오스 3세 대통령이 실각하고 니코스 삼프손이 독재 정권을 세우자, 튀르키예는 1974년에 키프로스 공화국을 침공함
  - 9년 뒤에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이 나라는 오직 튀르키예의 승인만 받은 나라임
- 1980. 9. 12. 군 총사령관 케난 에브레 장군은 쿠데타를 주도하여 대통령에 취임. 정치, 경제 및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정국 불안과 군사 쿠데타의 악순환을 종식시킴

- 1981. 10. 23. 구성 된 제헌 입법회의는 신헌법을 제정, 동 헌법은 국가안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982. 11. 7.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2%의 지지를 얻어 확정되었으며, 신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 국가안보 유지 및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대통령은 7년 단임제로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됨
  - 노조 및 기타 단체는 본연의 활동 이외의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고 정당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언론기관은 국가안보 및 국민의 단결을 해치는 보도를 할 수 없음

#### 4) 민정이양과 외잘 정부의 안정(1983~1989)

- 1983.11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외잘(Özal) 총리의 모국당(ANAP)은 각계 전문인력을 총망라하여 강력한 실무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치안정을 공고히 함
- 또한 경제체제를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자유경쟁 원칙을 도입, 수출증대와 외자도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음
- 외잘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소련을 위시하여 유럽, 중동 및 아시아와의 관계개선 및 통상관계 증진에 주력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의 튀르키예에 대한 차별도 크게 개선되었음
- 외잘 총리는 경제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야당은 외잘 총리의 퇴진과 개헌에 의한 대통령 직선을 강력히 요구함
  - 그러나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모국당은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 1989.11. 외잘 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함

## 5) 1990년대 이후 정치 불안정과 친이슬람계 정당 등장

### 가. 데미렐 총리의 정도당-사회민주당 연립내각 출범(1991)

- 집권여당인 모국당은 고인플레이션 · 외채누증 등 경제난 타개에 실패하고, 외질 대통령 측근의 부패와 권력남용, 장기 집권에 따른 국민들 변화 욕구 등으로 1991. 10. 20. 총선에서 정도당(DYP)에 참패하여 제2당으로 전략함
- 제1당으로 부상한 정도당은 사회민주당(SHP)과의 연립정부를 수립, 국회의 신임을 획득하고 공식 출범함
  - 새 연립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치 · 사회 제반 분야의 민주화와 동남부 지역의 쿠르드 소수민족 문제 해결에 주력함

### 나. 칠레르 총리의 정도당-사회민주당 연정(1993)

- 1993.4월 외질 대통령의 서거로 실시된 의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총리이자 집권당인 정도당의 데미렐 당수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1993.6.25. 정도당은 칠레르를 새 당수로 선출하여 튀르키예 최초의 여성 총리가 등장함
- 칠레르 총리는 정도당과 사회민주당간 연정을 구성하고 튀르키예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국정을 쇄신하고자 시도했으나, 연정 내 알력 심화 등으로 인한 정치기반의 약화로 강력한 국정 운영에 성공하지 못함

### 다. 정도당과 공화인민당 연립정부 수립(1995.3.~1995.12.)

- 1995. 2. 18. 연정 소수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이 제4 야당인 공화인민당(CHP)과 합당함에 따라 연정 존립의 근거가 문제시 되었으나, 정도당과 공화인민당간 새 연정구성이 합의되어 칠레르 총리 하 정도당-공화인민당 새 연정이 출범하게 됨

### 라. 정도당과 모국당 소수연립정부 수립(1996.3.~1996.6.)

- 칠레르 총리가 이끄는 정도당의 계속된 실정으로 1995.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친이슬람계 복지당이 제1당으로 부상했으나 연정 구성에 실패했으며, 1996.3월 내각구성을 위임받은 정도당과 모국당이 중도우파 중심의 소수 연정을 구성함

- 동 연정은 출범 초부터 양 정당간 이해다툼으로 정치적 혼란을 거듭해 오다가 칠레르 전 총리의 민영화 사업 부정의혹 사건으로 인해 내분이 심화되었으며, 결국 일마즈 총리는 1996.6월 사임함에 따라 연정이 붕괴됨
- 마. 이슬람계 복지당 주도 내각(1996.6.~1997.6.)
- 1996. 6. 28. 정도당과 복지당간 제휴에 의해 양당 당수가 총리직을 2년씩 교대로 수임(복지당의 에르바칸 당수가 먼저 2년간 집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튀르키예공화국 수립이래 최초의 이슬람계 정당 주도의 연정이 출범함
  - 이슬람계 복지당 주도 연정은 에르바칸 총리의 세속주의 이탈 정책 추진으로 보수 · 우익 세력의 반발을 초래, 1997.6월 에르바칸 총리가 사퇴함으로써 1년만에 붕괴됨
- 바. 모국당 주도 내각(1997.7.~1998.11.)
- 이슬람계 복지당 내각이 붕괴한 후 1997. 6. 20. 데미렐 대통령으로부터 내각 구성을 위임 받은 모국당의 일마즈 당수는 군부의 지지 아래 공화인 민당(CHP) 및 민주튀르키예당(DSP)과 제휴, 1997. 7. 12. 연정을 출범시킴
  - 일마즈 내각은 일마즈 총리의 튀르키예 상업은행 민영화 입찰 개입 등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이 1998. 11. 25. 통과됨으로써 붕괴됨
- 사. 민주좌익당 소수 내각(1999.1.~1999.4.)
- 1998.11. 일마즈 정권이 퇴진한 후 데미렐 대통령으로부터 내각 구성을 위임받은 민주좌익당(DSP)의 에제비트(Ecevit) 당수는 소수연정을 시도했으나, 여타 정당으로부터 지지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내각 구성권을 대통령에게 반려함
  - 그 후 여타 총리 후보 지명자도 내각구성에 실패하자 1999.1.7. 데미렐 대통령은 에제비트 민주좌익당 당수를 총리로 재지명, 1999. 1. 17. 국회의 신임 획득에 성공함으로써 민주좌익당 소수내각이 출범함
- 아. 민주좌익당-민족주의행동당-모국당 연정(1999.7.~2002.11.)
- 1999. 4. 18. 총선 실시 후 민주좌익당 에제비트 당수를 총리로 한 민주좌익당(DSP), 민족주의행동당(MHP), 모국당(ANAP)간 3당 연정하에 제57차 정부가 출범함

- 2002.5. 이후 에제비트 총리의 와병으로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야당의 조기총선 요구, 연립 3당 내 불화 및 알력 등으로 정국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됨
- 2002.8월 튀르키예 국회가 11.3. 조기 총선을 실시기로 함에 따라 민주좌익당 주도의 연정은 3년 3개월만에 막을 내림

## 6) 에르도안의 집권

- 레쥬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도 이슬람 성향의 정의개발당을 2001년 창당하고 2002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정의개발당이 34% 득표로 제1당이 되고 국회의석도 2/3를 확보하여 단독 정부를 구성함
- 2002년 11월 조기 총선이 실시되어 이슬람계 정의개발당(AKP)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단독 정부를 수립했으며, 2007년 7월 총선 및 2011년 6월 총선 시 연이어 집권에 성공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로 재임하고 2014년 8월 28일 튀르키예 최초 직선제 선출 대통령으로 취임함
- 집권여당(정의개발당)은 2007년, 2010년,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5년 연임, 헌법재판소 및 판검사 고등위원회 구조 개혁, 대통령 중심제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 정치안정을 도모함
- 2016. 7. 15. 쿠데타 시도가 발생했으며,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수차례 연장(2016.7.~2018.7.)하고 군, 경찰, 사법부, 교육부 등의 정부기관 관계자들 중 백만 명 이상을 쿠데타 연관 세력 및 혐의자로 파면 또는 처벌했음
  - 2016년 7월 쿠데타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FETO를 비롯하여, 쿠르드계 노동자당, ISIS 세력 등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외 테러 조직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러시아 및 미국 등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대테러전을 수행하고 있음
- 2018년 7월 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 8월 28일에 재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03년부터 19년째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실상 내년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하며 30년 집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

- 에르도안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의 임기는 2028년까지 가능함. 튀르키예 헌법상 중임 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하면 2033년까지 임기가 연장돼 총 30년의 집권이 가능해짐

## 5. 국제적 위상

- 튀르키예는 UN의 창립 회원국이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이며, IMF, 세계은행의 멤버이고 OECD, OSCE, BSEC, OIC(이슬람 회의기구), G20의 가입국임
  - 또한 튀르키예는 1950년에 유럽 평의회에 참여하였고, 1963년에는 EEC(유럽경제공동체)에도 준회원국으로 참여하였으며 1995년에는 EU(유럽연합) 관세동맹에도 참가함
  - 2005년부터는 유럽연합 정회원국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감
  - 2019년 3월 13일, 유럽 의회는 튀르키예의 가입 협상을 중지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
- 튀르키예는 세속적, 단일 의회 공화국이며 2017년의 국민투표로 대통령제를 도입하였음
  - 현재의 행정부는 정의개발당의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끌고 있고, 그는 현재 케말주의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세속적 가치들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슬람교의 영향력을 국내외로 넓히려 하고 있음
  - 공용어는 튀르키예어, 국교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튀르키예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함
- 경제 협력 기구(ECO)에 가입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위시한 동양과도 문화, 정치, 경제, 산업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는 튀르키예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며, 세계의 정치 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지역 강국으로 여기고 있음

## 6. 국명의 유래

- 영어 “터키”의 튀르키예어 표기인 ‘튀르키예’ (Türkiye)에서 ‘튀르크’ (Türk)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고대 튀르크어에서 ‘강하다’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튀르키예인과 오스만인을 일컫는 말로 쓰임
  - 또 ‘튀르키예’의 접미사인 ‘-이예(-iye)’는 ‘주인’ 또는 ‘~와 관계된’을 뜻하며 아랍어 접미사 ‘-이아(-iyya)’에서 파생된 접미사임
  - 중세 라틴어 접미사 ‘-이아(-ia)’와 관련되어 ‘투르키아(Turchia)’라고 쓰며 중세 그리스어 접미사 ‘이아(-ια)’가 붙어 ‘투르키아(Tοὐρξία)’라고 썼음
  - “튀르크(Türük)”가 지명으로 쓰인 최초의 기록은 중앙아시아 돌궐(튀르크)의 오르혼 비문(서기 8세기경)에 등장함. 영어 “터키(Turkey)”는 1369년경 중세 라틴어 ‘투르키아’에서 파생됨
- 튀르키예의 국명은 튀르크에서 나왔으며 문헌에서 나타나는 돌궐을 민족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이 돌궐의 궤테긴 비석에 고구려와 형제 동맹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를 “형제의 국가”라고 칭함
- 2022년 대외적인 국호를 ‘터키 공화국’에서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 유엔에서 이를 승인받음
  - 영어명을 그대로 옮긴 한국어 국명 ‘터키’에 대해서도 2022년 6월 3일 튀르키예 외무부가 대한민국 외교부 측에 ‘튀르키예 공화국’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2 정치, 행정 체계

### 가. 지방행정

- 튀르키예 행정구역은 81개 주, 30개 광역시, 시, 구, 695개 군, 35,855개 면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광역시장, 시장, 구청장은 국민선거를 통해 선출됨
- 튀르키예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 제도를 모방,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됨
-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주의회가 있으며, 인구 5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시는 전국적으로 1,397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음
- 이 밖에 전국적으로 34,974개의 촌락이 있어 이장과 의회 의원을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 가운데 선출하며, 촌락 하위 구역으로 통장을 둠
- 튀르키예의 주(Provinces) 배치 현황도

Provinces of Turkey



## 나. 내각

- 내각은 부통령과 각급 각료로 구성되며 부통령과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원 가운데서 각료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함
- 내각은 국가의 일반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주로 국가의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여 시행령을 공포하며, 국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음

### < 내각 명단(2022.11.) 현재 >

번호	내각부처	각료 이름
1	대통령 President	Recep Tayyip Erdoğan
2	부통령 Vice President	Fuat Oktay
3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Bekir Bozdağ
4	가족사회정책부 Ministry of Family and Social Services	Derya Yanık
5	산업기술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gy	Mustafa Varank
6	노동 사회보장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Vedat Bilgin
7	환경 도시계획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Murat Kurum
8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evlüt Çavuşoğlu
9	에너지 천연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Fatih Dönmez
10	청소년 체육부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Mehmet M. Kasapoğlu
11	농업 산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Vahit Kirisci
12	무역부 Ministry of Trade	Mehmet Muş
13	내무부 Ministry of the Interior	Süleyman Soylu
14	문화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ehmet Nuri Ersoy
15	재무부 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	Nureddin Nebati
16	국가교육부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Mahmut Özer
17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Hulusi Akar
18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Fahrettin Koca
19	교통 인프라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Adil Karaismailoğlu

## 다. 입법부

- 국회는 단원제이며 60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됨
-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에게 부여되며, 국회에는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을 둠
- 현 국회의장 : 무스타파 쉐넵 (Mustafa Şentop)
- 국회는 입법기능 외에 대통령 선출권, 정부예산 심의권, 조약 비준권, 국정조사권, 전쟁 선포권, 내각 불신임권 등을 가지며, 튀르키예 군대의 해외 파병, 외국 군대의 튀르키예 주둔 등에 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내각을 견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짐
- 튀르키예 국회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거하여 1924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초창기에는 국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었으나 1961년 헌법 개정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분리됨
  - 당시 국회에 양원제가 도입되었으나 1982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양원제는 폐지됨

## 라. 사법부

### 1. 사법제도

- 과거 오스만 제국의 사법권은 대율법사인 세이홀이슬람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었으며, 민법은 대부분 코란에 기반을 두었고 특별 종교법정에서 집행됨
  - 이후 오스만 제국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슬람법을 폐지하고 1858년 대륙법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체계가 종교적 및 세속적 체제로 분리되는 이분화 현상이 나타났음
- 튀르키예 공화국 선포 이후인 1924년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종교 재판소를 폐쇄시킴으로써 사법체제가 세속적 형태로 일원화되었음
  - 그 후 1926년 법제 개혁이 이루어져 스위스 민법, 이탈리아 형법, 독일 상법 등을 도입하여 튀르키예 관습법과 전통을 가미한 법제도가 성립되었음

## 2. 법원

- 튀르키예의 법원조직은 이심제로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은 민·형사법원, 행정법원으로 구분됨

※ 1930년 설치된 군사법원과 1971년 설치된 최고 군사법원은 2017년 헌법 개정에 따라 폐지

### 1) 상급법원

#### ■ 헌법 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사법부의 최고위 조직으로서 1962년 설치되었으며 15명의 정위원(Regular Members)으로 구성됨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성 검토, 법 적용에 관한 분쟁 시 법률해석, 헌법 수정 문제의 검토, 정당 해산권 등의 권한을 가짐

#### ■ 최고 법원(High Court of Appeals)

- 1879년 설치(1928년 개편)된 최고 재판소로, 하급 민사·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음

#### ■ 최고 행정법원(The Council of State)

- 1869년 설치된 최고 행정 재판소로서 국가 또는 행정 부서와 관련된 행정상 분쟁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 검사는 정부 관료 또는 공무원의 행정 범죄를 조사했으나, 2017년 헌법 개정에 의해 폐쇄됨

### 2) 하급법원

- 하급법원은 민·형사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급 민·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 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 마. 정치체제

### 1. 정치 체제

- 튀르키예는 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를 병행하고 있었으나, 2018.7월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함
  - 60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 임기는 5년
  - 각료 회의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각 부처 장관(Minister)들로 구성
- 2007년 헌법개정에 따라 대통령 직접 선출방식이 도입되었으며, 2017.4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헌법 개정 이후 첫 대통령 선거가 2018.6월에 실시됨

### 2. 헌 법

- 1924년 최초의 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61. 10. 25. 1차 개정을 했으며 1980. 9. 12. 군사 쿠데타로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됨
- 1981. 10. 23. 구성된 제헌 입법회의에서 마련된 헌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1982. 11. 7.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92% 국민의 지지를 얻어 확정됨
- 2004. 5. 22. 세제르(Sezer) 대통령은 EU 가입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 개선 및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함
  - 동 헌법 개정안은 사형제도 폐지, 국가안보 법원 폐지, 국내정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규정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2007. 10. 21.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추진한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행사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에서 67% 찬성으로 통과됨
  - 동 개정안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임기를 7년 단임에서 5년 연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원 임기는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했으며, 국회의원 정족수를 재적의원 1/3로 변경함
- 2010. 9. 12.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추진한 헌법 개정안이 57% 찬성으로 통과됨
  - 동 개정안은 헌법 재판소의 예비 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재판관 수를 총 17명으로 변경하고, 재판관의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함

- 헌법 개정 무효 및 정당 폐쇄관련 판결 정족수를 재판관 3/5 대신 2/3 찬성으로 변경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헌재 제소 권한을 부여함
- 2017. 4. 16.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과 극우성향의 민족주의 행동당(MHP)이 발의한 튀르키예 헌법의 18개 개정안이 약 51%의 찬성으로 통과됨
  - 동 개정안으로 튀르키예는 1923년부터 확립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되고 총리직이 폐지되고 부통령직이 도입됨
  - 국회의원 임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국회의원수가 55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며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 3. 튀르키예의 국가원수(대통령)

- 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으로서, 내각 책임제 하에서 2014년 8월 튀르키예 최초 직선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대통령제 전환 후 2018년 6월에서 재당선됨
  - 대통령 임기는 5년 연임이며 대통령 후보자는 만 40세 이상의 대학 졸업자로서 국회의원 선출 자격을 보유한 튀르키예 국적자로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됨
- 튀르키예 대통령의 권한은 1982년 헌법 개정 이래 계속 강화되었으며 국가원수로서 튀르키예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함
  - 국회 개원 연설권, 국회 소집권
  -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 요구권
  - 헌법 개정 제안권
  - 국회 결정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회부권
  - 각료 회의 및 국가 안보회의 주재권
  - 국가 질서 파괴, 경제 위기, 천재지변 등 위기상황하 비상사태 선포권
  - 헌법 재판소 판사 15명 중 4명 임명권 및 대법원 판검사 위원회 13명 중 4명 임명권, 국립대학 총장 임명권 등

※ 역대 대통령

- 제1대 Mustafa Kemal Atatürk(퇴역장군) 1923. 10.~1938. 11.  
제2대 İsmet İnönü(퇴역장군) 1938. 11.~1950. 5.  
제3대 Celal Bayar(정치인) 1950. 5.~1960. 5.  
제4대 Cemal Gürsel(퇴역장군) 1961. 10.~1966. 3.  
제5대 Cevdet Sunay(퇴역장군) 1966. 3.~1973. 3.  
제6대 Fahri S. Körtürk(퇴역제독) 1973. 4.~1980. 4.  
제7대 Kenan Evren(국가안보회의 의장) 1980. 9.~1989. 11.  
제8대 Turgut Özal(정치인) 1989. 11.~1993. 4.  
제9대 Süleyman Demirel(정치인) 1993. 5.~2000. 5.  
제10대 Ahmet Necdet Sezer(헌법재판소장) 2000. 5.~2007. 8.  
제11대 Abdullah Gül(정치인) 2007. 8.~2014. 8.  
제12대 Recep Tayyip Erdoğan(정치인) 2014. 8.~ 현재

### 3 경제 현황

#### ① 튀르키예의 경제일반

##### 1. 경제 역사

##### 1) 농업중심 자급자족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발전

- 튀르키예는 1923년 공화국 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는 농업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공기업 육성책을 통해 철강, 시멘트, 에너지, 화학 등 기간산업을 발전시켰음
- 1980년대 이래 민간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개혁이 추진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누적으로 1994년 극심한 경기침체와 위기를 겪음
- 이후 1995~1998년중 4-8%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나친 재정확대 및 통화 정책으로 연간 50~70%에 달하는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재정적자 누적과 이에 따른 대내외 국가채무도 계속 누적되었음

##### 2) 1998~2000 금융위기 극복

- 고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 7월 IMF의 Staff Monitored Program을 수용, 3년간 경제 구조조정 및 안정화 정책을 시행했으며 재정적자도 일부 완화됨
- 다소 안정을 찾아가던 튀르키예 경제는 1999년 대지진으로 위기를 맞이했으나 신속한 복구 사업으로 2000년 경기가 회복되는 듯 보였음
  - 그러나 2000년 11월 중순 주가지수 급락, 금리 급등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어 2000. 11. 30.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 12월 IMF는 총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2001년 2월말 정치불안 및 자유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으로 다시 불안정해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1년 8월 IMF는 튀르키예에 약 80억달러의 추가지원을 실시함



### 3) 2002~2017 높은 경제성장 실현

- 에르도안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튀르키예 GDP는 2002년 2,310억 불에서 2017년 8,740억 불로 약 3.8배 확대되는 등 매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온 바, 이는 재정 위기 및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여타 신흥국들과는 차별화된 것이었음
- 특히, 튀르키예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9%에 달해 중국,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1년 경제성장률은 8.8%를 기록했음
  - 이에, 2009년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비교적 견실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 2002년 이후 튀르키예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 정의개발당(AKP) 단독정부 수립 및 장기적 집권 운영을 바탕으로 한 정치 안정, △ 고인플레이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금융정책과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 △ 적극적인 대외 개방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17년 튀르키예 경제가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정부 신용보증 기금의 지원으로 시장에 풀린 약 2천억 리라의 자금이 가계 소비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됨

## 2. 최근 경제동향

- 2018년 달러당 튀르키예 리라화 환율이 국제 정치·경제 정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정한 양상을 띠는 등 국내 경제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 요인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인플레이션율도 20.3%에 이르는 등 물가 불안이 지속됨
- 2019년에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경제활동 침체 및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던 관광수입이 감소하며, 달러당 리라화 환율 상승에 인플레이션율도 급증함
- 30%에 육박하는 고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경제논리에 기초하여, 2020년 19%였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4%까지 인하함
  - 2021년 12월 달러화 대비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환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리라화 폭락사태에 따른 환율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약 5차례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규 재정 매커니즘’ 을 발표함
  - ‘신규 재정 매커니즘’ 은 튀르키예 국민이 리라화 신규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임
- 상기 조치들로 인해 2022년 초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화 되었으나 여전히 달러 및 유로당 리라화 환율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달러당 13리라, 유로당 15리라 수준)
  - 인플레이션율은 5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12월 5일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84.39%로 사상 최고치였고 2023년 1월 3일 현재는 64.2%임

### 3. 튀르키예 경제의 극복과제 및 대응

- 2002년 이후 튀르키예는 화폐·금융분야 개혁 및 건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어왔음
  - 국내외 정세 불안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음
  - 특히, 튀르키예 정부가 적지 않은 외채 및 해외 단기 투자자금 유입 문제를 안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외환 보유고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
- 아울러, 그간 쿠데타·대외관계 악화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환율 및 국가 신용등급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되어 왔다는 점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함
-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 12월 기록적인 리라화 폭락사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을 기반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신경제모델(수출주도형 성장정책)’ 추진을 천명했음

## ② 튀르키예의 대외교역

### 1. 개관

- 튀르키예는 1980년대부터 수출지향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무역 자유화와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시행했음
- 1990년대에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WTO(세계무역기구) 및 여타 국제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 제도를 정비함
  - 2003년 튀르키예는 수입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수입제도 시행령(The Import Regime Decree)을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1996.1월 EU와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체결함에 따라 수출입 제도 전반을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동, 유럽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함

※ 튀르키예는 EFTA(1991), 이스라엘(1996), 북마케도니아(1999), 크로아티아(200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002), 모로코(2004), 팔레스타인(2004), 시리아(2004), 튀니지(2004), 이집트(2005), 알바니아(2006), 몬테네그로(2008), 조지아(2007), 요르단(2009), 세르비아(2009), 칠레(2009), 레바논(2010 서명, 미발효), 모리셔스(2013), 한국(2013), 말레이시아(2015), 몰도바(2016), 싱가포르(2017), 페로 제도(2017), 세르비아(2019), 코소보(2019), 베네수엘라(2020), 영국(2021), 우크라이나(2021 서명)와 FTA 체결

- 튀르키예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자 무역부로 하여금 자국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및 수입상품의 반덤핑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음
- 한편, 수출지향적 투자 증대,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촉진할 목적으로 1985년 이래 자유 무역지대를 지정, 현재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리아 등 총 18개의 자유 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음

### 2. 수출입 현황

- 2021년 튀르키예의 총 수출액은 2,253억 불, 수입액은 2,714억 불로 약 461억 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튀르키예의 주요 수출 품목은 2021년 기준 자동차부품, 기계류, 철강, 전기제품, 의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천연가스, 기계류, 철강, 전자제품, 플라스틱 등임

### 3. 주요 통계

#### 1) 튀르키예 수출입 동향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백만\$)	증감률(%)	금액(백만\$)	증감률(%)	
2010	113,930	11.5	185,493	31.6	-71,563
2011	134,954	18.5	240,833	33.5	-105,879
2012	152,462	13.1	236,545	-1.8	-84,083
2013	151,803	-0.4	251,661	6.4	-99,858
2014	157,610	3.8	242,177	-3.8	-84,567
2015	143,839	-8.7	207,234	-14.4	-63,395
2016	142,530	-0.9	198,618	-4.2	-56,088
2017	157,020	10.2	233,800	17.7	-76,780
2018	167,921	7.0	223,047	-4.6	-55,126
2019	180,833	2.1	210,345	-9.0	-29,512
2020	169,638	-6.2	219,517	4.4	-49,879
2021	225,291	32.8	271,424	23.6	-46,133

(출처 : 튀르키예 통계청)

#### 2) 튀르키예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현황

(단위 : 백만불)

수출 대상국			
국가	2020년	2021년	증감률(%)
독일	15,979	19,321	20.9
미국	10,183	14,722	44.6
영국	11,236	13,704	22.0
이라크	9,142	11,133	21.8
이탈리아	8,083	11,475	42.0
프랑스	7,195	9,119	26.7
스페인	6,683	9,627	44.0
이스라엘	4,704	6,358	35.2
이집트	3,136	4,520	44.1
네덜란드	5,195	6,769	30.3

수입 대상국			
국가	2020년	2021년	증감률(%)
러시아	17,829	28,959	62.4
중국	23,041	32,240	39.9
독일	21,733	21,757	0.1
미국	11,525	13,151	14.1
이탈리아	9,200	11,562	25.7
프랑스	6,988	7,931	13.5
인도	4,830	7,936	64.3
한국	5,734	7,595	32.5
스페인	5,039	6,312	25.2
우크라이나	2,590	4,525	74.7

(출처 : 튀르키예 통계청, 순위는 2021년 금액 기준)

### ③ 튀르키예의 외국인 투자 유치

#### 1. 개관

- 튀르키예는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어업, 교통 및 통신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 분야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음
- 튀르키예는 외국인 투자촉진법(1954) 및 동 법 시행령(1995), 자유무역지대 법(1985)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며, 국제적인 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2003. 6. 17. 외국인 직접투자법을 제정함
  - 동 법은 외국인 최소 투자자본 요건 폐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기관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튀르키예는 1980년 독일과 최초로 양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래 중동, EU, 아시아 등 전세계 82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UNCTAD, OECD 등 다자적 투자보장 노력에도 적극 참여 중임

- 최근 튀르키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융 분야와 교통·인프라 건설 및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EU로부터의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약 56.5%를 차지하고 있음
- 튀르키예 정부는 2001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정위원회(YOIKK)를 설립하고 2004년에는 투자권고 위원회를 발족, 투자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데 주력해 왔음
-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투자희망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투자청을 2006년부터 설치·운영해왔으며, 2018년 대통령 중심제 개헌 이후 대통령실 직속 투자실로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중에 있음

## 2. 주요 투자 통계

### « 연도별 투자동향 »

(단위 : 백만불)

구 분	금 액
2014	8,632
2015	12,077
2016	7,534
2017	7,437
2018	6,698
2019	5,878
2020	5,791
2021.11월	6,764

(출처 : 튀르키예 중앙은행)

**<< 분야별 투자동향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1월
농수산업 및 광업	238	186	479	115	106	154	194
제조업	4,227	2,241	1,261	1,935	1,930	1,172	1,510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 등	1,340	678	944	691	90	53	130
건설업	106	291	627	215	452	97	100
도소매업	599	688	501	1,124	892	572	3,155
교통, 창고 및 통신	1,674	726	1,907	837	855	1,914	883
금융업	3,516	1,766	1,452	1,154	900	1,397	365
부동산 임대업 등	171	283	31	60	229	75	69
기타	206	675	235	567	424	357	358
계	12,077	7,534	7,437	6,698	5,878	5,791	6,764

(출처 : 튀르키예 중앙은행, 튀르키예 통계청)

**<< 국가별 투자동향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U(유럽연합)	7,118	3,827	4,810	3,925	3,322	3,008	2,390
기타 유럽	969	1,072	117	401	292	752	1,597
아프리카	0	0	63	24	31	18	2
미주	1,630	411	247	471	441	816	1,182
아시아 및 중동	2,463	2,245	1,705	1,837	1,789	1,197	1,593
기타	1	24	459	41	3	0	0
합계	12,181	7,579	7,401	6,699	5,878	5,791	6,764

(출처 : 튀르키예 경제부)

**<< 튀르키예 주요 경제 지표 >>**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GDP(십억불)	859.8	863.7	874.0	784.9	754.4	719.9	-
경제성장률(%)	6.1	3.2	7.4	2.6	0.9	1.8	-
1인당GDP(불)	11,019	10,883	10,579	9,632	9,212.7	8,597	-
인플레이션율(%)	8.81	8.53	11.92	20.30	11.84	14.60	36.08
실업률(%)	10.3	10.9	10.9	11.0	13.7	13.2	11.2
수출(백만불)	150,982	149,247	164,495	177,169	180,833	169,638	225,291
수입(백만불)	213,619	202,189	238,715	231,152	210,345	219,517	271,424
무역수지(백만불)	-62,637	-52,942	-74,221	-53,984	-29,512	-49,879	-46,133
대미화환율(TL/US\$)	2.9128	3.5382	3.8173	5.2704	5.9509	7.3537	13.0009
외채(백만불)	401,968	406,051	451,099	426,985	416,163	433,042	453,463
외환보유고(백만불)	91,431	90,610	82,658	71,398	77,118	48,461	64,830

(출처 : IMF, 튀르키예 중앙은행, 튀르키예 통계청, 2021년 추정치)



## 4 주요 사회 개발 지표

### 가.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

- 2021년에 튀르키예에 대한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는 66.47점이며, 튀르키예의 사회진보지수가 최근 크게 등락했으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였고, 2021년에는 66.47점이었음
- 사회진보지수는 학자와 정책 전문가팀이 이끄는 2년 과정의 결과이며,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의 차원을 식별하기 위해 방대한 연구를 종합함

사회 진보 지수	득점 수준	기준 점수 (지수, 순위)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개발지수)	0.83	1.0
Ease of doing business(사업수행 용이성)	76.8점	100점
Global competitiveness rank(글로벌 경쟁력 순위)	62위	1위
Corruption perceptions rank(부패인식 순위)	96위	1위
Index of economic freedom(경제적 자유지수)	64점	100점
Press freedom index(언론 자유지수)	70점	100점
Political rights index(정치적 권리지수)	16점	40점
Civil liberties index(시민 자유지수)	16점	60점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국제 재산권지수)	5.4점	최고 득점
Prosperity index(번영지수)	55.68점	최고 득점
Knowledge economy index(지식경제지수)	5.16(지수)	10.0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Bertelsmann 변환지수)	5.51(지수)	10.0
Fragile states index(취약국가지수)	79.7(지수)	최저 득점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	39.8(지수)	최고 득점
Global gender gap index(글로벌 성별격차지수)	0.64(지수)	1.0
Global hunger index(글로벌 기아지수)	5.0(지수)	5.0 이하
Global innovation index(글로벌 혁신지수)	38.3(지수)	최고 득점
Global peace index(세계 평화지수)	2.84(지수)	최저 득점
Global terrorism index(글로벌 테러지수)	5.65(지수)	0.0(최고) ~10(최저)
Happiness index(행복지수)	4.74(지수)	0.0(최저) ~10(최고)
Energy Trilemma index(에너지 트릴레마지수)	65.6(지수)	최고 득점
Networked readiness index(네트워크 준비지수)	56.88(지수)	100

(출처: world data atlas, <https://knoema.com/atlas/Turkey/topics/World-Rankings/World-Rankings/Social-progress-index>)

## 나. 주요 사회 개발 지표(Social Development Indicator)

사회개발지표	튀르키예(2021)	한국(2021)
총 인구	8,468만명	51,745천명
인구 성장률	1.1%(2020), 0.8%(2021)	-0.18%
합계출산율	2.06명(2019),2.04명(2020)	0.81명
기대수명	78.37세	83.5세(2020)
고용률	50.2%(2020)	60.5%
실업률	10.1%(2022.09.)	3.7%
국내총생산(GDP)	8,153억달러	1조7,985억달러(2,057조원)
1인당 GDP	9,586.6달러	32,644.67달러
1인당 GNI(국민총소득)	27,410달러(2019)	35,168달러
경제성장률	11%	4.0%
소득대비 주택가격배율(PIR)	11.28배(2020)	5.5배
소득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	18%	16.6%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인구10만명당)	6.6명(2020)	5.9명(2020)
살인범죄비율(인구10만명당)	3.8%(2018)	0.6%(2018)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85%(2022)	2.5%
인플레이션율	84.39%(2022)	2.5%
중위연령	32세	44.3세
65세 이상 인구수	795만명(2020)	857만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9.5%(2020)	16.6%
노령화지수	260.3(2020)	129(2020),139.5(2021)
수도권 거주인구비율	18.4%	50.3%
지니계수	0.4(2020)	0.331(2020)
소득 5분위 배율	7.7배(2017)	5.85배
상대적 빈곤률	17%(2017)	15.3%
주택보급률	57.9%	103.6%(2020)
1인당 주거면적	22.1m <sup>2</sup>	29.7m <sup>2</sup>
평균통근시간	40분	30.8분
대외경제개방/자유지수	32	74.6(19위,2022)
부패인식지수	41	62점(32위)
인간개발지수	0.833	0.919(23위, 2020)
민주주의지수	4.35점(결함)/10점	8.16점(완전)/10점

## 다. 주요 경제지표 (2022.12.08.)

경제지표	수치	경제지표	수치	경제지표	수치
환율(리라/USD)	18.64	국내총생산	815억불	수출가격	108포인트
주식시장 (포인트)	4785	1인당국내총생산	13251불	수입가격	152포인트
GDP성장률	-0.1%	구매력평가 1인당 국내총생산	31,252불	식품물가상승률	103%
GDP연간성장률	3.9%	경제활동참가율	52.9%	종합물가지수 (MoM)	3.5%
실업률(22.09)	10.1%	장기 실업률	3.5%	종합물가지수 (YoY)	85.4
물가상승률 (22.12.05)	84.39%	청년 실업률	19.1%	월간생산자물가 인플레이션율	0.74%
월간 인플레이션율	2.88%	노동비용	554포인트	CPI주택유틸리티	1201 포인트
기준금리/년	9%	월임금	3960리라	CPI교통	1275 포인트
무역수지 (백만불)	-8801	최저임금	6471리라	종합물가지수	415포인트
당좌계정 (백만불)	-2966	제조업임금	643포인트	인구1000명당 병원침대수	2.88개
GDP대비 경상수지	-1.7%	인구(2021년)	8468백만명	백만명당병원수	18.62개
GDP대비 정부부채	42%	여성은퇴연령	58세	인구1000명당 의사수	1.95명
GDP대비 정부예산	-2.7%	남성은퇴연령	60세	인구1000명당 간호사수	2.4명
기업신뢰지수	97.9포인트	고용비율	47.6%	인구1000명당 중환자실침대수	2.84개
제조업PMI	45.7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 (CPI)	1115포인트	예금금리	7.5%
소비자 신뢰지수	76.6포인트	핵심소비자물가	838포인트	지급준비율	25%
월간소매판매	1.8%	핵심물가지수	68.91%	대출금리	10.5%
법인세율	23%	GDP디플레이터	223포인트	GDP대비 개인부채비율	184%
개인소득세율	40%	생산자가격	2026포인트	수출액	219억불
은행간 금리	15.63%	외환보유고	798억불	수입액	307억불
외국인 직접투자	4.2억불	사회보장비용	34.5%	주택지수	575포인트
부가가치세율	18%	기업사회보장비용	20.5%	근로자사회 보장비용	14%
설비가동률	45.9%	경제선행지수	4.81%	경쟁력지수	62.14포인 트
부패지수	38포인트	부패도순위	96위	GDP대비 가계대출비율	12.5%
경제낙관지수	96.9포인트	가솔린가격	1.08달러/리터		
주택소유율	57.9%	주택임대료대비가격	298%		

(출처 : Trading Economics)

주: YoY (Year On Year Growth, 전년도 동기 대비 성장), MoM(Month On Month Growth, 전월 동기 대비 성장)

## 라. 주요 경제지표 (2021.12.31.)

주요지표	단 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 구	백만 명	80.8	82.0	82.0	83.6	84.6
명목GDP	십억 달러	859.05	797.22	760.35	716.90	802.67
1인당명목 GDP	달러	10,616	9,693	9,127	8,577	9,539
실질 성장률	%	7.47	2.83	0.88	1.8	11
실업률	%	10.9	11.0	13.6	13	11.3
소비자물가 상승률	%	11.9	20.3	11.84	14.6	36.08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84,110	71,980	81,240	49,965	72,564
총수출	백만 달러	164,494	177,168	180,834	169,659	225,265
총수입	백만 달러	238,715	231,152	210,345	219,514	271,422
무역수지	백만 달러	-74,220	-53,983	-29,511	-49,855	-46,157
연평균환율	리라/달러	3.648	4.828	5.67	7.72	8.89
이자율	%	8	24	12	17	14

(출처: FDI(World Bank), 재정수지(IMF), 평균환율(OECD), 기타(튀르키예 통계청),  
Kotra 2022 해외출장가이드,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리라/달러 환율 : 1USD= 18.65리라(2022.12.22.)

\* 원/리라환율 : 1리라= 69.92원(2022.12.12.)

\* 물가상승률 : 튀르키예의 2022.10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2021.10.)에 비해 85% 이상 상승. 튀르키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85.51% 치솟으며, 24년 만에 최고치 기록. 또 9월보다는 3.54% 올랐다(2022. 11.03. <https://www.voakorea.com/a/6818433.html>)

\* 소비자물가지수CPI(TradingEconomics) : 1115.3(2022.11.30.)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 한-튀르키예 외교관계

#### (1) 외교관계

- 1949.07. 튀르키예, 대한민국 승인
- 1950.07.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 결정
- 1957.03.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 1957.06. 정일권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57.10. Kamil Idil 초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66.07. 유엔군 산하 튀르키예 중대 철수
- 1977.12.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개설
- 1982.02.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폐쇄
- 2012.08. FTA 기본 협정
- 2020.12. 이원익 대사 신임장 제정
- 2021.02. 제18차 므타 외교장관회의(온라인)

\* 므타(MIKTA) : 5개 회원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13.9월 창설

#### (2) 튀르키예의 대 한반도 정책

-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우리나라를 혈맹 우방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음
-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음. 북한 핵실험 및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비난 입장을 취할 뿐만 아니라 UN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경제발전이 튀르키예의 경제발전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높이 평가함
- 튀르키예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북부 이라크에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이 파병한데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

- 최근에는 MIKTA 공동체, G20등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주: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여 만든 국가협의체로, 2013년 유엔총회 외교장관회담에서의 모임을 시작으로 발족하였음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2.6.24.(금) 메블룻 차부쉬오올루 튀르키예 외교 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차부쉬오올루 장관은 박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였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함
- 박진 장관은 믹타(MIKTA) 의장국인 튀르키예의 적극적인 활동을 평가하였으며, 양 장관은 G20, OECD 및 MIKTA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국제현안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해 나가기로 함

### (3) 인사교류 현황

#### [한국측 주요 경제 인사 튀르키예 방문]

##### ■ 1959년~1989년

- 1977. 5. 19. 한국경제실업인 대표단(단장 : 태완선 대한상공회의소장)
- 1981. 11. 12.~13. 이창수 외무부 제2차관보(제1차 한·터 경제공동위 참석)
- 1983. 12. 23.~24. 노재원 외무차관(제3차 한·터 경제공동위 참석)
- 1984. 7. 5.~8. 민간경제대표단(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장)
- 1986. 8. 25.~30. 박성상 한국은행 총재
- 1989. 11. 3.~7. 민간경제사절단(제1차 한·터 민간경협위 합동회의 개최)

##### ■ 1990년~2000년

- 1991. 8. 4.~6. 한·터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 1991. 10. 17.~18.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제5차 한·터 경제공동위 참석)
- 1992. 10. 25.~29. 민간경제사절단(제3차 한·터 민간경협위 참석)
- 1998. 10. 26.~28. 민관합동 고위사절단(단장 :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 1999. 11.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비공식, OSCE 이스탄불 정상회의 참석)
- 1999. 10. 8. 김규칠 산업기술정보원장(튀르키예 과학기술원(TÜBITAK)과의 협력교류 양해각서 서명)
- 2000. 10. 12.~14. 장재룡 외무차관보(제1차 한·터 정책협의회)

## ■ 2001년~2010년

- 2001. 5. 16.~18. 한·터 의원 친선협회 사절단(단장 김찬우 친선협회 회장)
- 2004. 4. 반기문 외교장관
- 2005. 4. 노무현 대통령
- 2008. 12. 한승수 국무총리
- 2009. 3. 15.~17. 한승수 국무총리(이스탄불 물포럼 참석)
- 2010. 1. 박진 국회 외통위위원장
- 2010. 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 2011년~2021년

- 2011. 5.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단장 조정식 의원)
- 2012. 1.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 2012. 2. 이명박 대통령(국빈방문)
- 2012. 8.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 2012. 11.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013. 8. 정홍원 국무총리
- 2015. 11. 박근혜 대통령(G20 정상회의 참석)
- 2016. 5. 황교안 국무총리(세계 인도지원정상회의)
- 2017. 3.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 2017. 9. 정세균 국회의장(믹타 국회의장회의)
- 2017. 10.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2018. 1. 안민석 한-튀르키예 의원친선협회장
- 2018. 10. 문희상 국회의장(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 2021. 8. 박병석 국회의장

[튀르키예측 인사 방한]

■ 1959년~1990년

- 1959. 3. Etem MENDERES 국방장관
- 1965. 9. 의원친선사절단(단장 : Guven 하원의장)
- 1969. 6. 24.~29. Ferruh BOZBEYLI 하원의장 일행
- 1975. 11. KIRIMLI 터 · 한 의원친선협회장
- 1976. 6. CAĞLAYANGIL 외무장관
- 1982. 12. 20.~23. Kenan EVREN 대통령
- 1983. 5. 9.~13. TURGUT 공업기술부장관
- 1984. 9. 24.~30. Necmettin KARADUMAN 국회의장
- 1984. 11. 18.~22. Safa GIRAY 건설부장관
- 1985. 10. 8.~11. Kaya ERDEM 부총리(IMF 서울총회 참석)
- 1986. 2. 24.~25. Ekrem PAKDEMIRLI 재무무역청 차장(제4차 경제공동위 참석)
- 1986. 6. 16.~21. 국회친선사절단(단장 : Ibrahim KARAL 의원)
- 1986. 11. 4.~7. Türgut ÖZAL 총리
- 1990. 4. 17.~20. Ali TIGREL 국가기획청장(KDI 경제연찬회 참석)
- 1990. 6. 13.~14. 민간경제사절단(제2차 한 · 터 민간경협위 참석)

■ 1991년~2007년

- 1991. 5. 14.~16. Yildirim AKBULUT 총리
- 1993. 12. 14.~17. KÖSE 상공부장관
- 1997. 10. 27.~28. Reyhan ATMACA 대외무역청 차장(제6차 한 · 튀 경협위 참석)
- 2000. 2. 15.~19. Kemal Namik PAK 튀르키예 과학기술원장
- 2002. 4. 29.~5. 2 튀르키예 · 한 의원 친선협회의원단(Birol Büyükoztürk 회장)
- 2003. 3. 24.~27. Binali YILDIRIM 교통부장관
- 2004. 2. Recep Tayyip ERDOĞAN 총리
- 2004. 10. Murat BAYAR 방산차관
- 2007. 11. 4.~8. Metin ATAÇ 해군사령관



## ■ 2010년~2021년

- 2010. 6. 14.~16. Abdullah GUL 대통령
- 2010. 11. 13. Recep Tayyip ERDOĞAN 총리
- 2011. 8. Zafer CAĞLAYAN 경제부장관
- 2012. 3. Recep Tayyip ERDOĞAN 총리
- 2012. 10. Recep AKDAĞ보건부장관
- 2015. 2. Nihat ZEYBEKCI 산업부장관
- 2015. 5. Mevlüt Çavuşoğlu 외교장관(MIKTA 외교장관회의)
- 2017. 12. Binali YILDIRIM 총리
- 2018. 5. 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
- 2021. 10. Mevlüt ÇAVUŞOĞLU 외교장관

### (4)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1972. 5. 3. 사증면제협정
- 1977. 12. 6.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 1986. 3. 27. 이중과세방지협정(2021. 10. 22. 개정)
- 1994. 6. 4. 투자보장협정
- 1998. 10. 26. 원자력협력협정(1999. 6. 4. 발효)
- 2003. 4. EDCF 기본협정(2003. 4. 10. 서명, 미발효)
- 2012. 8. 1.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2013. 5. 1. 발효)
- 2012. 8. 1. 사회보장협정(2015. 6. 1. 발효)
- 2018. 8. 1. FTA 투자협정 및 서비스협정(2018. 8. 1. 발효)
- 2021. 10. 22. 과학기술협력협정(미발효)
- 2021. 10. 22. 이중과세방지협약(미발효)

(출처: 외교부, 한국과 튀르키예의 정무관계, 튀르키예 개황, 2022. 2.)

### (5) 양국간 정례회의 개최 현황

- 민간 경협위원회 : 제11차회의(2007.09.)
- FTA 공동위원회 : 제14차회의(2019.12.)
- 경제공동위
  - 제6차 회의(2007.10월 서울, 차관보급)
  - 제7차 회의(2009.9월 양카라, 차관보급)
  - 제8차 회의(2015.1월 서울, 차관보급)

- 정책협의회
  - 제2차 회의(2003.12월 앙카라, 구주국장)
  - 제3차 회의(2007.5월 서울, 구주국장)
  - 제4차 회의(2010.3월 앙카라, 유럽국장)
  - 제5차 회의(2011.11월 서울, 차관보)
  - 제6차 회의(2014.5월 서울, 유럽국장)
- 중동 정책 협의회
  - 제1차 회의(2012.12월 앙카라, 국장급)
  - 제2차 회의(2013.11월 서울, 국장급)
  - 제3차 회의(2015.6월 이스탄불, 국장급)
  - 제4차 회의(2017.2월 서울, 국장급)
- 한국-튀르키예 포럼
  - 제1차 회의(2011.12월 앙카라)
  - 제2차 회의(2012.11월 서울)
  - 제3차 회의(2017.12월 이스탄불)

## 나. 한-튀르키예 경제관계

### □ 개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튀르키예 9년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결과를 검토하고 이 틀에서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음
  - 이 문제는 20여명의 양측 통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열린 제5차 한-튀르키예 FTA 공동위원회 이사급 회의에서 논의됨
- 2013년 5월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액은 2012년 52억 2,000만 달러에서 2021년 82억 6,000만 달러로 58% 증가
- 튀르키예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수출은 25.3% 증가한 3억 9,600만 달러, 의약품 수출은 3억 6,700만 달러로 6배 이상 증가

- (외교부) 한국의 튀르키예산 의류,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구매액도 크게 증가해 전체 수입액이 2012년 6억 달러에서 2021년 1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의 폴리에스터 직물 수출을 포함해 한국 기업과 관련된 3건의 반덤핑 사건에 대한 튀르키예의 진행중인 조사를 포함하여 미해결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함
-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정한 조사를 요청함
  -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FTA를 합의대로 이행하고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발언함

## □ 무역 관계

### (1) 연도별 교역동향

- 2008년 고유가 및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더불어 튀르키예 내수가 위축되어 양국 교역도 감소했으며, 2009년까지 감소세가 계속됨
- 2010년 튀르키예의 경기회복과 함께 교역량이 다시 증가 추세였으나, 2012년에는 튀르키예 리라화 약세 및 튀르키예 경기둔화로 전년 대비 수출입이 각각 10% 이상 감소
- 2013.5월 한-튀르키예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이 이듬해인 2014년 최고치(약 73억 불)를 기록한 이래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 우리의 대튀르키예수출이 약 27% 가량 증가하면서 총교역액이 다시 70억 불 대를 회복

### <교역규모>

(우리나라 기준, 단위 : 백만불, %)

년도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무역 수지	(증감률)
2015	6,249	(-6.2)	790	(20.5)	5,459	(-9.17)
2016	5,385	(-13.8)	742	(-6.0)	4,643	(-14.95)
2017	6,155	(14.3)	782	(5.3)	5,373	(15.72)
2018	5,980	(-2.8)	1,189	(52.1)	4,791	(-10.8)
2019	5,297	(-11.4%)	1,189	(0.0%)	4,109	(-14.24)
2020	5,545	(4.7%)	1,317	(10.8%)	4,228	(2.9%)
2021	7,025	(26.7%)	1,235	(-6.3%)	5,791	(36.96%)

(출처 : 한국무역협회 양국 교역현황, 한국과 튀르키예의 경제관계(튀르키예 개황, 2022. 2.)

### (2) 주요 교역품목

- 2021년 우리나라의 대튀르키예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화학 합성원료, 자동차 부품, 농약 및 의약품 등이고, 한국이 튀르키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 의류,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정밀화학원료 등임

### <우리나라의 對튀르키예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불, %)

순 위	수 출		
	품 목	금 액	증감률
1	합성수지	1,267	61.9
2	철강판	933	34.5
3	석유화학 합성원료	525	74.1
4	자동차부품	396	24.8
5	농약 및 의약품	367	-38.7
6	자동차	292	7.7
7	기타 석유화학 제품	293	60.6
8	원동기 및 펌프	273	31.4
9	플라스틱 제품	213	21.7
10	인조섬유장섬유사	194	42

**<우리나라의 對튀르키예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불, %)

순 위	수 입		
	품 목	금 액	증감률
1	농약 및 의약품	354	-43.5
2	의류	135	16.2
3	자동차부품	97	8.3
4	석유제품	55	203.3
5	정밀화학원료	48	94.9
6	기호식품	40	-25.4
7	니켈제품	32.7	2006.7
8	의료용기기	32.6	43
9	항공기 및 부품	29	13.1
10	합금철선철 및 고철	26	135.3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과 튀르키예의 경제관계(튀르키예 개황, 2022. 2.)

**(3) 무역 불균형 문제**

- 튀르키예와 한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는 부품소재, 중간재 산업이 발달한 한국이 튀르키예 국내 산업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양국 간 산업구조에 기인하고 있음

**<2021년 우리나라 주요 무역흑자 대상국>**

(단위 : 백만불)

순 위	국가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흑자금액
총 계		644,439	615,037	29,402
1	홍콩	37,472	2,246	35,226
2	베트남	56,729	23,966	32,763
3	중국	162,920	138,622	24,298
4	미국	95,909	73,212	22,697
5	인도	15,604	8,055	7,549
8	튀르키예	7,025	1,235	5,790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과 튀르키예의 경제관계(튀르키예 개황, 2022.2.)

## 다. 한-튀르키예 문화·학술교류

- 한-튀르키예 양국은 국민 정서, 언어, 관습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50년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1999년 튀르키예 마르마라 대지진시 우리 국민의 지원, 2002년 월드컵 3~4위전, 2021년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 등을 계기로 두 나라 국민들 간 유대감이 더욱 심화됨
-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7년 한 · 튀 수교 60주년 계기 및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된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양국 간 문화 ·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임

### 1. 공연 및 예술 분야 협력

- 2003.6. 국립극장 연극 우루왕 튀르키예 안탈리아 공연
- 2007년 한·튀르키예 수교 50주년 기념 한국국립국악단, 국립무용단, 국립극장 간 교환 공연
- 2009년 권혁주 바이올린 연주회 개최(앙카라, 카이세리)
- 2010년 강은일 해금플러스 퓨전국악 공연
- 2010년 난타공연
- 2011년 한국 주간 행사(오케스트라-국악협연, 연극, 무용, 인형극)
- 2013년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 2014년 피아니스트 손정범 연주회 개최(앙카라, 카이세리)
- 2015년 국립오페라단 ‘천생연분’ 공연(튀르키예 안탈리아 아스펜도스 고대 야외극장)
- 2016년 안탈리아 2016 엑스포 ‘형제의 나라, 한국의 날’ 행사
- 2017년 한-튀르키예 수교 60주년 기념 한-튀르키예 우정의 클래식 콘서트(한인 지휘자 및 피아니스트와 튀르키예 대통령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
- 2017년 한-튀르키예 수교 60주년 상호문화의 해 기념 복합문화행사 (한복 패션쇼, 국기원 태권도 시범, 전통 음악 및 무용 공연, K-Pop 그룹 공연 등)
- 2018년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정가악화-노닐다’ 공연(앙카라, 에스키셰히르)
- 2019년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한-튀르키예 클래식 공연(대구 MBC 교향악단과 에스키셰히르 시립교향악단의 협연)

- 2019년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잠비니아’ 공연(앙카라, 아다나)
- 2021년 한인 피아니스트 정현숙 독주회 ‘한-튀 우정의 콘서트’ (튀르키예 전통악기 네이 연주자와의 협연)
- 2021년 악사라이 한국문화공연(악사라이, 악사라이 교육청과 협력)
- 2021년 국경일 계기 K-클래식 콘서트
- 2021년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종합문화행사(전통 · 현대 퓨전 공연, K-Pop 왕중왕전 및 A.C.E 콘서트, 갈라타 타워 등 미디어 파사드)  
(출처: 외교부 간행물, 튀르키예 개황, 2022. 2.)

## 2. 청소년 및 인적교류

- 양국민간 상호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인적교류도 점차 증가 추세

### <양국 상호 방문 통계>

년도(단위 : 명)	방터	방한
2013	187,040	19,698
2014	248,654	22,382
2015	222,580	23,166
2016	106,904	26,541
2017	120,622	27,272
2018	159,354	29,558
2019	212,970	31,293
2020	36,636	6,560
2021	15,206	5,323

(출처: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튀르키예 개황, 2022.2.)

- 2005. 9월 한 · 튀르키예 ‘문화 및 과학교류 시행계획서’ 체결로 2007년부터 매년 한 · 튀르키예 국가 간 청소년교류를 실시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초청 및 파견인원을 20명으로 증원기로 합의함

### 3. 교육 및 학술 교류

- 양국 대학간 자매결연 활성화,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학부 및 대학원)선발

※ 2021년 기준 튀르키예 대학내 한국 학생 182명 유학 중

(출처: 외교부, 튀르키예 개황, 2022.2.)

#### ※ 양국 대학간 자매결연 체결 현황

- 앙카라대학교 : 20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한성대, 충남대, 계명대, 부산대, 경기대, 성균관대, 한림대, 수원대, 송실대, 숙명여대, 국민대, 한국외국어대, 인하대, 경북대, 건국대, 가천대, 단국대, 성신여대)
- 이스탄불대학교 : 10개 대학(서울시립대, 강원대, 충남대, 계명대, 경북대, 동국대, 인제대,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 에르지예스 대학교 : 8개 대학(한국외국어대, 한림대, 충남대, 숙명여대, 한국교원대, 동덕여대, 아주대, 광운대)
- 하제테페 대학교 : 6개 대학(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주대)
- 중동공과대학교 : 4개 대학(인하대, KAIST, 건국대, 명지대)
- 이스탄불공과대학교 : 7개 대학(KAIST, 성균관대, 서울과학기술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아대, 단국대)
- 빌켄트대학교 : 10개 대학(아주대, 국민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우송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
- 가지대학교 : 3개 대학(서울교대, 한국외국어대, 한성대)
- 보아지치대학교 : 6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계명대, 한양대, 성균관대)

(출처: 외교부, 튀르키예 개황, 2022.2.)

- 한국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매년 1-2명의 학부과정 및 10-11명의 대학원 과정 튀르키예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앙카라대학, 에르지예스대학 및 보아지치대학에 한국학 연구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임



#### 4. 지자체 자매결연

- 서울-앙카라, 부산-이스탄불, 경상북도-부르사, 전주-안탈야, 울산-코자엘리, 수원-알로바, 파주-에스키셰히르, 용인-카이세리, 울산 북구-이즈미트, 서울 성북구-이스탄불 베이올루구 등 10개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

※ 우호교류협력 체결 지자체

서울-이스탄불, 경기도-이스탄불, 경상북도-이스탄불 주 및 이스탄불 시, 세종-앙카라, 강릉-콘야, 천안-이스탄불 뷔워체크메제구, 동해-볼루, 성남-가지안텨, 순천-안탈야, 창원-이스탄불 카르트하네구, 서울 광진구-콘야 에레일리구, 서울 서초구-이스탄불 시실리구, 서울 노원구-이스탄불 에미노누구, 김해-초름 등 15개 지자체 간 우호 교류협력 체결

#### 5. 드라마 및 영화 분야 협력

- 2005년 이후 국영방송 TRT에서 <해신>, <대장금>, <주몽>, <이산>, <상도>, <대조영>, <동이>, <선덕여왕> <무사 백동수>, <궁S>, <서동요>, <마이> 등 주로 역사물이 많이 방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청소년 드라마 <드림하이>, 2013년에는 <꽃보다 남자> 등의 현대극이 방영됨
  - 외국 드라마의 방영이 드문, 보수적인 튀르키예의 문화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드라마가 이런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함
  - 민영 방송국 Kanal D에서는 <겨울연가>, Meltem TV에서는 <홍길동>, <공주의 남자>,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추노>, Olay TV에서 <대왕세종>이 방영되었으며 배우 이민호, 장근석, 김수현, 유승호, 송중기의 인기가 높음
- 이스탄불 영화제, 앙카라 영화제 등 튀르키예의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초대를 받으며 대중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함
  - TV에서 방영된 한국드라마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로까지 확산되어 많은 한국 영화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음
  - 김기덕 감독, 박찬욱 감독 등이 알려져 있으며 <사마리아>, <올드 보이>, <빈집> 등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음

- 2016년 한국의 CGV가 튀르키예 최대 영화관 체인 사업자인 Cinemaximum을 인수해 튀르키예의 일반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며, 그간 ‘아가씨’, ‘부산행’, ‘그물’, ‘밀정’, ‘기생충’ 등이 상영되었음
- 2019년에는 튀르키예 최대의 국제영화제인 이스탄불 국제영화제에서 김보라 감독의 영화 ‘별새’가 최고상 대상에 해당하는 골든튐립상을 수상하였음
- 한국영화 ‘7번방의 선물’을 리메이크한 작품인 영화 ‘Miracle in Cell No.7’이 큰 인기를 끌며 약 5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이는 튀르키예 역대 관객동원 9위를 기록함
- 또한 한국문화원에서 매달 실시하는 정기 한국영화 상영회와 2015년부터 진행한 카라반 한국영화의 날 행사를 통해 매년 튀르키예내 3-9개 도시를 순회하며 최신작 및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을 상영함으로써 현지인들이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2021년에는 한국대사관과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의 공동개최 및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므타회원국 대사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1회 므타영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함

## 6. 스포츠 분야 협력

- 튀르키예 전역에 3,281개 태권도 도장이 있으며, 활동하는 사범의 수는 4,248명에 이르고, 약 58만 명 정도의 태권도 수련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태권도가 축구 다음으로 등록 인구가 많은 스포츠일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음
- 튀르키예는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 2016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 1개, 2020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
- 튀르키예인 사범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이스탄불, 앙카라 등 대도시는 물론 튀르키예 내 각 지역에 있어 관심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수강 가능

- 현재 한국문화원에서 성인반, 초 · 중등반 태권도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8월에는 태권도 여름캠프도 진행하여,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음
  - 우리 정부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남부지역 공립 학교에 태권도 수업이 개설된 바 있고, 현재 흑해지역 공립학교 5개소에서 태권도 수업이 진행중
- 2017. 7. 18.~7. 30. 튀르키예 흑해 연안 도시 삼순에서 제23회 데플림픽(청각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었음
  - 97개국에서 3,148명의 선수가 참가한 대회에서 한국은 육상,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에서 선수 79명, 임원 34명, 지원요원 28명 등 총 141명 규모로 참가. 금메달 1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튀르키예는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점프, 피겨스케이팅 등 4개 종목에서 선수 8명이 참가함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튀르키예는 알파인 스키 1개 종목에서 선수 1명 참가함

## 7. 한식 분야 협력

- 튀르키예 내 한식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17년 5월에는 한국문화원이 2주 동안 한국에서 2명의 한식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원 한식 강사 및 앙카라 소재 가지대학교 조리학과 교수진 대상으로 한식 문화 교육사업을 실시함
- 한국 한식진흥원의 지원으로 가지대학교 조리학과에 2017년 9월 ~ 2018년 1월 기간 동안 한식 강좌가 개설, 운영되었고, 2019년 9월부터는 에스키셰히르 소재 아나돌루 대학교 조리학과에 한식강좌가 개설,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10월 및 2019년 9월에는 앙카라 힐튼 호텔과 협력으로 부산 힐튼호텔 셰프 2인을 초청하여 한식 주간행사 및 요리 수업을 개최함

- 2021년 김치 및 김장문화 홍보 사업으로 현지 방송국의 음식 기행 프로그램 (Haberturk 방송사 ‘Tadinda Hikayeler’ )에서 김치 소개 방송을 방영하였으며, 11월에는 한식 페스티벌 및 주재국 주요인사 초청 김치 만들기 시연, 시식 행사가 개최됨
- 2021년 10~12월에는 한식진흥원과의 협력 하에 한식 강좌가 개설 · 운영되었고, 한식 체험 밀키트를 활용한 한식 알리기 사업도 진행되었음

## 8. 한국어 분야 협력

- 매년 상 · 하반기에 실시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는 이들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튀르키예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확대 중임
- 튀르키예 내 3개 도시(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4개소에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고, 앙카라대학교, 에르지예스대학교 및 이스탄불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되어 있음
- 이스탄불 보아지치대학교, 이스탄불 아이든대학교, 이스탄불 예디테페 대학교, 앙카라 빌켄트대학교, 앙카라 하제테페대학교, 앙카라 아틀름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실시되고 있음
- 튀르키예 교육부는 2017.2월 중등교육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포함 시키고, 2018.9월부터 희망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라. 튀르키예 동포현황

### 1. 재외동포 총수

- 2020.12월 기준 튀르키예 거주 재외동포는 총 2,727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1,500여 명이 이스탄불에 거주함

### 2. 교민단체

#### 1) 在튀르키예 한인 총연합회

- 2017.7월 창립
- 회장 : 김영훈(사업)

#### 2) 재이즈미르 한인회

- 2011.5월 창립
- 회장 : 김재수(사업)

#### 3) 재앙카라 한인회

- 2012.6월 창립
- 회장 : 정창연(사업)

#### 4) 재동남부 한인회

- 2017.5월 창립
- 회장 : 이태연(사업)

#### 5) 재튀르키예 한국기업협회(구 이스탄불 지상사협의회)

- 회장 : 이천규(효성 법인장)

#### 6) 한글학교

- 앙카라 갈라디아 학교
  - 2004. 2. 28. 설립
  - 교장 : 박종이
- 이스탄불 한글학교
  - 1988. 2. 6. 재튀르키예 한인회가 설립
  - 교장 : 고명순

- 이즈미르 한글학교
  - 2001. 9. 1. 설립
  - 교장 : 김용진

(출처: 튀르키예의 교민현황 (튀르키예 개황, 2022. 2.)

## 마. 튀르키예 친한단체 현황

### 1. 한국전 참전용사회

#### 1) 협회 개요

- 한국전 참전용사 단체는 1973.3월 창설되어 1984년까지 “한국전 참전용사회” 로 독립 · 존속되어 왔으나, 1984.4월 이후 튀르키예 독립전쟁 참전용사회 및 사이프러스 참전용사회와 함께 국방부 산하 “참전협회” 로 통합됨
-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90대 이상으로 참전협회 본부 및 지부의 주요 간부직을 일부 차지하고 있음
- 상기 참전협회와는 별도로 상이용사 및 미망인협회가 구성되어 있음

#### 2) 구성

- 본부 및 140여개 지부로 구성
  - 총 회원수는 4만여 명이며, 한국전 참전용사중 생존자는 700여 명으로 추정
- 본부 간부
  - 회장 : 레야짓 유묵(Reyazit Yümük)
  - 집행위원 : 11명

#### 3) 주요 활동

-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참전용사 회의 참석
- 2년마다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한국전 참전국 회의 참석
- 튀르키예 내에서는 매년 1월25일 ‘금양장리 전승 기념일’ 기념행사 및 6.25 한국전쟁 기념 행사를 앙카라 한국공원에서 개최
- 회원들의 권익 보호, 보상문제 처리 및 참전용사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 4) 한국전 참전 용사 및 유가족 지원사업

- 1975년 이래 매년 ‘튀르키예 참전용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참전 용사를 방한 초청하고, 2003년부터는 민간단체에 의해 UN군 묘지에 안장된 튀르키예군 유가족들에 대한 방한 초청 행사를 시작함
- 재향군인회는 1975년 이래 매년 10~20여 명의 튀르키예 참전 용사를 방한 초청(UN군 묘지 참배, 호국 · 문화시설 시찰 등)하고 있음
  - 민간단체인 한 · 튀 친선협회 등은 UN군 묘지에 안장된 튀르키예군 유가족에 대한 방한 초청행사를 2003. 10월 처음으로 시작함
- 국가보훈처 주관 매년 10여 명의 생존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 한국전쟁기념재단(외교부 등록) 등에서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 한 · 튀 의원 친선협회

- 1963. 5. 31. 창설
- 회장
  - 한국측 :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 튀르키예측 : Abdullah Güler의원(정의개발당)

#### 3. 한 · 튀 친선협회

- 2000. 6. 21. 창립
  - 초대회장 : 이시형 의학박사 / 현 박찬숙 회장(전 국회의원)
  - 고문 : 오명 동아일보 사장,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등
  - 사무총장 : 이희수 전 한양대 교수
- 주요 활동
  - 1999.8월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시 튀르키예 돕기 운동으로 출발했으며, 당시 튀르키예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결성하고 동아일보와 성금을 모금, 전달
  - 2002년 월드컵시 튀르키예 서포터즈를 결성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국민 감사의 밤 개최, 튀르키예 참전용사 유가족 초청 행사 실시, 튀르키예 지진지역 고아 돕기 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  
(출처: 외교부, 튀르키예의 친한단체 현황, 튀르키예 개황, 2022. 2.)

## II. 최신 동향

### 1 정치 동향

#### 가. 국내 정세

##### 1. 2000년대 정의개발당 출범 이후 정치 안정

###### 1) 정의개발당 단독정부 출범

- 2002. 11. 3.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이슬람계 정의개발당은 34.1%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하면서 국회 총 의석 550석 중 66%인 363석을 차지함
  -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슬람계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
  - 이슬람계 정의개발당이 예상을 넘어 제1당이 된 것에는 기성 정치인 및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게 작용함
- 11.18. 정의개발당의 압둘라 귄(Abdullah Gül) 총리는 정의개발당 단독 내각을 출범함
  - 정의개발당의 에르도안 당수는 1999년 이슬람 선동혐의로 복역한 전력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해 다수당 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총리 후보 미선정
- 정의개발당 주도 국회는 에르도안 당수를 총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에르도안은 선거결과가 무효화 된 동남부 시르트 지역 재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국회의원 자격을 획득
- 2003. 3. 11. 귄 총리는 세제르 대통령에게 내각 사퇴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에르도안을 총리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2003.3.14. 제59대 정부를 출범시킴

###### 2) 2007년 총선

- 2007. 7. 22. 실시된 총선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이 47% 득표로 압승, 총 550석 중 341석을 확보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 동 총선에서 세속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이 고전했으며 극우성향의 민족주의행동당(MHP)이 5년 만에 국회에 재진출함



- 쿠르드계 민주사회당(DTP) 소속 의원 20명이 1984년 이후 23년만에 국회에 진출함
  - 단, 2009.12월 헌법재판소는 “테러조직과의 연계활동 및 국가분열 조장” 등을 사유로 DTP 해산

### 3) 2007년 대통령 선거

- 2007. 8. 28. 국회에서 정의개발당 압둘라 굴 후보(부총리 겸 외교장관)가 과반의 찬성을 획득,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제1, 2차 투표시에는 국회 재적의원 2/3(367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선출되지 못했으나, 과반이 요건인 제3차 투표를 거쳐 당선됨

### 4) 2008년 정의개발당에 대한 정당해산 소송

- 2008. 3. 14. Yalcinkaya 대법원 부장판사는 정의개발당이 헌법에 명시된 세속주의에 반하는 활동의 중심이라 주장하며 정의개발당의 해산 및 주요 정치인 71명의 정치활동 5년 금지 요청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함
- 튀르키예 헌법재판소는 2008. 7. 30. 해당 소송을 기각하되 정당보조금 절반을 삭감토록 결정하여, 튀르키예 정국의 대혼란 가능성은 일단락됨

### 5) 2009년 지방선거

- 2009. 3. 29.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정의개발당은 최고 득표율을 얻었으나, 지지도가 39%로 2007년 총선보다 감소함. 제2, 제3정당인 공화인민당(23.2%)과 민족주의행동당(16.1%)은 지지율이 다소 상승함
  - 정의개발당에 대한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 경제불안에 기인함

### 6) 2011년 총선

- 2011. 6. 12. 실시된 제24차 총선 결과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49.83% 지지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2002년도 및 2007년도 총선에 이어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함
- 에르도안 총리 지도 하에 정의개발당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데에는 크게 세가지 요인이 있음

- (국내) '02년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 확보 및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달성
- (대외)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튀르키예의 위상과 입지 제고
- (국민) 지속적 정치 안정과 경제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 7) 군부에 대한 민(民) 우위의 민주화 조치

- EU 가입을 국가 주요정책 목표의 하나로 추진 해온 튀르키예 정부는 EU측의 정치 민주화요구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해 왔음
- 그간 헌법 개정(2010.9.12.) 등을 통해 ▲군부의 국내 치안문제 간섭 권한 제한 ▲군부 지출에 대한 민간 감사제도 강화 ▲군인 재판권의 민간법원으로서 위임 등 군사재판 제도 개혁 ▲국가안보결정기구인 국가안보위원회(MGK) 구조의 민간화 조치 등을 취함

## 2. 최근 국내정치 동향

### 1) 2014년 대통령 선거

- 2014. 8. 10. 실시된 최초의 국민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51.79% 지지율로 압승(2위 후보: 38.44%)을 거두며 취임함

### 2) 2015년 총선

- 2015. 6. 7. 실시된 제25대 총선 결과 정의개발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수 확보에 실패해 단독 내각 구성에 실패하자 다뭇오을루 총리는 야당과의 연정 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성사됨. 에르도안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결정함
- 2015. 11. 1. 실시된 제26대 조기 총선 결과 정의개발당은 49.5% 지지율로 550석 중 317석을 확보, 단독 내각을 구성하며 집권연장에 성공함

### 3) 쿠데타 시도

- 2016. 7. 15. 군부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발생했으나 진압된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수차례 연장하며 군, 경찰, 사법부, 교육부 등 정부 기관 관계자 백만 명 이상을 쿠데타 연관 세력 및 혐의자로 파면 또는 처벌함

- 튀르키예 정부는 쿠데타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재미(在美) 이슬람학자 페툴라 쾰렌 관련 단체(튀르키예는 FETO로 지칭)를 비롯해 쿠르드계 노동자당 (PKK), ISIS 세력 등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외 테러 조직 척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대테러전, 관련 조치를 적극 수행 중임

#### 4) 헌법 개정

- 총선에 승리한 정의개발당은 민족주의행동당(MHP)의 지지를 토대로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7. 4. 16. 국민투표에서 51% 찬성을 얻음

#### 5) 선거법 개정

- 정의개발당과 민족주의행동당이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정당간 동맹을 가능케 함)을 국회에 상정하고 2018.3.13. 통과시킴
  - 이로써 정의개발당의 장기 집권이 유리해지고, 민족주의행동당은 국회 의석확보를 위한 최소 득표율 (10%) 제약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됨

#### 6) 조기 대선 및 총선

- 당초 대통령제 개헌이 최초 적용되는 대선 및 총선은 2019.11. 예정이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 및 대선을 결정하고 2018. 6. 24. 대선 및 총선을 실시함
  - 시리아 국경지역(아프린) 군사작전으로 인한 민족주의 감정 고조 및 자신에 대한 지지율 상승국면 활용
  - 환율 급등,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 경제 불안 가능성
  - 야당 간 선거동맹 움직임 등을 감안
-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연합(정의개발당-민족주의행동당)후보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52.99% 지지율로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하며 당선이 확정됨
- 총선에서 정의개발당은 민족주의 행동당과의 연대를 통해 53.66%를 득표하며 의석수 과반 (344/600석) 확보에 성공함

#### 7) 2019년 지방선거

- 2019. 3. 31.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여당연합(정의개발당-민족주의행동당)이 총 81개주 중 50개주를 차지(전국 득표율 51.67%)하며 전반적으로 승리함

- 앙카라(수도, 제2대도시), 이즈미르(3대도시), 안탈리아(5대도시)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제1야당(공화인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됨
  - 튀르키예 최대도시인 이스탄불 시장선거에서는 비날리 일드름 전 총리이자 국회의장 출신의 여당연합 후보와 에크렘 이맘오울루 이스탄불 베이리크듀쥬 구청장 출신의 야권연대 후보가 경합했으며, 근소한 표 차이로 이맘오울루가 당선됨
  - 이후 정의개발당측의 이의 제기로 6.23. 재선거를 실시했으나 이맘오울루 여권 연대 후보가 53%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당선됨 (비날리 일드름 여당연합 후보 45%)
- (출처: 외교부, 외교부 간행물, 튀르키예 개황, 2022.2.)

## 나. 최근 정치 동향

-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의 목표는 2032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임
  - 튀르키예 대통령 Recep Tayyip Erdogan(에르도안)의 목표는 2023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이며, 에르도안이 제도를 바꾸기 이전에 존재했던 헌법 조항에는 한 사람이 최대 2번 대통령으로 역임 가능하다고 명시됨
  - 그러나 에르도안은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제도 변화를 이정표로 해석해 2014년 대통령직을 고려하지 않고 2018년부터 시작이라 계산함
  - 연임이 결정된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새 국회와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 지속되며 이렇게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임
    -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3번째 후보가 되려면 예정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재선을 결정해야 함
  - 2023년 선거는 에르도안이 자신의 길에 들어서게 될 중요한 전환점임
    - 그 모퉁이에서 흔들릴 것인지, 공화국 100년에 집권할 것인지는 이 움직임에 대한 야당의 반응에 달려 있음

## 다. 터키의 새이름 '튀르키예'

- 터키가 국명을 튀르키예(Turkiye)로 공식 변경함
  - 기존 국명(Turkey)이 영어로 칠면조를 뜻하는 데다, 구어로는 ‘겁쟁이’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라는 게 공식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분석도 나옴

## 2 경제 동향

### 가. 신경제계획 2021-2023

#### □ 튀르키예 재무부가 신경제계획 2021-2023 발표

- 지난 2019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제11차 개발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신경제계획은 경제 부문에서 보다 자세하게 제11차 개발계획을 풀어냄
-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튀르키예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발표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방향성은 유지하되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보임

#### □ New balance, New Normal, New Economy

##### 〈튀르키예 주요 경제 지표〉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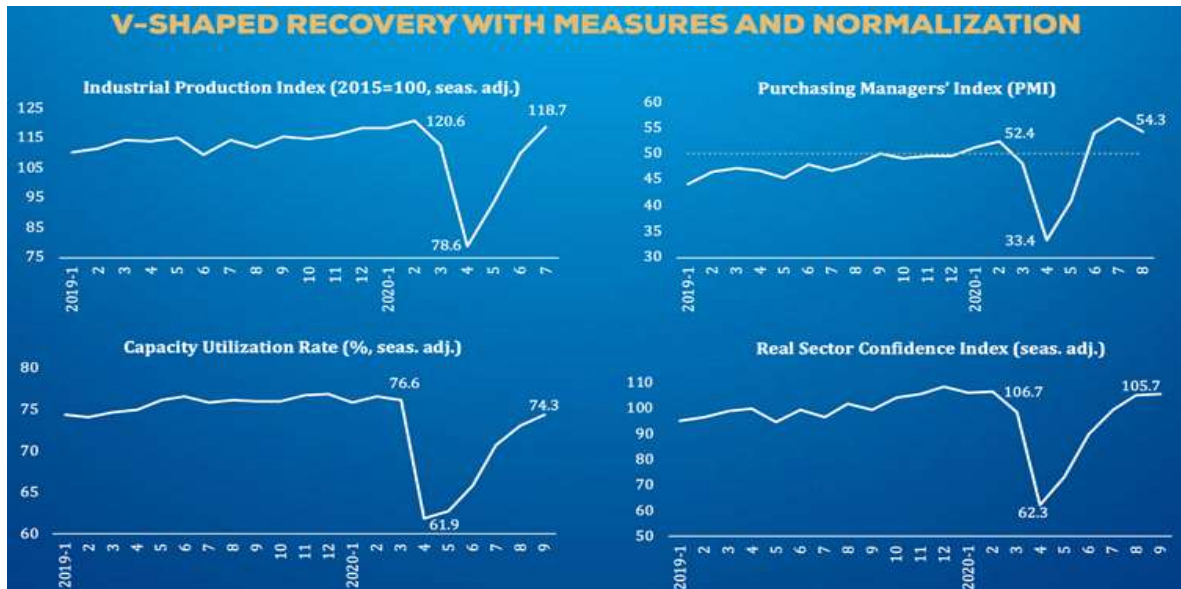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3.18	7.47	2.83	0.88	-9.9(6월)
명목GDP	862.75	852.62	789.04	753.69	153.18(6월)
물가상승률	8.53	11.92	20.3	11.84	11.75(9월)
실업률	10.9	10.9	11	13.7	13.4(6월)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재무부)

- ‘튀르키예 재무부에서 2018년 9월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신경제계획(YEP)은 튀르키예의 중기 경제계획으로 튀르키예 대통령실에서 매년 발표하는 개발 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2020년 신경제계획 2021-2023의 슬로건은 New Balance, New normal, New Economy임
- 튀르키예의 경기는 2018-2019년 2분기까지 침체됐다가 3분기부터 호전 시작 - 이후 튀르키예 정부를 비롯한 각계 기관은 튀르키예의 2020년 경제성장률 3%를 전망했으나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튀르키예 역시 영향을 받았으며 IMF, World Bank 등은 2020년 튀르키예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

- 튀르키예 재무부의 5월 부분적 정상화 정책 시행 이후 튀르키예 경제는 V자 반등에 성공했으며 2020년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

### 〈튀르키예 산업 부문 V자 반등 그래프〉



- 재무부 장관 Berat Albayrak은 양질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포괄적인 개혁 전략을 통한 안정된 재정 확보, 신경제계획을 통해 2021-2023 거시경제 지표의 균형 및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튀르키예 정부는 세계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들을 장려해 국산화하겠다고 발표
  - 또한 비대면 시대에 각광받는 IT, 운송 등의 분야와 튀르키예 정부의 숙제와도 같은 중간재 국산화 지원책을 점차 발표하겠다고 밝힘

### □ 신경제계획 2021-2023의 방향과 주요 경제 지표

- 2019년 튀르키예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제11차 개발계획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재정, 소득, 대외 무역정책을 강화해 수출지향 성장을 통해 자주적이고 강력한 경제 모델 수립 의지를 밝힘
- 또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관광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발표
  - 기술 이전 위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 위주로 우선 육성산업을 선정해 투자하며, 효과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구조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해 경쟁력과 생산효율 증대에 힘쓰겠다고 발표

- 신경제계획 2021-2023은 제11차 개발계획의 연장선임
  - 수출지향 성장과 관광 수입 확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국산화가 주요 목표
  - 다만, 주요 경제지표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설정. 제11차 개발계획은 2023년 GDP 달성 목표액을 1조 800억 달러로 설정했으나 신경제계획은 8,750억 달러로 변경
  - 그 외에도 1인당 GDP(US\$ 12,484 →US\$ 10,033), 실업률(9.9%→10.9%), 물가상승률(5%→4.9%) 등을 변경

### 〈2021-2023 튀르키예 신경제계획 전망 및 계획 거시경제지표〉

구 분	2019	2020 <sup>(1)</sup>	2021 <sup>(2)</sup>	2022 <sup>(2)</sup>	2023 <sup>(2)</sup>
<b>성장</b>					
GDP(십억리라,실질)	4,320	4,851	5,644	6,310	7,021
GDP(십억달러,실질)	761	702	735	801	875
1인당GDP(달러)	9,213	8,381	8,661	9,317	10,033
경제성장률(%)	0.9	0.3	5.8	5.0	5.0
<b>전체소비</b>					
-공공	4.8	5.2	-2.2	2.3	1.2
-민간	1.7	0.4	5.7	4.8	4.6
<b>전체고정자본투자</b>					
-공공	-27.9	-0.2	14.2	-7.2	8.4
-민간	-10.0	-2.4	5.1	9.0	6.9
<b>고용</b>					
인구(천명)	82,579	83,710	84,856	86,017	87,195
노동참여율(%)	53.0	49.6	51.2	51.7	52.4
노동인구(천명)	28,080	26,733	28,331	29,496	30,742
실업률(%)	13.7	13.8	12.9	11.8	10.9
<b>대외무역</b>					
수출(FOB기준,십억달러)	180.8	165.9	184.0	198.0	214.0
수입(CIF기준,십억달러)	210.3	204.0	223.3	240.0	256.0
<b>원유가격 (브렌트유,달러/배럴)</b>					
에너지수입(십억달러)	41.7	29.6	36.9	40.5	40.8
무역수지(십억달러)	-29.5	-38.1	-39.3	-42.0	-42.0
무역수지(GDP대비, %)	51.4	52.7	55.4	54.7	53.7
<b>재정수지</b>					
관광수익(십억달러)	29.8	10.3	19.8	29.8	35.0
재정수지(십억달러)	8.8	-24.4	-13.9	-5.4	1.3
재정수지(GDP대비, %)	1.2	-3.5	-1.9	-0.7	0.1
<b>물가상승률</b>					
GDP디플레이션(%)	13.9	11.9	9.9	6.4	5.9
물가상승률(%)	11.8	10.5	8.0	6.0	4.9

주: (1) 전망치, (2) 신경제계획(YEP) 목표치 (자료: 튀르키예 신경제계획, YEP)

□ **신경제계획 2021-2023 주요 목표**

- 신경제계획 주요 목표는 규제 강화 및 정책 수립을 통한 정부의 역할의 강화, 생산 품목에 대한 구매 보장, 실효적 투자 인센티브 적용 등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및 수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유럽 시장 침체에 대비해 아프리카 신시장을 개척하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성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 경로를 확대하려 함
- 한편, 경제 관계 한 단계 격상 및 기존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관련 국가와 현재 협상 중인 특혜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은 경상수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추진할 것으로 보임

**〈신경제계획 2021-2023 분야별 주요 정책〉**

재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수단의 다양화 및 투자자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임대증서 발행 및 투자시장 개선</li> <li>-참여 금융기관과 관련 수립된 정책에 대한 보고·감사 실시, 규제·감독 기관과 분야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며, 중앙자문단의 효율성 증대</li> <li>-수출업체들을 위한 튀르키예 수출입은행의 펀드 인프라 구축 및 은행의 지원구조 다양화</li> <li>-튀르키예 수출입은행의 수출자 지원 중 중소기업 비중 강화</li> </ul>
비즈니스 투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센티브와 국가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국가지원 프로그램 시행 예정</li> <li>-튀르키예 국부펀드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고정자본 투자를 확대</li> <li>-튀르키예 제품의 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물류센터를 설립해 도착지까지 수출상품의 보관·취급·유통 절차를 지원하고 대외무역 비용 절감</li> <li>-경제 관계 한 단계 격상 및 기존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협상 중인 특혜 무역협정 및 자유무역 협정의 경우 경상수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추진</li> <li>-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새로운 특혜 무역시스템 협의</li> <li>-아프리카 대륙국가들과 튀르키예의 무역, 비즈니스 환경조성</li> <li>-스타트업의 빠르고 안전한 사업환경 구축을 위해 기업 설립절차 전면 온라인화 추진</li> <li>-튀르키예 및 해외 할랄인증 사업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li> </ul>
공공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해외 의약품은 전면 사회보장기관(SGK)을 통해 구입</li> <li>-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의료보건 분야와 국가개발에 일조하는 하이 테크 놀로지 산업의 투자 부분은 공공조달청(DMO) 구매 보장</li> <li>-공공부문 차량 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소유 운송수단 및 연관 시설 설립시 조달·이용·청산의 효율성과 성과 증대</li> </ul>



## 〈신경제계획 2021-2023 분야별 주요 정책〉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보건서비스의 온라인화 및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li> <li>- (관광) 5-10월에 국한된 튀르키예 관광시즌을 확대시켜 연중 내내 관광객이 방문 가능하도록 사업확대 및 관광객 유치, 튀르키예 스포츠 관광 인벤토리 발행, 튀르키예의 스포츠 관광 홍보</li> <li>-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튀르키예 안전 여행 증명서를 홍보 및 시행해 항공편 정상 운행</li> <li>-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분야별 의료기관 및 의료진 정보를 쉽게 확인, 예약할 수 있는 의료관광 포털 개설</li> <li>-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목적 방문시 입국절차 간소화 검토, 의료관광객 케어 서비스 국가차원에서 검토 및 실시</li> <li>- (에너지) 에너지자원 탐사작업을 가속화해 흑해지역에 위치한 사카리아 천연가스 매립지를 개발할 예정</li> </ul>
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 산업 부문 고용 및 생산 장려, 수출과 내수 시장을 중점으로 혁신 사업모델 구축</li> <li>- 발전용 소프트웨어, IT 기술, 자동화 등의 기술 사용 시 국산 사용 비율 상향 조정</li> <li>- 원자력 기술 분야 R&amp;D 활동을 추진해 기술의 국산화 추진</li> <li>- 머신 러닝과 데이터분석을 활용해 수출 중단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전 확인하고 수출기업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 나. 2021년 튀르키예 경제 동향 및 전망

### □ 요약

- 2021년 9%, 2022년 5% 성장 전망
- 3개월 동안 세 차례의 금리 인하
- 2021년 1분기 튀르키예 경제성장률 21.7%
- 튀르키예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에 2019년(전년) 동기 대비 -10.4%의 역성장을 했지만 2분기부터 백신 접종 확대, 점진적 정상화를 통해 총 1.8% 성장을 기록
- 특히 2021년 1분기는 전년(2020년) 동기 대비 21.7%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튀르키예 정부와 IMF, EBRD 등 각종 기관은 올해(2021년) 연말까지 튀르키예가 총 9%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튀르키예 국내외 기관별 튀르키예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기관명	2021년	2022년	발표일
튀르키예 재무부	9.0	5.0	2021년 10월
튀르키예 중앙은행	9.2	4.1	2021년 8월
IMF	9.0	3.3	2021년 10월
OECD	8.4	3.1	2021년 9월
EBRD	9.0	3.5	2021년 11월

(자료 : 기관별 경제 전망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산업 분야 경쟁력과 함께 튀르키예 경제에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지속돼 2021년 연말까지 성장의 반침대가 되어 줄 것이라고 평하고 있음
  -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mobility)과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2021년 7월 정상화 조치 이후 튀르키예의 국내 유동성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 또한 해외 여행객 유입도 늘어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의 관광 수익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튀르키예 경제가 회복 중임을 알 수 있음

- 국제적 수요 증가에 따른 제조업 생산 증가 및 제조업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1년 6월 이후 튀르키예의 PMI(Purchasing Manager Index)지수는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신뢰지수\*\* 역시 회복세를 보여 2021년 9월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인 102.4를 기록함

\* PMI: 50.4(4월) → 49.3(5월) → 51.3(6월) → 54.0(7월) → 54.1(8월) → 52.5(9월)

주: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구매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한다. 수치가 50을 넘는 경우 경기 확장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함

\*\* 경제신뢰지수: 96.2(1월) → 98.9(3월) → 92.6(5월) → 100.1(7월) → 102.4(9월)

### 〈튀르키예 주요 거시경제 지표 동향 및 전망〉

구 분	2020	2021년(전망)	2022년(전망)
국내총생산(십억 US\$)	717	801	850
1인당 국내총생산(US\$)	8,597	9,489	9,947
정부소비지출 성장률(%)	0.3	2.6	0.7
가계소비지출 성장률(%)	3.5	7.6	4.4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	7.2	9.0	5.4
물가상승률(%)	14.6	16.2	9.8
실업률(%)	13.2	12.6	12.0
환율(TRY/US\$)	7.01	8.30	9.27

(자료: 튀르키예 재무부, 2021년 10월 경제전망 자료)

- 튀르키예 재무부는 이번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2022년 물가상승률 목표를 9.8%로 설정
  - 이를 위해 활발한 통화정책을 펼치고 생산 장려, 부가가치 창출,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 의존도를 낮춰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 · 개발해 외국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임
- 튀르키예 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21개의 PPP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그 중 2개는 원자력발전소 신축으로, 튀르키예는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Akkuyu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선례(2023년 가동 예정)가 있음
  - 그 외에도 철도의 민영화 및 민간 철도사업 장려, 해안선 관광지 개발, 골프관광산업 개발, 2,000만㎡ 규모 투자용 부지 개발 등 외국 투자자본 유치, 관광수익 증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임

- 위 정책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튀르키예는 경제 고성장, 인프라 사업과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한 고용 증가가 가속화돼 127만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해 실업률은 12%로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은 1%p 증가한 52.4%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 3개월 동안 세 차례의 금리 인하

#### 〈튀르키예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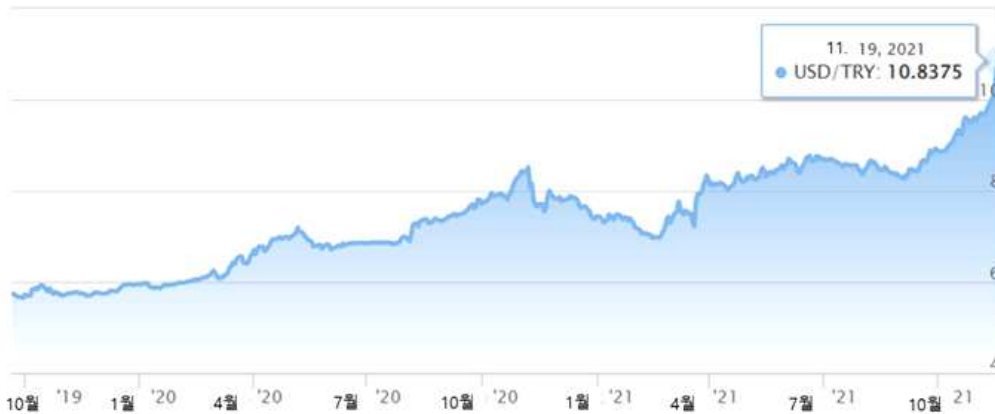
날짜	기준금리	환율	물가상승률	CDS프리미엄
2021.11.18.	15%	10.71TL/\$	-	411.5
2021.10.21.	16%	9.30TL/\$	19.89%	456.8
2021.9.23.	18%	8.67TL/\$	19.58%	357.8
2021.3.18.	19%	7.47TL/\$	16.19%	359.9
2021.2.18.	17%	6.95TL/\$	15.61%	282.1
2021.1.4.	17%	7.43TL/\$	14.97%	320.9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1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함
    - 이러한 금리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튀르키예 리라화는 평가 절하되어 환율이 상승했고 물가는 크게 상승함
    - 이러한 물가상승에 대해 중앙은행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 불균형 등 공급 측면의 일시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이번 금리 인하는 기업 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12월에 100bp 내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함
  -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현지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인 달러당 10.71리라를 기록, 2021년 초 대비 약 33% 하락함
    - 코로나19 제재 완화 후 국내 수요 증가 및 리라/달러 환율 지속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은 지속 증가 추세
    - 국제 디폴트로 CDS 프리미엄이 2021년초 320.9에서 2021년 10월 456.8로 급등함
- \* 2018년 7월 금융위기 당시 CDS 프리미엄 546.23 기록

## 〈튀르키예 2개년 환율 변동 그래프〉

(단위: US\$/TRY)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2021.11.19. 발표 자료 기준)

### □ 시사점

- 튀르키예의 코로나19 제재 완화 및 백신 접종 증가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고 관광업 또한 회복세를 띠면서 튀르키예 경제는 2022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22년에는 21개의 PPP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튀르키예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 투자용 부지 개발 등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튀르키예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가 엿보임
-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및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리라화 가치 하락은 2022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국가 신용도 하락 문제는 튀르키예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튀르키예 투자진출 기업의 경우 투자 자산가치 평가절하 문제 등 우려가 있어 환율 변동 예의주시 필요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리라화 평가 절하 상황은 단기적으로 한국 수출기업, 특히 소비재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무역관 인터뷰 결과, 튀르키예 바이어 K사, F사, C사 모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수입가격 상승으로 처음 튀르키예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특히 비내구성 소비재는 주문 수량 확대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다만, 튀르키예 정부의 의도대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수출 수요 상승 등 실물 경제 부양 효과와 이에 기반한 생산투자 증가 발생 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등 산업 원부자재는 환율 상승이 수입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기업 활동 및 설비 투자 확대 또한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 다. 튀르키예 경제 개혁 패키지 2021

### □ 요약

- 기업 부담 줄이고 정부 영향력 확대
- 국내 기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위한 정책 다수
- 튀르키예 경제 개혁 패키지 2021 발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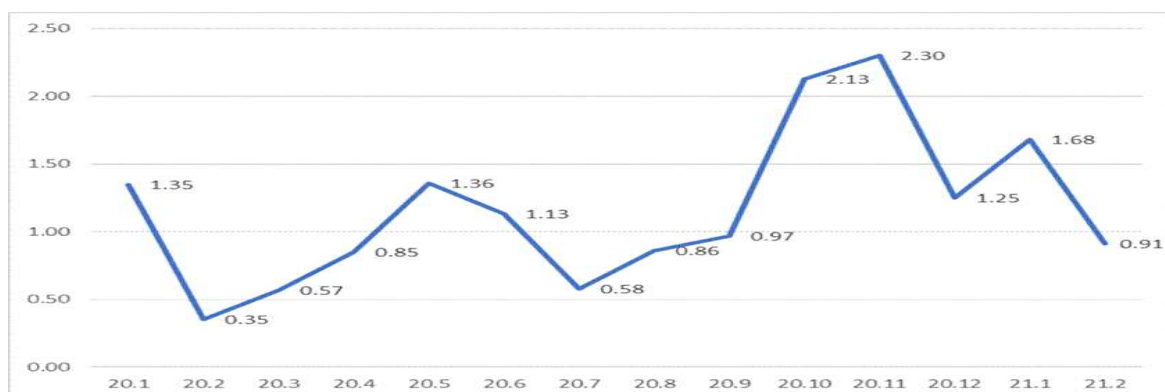
### □ 튀르키예 경제는 과거부터 환율 변화에 민감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

-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나 그럼에도 높은 편에 속했으며, 2020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4.6%를 기록함

\* 참고로 한국의 2020년 물가상승률은 0.5%였음

### 〈2020.01.-2021.02. 튀르키예의 전월 대비 월별 소비지물가지수 변화〉

(단위: %)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편집)

- 물가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환율 변화도 한 몫
  -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고 식품 외에 공산품 등도 많이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화가 국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2020.01.-2021.02. 튀르키예의 월별 환율 변화〉

월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0.10	'20.11	'20.12	'21.1	'21.2
USD/TRY	5.92	6.04	6.31	6.82	6.95	6.81	6.85	7.25	7.51	7.87	8.00	7.72	7.39	7.07

(자료: 튀르키예 재무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편집)

### □ 경제 개혁 패키지 2021

- 이러한 배경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 개혁 패키지 2021을 발표
    - 경제 개혁 패키지의 가장 주된 목표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튀르키예의 경제 구조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으로, 인플레이션, 무역 수지, 국가부채 등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우선 과제임
  - 두 번째로는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키워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선 육성해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임
  -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부임
- ⇒ 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혁 패키지 2021은 크게 거시경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담고 있음

### □ 거시경제지표 개선 :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 튀르키예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화와 투명화를 지향함
  -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간을 단축하고 튀르키예 정부의 중기계획(OVP)과 중기예산 계획(OVMP)을 통합함
  - 또한 예산 집행 결과와 단기 공공 재정정책 개발 및 목표를 포함하는 공공 재정보고서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임
- 2022년 예산안부터 정부지원 운전자금을 점진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해 중앙 정부의 예산 사용권한을 확대하고 운전자금을 신청한 기업 중 가치 창출이 부진한 기업은 정부에서 폐쇄 조치할 계획임
  - 정부기관 해외 사무소의 효율성 및 영향력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까지 대대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진행될 것임

- 튀르키예 정부는 재정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사용하는 은행계좌 외에 기타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좌들을 하나의 계좌 및 시스템으로 통합할 예정임
  - 또한,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부채상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수립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임
- 그 외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관련 데이터를 ‘통합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모아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계획임
  - 동시에 국가기관 내 인사 및 행정업무를 하나의 단일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조정하고 효율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민관협력사업 관련 법안도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거시경제지표 개선: 물가 안정

- 튀르키예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튀르키예 물가는 12.28% 상승
- 반면, 작년(2020년) 10월 튀르키예 정부에서 발표한 신경계계획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2020년 물가상승률은 10.5%이며, 점진적 안정을 통해 2023년에는 4.9%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튀르키예 정부는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는 품목들에 한해 실제 물가상승률이 아닌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튀르키예의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발표
- 인플레이션에서 식품 가격은 중요 비중을 차지하나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변동이 심한 편으로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가격 변동 변수들을 감지해 빠른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

**<튀르키예 경제개혁 패키지 2021>**

구분	주요 과제
국가재정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부채 관리 규율 강화 -조세제도 개정 통한 투자 촉진 -공공입찰제 개혁 -민관 파트너십 관련 법안 일부 개정 -공기업 개혁



구분	주요 과제
물가안정	-물가안정위원회 설립 -조기경보시스템 수립 -식량 손실 및 낭비 방지 -급격한 물가 변동 방지
금융업	-은행의 질적구조 개선 -자산관리회사의 역량 강화 -금융업의 공공인프라 개발 -자본시장 강화
수출입	-무역수지 개선 -수출 영역을 확대하고 수출자들의 경쟁력 강화 -국제기준에 적합한 귀금속 및 광물시장 조성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
고용	-고용 지원정책 개선 -자산관리회사의 역량 강화 -무이자 시스템 강화 -금융업의 공공인프라 개발 -자본시장 강화
기관 협업	-금융안정위원회 설립 -경제조정위원회 설립 -정부 조직 강화
투자 장려	-민간 부문 투자 보호법 제정 -정부의 투자지원정책 개혁 -투자 장려 시스템 개혁
내수경제 활성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시행
경쟁	-디지털 시장 개정안 수립
시장 감사	-시장 감사위원회 설립

(자료: 튀르키예 경제개혁 패키지 2021,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편집)

#### □ 거시경제지표 개선: 무이자 시스템 강화

-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자의 청구 및 지급은 금지되는데, 실물 거래가 아닌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을 이슬람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
- 따라서 이슬람 국가들은 ‘참여 금융’ 이라는 무이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투자와 비슷한 개념임
  - 참여 금융은 ‘참가자’ 들이 ‘참여 계좌’ 를 개설해 자금을 넣어두면 은행이 용자가 필요한 고객에게 수익률의 일정 비율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줌

- 이후 약속한 원금과 수익이 상환되면 은행이 참가자들에게 배당해주는 것이 참여 금융임
- 이번 경제 개혁 패키지에서 튀르키예 정부는 일부 민간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참여 금융과 관련한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법이 제정되면 현재는 일부 민간은행에 산재돼 시행 중인 서비스가 법률 아래 하나로 통합되고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참여 금융을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

#### □ 산업생산 역량 강화: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입 비중 감소

- 정부는 튀르키예 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음
  -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제조업 중심으로 우선 지급하며, 수출을 위한 투자 시 장기 대출을 지원하기로 함
  - 해외 여러 국가에는 튀르키예의 국내기업들이 수출할 때 운송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개설하여 지원할 계획
  - 튀르키예 기업들이 수출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수출보험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수출 타깃국과 해당국의 수요에 따른 제품을 선정해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
-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산업과 IT산업이 대두되며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산업원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될 예정
- 수출입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제4734호 공공입찰법의 개정을 통한 튀르키예 국내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 확대 계획이 있음
  - 공공입찰 참여 라이선스제를 시행해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2022년 1분기까지 완료 예정
  - 더불어 튀르키예 산업기술부는 공공조달 시 국산 제품 구매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국산 제품 구매 의무화 시행 예정
  - 또한, 튀르키예 정부는 중간재 수입 감소를 위해 제조업 분야에 신용보증 기금 투입, 장기 투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

## □ 산업생산 역량 강화: 투자 장려

-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튀르키예에 투자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 분쟁 당국을 설립할 계획
  - 모든 투자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투자자들이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단순화를 거치고 타겟팅과 투자 기간을 정확하게 하며, 중복 수혜를 막아 더욱 다양한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
- 개편되는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혁신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
  - 선발된 기업들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할인 및 감면 혜택을 받음
  -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 시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할인 혜택도 일정 기간 받게 되는데 청년 및 여성을 고용할 경우 추가적인 기간 혜택이 주어짐
- 향후에는 ‘튀르키예 디지털 세금사무소’ 를 개설해 온라인 과세대장을 시행하고 모든 서류 처리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디지털 납세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개설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예정
  -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본국과 튀르키예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발생하는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예정
  - 디지털 세금 감사 시스템 개발 및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환급 기간을 단축할 예정

## □ 산업생산 역량 강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시장이 더욱 각광받으며 튀르키예도 디지털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음
- 법안은 크게 디지털 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장려하는 정책과 일부 소수의 거대 기업의 플랫폼이 독식하며 시장환경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으로 구성될 예정

- 각 디지털 시장에서 취합된 데이터들은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없으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 예정이며 또한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제정될 것

## □ 시사점

- 그동안 튀르키예 정부는 필요에 의해 외국기업이 수출 및 단기적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임
  -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 공공입찰에 참여 자격이 주어졌고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거래 중인 바이어를 통해 공공입찰에 손쉽게 참여함
  - 그러나 향후 라이선스제를 시행할 경우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튀르키예의 공공입찰 참여에 더욱 제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일반적 물품 및 서비스 수출에는 진입장벽이 서서히 높아질 수 있으나 해외기업의 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으로 보여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고려 가능

## 라. 튀르키예 2021년 상반기 주요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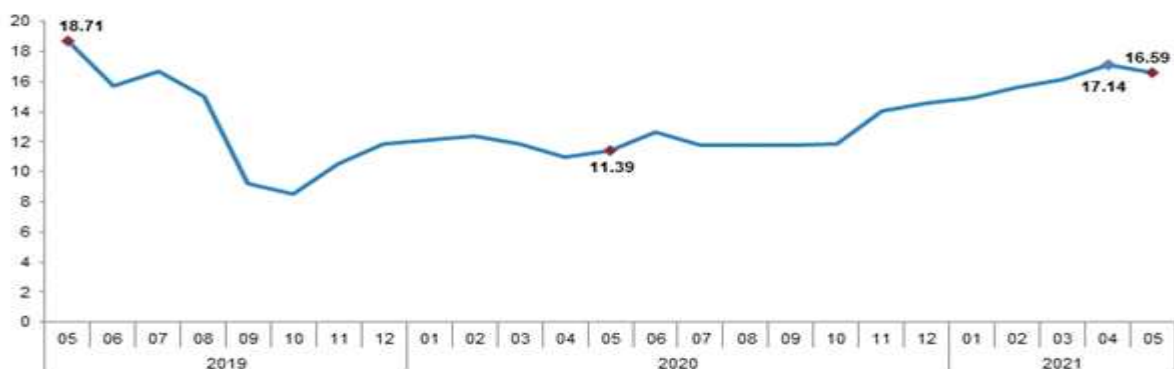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경제는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1분기에는 기존 예측치였던 5.5%~6%를 넘어 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1년 2분기에는 2020년 대비 기저효과 등에 따라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 존재
  - 이는 튀르키예 제조업의 활성화와 연관이 높으며, 실제로 PMI지수(구매 관리자 지수)\*는 51.3으로 높아지고 있음
- \* 주 : PMI(Purchasing Manager Index)지수는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수치로, 수치가 50을 넘는 경우 경기 확장을,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의미함
- 주요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제품 시장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승용차 및 경상용차 생산량이 2020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해 79,819대 기록
  - 백색가전 역시 2021년 5월 기준 전년(2020년) 동기 대비 60% 증가해 255만 대에 도달함

- 일반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 기대 및 경향을 요약한 종합지수인 ‘경제신뢰지수’ 는 2021년 6월 97.8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된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이어지고 있음
  - 현지 정부는 건설투자 부문을 제외하면 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장비 투자에 대한 민간 수요와 공공부문의 지원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 □ 인플레이션율과 기준금리

- 중앙은행은 2021년 3월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린 이후 지속적으로 엄격한 통화정책을 유지 중
  - 다만 대외 환율 악화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세는 2020년 9월 11.75%를 기록한 이후 2021년 4월 17.14%까지 지속됨
  - 이에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1년말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를 기존 9.4%에서 12.2%로 상향 조정해 발표하기도 함
- 2021년 5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높은 기준금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율 상승세가 완화되면 정책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힘
  - 이에 따라 대미환율이 장중에만 최고치인 8.88리라를 기록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함
  - 이에 중앙은행장은 미연방의 금리인상 가능성, 상반기 관광분야의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 등을 이유로 기존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
  - 인플레이션율,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대외 환율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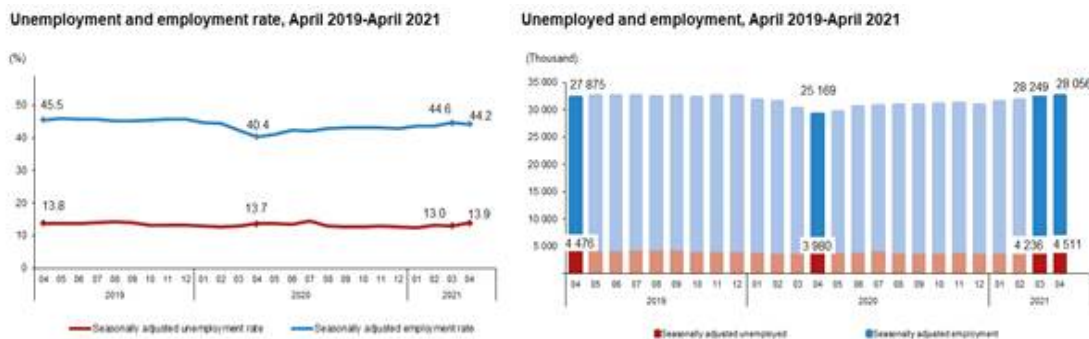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율 추이〉



## □ 실업

- 2021년 4월 튀르키예 통계청은 실업률을 13.9%로 발표했으며, 전년(2020년) 동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
- 튀르키예 정부는 2020년 3월 이후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고 금지, 무급휴가 부여, 단기근무수당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해왔기에 실업자 다량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
- 특히 근로시간이 종전 대비 1/3 이상 단축됐을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 한해 급여의 일부를 실업기금에서 고용주에 지원했기에 고용주는 인건비의 부담을 일부 덜고 고용관계를 지속해왔음
  - 그러나 올해(2021년) 3분기부터는 이 지원 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실업자가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튀르키예 실업률 추이〉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 □ 수출입 동향

- 2021년 6월 기준 튀르키예의 수출액은 197억 7,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2020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함
- 한편, 수입액도 2020년 동기 대비 38.9% 증가해 226억 6,1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함
  - 튀르키예 무역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튀르키예 수출 실적에 가장 큰 공헌을 한 품목은 자동차로 194억 달러를 기록함(2020년 동기 대비 13% 증가)
  - 이어서 보일러 및 기계가 187억 달러 기록(2020년 동기 대비 45% 증가), 철강제품은 155억 달러(2020년 동기 대비 98% 증가) 수출을 기록함
  - 반대로 수입이 가장 증가한 품목은 광물 연료로 365억 달러(2020년 동기 대비 132.6% 증가), 보일러 및 기계 267억 달러(2020년 동기 대비 39.2% 증가), 철강 223억 달러(2020년 동기 대비 84.6%) 증가

## □ 2021년 하반기 예측 및 시사점

- 주요 기관들은 튀르키예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해 발표하며,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은 4.5%→5%,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5%→5.5%, S&P Global은 3.6%→6.1%로 각각 상향 조정함

### 〈튀르키예 2021년 1~6월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15,021	15,956	18,966	18,768	16,498	19,773
수입	18,085	19,305	23,626	21,843	20,627	22,661
교역수지	-3,063	-3,349	-4,661	-3,075	-4,129	-2,888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 또한 주요 경제기관들은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미 환율의 변동과 수출입의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요 외신들은 충분한 외화보유고 확보 또는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이 튀르키예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음
- 그럼에도 백신 접종률이 지속 증가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고용 기회도 증가해 실업률도 동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내수 시장 활성화까지 이루어질 경우 경기 회복에는 큰 힘이 될 것이나 튀르키예 정부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조정 및 관리 방안 등에 지속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마. 2022년 인플레이션 진행 현황

### □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연말까지 현재 수준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2021년 12월 외환위기 후 튀르키예의 물가가 치솟았으며, 2022년 3월 인플레이션율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2021년) 대비 61%를 기록함
- 또한 로이터 통신은 31명의 경제 전문가들에 2022년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전망 문의 결과 2022년 말에는 55.5%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

## □ 튀르키예 정부는 기저 효과로 인한 경제 성장을 전망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

- 튀르키예 정부는 새로운 경제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아래 두 이유로 경제 악화를 전망
  - 2022년 2월 지정학적 위기 발생 전부터 튀르키예 당국의 비전통적 경제 정책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에 노출됨
  - 2022년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러-우전쟁으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 등의 영향

## □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튀르키예의 소득분배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알려짐

- 2022년 1/4분기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저 임금, 공공 부문의 급여, 연금 수령자들의 구매력이 하락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됨
- 반면, 은행규제감독국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2022년 1월, 2월 간 390억 리라(한화 약 3조 2,912억 원)의 순이익을 낸
- 증권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수익은 2021년 대비 7배, 전기 부문 6배, 기초 산업 부문의 이익이 4.5배 증가함

## 바. 2021년 경제 성장을 전망

-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Fitch Ratings)가 올해 튀르키예의 성장률 전망을 7.9%에서 9.2%로 상향 조정
  - 피치가 발행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2021년 9월호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경제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튀르키예가 2021년에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피치는 앞선 2021년 8월 13일 튀르키예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6.3%에서 7.9%로 한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 상승 모멘텀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경제성장률은 2022년 3.5%로 후퇴한 후 2023년 4.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높은 성장률이 물가상승을 동반한다는 점에 주목
  - 튀르키예의 연간 인플레이션 예측은 2021년 17.2%, 2022년 13.4%, 2023년 10.5%로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2023년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사. 튀르키예 제11차 경제개발계획

### □ 제11차 경제개발계획 변화와 방향

- 튀르키예 정부는 2019년 7월 8일에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19-2023)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음
  -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더 공정하게 분배하는, 더 강성하고 번영하는 튀르키예” 라는 비전 아래 자주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경쟁력과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거시경제적 목표를 설정. 제10차 경제개발계획과 비교했을 때 GDP, 1인당 GDP, 수출, 실업률 등 일부 주요 경제지표가 변동된 것을 볼 수 있음

### 〈튀르키예 경제개발계획 10차, 11차 비교 및 현황〉

(단위: USD, %)

구분	제10차 경제개발계획 2023년 목표(2013)	제11차 경제개발계획 2023년 목표(2018)	현황
GDP	2조	1조800억	7,840억(2018)
1인당 GDP	25,000	12,484	9,632(2018)
수출	5,000억	2,226억	1,680억(2018)
실업률	5	9.9	14.1(2019.3.)
물가상승률	9.9	5	15.7(2019.6.)

(자료: 튀르키예 대통령실 전략예산위원회 제11차 경제개발계획 보고서, 튀르키예 통계청 자료 종합)

- 튀르키예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인적 자원, 환경, 사법 부문을 포괄하는 전반적 개혁을 해 생산 효율성 증대와 자국 기술 보유 및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 대국 반열 진입을 목표로 함

## □ 5개 분야 개발 목표 및 주요 계획

분야	목표	주요 계획
경제	재정, 소득, 대외 무역정책을 강화	-수출 지향 성장을 통한 자주적이고 강력한 경제 모델 설립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관광수입을 늘려 경상수지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기술이전 위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산업	경쟁력과 생산효율 증대를 위한 구조적 변화와 복지 향상	-우선 육성산업 위주 신용보증기금 집중 투입 (제조업 분야에 전체 기금의 50% 투입) -중소기업진흥청(KOSGEB) 자금의 제조업 분야 투입을 75%까지 증대 -효과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구조 강화,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 -산업단지 내 장기 토지 및 건물 임대 통해 산업단지 안정화
인적 자원	인적자원 강화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복지	-5세부터 의무교육 시행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의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 개선과 사회적 격차 해소
환경	환경보호, 도시와 농촌 지역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개발 불균형 감소	-지역별 개발 사업을 진행해 지역의 사회경제 발달 장려 -농촌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도시형 인프라 구축, 삶의 질 개선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환경 의식을 향상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지역 선별 및 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 구축
사법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모든 정부 기관들이 운영되며, 참여 의식과 투명성, 책임감 있는 정부	-NGO활동 지원 및 활성화 -대통령실 민원센터(CIMER) 홍보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자료: 튀르키예 대통령실 전략예산위원회 제11차 경제개발계획 보고서)

## □ 제조업 육성 방향

- 이번 정책에서 튀르키예 정부는 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주요 제조업을 집중 육성 산업으로 채택해 중간재의 국산화, 해외직접투자 유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발표함
- 중간재는 튀르키예 연간 수입액의 80%를 차지하는 경상수지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이에 정부는 국산품 사용 장려, 정부 입찰 시 국산품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중간재)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함
-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다양한 구성 주체가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혁신을 창조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 외자 유치,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화를 목표로 함

## □ 집중육성산업

- (화학) 화학 분야의 중간재 수입량을 축소하고 첨단소재 개발 생산 장려
  - 추쿠로바(Cukurova) 지역에 대규모 석유 화학 단지 건설 예정이며, 제이한(Ceyhan) 에너지 특화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
  - 첨단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생산설비 자금 지원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링과 산업 내 보건협회의 역할 확대
  - 신약, 의료기기 개발 시 공동 사용 가능한 기술 시설 설립, Health Valley 건설 계획 중
  - R&D, 생산 및 교육 활동, 창업 활동에 대해 자금 지원
- (기계) 백색가전 부문 특화, 국산제품 사용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계의 국산화와 기계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정부 차원에서 백색가전 부문 생산 증대를 위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 수립 예정
  - 공공기관 내 엘리베이터, 실내 공기조절기의 국산 사용을 강제하며 공공 입찰이나 투자 프로그램 참여시 국산 기계 우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제한적인 수로 지원·운영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5개의 대규모 클러스터 프로그램 시행 예정
- (자동차) 특정 품목 R&D 지원, 국산화 실시
  - 자동차용 센서, 전기차용 배터리, 연료 전지,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과 생산성 증대시켜 국제 경쟁력 향상
  - 국산 브랜드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시행 예정

- (철도 시스템) 튀르키예 내 철도 시스템과 열차의 국산화
  - 보기 대차, 열차 제어 시스템, 승객 안내 시스템, 기압 시스템, 열차 디자인, 시스템 통합 등 열차 시스템과 열차 전반에 대한 요소 국내 생산 실현
  - 2023년까지 국산 전동차 생산, 전동차의 대량 생산, 고속열차 프로토타입 출시 예정

## □ 시사점

- 튀르키예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만들어진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은 10차에 비해 몇몇 거시경제지표가 하향 조정됐으나 실제적인 목표 설정을 통한 튀르키예 정부의 발전 의지가 담겨 있음
  - 정책들은 경제, 산업, 인적자원, 환경, 사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모두 생산 효율성 증대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은 제조업 육성으로 주요 물품 국산화와 산업단지 형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제조업 육성의 핵심임
  - 산업 전반의 중간재 국산화 및 수입량 축소를 위해 R&D, 생산 자금 지원, 국산 구매 시 기계의 경우 15%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장려함
  - 산업단지를 형성(클러스터링)해 해당 지역에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하며 집중적으로 육성 및 외국 기업의 기술 및 설비 투자 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해 국외 자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노력 중
- 튀르키예 정부의 주요 물품 국산화 움직임에 따라 한국 기업은 기존의 단순 물품 판매에서 벗어나 합작투자(JV) 설립, 기술이전 등 직접투자 고려 필요

## 아. 최근 경제 동향

- 2021년 튀르키예 경제는 대외 수출 증가, 제조업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9.1%를 기록
  - 2021년 기준 수출 2,252억 달러, 수입 2,714억 달러로 전년(2020년) 대비 수출 32.8%, 수입은 23.6% 증가
- 튀르키예 정부는 2021년 4월 거시 경제지표 개선, 산업 생산 역량 강화 중점 “경제개혁 2021”을 발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 물가안정 정책,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부 정책 추진 중임

## 자. 향후 경제 전망

-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와 역행하는 저금리 정책 운용으로 자국 통화 평가절하 지속 전망
  - 정부는 2023년 대선 정책적 목적 등으로 추가 금리 인하 단행 예상
  - 2021년 12월부터 튀르키예 정부에서 실시하는 환율 변동 차액 보상제는 예산 확보 대책 부재 등 정책의 실효성이 불확실하기에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 통화량 증가, 천연가스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지속 예상
  - \* 2022년도 예상 인플레이션은 14.6%(KPMG) / 15.7%(OECD) 였으나 실제는 약 85%(2022.11월) 수준이었음
- 거시경제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비관적인 전망 지속 시, 시중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증가로의 파급효과가 높지 않아 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
  - 중앙은행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및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실질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민간은행은 금리 인상 단행

###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전년대비 %로 표시)〉

(단위: %, 십억 달러)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추정)	2023(예측)
국내수요	-0.8	-1.4	-2.7	6.8	5.2	5.4
민간소비	0.0	0.7	-4.2	6.3	4.7	4.3
고정투자	-0.6	-12.4	-2.4	7.7	4.8	5.0
정부지출	6.6	4.4	9.5	-0.6	2.2	2.5
수 출	7.8	6.4	-14.1	14.2	5.1	2.7
수 입	-7.8	-3.6	-4.4	15	4.2	4.5
GDP	2.8	0.9	-5.1	6.7	5.4	5.0
산업생산량	1.1	-0.6	-4.1	5.5	3.4	3.4
소비자 물가지수(%)	16.3	15.2	10.9	9.6	9.4	9.4
정부예산 (GDP비중)	-1.9	-2.9	-5.4	-2.9	-2.4	-2.4
무역수지 (십억달러)	-40.8	-16.6	-18	-24.5	-30.5	-40.2
재정수지 (십억달러)	-20.7	8.7	-15.6	-20.9	-25.1	-34.2
단기 이자율(%)	19.3	20.2	8.4	8.8	9.1	8.0
리라/달러환율	4.82	5.68	6.66	7.16	7.41	7.47

(자료: Country Economic Forecast : Turkey, IHS Markit)

#### 가. 튀르키예의 사회

##### 1. 국민성

-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튀르키예인들은 수세기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왔으며, 동서양의 특징을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에 적용해 왔음
- 튀르키예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위계질서를 중요시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중시하며 무사 기질을 존중함

##### 2. 윤리관

- 튀르키예에서는 이슬람교가 전통적 윤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서구화된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계층간 윤리관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며, 대도시의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촌락 및 보수적인 소도시의 거주민들이 전통적 윤리에 보다 구속되고 있음
- 케말 아타튀르크는 세속화 개혁 정책을 통해 튀르키예인의 변화를 시도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적 가치가 여전히 튀르키예인들의 사고방식을 좌우하고 있음
- 튀르키예인의 윤리는 이슬람교도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규정하는 코란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앙 생활을 지탱하고 활성화하는 모든 행동규범을 권장하고 있음. 종교윤리에는 의무행위 및 권고사항, 중용적 행위, 혐오사항, 금지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튀르키예인은 그들이 ‘신앙의 전사(戰士)’ 라고 일컫고 있는 가지(Gazi)의 정신을 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Gazi의 자세는 군인 및 개척자, 신앙의 수호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정신이며, 이와 더불어 절제 및 용맹, 충성심, 과감성을 함께 지녀야 함
  - 이러한 Gazi정신은 튀르키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윤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슬람의 정의구현에 있어서도 필수적 요소로 지목되고 있음

- 대부분의 튀르키예인은 전통적인 명예 윤리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사회에 있어서 명예란 가족 및 예절, 또 자존심이라는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음
- 이러한 명예에 대한 개념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소 다르게 적용되어, 남성이 보다 명예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임

### 3. 관습 및 예절

- 대부분의 튀르키예인은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 손님은 문쪽에 신을 벗어 놓고 슬리퍼를 신으면 됨
- 그러나 주인은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라도 역시 신발은 벗는 편이 좋음
- 튀르키예인들은 손님접대를 정성껏 하는 편이며, 손님 접대시에는 꼭 튀르키예차(茶)나 커피를 대접함. 튀르키예인을 방문할 경우, 사탕이나 과일, 꽃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 4. 가족

- 1927년 스위스 민법을 받아들임으로써 1930년에 일부다처제가 폐지되고, 1934년에는 여성에게 이혼 권리를 부여했으며 민사혼(民事婚)이 도입됨
- 튀르키예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농촌의 전통적인 사회구조는 가부장제의 대가족으로서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 되며, 농촌에서 가족의 존재는 소규모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노동력의 제공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짐
- 튀르키예인들은 가족과 친족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가족 및 친족의 존재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소규모 집합체로 여겨짐
- 대체로 가족 구성원은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며 집안 및 개인 대소사 관련 연장자와 상의하여 결정함

- 튀르키예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젊은 계층 사이에서는 대가족보다는 독립된 핵가족을 선호하며,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5. 결혼

- 튀르키예의 법률은 결혼 연령을 남·여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에 따라 한 쌍의 남녀가 미혼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에는 교육 및 군복무 기간, 안정된 직업선택 등의 문제로 점차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6. 가옥 구조 및 도시생활

- 튀르키예 가옥의 형태와 구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곳은 북부 산악지대와 흑해 연안임
- 건축자재로는 주로 목재를 사용하며, 튀르키예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 가옥은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음
- 대부분이 단층 및 이층집이며, 지붕이 납작하고 벽이나 담은 흙, 벽돌, 돌을 사용함
- 튀르키예의 가정에서는 넓은 방을 집안 어른이 사용하며, 대부분의 집에는 응접실이 하나씩 갖추어져 있고, 이곳에서 손님들을 접대함
-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튀르키예의 대도시들에는 세계의 여타 대도시와 다를 바 없이 대규모 아파트, 빌라 등이 조성되어 있음



## 나. 튀르키예의 종교

### 1. 세속주의 이슬람교

- 튀르키예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국가로서 1923년 헌법에서 이를 선언했으나 전체 국민 대다수(90% 이상)가 수니파 무슬림임
- 튀르키예의 법률이나 사회기구가 이슬람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종교적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움
- 1961년 개정 헌법 제19조는 “모든 개인은 양심, 신앙과 의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종류의 예배나 종교행사 및 의식은 도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이다” 라고 명시함
  - 이로써 튀르키예의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됨

### 2. 종교와 국민생활

- 튀르키예 정부는 1924년 총리실 산하에 종교업무국을 신설하고 이곳을 통해 국민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함
- 종교업무국은 580개의 행정구역에 종교관리인 뤼푸튀를 임명하여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각 행정 구역에는 이맘(Imam)을 두어 뤼푸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
  - 2018년 대통령제 중심으로 정치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종교 업무국 또한 대통령실 소속으로 전환되었음
- Imam은 행정관리체제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종교업무국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종교 업무국은 이슬람 교회의 모든 성직자 관리, 코란(Koran) 강의, 방송설교 및 종교서적의 출판을 지도하기도 함
- 1933년 폐교되었던 Imam 양성학교는 1951년에 재설립되었으며, 1949년에는 앙카라 대학교에 이슬람교 신학대학이 설립되어 고위 종교 지도자를 배출시킴
  - 최근에는 이러한 신학대학의 정원이 급증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3. 비이슬람 종교

- 1923.7월 로잔 회의 결정으로 튀르키예 내 그리스인,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튀르키예 내 소수민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 주민은 대대로 믿어왔던 종교를 신봉하며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행사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음
- 기독교인은 주로 그리스 정교도와 아르메니아인, 가톨릭교인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대부분이 이스탄불 및 이즈미르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음
- “세속주의 견지” 라는 국시를 달성하기 위해 8년제 의무교육제 실시와 정교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교활동, 특히 비이슬람 종교의 선교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실임

### 다. 튀르키예 언어

- 튀르키예 인구의 약 90% 이상이 튀르키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음
  - 시골 및 동부, 남부의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쿠르드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구의 약 7% 정도가 이에 해당함
  - 또한 인구의 약 1%가 아랍어를 쓰고 있으며, 주로 동남부 아나톨리아에서 사용되고 있음
  - 이외에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극소수 주민들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청 및 일류 호텔, 항공회사 등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이 통용됨
- 페르시아어, 아라비아어의 영향을 받아 어휘 변화가 많고 모음조화가 풍부하며, 성별의 구별 없이 어미변화를 함
- 튀르키예어는 형태 및 음성적 특성상 알타이어족에 속하며, 몽골계, 한국어·일본어 등 통구스계 언어와 상호 관련되어 있음
- 튀르키예어와 아랍어 사이의 음성학적 차이와 튀르키예어를 아랍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튀르키예인의 발음상 문제점 등이 튀르키예어를 단순화시키고 튀르키예어 문자를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1923년 튀르키예공화국이 선포되면서부터 문자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1928. 11. 3. 의회에서 언어개혁법이 통과됨으로써 현재의 튀르키예어가 탄생함
  - 아타튀르크는 지속적인 문자혁명 노력을 통하여 문맹률을 현저히 감소시킴
- 아랍어의 영향을 받아오던 튀르키예어에 대한 언어적 자정 노력은 외부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옴
  - 특히 19세기 초 정치 · 문화적 개혁이 시작되면서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튀르키예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튀르키예어에 사용되고 있던 외래어를 배척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라. 튀르키예 교육

### 1. 교육여건

- 튀르키예의 교육여건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도시와 지방간 교육 시설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1923년 튀르키예공화국 건국 당시에는 국민 10명 중 1명만이 아랍어 표기에 의한 책을 읽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의 약 90% 이상이 라틴문자 표기에 의한 튀르키예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음
- 튀르키예에서는 2012~2013학년도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 · 중등 교육과정을 4+4+4 시스템(초등학교 4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4년)으로 개편함
  - 초등교육(8년)과 중등교육(4년)은 의무교육으로 무료이며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17.2월 튀르키예 정부가 초 ·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선택에 한국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중고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18.9월부터 희망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을 치른 후 합격된 자에 한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튀르키예에 현재 193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오래된 대학은 1453년에 설립된 이스탄불 대학임

## 2. 각급 학교별 교육제도

### 1) 초등교육

- 2012~2013학년도에 실시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 기간을 기존 초등교육 8년에서 중등교육기간 포함 12년으로 연장했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72개월) 이상에서 만 5세(66개월)이상으로 낮추었음
- 초등학교 때부터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급학년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2) 중등교육

-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을 이수한 자가 의무적으로 진학하여야 하며,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루어짐.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 및 기술 고등학교로 구분됨
-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학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함

### 3) 고등교육

- 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으로서, 소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학비 전액이 무료이며,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후 다른 전공을 공부하기 위하여 다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정부 주관의 대학 입학시험을 치룬 후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신입생들은 다시 별도의 영어시험을 치러야 하며,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신입생은 1년간 영어교육을 받고 필요 점수를 획득한 후 정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 튀르키예 정부는 1981. 11. 6. 제2547호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위원회(YÖK)를 설치하여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 고등교육위원회는 대학의 발전 및 평가, 예산투자, 사업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마. 튀르키예 언론

### 1. 역사

- 1831년 오스만 제국은 최초 신문인 Takvim-i Vakayi(탁빔이-와카이, 사건일지)를 5개 국어(프랑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아르메니아어, 그리스어)로 발간함
  - 1840년에는 최초의 민간신문인 Ceride-i Havadis(제리데이-하와디쉬, 뉴스페이퍼)가 발간되었으며, 현재는 Hürriyet, Milliyet 등 전국지 22개 신문이 발행됨
- 한편, 방송분야는 라디오 방송 관계법이 1925년 제정되어 1927년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실시되었으며, 1963년 국영 튀르키예 라디오 텔레비전 공사(TRT)가 설립되어 1968년 최초의 TV 방송을 시작함

### 2. 현황

#### 1) 신문

- Hürriyet(Freedom)
  - 창간일 : 1948. 5. 1.
  - 발행인 : Erdogan Demiroren
  - 편집인 : Yurtsan Atakan
  - 발행부수 : 186,061부
  - 독자층 : 지식인층 포함 일반대중
  - 보도성향 : 중도
  - 참고사항 : 튀르키예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신문으로 일반대중이 보편적으로 보고 있음
  -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 보도를 하려고 노력. 휴리엣 인터넷 신문은 튀르키예에서 가장 많이 보는 웹페이지 중 7위이며, 2011년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중 4위이나, 2018. 4. 동 신문사가 친정부기업에 매각됨
  - 소속 : Demiroren Holding 社
- Sabah(Morning)
  - 창간일 : 1985. 4. 22.
  - 발행인 : Cemal Kalyoncu
  - 편집인 : Erdal Safak
  - 발행부수 : 187,939부

- 독자층 : 일반대중
- 보도성향 : 친정부
- 소속 : Turkuvaz Haberlesme ve Yayıncılık 社

○ Sözcü(Spokesman)

- 창간일 : 2007. 6. 27.
- 발행인 : Burak Akbay
- 편집인 : Metin Yilmaz
- 발행부수 : 175,765부
- 독자층 : 지식인
- 보도성향 : 진보
- 참고사항 :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대표적 언론사
- 소속 : Dora Telekomünikasyon 社

○ Posta(Post)

- 창간일 : 1995. 1. 23.
- 발행인 : Erdogan Demiroren
- 편집인 : Emre Iskeceli
- 발행부수 : 113,773부
- 독자층 : 일반대중
- 보도성향 : 중도
- 소속 : Demiroren Holding 社

○ Türkiye(Turkey)

- 창간일 : 1970. 4. 22.
- 발행인 : Ahmet Mücahid Ören
- 발행부수 : 110,900부
- 독자층 : 독실한 이슬람 신자
- 보도성향 : 보수
- 참고사항 : 이슬람교와 튀르키예 문화에 큰 비중을 두어 보도하며, 간혹 일부 종파에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함
- 소속 : İhlas Holding 社

- Milliyet(Nationality)
- 창간일 : 1950. 5. 3.
- 발행인 : Erdoğan Demirören
- 편집인 : Mete Belovacikli
- 발행부수 : 118,172부
- 독자층 : 지식인, 중산층
- 보도성향 : 중도
- 소속 : Demiroren Holding 社

## 2) 통신사

### 가. Anadolu Ajansi(AA : Anatolian News Agency)

- 半관영 통신사로 튀르키예의 독립전쟁중이던 1920. 4. 6. 아타튀르크에 의해 설립된 튀르키예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신사
- “Anadolu Ajansi will herald Turkey’ s voice to the World.” 라고 아타튀르크가 언급
- 1950년 튀르키예에 다당제가 도입된 후 친정부적인 보도성향으로 야당측의 비난 표적이 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AP, Reuters, AFP, DPA, ITAR-TASS, KYODO, ATA, 한국 연합뉴스 등 전 세계 주요 통신사와 업무 제휴

### 나. Doğan Haber Ajansi (DHA: Dogan News Agency)

- Hürriyet News Agency와 Milliyet News Agency의 합병으로 1999년에 설립된 2018년부터 Demiroren Holding 社 소속 통신사
- 튀르키예 내 34개의 지국이 있으며, Dogan사 소속 통신사, 방송국, 라디오를 포함한 튀르키예의 다양한 매체들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음

### 다. İhlas News Agency(IHA)

- 1993년 설립되어 국내에 57개, 해외에 11개 지국을 두고 있으며, 주로 국영 TRT와 민간 라디오 방송국, 일간지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음

라. Ankara Agency(ANKA)

- 1972년 창설되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을 대상으로 뉴스를 제공함

3) 라디오 및 TV 방송국

가. 튀르키예 국영 라디오 · 텔레비전 공사(TRT)

- 창립 : 1964년
- 라디오 : 11개 채널
- TV : 14개 채널이 있으며, 튀르키예어, 쿠르드어, 아랍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여러 언어로 방송

나. Radio Anadolu

- 1992년 설립되어 영어, 불어, 독일어로 유럽지역에 방송하며, 중앙아시아의 튀르키예어 사용권에도 방송하고 있음

다. 민간 TV 방송국

- 튀르키예 전역을 시청권으로 하는 방송국은 52개이며, 지역을 시청권으로 하는 방송국은 80개임. 대부분은 1990년 이후에 개국됨
- 1999.10월부터 CNN의 튀르키예어 방송(CNN Türk) 개국

라. 유선방송

- 1991년 이후 시작되어 가입자 수는 약 270만 명임(2021년 기준).

마. 위성방송

- CNN, CNBC, BBC, Eurosport등 46개 외국 방송 수신 가능. 그 중 한국 방송은 2개 채널(KBS World, Arirang TV) 수신 가능



## 4 산업 동향

### 가. 2021년 튀르키예 산업 개관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업이나, 정부정책 하 제조업 지속 발전 중
- 튀르키예 정부, 육성정책과 규제를 적절히 활용해 자국산업 육성 추진중

#### □ 튀르키예 산업 구조

- 튀르키예는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문화유산 덕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을 보유하고 있음
- 덕분에 관광, 호텔산업 등이 발달하여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60%에 이룸. 한편 튀르키예는 제조업 또한 발달했는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함
- 최근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제조업 비중이 향상 중
- 그 외, 사계절이 뚜렷하고 국토 면적의 50%가 경지면적인 튀르키예는 농업도 발달하여 GDP의 10%가량을 차지

#### 〈튀르키예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배 경	현 황
서비스업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유산, 자연경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 발전</li> <li>▪ 외국인 관광객('20년, 1,582만명)</li> <li>▪ 관광매출수익('20년, 120억달러)</li> </ul>
제조업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장려 정책 및 외자유치</li> <li>▪ 내수(8천4백만명), EU관세동맹</li> <li>▪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성품 중심의 제조업 발달</li> <li>▪ 중간재 수출입 비중高 (70%)</li> <li>▪ 자동차, 가전, 섬유, 철강 발달</li> </ul>
농림수산업 및 기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면적의 50% 경지면적</li> <li>▪ 농업에 대한 장려 정책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류, 채소류의 생산 중심</li> <li>▪ 총 수출액의 12% 규모 차지</li> </ul>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 □ 대외의존도

- EU(유럽연합)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2021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약 61.87% 기록함
- 이와 별개로 튀르키예 관광산업 기준 대외의존도는 독일, 러시아 등에서 온 방문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對 튀르키예 대외의존도〉

(단위 : %)

국가명	2019	2020	2021
전체	51.83	54.28	61.87
EU(유럽연합)	22.08	19.99	22.23
독일	4.76	5.26	5.12
중국	2.9	3.61	4.47
러시아	8.57	3.12	4.33
미국	2.76	3.03	3.47
영국	2.24	2.35	2.40
한국	0.89	0.95	1.07
일본	0.47	0.58	0.61
카타르	0.21	0.19	0.21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2022 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대외의존도 : 수출입합계/ 명목 GDP

## □ 대외 무역 동향

- 연도별 수출입 동향
- 2021년 기준 수출 2,252억 달러, 수입 2,7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 32.8%, 수입은 23.6% 증가하였으며, 대외무역 적자는 4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함
- 2018년 이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입 쿼터제 시행 및 추가 관세부과 등으로 수입산 제품 수요는 감소하여 대외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튀르키예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무역적자 다시 증가함

### 〈튀르키예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149,247	164,495	177,169	180,834	169,637	225,264
수 입	202,189	238,715	231,152	210,345	219,516	271,422
무역수지	-52,942	-74,221	-53,984	-29,511	-49,873	-46,158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2022 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국가별 무역 동향

- 독일이 튀르키예의 최대 교역 국가이며, 이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EU 국가들에 대한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음
- 2019년까지 튀르키예의 최대 수입국 1위는 러시아였으나, 2020년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주요 국가별 튀르키예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FOB 가격 기준)				수입( FOB 가격 기준)			
	국가명	2020	2021	증감률	국가명	2020	2021	증감률
	전체	169,482	225,264	32.9	전체	219,397	271,442	23.7
1	독일	15,975	19,317	20.9	중국	23,020	32,239	40.0
2	미국	11,237	14,719	31.0	러시아	21,714	28,959	33.4
3	영국	10,184	13,705	34.6	독일	17,859	24,386	36.5
4	이탈리아	9,135	11,474	25.6	미국	11,518	13,148	14.2
5	이라크	8,075	11,131	37.8	이탈리아	9,190	11,561	25.8
6	스페인	7,193	9,627	33.8	인도	8,202	7,936	-3.2
7	프랑스	6,686	9,120	36.4	프랑스	7,769	7,931	2.1
8	네델란드	5,190	6,768	30.4	한국	6,978	7,597	8.9
9	이스라엘	4,701	6,356	35.2	스페인	5,732	6,311	10.1
10	러시아	4,495	5,775	28.5	벨기에	5,604	5,628	0.4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2022 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품목별 무역 동향

- 주요 수출 품목 : 자동차, 기계류, 철강, 전자기계장치 등

**<튀르키예의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HSCODE	품목	2020	2021	증감률
1	8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2,079	25,030	13.4
2	84	기계 및 기계부품	16,783	20,778	23.8
3	72	철 강	8,812	17,075	93.8
4	85	전자기계장치	9,300	12,013	29.2
5	71	귀금속(금)	6,693	10,962	63.8
6	61	의류(니트)	8,360	10,784	29.0
7	39	플라스틱류	6,962	10,016	43.9
8	73	철강제품	6,357	8,802	38.5
9	27	광물연료	4,715	8,516	80.6
10	62	의류(니트외)	6,578	7,515	14.2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2022 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주요 수입품목 : 광물성 연료, 기계류, 철강 등 원자재 및 중간재

### 〈튀르키예의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HSCODE	품목	2020	2021	증감률
1	27	광물성 연료	28,931	50,691	75.2
2	84	기계 및 기계부품	25,249	30,965	22.6
3	72	철 강	15,103	27,617	82.9
4	85	전자기계장치	17,118	19,966	16.6
5	39	플라스틱류	11,731	17,590	49.9
6	8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15,282	15,594	2.0
7	29	유기화학제품	5,887	9,342	58.7
8	71	귀금속(금)	26,590	7,073	-73.4
9	30	의약품	4,957	6,874	38.7
10	76	알루미늄	3,407	6,592	93.5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2022 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 품목 유형별 무역 동향

- 튀르키예는 중간재, 완성품 등 제조업 생산품 위주로 수출
- 유형별 무역 동향은 전년(2020년)과 비교해 증가 양상

### 〈튀르키예의 품목 유형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

유형	2020		2021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자본재	19,782	11.7	24,845	11.0	25.6
중간재	80,276	47.4	115,206	51.2	43.5
완성품	68,210	40.2	83,866	38.2	23.0
기 타	1,214	0.7	1,345	0.6	10.8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2022 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반면, 수입은 제조업 생산을 위한 중간재 위주로 진행

### 〈튀르키예의 품목 유형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

유 형	2020		2021		증감률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자본재	31,811	14.5	35,946	13.2	13.6
중간재	162,924	74.3	210,149	77.4	29.0
완성품	24,095	11.0	24,939	9.2	3.5
기 타	567	0.2	387	0.2	-31.7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2022 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 튀르키예의 산업 육성책

- 튀르키예는 산업 전체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각종 육성책을 매년 발표
  -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며, 매년 특정 산업 및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 〈튀르키예 내 주요 산업 육성책〉

구분	주요 내용
중장기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부가가치 중간재 산업 육성 정책</li> <li>②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19-2023)</li> <li>③ 신경제정책(2021-2023)</li> </ol>
주요 산업별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터키 산업·기술 발전 전략 2023</li> <li>② 그린 뉴딜 행동전략 2021</li> <li>③ 2019-2022년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 및 시행 계획</li> <li>④ 2019-2023년 의료업 발전 전략 계획</li> </ol>
기타 규제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터키 투자지원정책 일부 변경</li> <li>②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기준 변경</li> </ol>

(자료: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자료)

주: '터키'는 '튀르키예'로 국명 수정

## □ 서비스업

- GDP 대비 산업 비중이 가장 컸던 관광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음
- 지난 2020년의 경우 튀르키예의 관광 특수인 5-10월에 접어들 때면 코로나19도 소강상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심화되어 튀르키예 내 자체적으로 부분적 통행금지 및 도시간 이동금지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신경제계획을 통해 튀르키예 관광산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발표

## □ 제조업

- 2019년 7월 발표된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 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음
-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중간재 수입으로 인해 큰 폭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기계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산업 육성 집중 추진 중
  - 특히 기계 등 high-Tech 분야 제조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High Tech 산업 투자 촉진 중
- 또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튀르키예 교육부는 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을 확보할 계획임
- 이를 통해 튀르키예는 산업부문 수출에서 첨단 제품의 점유율을 현행 39%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 투입 및 기관 등을 설립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정부는 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여 여러 정책들과 민관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스탄불 공항, 보스포루스 해저터널, 차나칼레 대교 건설 등 기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외에도 즈미르 베이 크로싱, 이스탄불 대운하 프로젝트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 발주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직접적인 산업 육성정책 외에도 관세 및 수입규제 조치를 양면적으로 활용해 산업 육성에 활용 중에 있음
  - 경쟁력이 부족한 석유화학, 섬유 등의 분야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셰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 해외 물품 수입을 줄이고, 국내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중임
- 2018년 자국내 제조가 어려운 중간재 1,88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관세 및 수입규제에 관한 양면정책 활용하고 있음

### 〈튀르키예 관광산업 강화 주요 정책〉

- 5-10월에 국한되어 있던 튀르키예 관광 시즌을 확대시켜 12개월 내내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확대 및 관광객 유치, 튀르키예 스포츠 관광 인벤토리 발행, 튀르키예의 스포츠 관광 홍보
- 한국, 중국, 일본, 인도등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튀르키예 안전 여행증명서를 홍보 및 시행하여 항공편 정상 운행
-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분야별 의료기관 및 의료진 정보를 쉽게 확인, 예약할 수 있는 의료 관광 포털 개설
-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 관광 목적 방문시 입국 절차간소화 검토, 의료 관광객 케어 서비스 국가 차원에서 검토 및 실시

(자료: 2021-2023 튀르키예 신경제계획)

### □ 농업

- 국토의 절반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삼림지역도 약 28% 차지
- 그러나 튀르키예 역시 점차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 지원 역시 감소 추세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튀르키예 농업에 투자된 금액은 250억 달러였던 데에 반해 2019년에는 80억 달러까지 감소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식량 안보가 대두되며 2020년에는 110억 달러로 소폭 증가
  - 튀르키예 정부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21년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농업 폐기물 재사용 및 R&D 확대 등을 목표

- 이와는 별개로 튀르키예 내에서도 산학협력 하에 스마트팜을 연구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연구 초기 단계에 속하며 아직은 기술과 관련 지식 부분에서 발전이 필요함

## □ 진출전략

### 〈튀르키예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li> <li>·글로벌 밸류체인 상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li> <li>·완제품 제조업 발전에 힘입어 인근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 및 기술력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환율 변동성 및 낮은 금융시장 신뢰도</li> <li>·주변국과의 통상·정치적 마찰, 긴장</li> <li>·제한된 자금력</li> <li>·완제품 제조업 대비 취약한 중간재 제조업</li> </ul>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화 가치하락에 힘입어 제조업 수출 지속 성장 전망</li> <li>·디지털 전환 확대로 ICT산업 성장 기회 다대</li> <li>·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 수요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간재 육성정책 강화로 현지진출 제약</li> <li>·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수입 규제</li> <li>·품질경쟁력 강화된 중국산 제품 유입 확대</li> </ul>

(자료: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작성)

## □ 유망분야

- 완제품 제조업은 저렴한 인건비,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관세동맹을 활용해 이전부터 지속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지만 국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점차 국내 기업 우대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임
- 이미 튀르키예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통령실 연간 프로그램, 그린 뉴딜 정책 등을 살펴보면 공공입찰 진행 시 국내 기업 우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지금까지의 움직임으로 보아, 튀르키예는 지속적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튀르키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 및 High-Tech부품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을 고려해볼 만함



- 이후 사업이 안정되면 현지 기업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거나 단독으로 생산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음
- 관광산업의 경우 문화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관광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와 관련된 의료장비 수요도 잠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튀르키예는 인접국에서 각종 수술 및 시술을 위해 이미 많이 찾고 있어, 정밀검사용 영상진단장비 등의 수요가 존재하나 현지에서 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튀르키예에 의료기자재 납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농업은 발달하였지만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전과 관련 장비 및 시스템 수출 등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 나. 2021년 튀르키예 에너지 산업 정보

### □ 산업개요

- 천연가스는 총소비량의 99.21%를 수입(55,249mcm)에 의존
  -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52.9%), 이란(16.8%), 아제르바이잔(11.8%) 등. 주 사용처는 발전용 38.1%, 가정용 25.1%, 산업용 24.8% 등으로 전기 발전량의 37%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튀르키예의 중요자원
- 발전용 석탄은 갈탄(Brown coal, Lignite)와 무연탄(Hard Coal)이 있는데 튀르키예는 갈탄 매장량이 풍부하여 자체 조달하고 있으나 무연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한편 갈탄생산의 83%와 무연탄 수입량의 55%를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석탄발전은 총 발전량의 36% 차지)
-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경우, 수력 26.6%, 풍력 8.4%, 태양광 0.1%, 지열 3.4%, 바이오매스 1.8% 등 총 40.3%의 생산설비 보유

- 그러나 실제 발전량은 전체의 31%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는 계절별 강수량으로 차이로 인한 수력발전에 기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북동부 산악지대의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 대비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편임

## □ 정부의 정책방향

- 정부는 2023년까지 총 120GW의 발전설비를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둘째,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망의 현대화, 기존 수력발전 인프라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전력생산을 확충함
- 한편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하여 천연가스 및 원유의 유통허브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 현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TANAP)은 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간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음
  - 튀르키예는 동 파이프라인을 EU국가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또 하나는 흑해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구축도 관심 대상임
  - 아울러 주변에 이란, 이라크 등 산유국이 여러 개 있어 원유 운송의 허브로도 잠재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2019-2020 터키 전력 생산량>

(단위: GWh, %)

구분	2019	2020	비율	'19/'20 변동
수력	88,850.2	78,087.9	26.6	-12.1
천연가스	56,522.7	69,277.5	23.6	22.6
석탄(수입)	60,381.3	62,466.5	21.2	3.5
석탄(국내)	52,736.6	43,802.6	15.0	-18.6
풍력	21,636.3	24,561.3	8.4	13.5
지열	8,929.7	9,929.4	3.4	11.2
바이오매스	4,266.3	5,228.5	1.8	22.6
태양	194.4	417	0.1	114.5
석유	732.9	314	0.1	-57.1
합계	294,251.3	294,084.7	100	-0.1

[자료: 에너지시장규제청(EPDK)]

주: '터키'는 '튀르키예'로 국명 수정

## □ 진출전략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가스 생산국에 인접,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유통허브</li> <li>· 에너지 시장의 자유경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및 기초기술의 기반 취약</li> <li>· 화석연료 사용 비율이 큰 터키 발전시장</li> <li>·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예산 확보 어려움</li> </ul>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유</li> <li>· 잠재 셰일가스 매장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li> <li>· 지속가능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li> </ul>

## □ 유망분야

### ○ 재생에너지

- 2020년 기준, 풍력발전은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다만, 풍력이외에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는 발전비중은 낮음
-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별 구매단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음

### <재생에너지 구매보장 가격(2021-2025년)>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
5.1달러	8.6달러	8.6달러	5.1달러

[자료: EPDK(에너지시장규제청)]

- 중장기 국가개발정책 ‘Vision 2023’ 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7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을 10GW까지 확대 추진 중에 있음
- 2017년에만 2.3GW의 설비가 설치됨. 이러한 흐름에 따라 튀르키예 현지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도 존재하며 근래에는 튀르키예 민간 기업도 동참하고 있음

- 한편, 튀르키예는 아직 전력생산용 장비 자체 생산이 더딘 상태이므로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현재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확충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갖고 현지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 튀르키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 튀르키예와 러시아의 관계는 다소 복잡함
  - 비록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튀르키예는 반군을 지원하였음
  - 러시아 군용기 격추 등 일련의 대립 양상이 있었으나 정치 외교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함
-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도 튀르키예는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고유의 결제 시스템(MIR 카드)를 도입하거나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데에 합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튀르키예의 방산 기업은 러시아와 대치 구도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인 드론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음
  - 러시아 군함이 흑해에 진입하려고 하자 몽트뢰 조약을 근거로 진입을 막은 바 있음
  - 튀르키예는 평상시 모든 나라의 상선이 영해에 속한 다르다넬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음
  - 그러나 튀르키예가 교전국이 아닌 제3국의 위치에 있다는 전제 하에 몽트뢰 조약 제10조 18항에 의거해 교전국 군함의 흑해 진입을 막을 수 있음
-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철, 천연가스, 곡물 등 튀르키예의 주요 자원·에너지 수입국임

- 특히 천연가스 총소비량의 40%-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튀르키예의 전력발전량 중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전체의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튀르키예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연간 50만 Sm3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수입되기 때문에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수입가격 상승 중임
- 정부는 겨울 에너지 소비량 증가를 대비하여 천연가스를 비축 중임

### 〈튀르키예 국별 천연가스 수입량〉

(단위: 백만 Sm3, %)

연도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나이지리아		기타		합계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전년대비증감률
2017	28,690	51.9	9,251	16.7	6,544	11.9	4,617	8.4	1,344	2.4	4,804	8.7	55,250	-
2018	23,642	47.0	7,863	15.6	7,527	15.0	4,521	9.0	1,668	3.3	5,061	10.2	50,282	-9.0
2019	15,196	33.6	7,736	17.1	9,585	21.2	5,678	12.6	1,756	3.9	5,260	11.6	45,211	-10.1
2020	16,166	33.6	5,321	11.1	11,548	24.0	5,573	11.6	1,358	2.8	8,159	17.0	48,126	6.5
2021	26,343	44.9	9,434	16.1	7,986	13.6	5,987	10.2	1,249	2.1	7,706	13.1	58,704	22.0

(자료: EPDK)

주: Sm3 단위는 60°F에서의 부피를 나타낸 것으로 English Unif scf(standard cubic feet)의 온도 60°F, 대기압력 조건의 부피를 단순히 m3으로 환산해서 나타낸 것.

- 튀르키예는 2021년 기준 러시아(농산물 수입 1위, 약 43억 달러)와 우크라이나(농산물 수입 2위)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음
  - 특히 밀 수입의 86.6%, 보리 수입의 79.5%를 차지
  - 튀르키예에서 밀은 무척 중요한 곡물로 자국민 수요와 더불어 중요한 수출품임
  -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어오는 밀의 공급이 중단되자 자국내 식량안보 확보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 사전 허가 품목으로 지정함

### 〈2021년 튀르키예 주요 농산물 수입 동향〉

(단위: %)

품목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	69.3	17.3
보리	44.4	35.1
해바라기씨앗	3.5	7.9
콩	0.3	13.1

(자료: 튀르키예 농림부)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의 3분의 1을 생산함
- 그러나 우-러 사태로 수출이 중단되자 2022년 6월 7일 튀-러 국방부 장관 곡물 수송 방안이 논의됐고 2022년 8월 1일 체결된 러시아-우크라이나-유엔-튀르키예 협정에 따라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됨
- 우크라이나의 오데사항, 초르노모르스크항, 유니즈항, 피브데니항 등에서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이 가능한 곡물은 옥수수, 밀, 해바라기씨앗임
- 2022년 8월 17일 기준 현재 총 24척의 선박에 곡물을 선적됐으며 이중 9척이 운항 중이거나 튀르키예에 도착했고 나머지는 아직 우크라이나 항구에 위치해 있음
-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이전에는 흑해를 통해 월평균 500만 톤 이상을 수출했으나 곡물수출이 재개된 이후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50만 톤 규모가 선적된 것으로 알려짐
-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이후 튀르키예는 환적수요 급증
-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해 흑해를 통한 해상운송이 막히고 러시아와의 교역통로도 대부분 봉쇄됨. 그러나 최근 튀르키예를 통한 환적운송이 가능해지고 있어 세계 각국의 환적수요가 계속 증가함
- 현지 물류업체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주요 환적항으로는 튀르키예 남부의 메르신(Mersin)항, 남서부의 이즈미르(Izmir)항, 이스탄불 인근의 마르(Mar)항이 러시아로 운송되는 물품의 주요 환적항 역할을 함
- 이로 인해 주요 환적항뿐 아니라 튀르키예 내의 보세창고 수요도 급증하며 보세창고 임대료 또한 전년대비 70% 이상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환적항에 물품이 당도하면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노보로시스크항까지 컨테이너 해상운송이 가능함
  - 현재 이 노선을 이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어려움이 없으며 보험이나 결제도 원활한 편임
- 다양한 제품들이 트럭을 통해 러시아로 운송되고 있으나 거리가 멀고 특히 조지아 국경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길게는 1회 왕복에 30일 정도 소요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운송수단이 무척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지아를 통하는 육로운송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 시사점

-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영향이 튀르키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가격이 상승 중임
-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튀르키예 역시 영향을 받고 있음
- 아울러, 튀르키예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거용 전기요금의 두 배 가량 더 비싼 편으로 더욱 영향을 받는 편으로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튀르키예를 통한 환적 수요가 늘어나며 주요 환적항을 중심으로 국제 물류 비용 상승 및 창고 보관료 등이 높아져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인상된 물류 비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현지 물류업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류 비용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 튀르키예 농림부, 튀르키예 관광부, EPDK, BBC TURKIYE, HURRIYET, TEDAS, ENERJI ATLAS, DUNYA,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스탄불무역관 2022.09.08.)

## 라. 튀르키예의 수입 감시제

- 튀르키예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시행
- 튀르키예 정부 책정 최저 CIF가격 기준 미달 시 감시 증명서 발급 필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튀르키예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수입 감시제는 해외 수출 기업들에는 무척 생소한 제도임
  - 간단하게 말해 튀르키예 정부가 정한 최저 단가 기준 미만인 제품은 정부에서 유통 과정을 감시하는 제도

□ 수입 감시제 시행 배경과 목적

- 튀르키예의 가치기준 감시제(Kiymet kriterli gözetim uygulaması, 약칭 수입 감시제)는 튀르키예 상무부(당시 경제부, 2018년 세관무역부와 통합해 상무부로 전환)의 관보(제25476호) 발표를 통해 2004년 5월 29일 시행
- 수입 감시제는 튀르키예 역내에 유입되는 일부 품목이 튀르키예 시장 내 동일한 품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수입돼 국내 생산자를 위협하고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됨

〈관보 제25476호에 발표된 튀르키예 수입 감시제 시행령〉

Bakanlar Kurulu Kararları			
<b>Karar Sayısı : 2004/7304</b>			
<small>Eklî "İthalata Gözetim Uygulanması Hakkında Karar"ın yürürlüğe konulması; Devlet Bakanlığı'nın 5/5/2004 tarihli ve 24752 sayılı yazısı üzerine, 20/2/1930 tarihli ve 1567 sayılı Kanunun değişik 1 inci, 14/5/1964 tarihli ve 474 sayılı Kanunun değişik 2 nci, 6/5/1986 tarihli ve 3283 sayılı Kanunun 2 nci, 27/10/1999 tarihli ve 4458 sayılı Kanunun 55 inci maddeleri ile 2/2/1984 tarihli ve 2976 sayılı Kanun hükümlerine göre, Bakanlar Kurulu'nca 10/5/2004 tarihinde kararlaştırılmıştır.</small>			
			<b>Ahmet Necdet SEZER</b> CUMHURBAŞKANI
Recep Tayyip ERDOĞAN Başbakan			
A. GÜL	A. ŞENER	M. A. ŞAHİN	B. ATALAY
Dışişleri Bak. ve Başb. Yrd.	Devlet Bak. ve Başb. Yrd.	Devlet Bak. ve Başb. Yrd.	Devlet Bakanı
A. BABACAN	B. ATALAY	G. AKŞİT	K. TÜZMEN
Devlet Bakanı	Devlet Bakanı V.	Devlet Bakanı	Devlet Bakanı
C. ÇİÇEK	M. V. GÖNÜL	A. AKSU	K. UNAKITAN
Adalet Bakanı	Millî Savunma Bakanı	İçişleri Bakanı	Maliye Bakanı
H. ÇELİK	Z. ERGEZEN	R. AKDAĞ	B. YILDIRIM
Millî Eğitim Bakanı	Bayındırlık ve İskan Bakanı	Sağlık Bakanı	Ulaştırma Bakanı
M. H. GÜLER	M. BAŞEĞİOĞLU	A. COŞKUN	
Tarım ve Köylüleri Bakanı V.	Çalışma ve Sos. Güv. Bakanı	Sanayi ve Ticaret Bakanı	
M. H. GÜLER	E. MUMCU	O. PEPE	
Enerji ve Tabii Kaynaklar Bakanı	Kültür ve Turizm Bakanı	Çevre ve Orman Bakanı	

(자료: Official Gazette)

- CIF 가격 기준이 가장 중요
  - 튀르키예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수입 감시제를 시행하는 대상 품목의 HS Code와 가격 기준을 발표함
  -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감시 적용 여부는 튀르키예 시장 내 제품의 생산과 수입량, 유통량, 가격 등을 참고해 정해짐
  - 발표 시 수입 감시제의 적용 기간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으며 불시에 종료될 수도, 혹은 무기한 지속될 수도 있음
  - 수입 감시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기준으로, 가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도되기까지 물품가격, 운반 비용, 보험료 등 일체 비용이 포함된 가격) 기준으로 책정됨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CIF가를 무게(Gross Weight) 혹은 수량으로 나눠 단가가 튀르키예 정부에서 정한 최저 가격을 초과하는지 판단함
- 단가가 튀르키예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가격을 넘는다면 문제없이 역내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최저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품목이 튀르키예 시장에 유입됐을 때 튀르키예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전제로 품목 조사를 개시함
- 상무부에서 조사가 끝난 후 시장에 유입돼도 괜찮다고 판단되면 ‘감시 증명서(Gözetim Belgesi)’ 가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타인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함
- 수입 감시 적용 품목은 통관 시 세관에서 감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와 함께 반드시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감시 증명서가 발급된 제품은 튀르키예 시장에 수입돼 자유롭게 유통 가능하지만 튀르키예 정부에서 시장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해당 제품의 가격 및 동향을 비정기적으로 감시함
- 한편, 수입 감시 대상 품목인데 통상적으로 CIF 가격이 정부 책정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감시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CIF 가격을 높인 후 재검사 요청가능함
- 만약 검사 미통과에도 편법으로 수입되거나, 허위 서류 신고 후 튀르키예 당국에 적발될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입 가격의 2배의 벌금이 부과되고 모든 물품은 당국에 압류됨
- 또한 타인의 감시 증명서를 이용해 수입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튀르키예 당국은 감시 증명서를 폐기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감시제가 지속되는 동안 더이상 감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일반적으로는 CIF가격을 상회해 수입 통관 진행
  - 수입 감시제에 대해 튀르키예 현지 관세사는 가급적 CIF가격을 상회해 수출할 것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감시 증명서 발급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임
  - 수입 신고와 함께 감시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고 튀르키예 상무부에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감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적정 CIF가격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쉽지 않음
  - 감시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감시 증명서에 기재된 CIF 가격 기준과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수입이 불허되기 때문에 감시 증명서를 받아도 수입이 까다로움
- ⇒ 따라서 현지 관세사는 CIF가격 기준을 상회해 수입하는 것이 장기적 거래를 생각했을 때 수출·수입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고, 현재 수입 감시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튀르키예 업체들은 CIF가를 올려 수입하고 있다고 밝힘

## □ 시사점

- 튀르키예는 농업이 발달하고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가공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했으며, 가공무역 분야에는 섬유, 자동차, 가전, 철강 등 제조업이 주를 이룸
- 튀르키예 정부는 산업에 필요한 제품은 관세를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한편, 국내 업체의 생산을 장려 및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시행하거나 시장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사용하는 등 양면적으로 활용함
- 수입 감시제 또한 튀르키예 시장 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 수입 감시 대상 품목은 불시에 발표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튀르키예에 자사 품목 수출 전 시장조사를 통해 적용 대상 품목인지 확인해야 함
  - 대상 품목일 경우 빠르고 안전하게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 책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수출 전 품목 적용 여부 및 자세한 내용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현지 관세사를 통해 및 통관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 튀르키예 상무부, 튀르키예 수입관리국, Mertol Gümrük, Ünsped, Evrim Yazili Danışmanlık,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12.15.)

## 마. 튀르키예 원자력발전소 현황

- 외국 기업과 컨소시엄 맺어 원전사업 추진
  - 일본과 중국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진입한 적 있으나 무산됨
- 튀르키예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 2022년 8월 기준, 튀르키예에는 완공된 원자력 발전소는 없음
  - 하지만 동남부에 위치한 메르신(Mersin)주에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북부 흑해연안의 시놉(Sinop)주에도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임
    - 다만 시놉 원전은 2013년 프로젝트 수주 당시 일본, 프랑스 기업과 컨소시엄까지 체결했으나,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서 2020년에 예상 건설비용 (220억 달러)보다 2배 많은 440억 달러를 제시하여 프로젝트 협상이 중단됐으며 컨소시엄도 해체된 상태임
  - 제3원전은 2015년 당시 에너지자원부 장관이 이스탄불 북서부 트라키아 지역에 위치한 이네아다(iğneada)를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으나,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 및 시민단체의 소송 등으로 무산됨
    - 관련해 현재는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 중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황〉

지역	규모	진행 상황
아크쿠유 (Akkuyu)	4,800MW(US\$ 200억) - 1,200MW원자로 (4기)	- 2010년 러시아 기업(Rosatom)이 수주 - 원자로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함
시놉 (Sinop)	4,480MW(US\$ 220억) - 1,120MW원자로 (4기)	-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이 수주 (프랑스의 아레바 등 참여) - 2020년 사업추진 중단
이네아다 (İğneada)	5,300MW(N/A) - 2x1,250MW, 2x1,400MW원자로 (4기)	- 2015년 중국 기업(불명)과 협약 체결 발표 - 2020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 새로운 건설지 물색 중

(자료: atlasdergisi, Cumhuriyet 등 현지 보도자료 정리)

- 아크쿠유 원전 공사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Rosatom이 수주한 것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음
- 총 4기의 원자로 중 제1기는 빠르면 2023년 완공이 예상됨
-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공사비 조달문제가 언론상에 오르내렸으나 러시아 정부는 총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음을 발표함

〈아크쿠유 원자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진행 경과〉



- 2010년: 튀르키예-러시아 정부 간 아크쿠유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
- 2015년: 양카라에서 양국정부간 합의서 체결(BOO: Build-Own-Operate방식)
- 2017년: 튀르키예 원자력청(TAEK)이 발전소 부지 설계 승인
- 2018년 4월: 양국 정상 참석하에 원자로 1호기 기공식
- 2019년 9월: 원자력 규제청(NDK)이 2호기 건설 승인
- 2019년 12월: 튀르키예 송전회사(TEIAS)와 AKKUYU Nukleer A.S. 간 송전시스템 연결 계약 체결
- 2020년 4월: 2호기 공사 시작
- 2021년 3월: 3호기 기공식(양국 정상 참석)
- 2021년 10월: 4호기 건설 승인 및 공사준비
- 2022년 7월: 4호기 공사 시작

(자료: AKKUYU NUCLEAR ROSATOM)

□ 유관 기관 정보

튀르키예에서 현재 운영되는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으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NDK)와 튀르키예 에너지 원자력 광물연구소(TENMAK)가 있음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

 <p>NDK NÜKLEER DÜZENLEME KURUMU</p>	<p>원자력 규제위원회(NDK) -2018년 No.702 원자력 규제 기관 조직 의무법에 따라 설립됨 -주요 업무로는 원자력, 방사선 및 관련 폐기물 시설의 건립, 운영 및 중단 등의 제반활동 인허가 및 규제, 원자력, 방사선 물질의 추출, 생산, 운송, 저장 및 이러한 물질의 수출입 인허가, 원자력, 방사선 관련 제조업체 및 검사기관 승인 등이 있음</p>
 <p>TENMAK TÜRKİYE ENERJİ, NÜKLEER VE MADEN ARAŞTIRMASI KURUMU</p>	<p>튀르키예 에너지 원자력 광물 연구소(TENMAK) -1956년 NDK의 전신인 Turkish Atomic Energy Commission이 국무 총리 산하에 설립됨 -이후 1956년 원자력청(TAEK, Turkish Atomic Energy Authority)으로 재편되었다가 2020년, 튀르키예 에너지원자력광물연구소 (TENMAK)와 통합됨 -이 기관은 총 5개 연구소로 세분화돼 있는데, 이 중 앙카라대학 및 이스탄불대학 내에 있는 원자력 에너지연구원(NUKEN)이 원자력 기술 전문연구소임 -TENMAK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업을 통해 원자력산업 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최근에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A)와도 협업, 원자력분야의 엔지니어링, 방사능 모니터링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소개한 바 있음 -또한 교육부는 국내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원자력 기술분야의 석·박사 과정을 마련해 고등인력을 양성하고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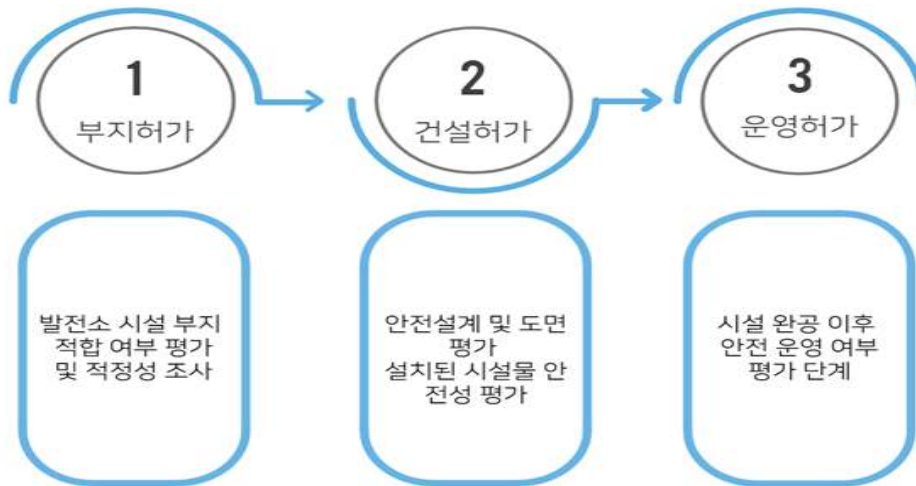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편집)

□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인허가와 운영

- 튀르키예의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인허가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 규제위원회(NDK, Nükleer Düzenleme Kurumu)에서 관할함
-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인허가는 “Regulation on Licens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the Regulation on the Procurement of Equipment for Nuclear Facilities and Approval of Manufacturers (원자력시설 인허가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시설 기자재 조달 및 제조자 승인에 관한 규정)” 조항을 적용함

- 아울러 원자력시설의 허가(License)는 아래 3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단계가 완료되기까지 약 15년이 소요됨

〈튀르키예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단계〉



(자료: NDK)

- 1단계는 부지허가(Location License)로 발전소와 관련된 시설부지 적합 여부를 평가하며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디자인 등도 적정성 조사에 포함됨
- 2단계는 건설허가(Construction License)로 시설물이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됐는지를 평가하고 설치된 시설물 등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이 단계에서는 건설과 생산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Limited Work Permit(제한된 공사허가)이 주어짐
- 3단계는 운영 허가(Operating License)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의 단계로 그 시설물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함
  - 아울러 시설물의 테스트(hot & cold test) 허가, 시설물 연료 반입 및 연료 투입 허가 등이 운영허가 이전에 완료돼야 함

- 시설물에 소요되는 장비의 조달 및 동 장비 생산업체의 승인도 NDK(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담당함
  - 즉, 시설물에 소요되는 장비의 국내 생산(Local Production)을 위해서는 사전에 NDK에 이를 통지해 생산뿐 아니라 생산업체 승인도 취득해야 함
  -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품도 동일하게 NDK의 승인이 필요함
- 튀르키예는 원자력발전소가 없어 현재 발전소 운영업체는 없음
  - 아크쿠유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010년 튀르키예-러시아 정부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시공 및 20년 운영권이 러시아 국영기업 Rosatom에 있음
-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전소 운영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각종 관련 허가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
- Energy Market Regulatory Authority(EMRA, 에너지 시장 규제청): 전기생산, 송전, 배전, 공급 등 전기의 판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승인해 주는 기관
- Turkish Electricity Trade & Contract Corporation(TETAS, 튀르키예 전기 거래 및 계약 공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구매하는 국영기업
- Turkish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TEIAS, 튀르키예 전기 송전회사): 튀르키예 내 생산 전력의 송전을 전담하는 공기업

#### □ 핵폐기물 처리

- 튀르키예는 1989년에 건립된 1개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RAYK: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ordinator)을 운영하고 있음
  - 이 시설은 이스탄불주 외곽에 있으며 산업용, 의료용 물질로부터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의 수집, 분류, 처리, 라벨링 등을 담당함

-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크쿠유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튀르키예-러시아 정부 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아크쿠유 원자력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원자력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독일의 엔지니어링 업체(Nukem Technology)와 러시아 업체(Nikimt-Atomstroy)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처리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 시사점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음
  - 튀르키예의 KONDA Research and Consultancy(여론조사 및 컨설팅 기업)가 2011년, 2012년 및 2018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반대가 각각 57%, 63%, 66%로서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4,800MW급 아크쿠유 원전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라면 2026년 이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임
- 일본기업이 진행하던 시놉원전의 추진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나 튀르키예 정부는 대체할만한 기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튀르키예 내 원전이 건설되기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는 부품 및 장비 생산, 전문인력 육성 등 원전산업의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시점임
- 한국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 튀르키예 원자력 규제위원회(NDK), 튀르키예 에너지 원자력 광물 연구소(TENMAK), atlasdergisi, Cumhuriyet, AKKUYU NUCLEAR ROSATOM,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9.15.)



## 바. 튀르키예 우선 육성산업 세부 계획으로 살펴보는 투자 기회

-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 위주로 선정해 자국 기업의 역량 강화
- 2023년까지 철도산업 내 국산 비율 80% 목표
- 2019년에 발표했던 제1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언급된 이후 정부의 각종 산업진흥정책, 경제개발 프로그램 등에서 등장했던 우선 육성산업이 더욱 세분화됨
- 튀르키예 정부는 제조업 내 원부자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5개의 산업 분야를 우선 육성산업으로 선정했으며 꾸준히 관련 프로젝트를 심화하고 있음
- 앞서 제시됐던 정책들은 개괄적이고 초석을 다지는 정책이었다면 2021년 10월 2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프로그램 2022’ 에 언급된 정책들은 훨씬 세분화되고 구체화됨

### 1. 화학

- 석유화학은 튀르키예 전체 수입액의 14.8%를 차지하는 산업 (2020년 기준)
- 정부 차원에서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도 함
- 특히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산업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화학제품 수입의 40%를 차지할 만큼 수입 의존도가 높음
-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는 화학산업 내 고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기술 고도화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화학산업 육성정책 및 행동지침>

정 책	행동지침 및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rroboron(철과 붕소로 구성된 합금철), 질화붕소, 탄화붕소 생산시설 구축</li> <li>- 정제붕소 제품 생산량 증대 및 품질개선을 위해 R&amp;D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화붕소 생산시설 설립</li> <li>- Ferroboron 생산시설 설립</li> <li>- 붕소 제품 판매량 250 만톤 목표</li> <li>- 희토류 산화물 회수 공정시설 설치 및 시범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산업에 필요한 첨단소재 조사, 국내 자체생산 위해 R&amp;D 및 생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첨단 소재 수요 조사 및 개발 지원</li> </ul>

(자료: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프로그램 2022)

##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의약품 산업은 튀르키예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 꾸준한 국산화 정책의 결실을 맺고 있는 산업 중 하나
- 2016년 기준 튀르키예 의약품 시장 내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는 국산 의약품의 비중이 87.6%까지 증가
- 2021년 1월~8월 기준 튀르키예산 의약품의 비중은 전체의 87.1%로 꾸준히 국산 제품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더욱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글로벌화를 목표하고 있음
- 한편, 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 기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4,500억 달러 규모였던 반면, 튀르키예의 의료기기 시장은 30억 달러에 그쳐 세계 시장 내 튀르키예산 의료기기의 입지는 아직 낮은 편임
- 최근 5년 내 튀르키예의 의료기기 수출은 32% 증가했지만 여전히 국내 의료기기 수요의 5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튀르키예 정부는 산업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 하고 있음

### <의료산업 육성정책 및 행동지침>

정 책	행동지침 및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운전, 사후관리, 인스펙션 및 칼리브레이션 등 전반에 걸친 공인 품질원 설립</li> <li>-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과 양산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산업 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의 R&amp;D를 위한 공인 품질원 설립과 관련 기술 지원</li> <li>-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스타트업 지원</li> <li>- 산업 재산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 식물, 생물, 방사성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 식물, 생물, 방사성 의약품 개발을 위해 기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 기술 의약품 R&amp;D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및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 실험 및 임상 실험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li> <li>- 임상 실험 지원</li> <li>- 바이오 기술 의약품 전문 인적자원 교육 프로그램 구축</li> </ul>

(자료: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프로그램 2022)

### 3. 기계 및 백색가전

- 2020년 기준 튀르키예의 기계류 생산은 209억 달러 규모를 기록
- 생산의 50%는 수출 중으로 컴프레서, 베어링과 톱니, 농업용 기계, 소비가전 및 백색가전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임
- 반면 수입시장 역시 큰 편으로 2020년 기준 177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모터와 터빈, 에어컴프레서, 공작기계 등을 수입함
  - 이 부분에서도 튀르키예 정부는 수입 수요를 줄이고 국산화를 목표로함
- 이미 백색가전은 튀르키예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효자산업이지만 주요 시장은 유럽 및 중동 등 인접국임
  - 튀르키예는 한정적인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목표로하고 있음

#### <기계·백색 가전산업 육성정책 및 행동지침>

정 책	행동지침 및 프로젝트
- 공공 조달청의 국산 기자재 조달 비율 확대	- 공공 조달청 카탈로그 시스템에 등재된 제품 중국 내 공급처 비율 확대 - 공공 조달청 카탈로그 시스템내 국산 기자재 수 확대
- 변압기 및 전동모터 생산에 사용되는 규소강 국내생산을 위해 R&D 지원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투자 모델 설립 추진	- 규소강 생산 클러스터 조성 위해 관련 기업 모집 및 지원 - 변압기와 전동모터 국내 생산하는 기업 대상 R&D 센터 지원 및 투자

(자료: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프로그램 2022)

### 4. 자동차

- 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50만 대 내외의 완성차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지만 국산 승용차 브랜드는 전무한 상황
- 또한 핵심 부품의 대부분은 수입해 조립 후 수출하기 때문에 주요 부품의 국산화는 튀르키예 정부의 중요한 숙제이기도 함

###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및 행동지침〉

정 책	행동지침 및 프로젝트
-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늘리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심층화	- 다양한 업체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프로그램 홍보
-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자동차 기술 학교와 산업의 교류 확대 - 코자엘리, 이스탄불, 부르사 등 자동차 산업공단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기술 학교 설립 증대	- 기술 학교에서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고 협력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산업부 공조 하에 학교와 사업체 간 협력 활동 증대 및 산학협력 자매결연 체결 추진

(자료: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프로그램 2022)

### 5. 철도시스템

- 튀르키예는 시내에서도 트램과 전철이 종종 다니고 도시간 승객 및 물자 이동을 위해 철도가 많이 사용되는 편이나, 대부분 외국 라이선스의 외국계 기업이 생산한 철도 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최근 30년간 튀르키예는 총 12개의 업체로부터 총 2,866대의 철도 차량을 수입함
- 튀르키예도 철도 차량을 생산하기는 하나 주요 노선에는 스페인, 독일, 한국 등 외산 철도 차량이 사용되고 있음
- 튀르키예 정부는 국산 철도차량 생산 증대를 위해 지난 2020년 튀르키예 철도청(TCDD) 산하 5개의 철도 차량 제조 회사를 설립했으며 2023년까지 국산 철도 시스템을 전체의 80%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철도시스템 산업육성 정책 및 행동지침〉

정 책	행동지침 및 프로젝트
- 산업기술부와 교통 인프라부 협력하에 철도 시스템 현황 파악 (신규 발주 및 노후화 차량 선별 등), 이에 따른 조달 계획 수립	- 튀르키예 전역에 걸친 인벤토리 작업 실시 - 지역별, 기관별 철도 차량 수요 조사 - 동시에 국내 기업 철도 시스템 역량 강화

정 책	행동지침 및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국산 전동 열차 양산 시행</li> <li>- 2023년 국산 고속철도 프로토타입 생산</li> <li>- 2023년까지 전철 및 트램 포함해 튀르키예 내 철도시스템의 80% 국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 전동 열차 프로토타입 생산 돌입 및 양산 과정 준비</li> <li>- 튀르키예 과학기술 연구 위원회 (TÜBİTAK) 주도하에 철도 차량 R&amp;D 및 프로토타입 개발 촉진</li> <li>- 225km/h 속력의 고속철 연구 완료 예정</li> <li>- 국산 전철 개발 프로젝트 수립</li> <li>- 국산 트램 프로토타입 개발 실시</li> </ul>

(자료: 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프로그램 2022)

- 현지 투자 컨설턴트 업체 관계자 V.I 씨는 튀르키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착수하고 있다며 2021년 초 튀르키예 산업기술부에서 진행한 ‘기술 중심산업 움직임(Teknoloji odakli sanayi hamlesi)’ 프로젝트를 언급함
-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부터 자동차 및 철도 시스템, 디지털 전환,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됨
- 튀르키예 내 거주하는 기업들만 참가 신청할 수 있는 본 프로젝트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R&D 투자 지원을 하기 위해 개설됨
- 정부는 이 사이트를 통해 국내 기업이 개발해야 하는 제품의 이름과 HS Code, 기계, 소프트웨어 등을 공지하고 기업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V.I 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시한 품목리스트 중 튀르키예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제품도 있어 일부 튀르키예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과 협업해 참가하기도 한다고 함
- 그는 한 튀르키예 기업은 빛 감지 센서 개발을 위해 한국의 센서 개발 업체에 협업을 요청해 함께 참가하기도 했으며, 다른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형태로 참여할 것을 추천함

□ 시사점

- 튀르키예 정부는 우선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5개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국산화 비율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국내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 단계라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점차 튀르키예의 기술력과 제품 품질이 향상되며 외국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에, 지금부터 튀르키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함
- 당장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앞서 설명한 센서 개발 업체처럼 튀르키예 내 파트너를 발굴하여 현지업체와 협력 진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 : 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프로그램 2022, 튀르키예 투자청,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2.07.)

## 5 ESG 관련 동향

### 가. 튀르키예 ESG 동향

- 튀르키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책은 미성숙 단계임
-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ESG 경영 준비 중임

####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의미

-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기업을 소비하고 투자하는 기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가치를 소비하고 제품의 품질만큼 브랜드의 평판도 중요하게 평가
- 따라서 ESG 평가가 낮으면 투자 유치에 불리
  - ESG :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따서 조합한 약어
  - 이제는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이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윤리적 지배구조로 경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임

#### 〈ESG 세부 항목〉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li> <li>-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li> <li>- 자원 고갈</li> <li>- 에너지 효율</li> <li>- 환경오염</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평등</li> <li>- 지역사회 발전</li> <li>- 인권, 성별 및 다양성</li> </ul>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한 기업 운영</li> <li>-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li> <li>- 로비 및 부패</li> <li>- 이사회 다양성</li> </ul>

(자료: 금융투자협회)

□ 튀르키예의 ESG 관련 정책

- 튀르키예 주식거래소는 61개 상장회사의 BIST(Borsa Istanbul, 이스탄불 증권 거래소) 지속 가능성 지수를 발표함
  -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장회사라면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자원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 이 지속 가능성 지수를 통해 기업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이 고양되고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의지를 엿볼 수 있음

〈BIST 지속가능성지수 기업 목록〉

1	AFYON	AFYON CIMENTO	32	KERVT	KEREVITAS GIDA
2	AEFES	ANADOLU EFES	33	KORDS	KORDSA TEKNİK TEKSTİL
3	AGHOL	ANADOLU GRUBU HOLDING	34	KRDMD	KARDEMİR
4	AKBNK	AKBANK	35	LOGO	LOGO YAZILIM
5	AKENR	AK ENERJİ	36	MGROS	MİGROS TİCARET
6	AKGRT	AKSİGORTA	37	NETAS	NETAS TELEKOM.
7	AKSA	AKSA	38	OTKAR	OTOKAR
8	AKSEN	AKSA ENERJİ	39	PETKM	PETKİM
9	ALBRK	ALBARAKA TURK	40	PGSUS	PEGASUS
10	ANELE	ANEL ELEKTRİK	41	POLHO	POLİSAN HOLDING
11	ANHYT	ANADOLU HAYAT EMEK.	42	SAHOL	SABANCI HOLDING
12	ARCLK	ARCELİK	43	SİSE	SİSE CAM
13	ASELS	ASELSAN	44	SKBNK	SEKERBANK
14	AYGAZ	AYGAZ	45	SOKM	SOK MARKETLER TİCARET
15	BİZİM	BİZİM MAGAZALARI	46	TATGD	TAT GIDA
16	BRISA	BRISA	47	TAVHL	TAV HAVALİMANLARI
17	COLLA	COCA COLA İÇECEK	48	TCELL	TURKCELL
18	CİMSA	CİMSA	49	THYAO	TURK HAVA YOLLARI
19	DOAS	DOĞUS OTOMOTİV	50	TKFEN	TEKFEN HOLDING
20	DOHOL	DOĞAN HOLDING	51	TOASO	TOFAS OTO. FAB.
21	ENJSA	ENERJİSA ENERJİ	52	TSKB	T.S.K.B.
22	ENKAI	ENKA İNŞAAT	53	TTKOM	TURK TELEKOM
23	EREGL	EREĞLİ DEMİR ÇELİK	54	TTRAK	TURK TRAKTOR
24	FROTO	FORD OTOSAN	55	TUPRS	TUPRAS
25	GARAN	GARANTİ BANKASI	56	ULKER	ULKER BİSKUVİ
26	GLYHO	GLOBAL YAT. HOLDING	57	VAKBN	VAKIFLAR BANKASI
27	HALKB	T. HALK BANKASI	58	VESBE	VESTEL BEYAZ ESYA
28	HLGYO	HALK GMYO	59	VESTL	VESTEL
29	ISCTR	İS BANKASI	60	YKBNK	YAPI VE KREDİ BANK.
30	ISDMR	İSKENDERUN DEMİR ÇELİK	61	ZOREN	ZORLU ENERJİ
31	KCHOL	KOC HOLDING			

(자료: 튀르키예 주식거래소)



- 그러나 EU나 다른 국가에 비하면 튀르키예의 ESG 정책은 초기단계
- 튀르키예는 2020년 10월 2일,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원칙(Sürdürülebilirlik İlkeleri Uyum Çerçevesi)’ 을 발표
  - 적용 대상은 상장회사들이며, 원칙 준수 의무는 없으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공시해야 함

〈튀르키예 지속 성장을 위한 원칙 요약〉

환경	<p>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에 따라 기업을 경영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기업 경영 계획 및 행동 계획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그 외에도 환경지표(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에너지, 공업용수 및 폐수, 폐기물 관리,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등)를 활용해 환경에 끼친 영향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 및 활동이 탄소 가격제(배출권 거래제 또는 탄소세)에 해당되는지 공개해야 한다.</p>
사회	<p>세계인권선언과 ILO 협약에 근거하여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준수한다. 또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다.</p> <p>저소득층과 소수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호 및 장려하며, 아동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p> <p>기업을 운영할 때엔 임직원 외에도 아웃소싱기업까지 ESG 경영에 동참하고 나아가 고객, 정부기관, 시민단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경영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p> <p>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CSR)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이벤트 및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p> <p>그 외에도, BIST 지속가능성 지수 외에도 국제 지속가능성 지수(다우존스, FTSE4Good, MSCI ESG 지수 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지배구조	<p>뇌물수수 및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탈세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 경영 방침을 수립한다. 더불어, 세계적인 ESG 경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 표준에 적합한 기업 경영 방식을 수립한다.</p>

(자료: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

## □ ESG 추진 현황

- 현재 튀르키예는 ESG 경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 초기 단계로 미성숙함
  -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속 성장 원칙 역시 아직 세부 내용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침
-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튀르키예는 2016년부터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따라 녹색성장, 인권 보호 및 평등 사회, 산업환경 개선 등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함
- 지난 2020년 튀르키예는 지속 성장 원칙을 발표함. 현재까지는 원칙 준수에 강제성이 없어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향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강제화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근시일 내에 튀르키예 역시 ESG 경영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튀르키예 기업들 역시 내부적으로 ESG 관련 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포착됨
- 주로 BIST 지속가능성 지수를 공개하는 기업들임
  - 그 예로 GARANTI BBVA, 튀르키예산업개발은행, SABANCI 등 기업은 자발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지수 혹은 랭킹(순위) 평가를 받고 이와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음
- (SISECAM) 또한 SISECAM 같은 유리 제품 제조기업은 친숙하고 착한 기업 이미지를 위해 환경 관련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2019년부터 매년 5%가량의 공업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튀르키예에 분리수거 개념이 생겨나기 전부터 자사의 비용으로 유리병 수거함을 만들어 이스탄불, 앙카라 등의 주요 도시 곳곳에 설치함
  - 2020년 SISECAM에서 생산한 유리 포장재 중 20%는 수거한 재활용 유리로 만들어짐
  - 또한, 2020년에는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생물다양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주제로 지역 공헌 활동을 시작함

- 그 외에도 자사에서 보유한 규모 광산이 위치한 지역에 숲을 조성해 2019년에 비해 숲 면적을 20% 늘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
- 그 결과 SISECAM은 국민들에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 잡음
- 한편, ESG의 사전적 의미와 개념은 튀르키예에 낯설지언정 ESG가 추구하는 기업 운영방침은 사실 튀르키예인들에게도 은연중에 자리잡혀 있는 개념으로, 아직 정책화돼 있지 않을 뿐임
- 그 예로 ESG 경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기업은 언론에 공개되는 즉시 규탄받고 있음
  - 2020년 튀르키예의 유명한 음식배달회사 Y는 자사 소속 배달원들이 노조를 꾸려 노동부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배달원들의 고용보험에 기재된 업종을 배달 외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 2천여명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됨
  - 이뿐만 아니라 Y사가 배달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거나 아무 설명도 없이 무급휴가를 보내버려 배달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퇴사를 종용하는 압박을 하는 등의 행태가 추가로 밝혀짐
  -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드러나자 튀르키예 국민은 Y 기업이 운영하는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보이콧을 했고 튀르키예 곳곳에서 기업의 악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짐

#### □ 시사점

- 튀르키예에서 ESG는 초기 시행단계이지만 현재의 추진 상황을 보았을 때, ESG는 튀르키예에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향후 새로운 경영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튀르키예에 기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은 선제적으로 ESG 경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SISECAM은 선제적으로 ESG 경영의 틀을 잡아가며 친환경 기업으로 국민의 머릿속에 자리매김함
- 또한 튀르키예는 ESG경영 관련 선례가 한국보다 부족하므로 한국에서 자체 ESG경영 사례가 있다면 튀르키예에서 좋은 홍보자료로 현지 기업에 공유되어 귀감이 될 수 있음

- 특히 소비재의 경우 기업 이미지와 매출 실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튀르키예 증권거래소,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 Sol, 이스탄불 상공회의소, GARANTI BBVA, HALKBANK, ŞİŞECAM, 튀르키예 전략예산청, 금융투자협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21.08.31.)

## 나. 튀르키예 그린 뉴딜 행동전략 2021

- EU 탄소국경세에 적극 대응하는 튀르키예
- 장기적으로 튀르키예도 EU와 동일한 기준 책정, 우리 기업 대응 방안 제고 필요

### □ 튀르키예 그린 뉴딜 행동전략 발표 배경

- 2021년 8월, 튀르키예 무역부는 ‘그린 행동계획 2021’ 을 발표함
  - 환경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재해, 환경위기 및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차 코로나19 이후 튀르키예에서 지속가능한 ‘녹색·순환경제’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
  -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증대, 순환하는 지속가능 산업 및 농업,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개발 가속화 등을 통해 자국의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이번 전략을 수립 및 발표함
- 두번째 배경은 튀르키예가 그린 행동계획을 발표하기 한 달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세)가 포함된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 ‘Fit for 55’ 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튀르키예 정부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법안을 분석 후 호환되는 기후대응전략을 수립함

□ 그린 뉴딜 전환과 자국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

- 튀르키예가 발표한 ‘그린 뉴딜 행동계획’에는 총 9개의 목표가 있음
- 크제는 EU와의 협력 및 교역 증대와 자국 산업의 ‘그린·순환 경제’를 바탕으로 한 발전을 목표로 함
- 해당 목표에서는 튀르키예의 그린 뉴딜 전환과 더불어 기존에 수입에 의지하던 화석연료 에너지의 대체 및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튀르키예 그린 행동계획 2021 목표>

목 표		내 용	
1	EU탄소국경세 대응 전략 수립	→	- 탄소 국경세 책정 방식 연구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연구 -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녹색 순환 경제 구축	→	- 녹색 산업지구 설립 -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E&D 확대 - 산업시설 대상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최적 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
3	녹색 금융	→	- 환경 관련 프로젝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 금융 지원 상품 마련
4	에너지 공급 효율화	→	-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기반 개선 및 인증 제도 수립 - 가정 및 산업 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5	지속가능한 농업	→	-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 - 농업 폐기물 재사용 R&D 연구 확대
6	지능형 친환경 교통시스템	→	- 철도, 내륙 수로 운송 증대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개발 - 대체 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 - 대중교통에서 전기차 사용 비율 확대
7	기후변화 대응	→	- 토지황폐화 예방·감소를 위한 토지관리 시스템 마련 -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
8	녹색 외교	→	- EU회원국과 녹색법안 관련 연구 활성화 및 협력 기회 증대 - WTO·유엔 기후협약 이행
9	녹색 경제 인식 강화	→	- 워크숍, 세미나 개최를 통한 녹색경제 정보 안내, 인식 제고 활동 수행

(자료: 튀르키예 그린 행동계획 2021)

## □ 탄소국경세

- EU가 2023년부터 시행할 탄소국경세에 대한 튀르키예 기업들의 염려가 큼
  -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EU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로, EU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미 역내 기업들에게 별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한 국가가 원산인 제품들이 EU 시장에서 가격 경쟁 우위를 점유하여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짐
- 또한, 유럽 내 생산공장을 탄소 배출 미규제 국가로 옮겨 생산 단가를 줄이는 등의 ‘탄소 누출’ 사례가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 EU 역외 국가에도 동일하게 탄소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세하는 것임
- EU의 결정에 튀르키예는 즉각 탄소국경세에 대한 연구와 로드맵, 행동 계획안 등을 수립함
  - 2020년 기준 튀르키예의 대외의존도는 54.3%였으며, 상위 10개국 중 5개국(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은 EU 회원국으로 유럽의 정책 동향에 튀르키예는 민감할 수 밖에 없음
- 정부는 제조업 위주의 우선 개발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량 로드맵과 행동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임
- 또한 에너지·자원 사용이 집약된 산업에 EU 탄소국경세가 미치는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그 외에도 산업 배출 온실 가스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탄소국경세 규정 책정 방식 등을 분석해 튀르키예 내 인증서 발급 제도를 구축할 예정임
- 나아가 튀르키예의 표준 탄소세 측정 방식을 연구하여 수립하고 튀르키예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기업 부담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임

## □ 녹색 금융

- 녹색 전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자금 지원 시스템도 개편하고 외부에서 사용가능한 자금원도 활용할 계획임
  - EU의 녹색전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 튀르키예의 자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및 실질적 지원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EU 및 국제 조직의 투자 관련 규정을 검토해 튀르키예의 지속가능한 투자 관련 규정을 제정할 방침임
- 튀르키예 재무부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 채권 발행 검토 및 그린채권과 그린 수쿠크(Sukuk, 이슬람 국가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가이드라인 조성을 담당하게 됨
- 반면, 현행 자금조달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국제 자금을 활용해 튀르키예의 녹색 전환을 도모하고 EU 회원 후보국가에게 지원하는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유치할 계획임
- 그 외에도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 자금 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검토, 유럽 그린 뉴딜 정책 내 금융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기업 대상 홍보 및 정보 공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실시할 예정임

## □ 에너지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 1. 에너지

- 튀르키예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전략도 세부적으로 계획함
  - EU의 기후대응 법안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규정을 검토·분석해 자국의 고효율 에너지, 저탄소 냉난방 시스템 보편화, 에너지 고효율 사용과 저탄소 국가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임
- 또한 역내 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에너지 광산 정책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매년 총 1,000MW의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 2. 농업

- 농업은 튀르키예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튀르키예산 농수산물이 EU 식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임
- 튀르키예 정부는 농업 활동 시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특히 아이든, 데니즐리, 이즈미르, 아오르 주(州)에 지열 특화 온실 단지를 조성하여 집중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임
- 한편, 산업 폐기물만큼 농업 폐기물과 잉여생산물 역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재활용을 위한 R&D와 폐기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임
- 그 외, 수질오염과 토양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EU의 농약과 항생제, 화학비료 사용 감축 목표와 유사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할 예정임
- 대신 화공농법 감축만큼 생산량 보장을 위해 생물학 및 생물공학적인 농업공법 연구와 사용을 확대시킬 것임

## 3. 운송

- 튀르키예도 여느 국가와 같이 연료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힘씀
- 튀르키예는 자국산 전기차도 개발 중인 만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및 관련 제도 설립에 적극적이고, ‘국가 스마트 교통시스템 전략’에 따라 대중교통에 전기차 보급화를 힘쓰고 있음
- 또한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과 공유형 무공해 운송수단(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사용 장려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임
- 한편, 튀르키예는 관광, 무역을 위한 항만 시설도 발달한 만큼 해양 오염 예방에도 관심이 많음
- 튀르키예 정부는 녹색 해양산업 및 그린 하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중해 SECA(황산화물 배출 통제구역) 지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 □ 시사점

- 튀르키예는 위에 언급한 내용 외 기후변화 대응 방안, ‘2023~2030 기후변화 행동전략’, ‘2050 기후변화 전략’ 수립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중장기 정책을 시행하고, EU와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갈 계획임
- 동시에 튀르키예의 권익 보장을 위해 EU의 탄소국경세 및 다른 조항들과 관련해 적합하게 수출을 진행할 경우 EU와 체결한 관세 동맹, WTO(세계무역기구) 및 타국과 체결한 국제 협약 내 튀르키예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도 추진할 방침임
- 그린 뉴딜정책 시행을 위해 세계 각국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구축, 지속가능 운송 수단 활성화, 에너지 효율 증대, 기후 친화적 혁신 기술개발 등에 애쓰고 있음
- 튀르키예 역시 동일선상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게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공존함
- 튀르키예의 그린 뉴딜 행동계획은 국산화정책과 함께 자국의 고도화기술 개발 및 주요 중간재 국산화 촉진 등을 통한 자국산 제품 우대, 비(非) 저탄소생산 국가 원산 제품을 지양하는 녹색 무역장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 역시 수출 중인 혹은 수출을 고려하는 대상국의 그린 뉴딜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 필요
- 한편, 전반적 녹색 전환을 통해 하수처리, 폐기물관리, 전기차, 에너지, 녹색 건물 및 농업, 산업 자동화시스템 등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임
- 현재도 튀르키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과 스마트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을 고려 가능함

(자료원: 튀르키예 그린 뉴딜 행동계획 2021, 튀르키예 통계청, EU Fit for 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튀르키예 무역부, 튀르키예 환경도시기후변화부,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30.)

### Ⅲ. 사업 여건

#### 1 인프라 여건

##### 가. 교통 인프라

□ 튀르키예, 인프라 투자 부문 세계 2위

세계은행 “2014 글로벌 민관협력” 보고서에 의하면, 튀르키예가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인프라 투자(125억 미불 상당 17 개 프로젝트)를 시행함

- 139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의 “2014년 글로벌 민관협력” 보고서에 의하면, 튀르키예는 2014년 민관협력 부문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한 2번째 개발도상국 자리를 차지함
- 이와 더불어,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5개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주목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전함
  - 튀르키예는 17개의 신규 프로젝트로 2번째로 큰 투자규모를 가지게 됨
  - 가장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한 국가 1위는 442억 달러로 브라질이, 3위는 81억 달러로 페루가, 4위는 70억 달러로 콜롬비아가, 5위는 62억 달러로 인도가 차지함
  - 이 5개 국가의 민관 부문 실행 프로젝트들의 가치는 139개 개발도상국들의 전체 인프라 투자 규모의 73%를 차지함
- 튀르키예가 2위를 한 것은 125억 달러 상당 17개의 신규 프로젝트 덕임
- 인프라 부문의 이러한 빠른 성장은 외국 자본들의 튀르키예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켰고, 유럽과 미국의 자본이 이번에는 튀르키예의 인프라 부문으로 새롭게 진입하기 시작함
- 또한, 중동의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인 UAE의 Waha Capital은 18억 디르함(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조성함
  - 이 펀드는 인프라 부문에 우선 투입될 것이며 튀르키예와 더불어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자본은 지역 국가들의 프로젝트들에 집중 투입될 예정

(출처 :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2015년 6월 23일 Sabah 신문 10면)

## □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마지막 구간 개통

2021.5.21. 보스포루스 제3대교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Northern Marmara Motorway)” 마지막 구간이 완료됨에 따라,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석한 개통식이 개최됨

### 1. 에르도안 대통령 주요 언급사항

- 2021.5.21. 개통식 행사에 참석하여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구축은 26억 리라(약 3.1억 달러) 절약과 함께, 16.5억 리라 상당의 시간과 8.3억 리라 분량의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한편, 400킬로미터에 달하는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완성을 통해 35.1만 톤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함

### 2. 고속도로 관련 사항

-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는 3개 주요 구간(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측에 위치한 이스탄불(Istanbul)주 크날르(Kinali) - 코자엘리(Kocaeli)주 - 사카리아(Sakarya)주 아크야즈(Akyazi)를 연결함
-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는 이스탄불 국제공항 및 이스탄불과 코자엘리 지역의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게 되며, 보스포루스 제3대교\*를 통해 차량은 물론이고 고속 화물열차와도 연결됨

\* 보스포루스 제3대교(공식 명칭 : Yavuz Sultan Selim 대교) : 우리 기업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건설한 왕복 8차선 및 왕복 철도노선이 설치된 세계최초의 최장 현수교

### 3. 기대효과

- 아딜 카라이스마일올루(Adil Karaismailoglu) 교통장관은 동 고속도로가 유럽-아시아 간 물류수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경제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2021.5.20.)
- 튀르키예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리적 위치가 투자와 무역 등 경제적 측면에서 튀르키예의 중요도를 한층 더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함

- 카라이스마일올루 장관은 동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마르마라 원형 고속도로(Marmara Highway Ring)\*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강조
- \* 마르마라 원형 고속도로는 우리 기업 SK에코플랜트와 DL이앤씨가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차낙칼레 대교를 포함

(출처: 주이스탄불총영사관, 2021.05.21.)

## □ 철도 산업 국산화 관련

튀르키예 정부는 지속적으로 철도산업 국산화를 추진 중인 바, 이 관련 최근 튀르키예 전기열차 및 고속열차의 국산화 관련 현황을 아래에 보고함 (언론 보도 중심)

### 1. 국산 전기열차 생산 관련

- 2020년 6월 15(월) 튀르키예 Karaismailoglu 교통부 장관\*은 철도산업 국산화의 일환으로 튀르키예산 전기열차를 생산하는 TUVASAS (철도 차량산업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동년 하반기 국산 전기열차의 일반 여객 대상 정기 운영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TUVASAS(철도 차량산업 주식회사)는 튀르키예 철도청(TCDD) 산하 공기업 중 하나로, 2010년부터 마르마라이 통근선 용도 275대 철도차량 생산 작업을 현대 로템과 협력하여 진행한 바 있다. 2013년 국영 전기열차 개발사업을 수주하였으며, 현재 연간 240대의 알루미늄 차량 생산중임

- 아울러, 현재 튀르키예 국산 전기열차의 설계 속도는 시속 약 176km, 운전 속도는 160km/h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속 225km의 국산 고속열차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함

\* Karaismailoglu 장관은 이스탄불시청 시청에서 오랜 기간 교통분야 프로젝트를 담당한 도시교통 전문가로, 2018.9월 교통부 차관을 역임하였고, 2020.3월 교통부 장관에 임명됨

### 2. 국산 고속열차 생산 공기업 설립 관련

- 2020년 6월 3일(수) Karaismailoglu 교통부 장관은 튀르키예 정부가 2020년 3월 국산 고속열차 생산을 담당할 신규 공기업(TURASAS : Rail System Utilities Industry Corporation)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재확인함

- TURASAS은 기존 튀르키예철도청(TCDD) 산하의 철도산업 관련 3개 공기업\*을 총괄하여 국산 고속열차 생산뿐만 아니라 철도 산업의 연구 개발, 부품 생산,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예정임
- \* 기존 3개 공기업 : TUVASAS(철도 차량산업 주식회사), TULOMSAS(튀르키예 기관차 및 엔진산업 주식회사), TUDEMSAS(철도 기계산업 주식회사)
- TURASAS 설립을 통해 튀르키예 철도 산업이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3. 철도산업 국산화 현황

- 튀르키예 정부는 2023년까지 106대의 고속철도 열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독일 Siemens사와 수입계약을 맺은 12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4대 열차에 대해서 국산화 추진 중
- 94대 중 5대는 국산 전기열차 사업을 통해 생산 중이며, 나머지 89대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진행할 경우 약 35억 유로의 예산 절감이 가능함
- 관련 산업분야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60억 유로의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 4. 철도 산업 현황 및 전망

- 튀르키예 교통부는 고속철도망 확대 및 이스탄불 마르마라이 통근선 개통으로 2019년 철도승객 및 화물수송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언급함
- 또한, 튀르키예 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5,509km의 철도 노선을 추가 완공하여 총 17,525km의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출처: DailySabah, Anadolu Agency, Haberturk, 주이스탄불총영사관, 2020.06.25.)

### □ 이스탄불 국제공항 프로젝트 1단계 완료

지난 2020.6.14.(일) 이스탄불 국제공항 프로젝트 1단계(2015년-2020년)가 완료되어 제3 활주로, 관련 유도로 및 제2 관제탑 등 기반시설 완공식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 주요 관련사항을 아래 보고함

## 1. 에르도안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주요 언급 내용

-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국제공항이 2018년 개장 이래 ‘튀르키예의 자부심(Turkey’s pride)’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이스탄불 공항 연간 이용객 수 2억명 달성이 2023년 튀르키예 정부수립 100주년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함 (\*현재 연간 이용객 수는 9,000만)
  - 이스탄불에서 이동 가능한 도시는 2002년 60개에서 2020년 현재 350개로 확대되었으며, 항공화물 처리 규모도 일일 303톤에서 일일 2,500톤으로 크게 증가
- 튀르키예 정부는 2019.7. 제11차 5개년(2019-2023) 발전계획을 발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Vision 2023으로 명칭하며 주요 행사서 자주 언급함
  - 동 발전계획은 이스탄불 국제공항 프로젝트의 정상추진, 차낙칼레 대교 완공, 이스탄불 운하 건설, 이스탄불 3층 해저터널 건설 등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음
- Adil Karaismailoglu 교통부 장관은 제3 활주로의 완공으로 항공기 3대의 동시 이·착륙(simultaneous landing and take-off)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스탄불 공항의 시간당 이·착륙 항공기 수가 현재 80대에서 120대로 50%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항공기 3대 동시 이·착륙은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및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등 전 세계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하며, 제3 활주로 완공으로 이스탄불 국제공항도 세계 허브공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지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제3 활주로 이용 시 동시 이·착륙을 시도하는 항공 기간 항로 및 고도, 기상변화 등의 간섭이 줄어들어 안전성이 강화됨

## 2. 이스탄불 국제공항 프로젝트 현황

- 이스탄불 공항은 2013년 사업자 선정, 2015.5. 착공 이후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제95주년 기념일인 2018.10.29에 개항식을 개최해 일부 노선만 운영하다 2019.4.6. 기존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으로부터 모든 노선을 이전해 국제공항으로 운영 중임
- 동 건설 프로젝트는 2014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임
- \* 이스탄불 신공항 건설, 이스탄불 제3대교 건설(완공), 유라시아 터널 건설(완공), 이스탄불 운하 건설 등
-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4단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전체 예산 100억 유로), 현재 1단계가 완료된 상황임
- 2028년 완공시 4개 터미널, 6개 활주로 등을 포함 총 76.5km<sup>2</sup> 규모의 세계 최대 공항이 될 것이며, 일일 이용객 2억 명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됨
- 이스탄불 국제공항 4단계 프로젝트(IGA(Istanbul Grand Airport))

단계	내용
1단계 (2015년-2020년)	제1 여객 터미널, 3개 활주로(남북 방향), 관련 유도로 및 관제탑, 차량 1만 8천 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
2단계 (2020년-2022년)	제4 활주로(동서 방향), 관련 유도로 및 관제탑
3단계 (2023년-2028년)	제2 여객터미널, 제5 활주로(남북 방향), 관련 유도로 및 관제탑, 터미널 간 여객 환승 시스템
4단계(2028년)	제6 활주로(남북 방향), 관련 유도로 및 항공 관제탑, 별도 여객터미널 빌딩(필요시) 등

(출처: DailySabah, Railynews,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2020.06.19.)

□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9-2023) 국회 제출

- 2019.7.8(월) 아나톨루 통신사는 대통령실이 제1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함
- 이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쟁력·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며, 대통령제 시행 이후 첫 번째 개발 계획으로써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작성되었다고 평가됨
  - 이번 개발 계획으로 정부부처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상됨
- 동 계획에서는 2023년 국내총생산 1조 8천억 달러, 1인당 GDP 1만 2천 달러, 수출 2,266억 달러, 실업률 9.9%, 인플레이션 5%를 목표로 하며, 중점 제조 산업으로는 화학, 제약, 의료장비, 전자장비, 철도시스템, 자동차 산업을 채택함
- 또한 대기업의 사회공헌의무를 현실화하고, 고용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채무조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 분야에 대한 개발 계획을 포함함
- 개발 기본 5원칙
  -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 : 재정, 소득, 대외 무역 정책 강화를 거시 경제적 목표로 하는 정책
  - 경쟁력과 생산력 증대 : 경제 분야에서 경쟁력 및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구조적 변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 인적자원 강화 : 인적자본을 강화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이행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복지 증진 정책
  - 살기 좋은 도시와 지속가능한 환경 : 환경 보호, 도시와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개발 불균형 감소 정책
  - 법치주의와 민주화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들의 모든 기관 및 조직에서 이행되고, 행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실현하는 정책

(출처: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2019.07.10.)



## 나. 에너지 인프라

### □ 천연가스 분야

#### 가. 천연가스 수입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 튀르키예 에너지 시장 규제청(EPDK: Energy Market Regulatory Authority)은 2021년 4월27일 보고서에서 튀르키예 천연가스 수입 물량이 2020.2월 5.26bcm\*에서 2021년 2월 6.02bcm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함

\* bcm : billion cubic meter

- 전체 물량 중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은 4.15bcm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1.85bcm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

-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은 러시아(2.37bcm / 113.6% 증가), 아제르바이잔 (0.97 bcm / 12.4% 증가), 이란(0.81 bcm / 5.4% 증가)임

#### 나. 천연가스 국내 소비 2.3% 증가

- 2021.2월 튀르키예 내 총 천연가스 소비는 5.28 bcm으로 전년 동기 (5.69bcm) 대비 2.3% 증가함

- 일반가정의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68 bcm이며, 발전시설 소비 천연가스는 39% 증가한 1.1bcm 기록함

※ 발전시설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는 지난해 가뭄 현상으로 인해 수력발전 시설의 전기 생산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다. 천연가스 비축분량

- 천연가스 비축분량은 2021.2월 현재 2.61bcm으로 전년 동기 1.91bcm에 비해 36.4% 증가한 상황임

(출처: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2021.04.29.)

□ 풍력 분야

-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풍력 생산 비용이 2019년 대비 50%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보고서는 풍력 분야 균등화발전단가(LCOE ·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가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35년에는 17%-35%, 2050년에는 37%-4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튀르키예 풍력발전협회(Turkish Wind Energy Association) 에브루 아르즈(Ebru Arici) 회장은 2020년 튀르키예 풍력 분야 LCOE가 2009년 대비 71%가량 감소하였으며, megawatt-hour당 생산비용이 2009년 101달러~169 달러 수준에서 2020년 26달러-56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함
    - 튀르키예 풍력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며, 약 1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됨
- (출처: 주이스탄불총영사관, 2021.04.29.)

□ 전력 분야

데일리 사바(Daily Sabah) 및 최근 발간된 202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포함된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튀르키예 에너지 분야 주요 동향을 아래 보고함

가. 전력 생산

- 튀르키예는 2019년 308.5 terawatt-hours 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튀르키예 전력생산은 유럽지역 총 전력 생산의 7.7 % 상당이며, 독일(612.4), 프랑스 (555.4), 영국(323.7)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임

<연도별 튀르키예 전력생산 동향>

(단위 : terawatt-hours)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생산	194.8	211.2	229.4	239.5	252	261.8	274.4	297.3	304.8	308.5
증가율	-	8.4%	8.6%	4.4%	5.2%	3.9%	4.8%	8.3%	2.5%	1.2%

(출처 : 202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2019년도 튀르키예 총 전력생산에서 석탄 발전이 114.6 terawatt-hour (37%), 수력발전이 89.2 terawatt-hour(29%) 차지
- 2018년 대비 천연가스 및 석유 의존도는 감소하였으나, 수력과 신재생 분야 생산은 각각 48.9%, 19.8% 증가함

### 〈자원별 전력생산〉

(단위 : Terawatt-hours)

구 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재생	기타	총생산
2018	0.3	92.5	113.2	0	59.9	37.8	1	304.8
2019	0.2	58.1	114.6	0	89.2	45.3	1.1	308.5
증가율	-33.3%	-37.2%	1.2%	N/A	48.9%	19.8%	10.0%	1.2%

#### 나. 전력 수요

- 데일리 사바(Daily Sabah)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조치로 2020년 전력 수요는 2019년 동기 대비 4월 15%, 5월 17% 감소했다고 보도
- 경제정상화 조치 발표 이후 6월 전력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고 보도 (출처: 2020.06.22/Daily Sabah)

\* BBVA Research 의 Alvaro Ortiz 수석 경제학자는 전력 수요 증가는 개인 경제거래(transaction) 및 기업 투자(corporate investment) 동향과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2020년 4월-5월 40% 정도 급격하게 수축되었던 경제가 2020년 6월 들어 정상적 성장세를 보인다고 설명함

## □ 신재생에너지 분야

### 가.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 현황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 현황>

(단위 : terawatt-hour)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량	3.9	5.8	7.4	9.8	12.0	16.5	23.0	29.0	37.8	45.3
증가율	77.3%	48.7%	27.6%	32.4%	22.4%	37.5%	39.4%	26.1%	30.3%	19.8%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 튀르키예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력 생산량은 2010년 3.9 TW-H에서 2019년 45.3 TW-H으로 크게 증가함
- 유럽 전체에서 튀르키예가 차지하는 신재생 분야 생산도 2010년 1.2%에서 2019년 5.4%로 증가

### 나. 사용자원별 신재생 에너지

<사용자원별 신재생에너지>

(단위 : terawatt-hour)

구분	풍력	태양열	기타	총량
2018년	19.9	7.8	10.1	37.8
2019년	21.7	10.9	12.7	45.3
증가율	8.8%	40.0%	26.1%	19.8%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 다. 관찰 및 평가

- 튀르키예 내 신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는 아래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튀르키예 정부가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국내산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한 점
  - EBRD(유럽개발부흥은행)가 2010년 이래 튀르키예 내 그린경제 (Green Economy) 구축을 위해 투자해온 점 등

- 튀르키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안(Renewable Energy Support Scheme : YEKDEM)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세제혜택, 지원금 (incentive payment)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
  - YEKDEM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In-Tariff) 방식으로 2011년부터 풍력/수력발전에 대해서는 \$0.073/kWh, 지열(geothermal) 발전은 \$0.105/kWh, 태양열/바이오매스 에너지는 \$0.133/kWh 지원 중
  - Energy Exchange Istanbul(EXIST)은 2020년 5월 중 7.6억불 (52억 TL)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2020년 7월1일 발표함
  - 아울러, EBRD는 튀르키예 내 2개 프로그램(TurSEFF, MidSEFF)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지원을 해오고 있음
    - TurSEFF는 2010년 이래 현재까지 1,5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6.4억 유로를 지원함
    - MidSEFF는 2011년 이래 유럽 투자 은행(EIB) 등의 지원을 받아 2020.2월 총 16억 유로 지원하는 등 튀르키예 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생산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출처 : 202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주이스탄불총영사관, 2020.07.06)

## 2 한국 투자 현황

### 가. 한국의 對 튀르키예 투자 동향

#### 1. 투자 현황

##### (1) 한국기업 투자 현황

○ 한국기업 對튀르키예 투자현황(1980~2018년까지 누계)

- 신고 건수: 885건(신고금액: 3,907백만불)

\*신고 건수는 공동투자, 증액투자를 포함

- 신고 법인수 : 187개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2) 주요 진출기업 및 활동

○ 롯데케미칼

- 주요활동 : 2019년 현지 대리석 제조사 벨렌코 인수

- 생산능력 : 연산 23만장

○ CGV

- 주요활동 : 2016년 현지 최대 MARS 엔터테인먼트 인수

- 규모 : 800 스크린

○ 현대자동차

- 주요활동 : 1997년 이즈미트, 자동차 공장 합작 투자,  
2012 공장 증액투자, 2014년 증산 실시

- 생산능력 : 연산 23만대

○ 포스코

- 주요활동 : 2010년 부르사, 철강재 가공서비스,  
2013년 이즈미트, 스테인레스 스틸 냉연공장

- 생산능력 : 연산 17만톤, 연산 20만톤

○ 효성

- 주요활동 : 2007년 이스탄불 인근 스판덱스 생산공장 설립
- 생산능력 : 연산 1.5만톤

(출처: 외교부 외교 간행물, 한국과 튀르키예의 경제관계(튀르키예 개황, 2022.2.)

○ 한국은 튀르키예 시장의 도매 및 소매업(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건설업에 대한 투자 중점 진행

- 대표 예시 : 2016년 CGV의 튀르키예 엔터테인먼트 최대기업인 MARS 인수를 위한 정보통신업 분야 투자, 2018년 CS윈드의 풍력타워 제조업체(EGE TOWERS) 인수, 2019년 롯데케미칼의 인조대리석 제조 업체(엔지니어드스톤) 해외 인수합병 등

<한국의 對 튀르키예 업종별 해외투자 동향>

(단위: 개사,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	투자액	신규	투자액	신규	투자액	신규	투자액	신규	투자액
농업,임업,어업	1	0	0	1	0	1	0	1	0	0
제조업	3	7	0	11	3	32	6	132	0	0
전기,가스등	0	10	0	5	1	2	1	56	0	18
건설업	0	31	2	32	1	69	2	11	0	0
도매및소매업	2	24	3	18	3	185	0	0	0	0
운수및창고업	1	1	1	0	0	0	0	0	0	0
정보통신업	1	681	1	10	0	4	0	0	0	0
금융및보험업	0	1	0	1	0	0	0	0	0	0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0	1	1	1	0	1	0	0	0	0
사업지원및 임대서비스업 등	1	0	0	0	0	0	0	0	0	0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1	65	0	0	0	0	0	0
기타	0	0	0	0	1	0	0	0	0	0
합계	9	756	9	144	9	294	9	202	0	18

\*2020년 1~4월 데이터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한국의 대 튀르키예 해외직접투자는 자동차, 제철, 전자, 섬유 등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계 신고 투자액은 약 33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투자 총액의 0.5%를 점유하였음

〈한국 대 튀르키예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개社)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신고금액	178	569	196	71	364	1,378
신고건수	52	70	62	64	39	287
신규법인수	9	98	9	4	4	124

(자료: KEXIM, 2022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주요 프로젝트 참여 현황

- 우리기업은 SK에코플랜트(유라시아 해저터널), GS건설(정유플랜트), 현대건설(이스탄불 제3대교) 등이 진출해 활발한 건설활동에 참여 중
  - 메가프로젝트로 불리는 대형의 건설프로젝트를 후속 수주하는 것이 튀르키예 건설시장 진출 확대에 매우 긴요함
- 튀르키예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로, 주변 동유럽 국가와 문화·인종적 유대를 가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이 활발함

〈한국기업 튀르키예 주요 프로젝트 참여 현황, 2018.12.〉

프로젝트명	참여 기업
키리칼레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완공)	삼성물산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제3대교(완공)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유라시아 해저터널(완공)	SK에코플랜트
스타 정유플랜트(완공)	GS건설
차나칼레 대교(2017년 1월 수주)	대림, SK에코플랜트
카라프나르 태양광발전소(2017년 3월 수주)	한화큐셀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12.26.)



- 글로벌인프라(GIF) 1호 펀드 튀르키예 화력발전사업에 450억원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튀르키예 키리칼레 복합화력발전사업”에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약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2015.6.24) 하고 2015년 7월20일(월) 투자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는 지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2011년 7월)과 포르투갈 리스본 태양광발전사업(2012년 5월)에 이은 세 번째 투자임
  - 투자대상사업은 삼성물산과 ACWA Power International이 튀르키예 키리칼레에 926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투자개발 사업으로 2017년 6월, 완공 및 상업운전 개시 전망
  - 삼성물산은 주주 및 시공사로, 한국수출입은행(K-EXIM)은 대주단으로 참여하며, 글로벌인프라펀드는 후순위대출을 지원할 계획임
  - 특히 이번 투자는 정부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편 조성한(2014년 6월) 글로벌인프라1호 펀드(운용사: KDB인프라운용)의 최초 투자임
  - 향후, 글로벌인프라 1·2호 펀드를 통해 2015년~16년 투자를 목표로 A국 풍력발전, B국 수력발전, C국 정유플랜트 등 약 20억 달러 규모 사업에 약 1,600억원 투자 검토 중에 있어 점진적으로 펀드의 투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인프라펀드의 본격적인 투자로 민간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투자펀드 조성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지원과 펀드의 투자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2015.07.07.)

□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내 주요 프로젝트 참여 현황(2021.10.)

프로젝트명	참여기업	사업 내용	사업 규모 (억불)	비 고
가지안텝병원	삼성물산	1,875병상 규모 병원 건설	6.8	2013년 수주 진행지연
차나칼레 대교 건설	대림산업, SK에코플랜트	3.5km길이 현수교 건설	33	2017년 수주 2022년 개통
보스포루스 제3대교 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2.2km교량 건설	6.8	2016년 8월 개통
유라시아 해저터널	SK에코플랜트	보스포루스 해협 해저터널 (5.4km)	3.9	2016년 12월 개통
키리칼레 화력발전소	삼성물산	950MW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6	2017년 11월 완공
스타 에게안 정유공장	GS건설	21만 배럴/일 규모 원유 정제시설 건설	35	2018년 10월 완공
이즈미르 베이 크로싱	미정	총 12.2km규모 도로 및 터널 건설	30	발주 추진
이스탄불 운하	미정	이스탄불 인근 50km 운하 건설	200	계획 발표
이스탄불 3층 해저터널	미정	보스포루스 해협 3층 해저터널(6.5km)건설	35	계획 발표

(자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편집, 2021.10.25.)

## 나. 한-튀르키예 무역 동향

- 한국의 對 튀르키예 교역 총액은 2021년 기준 82억 달러 수준이며,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은 무역수지 흑자구조를 지속적 유지함

### <한국의 對 튀르키예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출	5,297	-11.4	5,544	4.7	7,026	26.7
수입	1,189	0.1	1,317	10.8	1,237	-6.1
교역총액	6,486	-9.5	6,861	5.7	8,263	20.4
무역수지	4,108	-14.3	4,227	2.8	5,789	36.9

(자료: 무역협회, 2022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對 튀르키예 주요 수출입 품목

- 주요 수출입품목 : 플라스틱류,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및 기계부품, 유기화학 제품 등 산업재가 주종임
- 주요 수입품목 : 석유제품, 의료용품, 섬유, 피혁,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對 튀르키예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율
		수출총액	5,297,808	5,545,510	7,025,978	26.7
1	39	플라스틱류	1,068,113	1,014,514	1,564,049	54.2
2	72	철강	817,578	783,651	1,054,470	34.6
3	84	기계 및 기계부품	570,412	656,124	896,966	36.7
4	29	유기화학제품	406,870	457,319	797,488	74.6
5	8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417,215	562,125	657,729	17.0
6	30	의약품류	407,444	595,002	366,759	-38.4
7	85	전자기계장치	331,573	328,125	334,363	1.9
8	54	인조필라멘트	256,735	190,876	239,950	25.8
9	40	고무류	141,954	135,949	171,726	22.4
10	90	광학기기	163,944	140,416	160,665	18.2

<한국의 對 튀르키예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19	2020	2021	증감율
		수입총액	1,189,057	1,317,407	1,237,118	-6.1
1	30	의약품	410,455	625,917	353,818	-43.5
2	84	기계 및 기계부품	117,598	116,356	130,896	12.5
3	61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의류 및 부속품	41,890	50,092	65,236	30.2
4	62	의류 및 그 부속품	53,806	53,451	59,556	11.4
5	27	광물성 원료	15,756	16,607	57,200	216.8
6	28	무기화학물	25,051	23,902	47,916	100.5
7	8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61,439	28,633	39,138	36.7
8	90	광학기기	22,639	26,432	35,636	34.8
9	75	니켈과 그 제품	37	60	32,688	2006.7
10	88	항공기 등 부품	13,100	24,240	27,154	12.0

(자료: 무역협회, 2022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다. 튀르키예 수입규제

- 수입 규제 및 비관세 장벽
  - 2021년 12월 31일 기준 32개국 대상 248건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이며, 47건의 조사 진행 중
-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전체 20건으로, 2021년 상반기 대비 3건 증가
  - 유형별 : 반덤핑(14), 세이프가드(6)
  - 품목별 : 철강/금속(6), 섬유(5), 화학(5), 기계(1), 기타(3)
- 2021년 10월 한국산 금속드릴사(HS Code 5605.00), 2021년 반덤핑 조사 개시 공보
- 2022년 3월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결과 통보, 상반기 중 판정 결과 발표 예정
- 2022년 4월 한국산 임플란트 반덤핑 최종 판정, 기본 반덤핑 세율 25% 책정

## 라. 주요 투자 진출기업 현황

### 1. 주요 진출기업

연번	회사명	투자시기	투자내역	신고금액 (천달러)	투자금액 (천달러)
1	(주)카스	1992	이스탄불, 전자저울 판매법인	1,500	1,500
2	현대자동차	1997	이즈미르, 자동차공장 합작투자	600,000	600,000
		2002	공장증설 증액투자		
		2012	공장증설 증액투자		
3	LG전자	2000	게브제, 에어컨생산 합작투자	12,435	12,435
4	CJ	2004	부르사, 사료공장 단독투자	2,140	2,124
5	(주)일진	2005	게브제, 에어컨 부품	1,000	500
6	KCC	2006	이즈미르, 도료 단독투자	32,000	32,000
7	현대로템(주)	2006	아다파자르, 전동차량	2,040	2,040
8	SK플래닛	2013	온라인 쇼핑(JV)		
9	KT&G	2006	이즈미르, 담배공장	78,900	15,541
10	효성	2007	체르케즈콰이, 스판덱스	160,000	160,000
11	OCI	2015	유럽법인 연락사무소		

연번	회사명	투자시기	투자내역	신고금액 (천달러)	투자금액 (천달러)
12	롯데케미칼	2014	연락사무소		
13	셀트리온	2012	의약품 수입, 제조 판매법인		
14	TK케미칼	2006	연락 사무소		
15	호원	2007	이즈미르, 자동차 차체 프레스	20,000	20,000
16	SK에코플랜트	2009	토목 엔지니어링 및 건설		
17	포스코	2010	부르사, 철강재 가공서비스	23,500	23,500
		2013	이즈미르, 스테인레스 스틸 냉연공장	350,000	350,000
18	서일	2011	이즈미르, 음료용 빨대 공장	18,000	6,000
19	남동발전	2012	발전 프로젝트	450,000	
20	수출입은행	2013	이스탄불 사무소		
21	삼성SDS	2014	이스탄불 법인		
22	CJ 엔터테인먼트	2017	영화엔터테인먼트 사업		

(자료: 2022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2. 주요 투자기업별 세부 현황

### □ 현대자동차

- 설립연도 : 1997년 7월
- 투자금액 : 6억 달러(현대 70%, 현지업체 키바르 30%)
- 위치 : 이스탄불(본사)/이즈밋(공장, 이스탄불 동쪽 약 120km)
- 직원수 : 2,500명
- 연 생산능력/매출액 : 23만 대 (생산품종 : i10, i20) / 25억 달러 (2016년)

### □ 포스코

- 설립연도 : 2011년 3월(공장준공: 2013.8.15.)
- 투자금액 : 3억 5천만 달러(포스코 70%, 키바르(현지) 30%)
- 위치 : 이즈밋(본사)/이스탄불(판매)
- 직원수 : 500명
- 생산품목 : 스테인리스냉연강판
- 매출액 : 4억 6,500만 달러 (2018년)

□ 삼성전자

- 진출년도 : 1984년 (법인설립 : 2008년)
- 주요 판매품목 : 휴대폰, LED TV, 백색가전
- 위치 : 이스탄불
- 직원수 : 330명

□ LG전자

- 진출년도 : 1985년 (법인설립 : 2008년)
- 직원수 : 100명
- 주요 생산품목 : 에어컨, LED TV, 백색가전, 휴대폰

□ 효성

- 위치 : 이스탄불
- 설립연도 : 2007년 (사무소 개소 : 1991년)
- 위치 : 이스탄불(본사)/체르콰즈콰이(공장, 이스탄불 서쪽 130km)
- 직원수 : 340명
- 주요품목 : 스판덱스(연산 2.1만톤)
- 매출액 : 1억 5천만 달러(2018년)

□ 현대로템

- 진출년도 : 2006년
- 위치 : 이스탄불
- 직원수 : 200명
- 주요품목 : 철도차량 및 운송장비(2014년 기준 총 1,236량 철도차량 수주)

□ CJ CGV

- 진출년도 : 2017년
- 위치 : 이스탄불
- 직원수 : 2,000명
- 특이사항 : 튀르키예 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Mars, 800스크린 규모) 인수

## 마. 한-튀르키예 FTA 주요 내용

### 1. 한-튀르키예 FTA 개요

-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한·ASEAN FTA 방식)
-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기로 합의

### 2. 주요 내용

- (상품양허) 양측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약 100%)을 10년 내 관세 철폐
  - 공산품의 경우, 당초 튀르키예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주장하였으나 양측 모두 전 품목 7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
  - 농수산물의 경우, 양측 모두 농수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교역품목 위주로 균형있게 양허(품목수 기준 40.7% 양허 제외)
- (무역구제) WTO plus 수준의 절차적·실질적 요건 강화로 기 체결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조치 확보
- (규범) 지재권,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한·EU FTA 또는 WTO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

### 3. 상품무역 분야 주요 내용

- 수입액 기준 우리 측은 99.6%(농수산물 제외), 튀르키예 측은 100%를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 수 기준 : 한국 92.2%, 튀르키예 89.8% 품목)
-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 관세 철폐 달성
  - 자동차 부품 :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
  - 자동차 : 수출 주력 품목(소형차)에 대해 7년 내 비선형 관세 철폐
  - 석유화학 :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 섬유 : 수출 주력 품목(화섬 및 직물)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

〈한-튀르키예 FT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양허단계	한국 양허				튀르키예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즉시	9,559	80.5	296.4	82.5	7,868	65.0	2,064	53.8
3년	200	1.7	14.4	4.0	350	2.9	338	8.8
5년	434	3.7	25.4	7.1	975	8.1	588	15.3
7년 비선형					4	0.0	169	4.4
7년	150	1.3	2.7	0.8	869	7.2	676	17.6
10년	609	5.1	18.8	5.2	801	6.6	1.7	0.0
(10년내 소계)	10,952	92.2	357.8	99.6	10,867	89.8	3,837	100.0
관세감축(RD)	134	1.1	0.2	0.1	175	1.4	0.0	0.0
양허 제외	E(Standstill)	599	5.0	1.1	748	6.2	0.1	0.0
	standstill 배제	180	1.5	0.0	312	2.6	0.0	0.0
	R	16	0.1	0.0				
	소 계	795	6.7	1.2	1,060	8.8	0.2	0.0
총합계	11,881	100.0	359	100.0	12,102	100.0	3,837	100.0

(자료: 2022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한-튀르키예 공산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유형	한국양허		튀르키예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공기조절기, 금속가공기계 냉장고, 아연광, 양탄자 의료기기, 광물성연료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	9,365	ABS수지, 플라스틱 제품, 일부 평판압연제품, 기타 알루미늄 제품, 장식용품, 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조립식 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7,389
3년 철폐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차량용 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원동기 및 펌프, 볼트-너트, 기타 산업기계, 가열난방기	350
5년 철폐	조립식 목재건축물, 제재목, 전 동축, 알루미늄의 판.쉬트, 화강암, 가솔린 경차, 가솔린 /디젤 소형	233	기타 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일부 합성필라멘트사, 합성 필라멘트 사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913
7년 비선형		0	가솔린/디젤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4개 세 번)	4
7년 철폐	양모사, 섬유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파티클보드(PB)	129	양모 및 섬유모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 압연제품, 칼라TV, 세탁기	83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해외출장가이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센터, 2022.06.03.)



#### 4. 서비스 분야 주요내용

- WTO 서비스협정(GATS)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
- 협정문의 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양국 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하되, 연안 해상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 제외
  - \* 모드 1(국경간 서비스무역), 모드 2(해외소비), 모드 3(상업적 주재), 모드 4(자연인의 이동)
  - \*\* 항공 운송 서비스 중 항공기 유지 및 보수, 항공 운송 관련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 자유화 방식
  -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채택

#### 5. 투자 분야 주요내용

-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규범 및 체계적인 ISD도 포함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 협정문의 적용 범위
  - 非서비스 투자(1차 산업 및 제조업)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하되, 서비스 분야 투자도 투자보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
  - \* 서비스 분야 투자는 서비스협정에서 규율하는 점에서 한-미 FTA와 차이
  - \* 한-미 FTA는 서비스 투자 및 非서비스투자 모두 투자 챕터에서 규율
- 자유화 방식
  -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의 유보 목록을 작성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채택
  - \* 튀르키예로서는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유보 목록 작성에 합의

□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

- 주 소: Korea Trade Center, Maslak, AKSOY PLAZA, Ahi Evran Cd. NO: 6 D:KAT. 3, 34398 Sar ı yer/İstanbul
- 전 화: 90-212-325-3646
- 팩 스: 90-212-325-3642
- e-mail: kotra@koreatrade.com.tr
- 비 고: 무역관 방문 시 건물 입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 하여 신분증 지참 필수

## 바. EDCF 지원 현황

### <EDCF 지원 현황>

(단위: 백만불)

사업명	승인일	승인금액
Gazuabtep시 상수도관 현대화 사업	1992.8	15
병원건립사업	2002.1	30
전동차 구매사업/ 협조용자 JBIC	2005.4	50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2.12.)

### 3 주요 PPP 사업 전망

#### 가. 2021년 튀르키예 건설 산업 정보

- 주택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증가
- 어려운 현지 자금 조달, 한국 혹은 외국에서 조달 필요

#### □ 산업 개요

- 토목산업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꾸준히 성장한 튀르키예의 건설업은 주력 기간산업으로 2020년 기준 튀르키예 GDP 4.6%를 차지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튀르키예 시공 능력은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또한 갖춘 것으로 보임
- 튀르키예 건설 부문은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인구에 기반해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
-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을 국제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공항, 항구, 철도 등 다방면의 프로젝트들을 활발히 추진 중임
- 또한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해 수력, 원자력 등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중동 등 석유·가스 생산국들과 유럽 국가들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구축산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 특히, 튀르키예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맞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을 완료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 풍부한 지원 중임
- 한편, 튀르키예 내 건설프로젝트 다수는 건설회사에서 자금 회수를 위해 일정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BOT (Build - Operate - Transfer) 방식으로 진행 중임

□ 시장 동향

- 2018년 금융위기,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건설 프로젝트 감소로 최근 3년간 하향세를 겪었으나, 근래에 들어 주택건설 확대, 고속철도, 병원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이 전망됨
- 2020년에는 건설허가가 전년대비 64.9% 증가한 95,408건을 기록했는데, 건설허가 대부분이 주택 건설허가로 주택 건설시장 확대가 전체 건설업 성장을 견인 중임
- 또한, 풍력 및 지열발전소 건설, 11,000km의 고속철도 인프라 확충 역시 튀르키예 건설 산업 회복세에 일조하며 특히, 도시별 종합병원 설립 등 튀르키예 정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또한 건설업 회복에 기여
- 튀르키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2013-2023년 사이 대형 병원 확충을 위해 정부예산 총 150억달러 가량을 투자하여 총 29개의 시립 종합병원을 건설함
  - 2021년 기준 시립병원 10개는 이미 건설 완료 및 운영 중으로, 대부분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하였으며, 25년간 투자기업이 병원 운영 후 튀르키예 보건부로 운영권을 양도하는 방식
- 한편, 튀르키예의 터널굴착 공사기술, 건설 시공능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인근 국가건설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많음
  - 2021년 한 해 동안 튀르키예는 총 67개국에서 384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로 인한 총 수익은 293억 달러임

<튀르키예 수주 인근 국가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국가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2 터미널 신축	쿠웨이트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 전철 노선	우크라이나
디카 복합화력 발전소	이라크
케메로보 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 신축	러시아
스코페 복합공간 건설	북마케도니아
노비우렌고이 국제공항 건설	러시아

(자료: Limak Group, ENKA등 이스탄불무역관 편집)

□ 주요 이슈

-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의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 한화큐셀의 카라프나르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활발함
- 튀르키예 건설업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외국기업이 수주하는 주된 이유는 자금조달의 안정성임
- 튀르키예 내 건설프로젝트 자금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며 환율 리스크, 부채 보증문제 등 경제 상황이 건설업 프로젝트 추진 시 불안 요소로 작용함
  - 특히 2021년 12월 튀르키예 일간지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3개월만에 튀르키예 건설 비용이 전반적으로 40% 폭등해 한동안 건설회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러한 배경의 주요 원인은 최근 지속된 달러 대비 튀르키예 리라화 환율 상승임(2021. 12. 기준 연초 대비 리라화 가치 60% 이상 하락)
- 이에 따라 건설 회사들은 안전한 자금 회수를 위해 BOT (Build - Operate - Transfer) 방식을 선호함
- 이런 튀르키예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 내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의 금융 조달 방안 검토 필요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 시공 능력</li> <li>- 전문성 대비 저렴한 인건비</li> <li>- 국내 손쉬운 자재 조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되는 환율 상승(리라화 가치 하락)</li> <li>- 튀르키예 국내 구매력 감소로 인한 신축건물의 높은 공실률</li> <li>- 미약한 국내 자금조달 능력</li> </ul>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투자자들의 튀르키예 부동산 투자 증가</li> <li>- 인접국에서 지속 발생하는 건설 프로젝트</li> <li>- 튀르키예 지자체들의 스마트시티 관심도 증가로 관련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발주국들의 정치적 불안정성</li> <li>- 시시각각 변하는 튀르키예 정부의 방침(세금, 규정 등)</li> </ul>

## □ 유망 분야

- 앞으로 튀르키예 건설시장은 건설자재 납품보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진입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튀르키예 건설업이 하락세이나 고속철도, 병원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건설 시장 진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9년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21년 8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 지속 가능 농업, 스마트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발표되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관련 공공입찰이 지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튀르키예 ‘스마트시티 행동 전략’에 언급되며 모범 사례로 주목됨
  - 이에 대한 방증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국토부 주관 K-City Network 국제공모에 튀르키예 지자체가 다수 지원하여 총 16건 접수됨
  - 현지에서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향후 튀르키예에서 관련 프로젝트 진행 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
  - 국가와 민간의 협업 등 다각도 협력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튀르키예 건설산업협회(IMSAD), Dunya, 튀르키예 통계청, Limak Group, ENKA, 한국건설기술연구원,KPMG,turkratings,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1.20.)

## 나. 튀르키예 건설/인프라/플랜트 산업

### □ 산업 개요

- 튀르키예 건설 부문은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인구에 기반해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
- 튀르키예 정부는 국제 물류 중심지로의 발돋움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공항, 항구, 철도 등 다방면의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 중임

- 전력부족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해 수력, 원자력 등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석유·가스 생산국(러시아·중동 등)과 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구축 산업도 활발함
- 특히,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맞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 아낌 없이 지원 중임

#### □ 시장 동향

- BMI Industry View 2017년 3분기 리포트에 따르면, 건설 부문은 2016년 7.2%의 성장을 해 튀르키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를 차지할 만큼 튀르키예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함
- 튀르키예 건설산업은 2015년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튀르키예 리라통화 가치가 하락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업계는 하도급 계약상 리라화 기준으로 산정한 결제조건이 2014~16년 리라화의 급락으로 마진 폭이 확보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냄
- 다만, 튀르키예 내 외국 건설업체들은 결제조건으로 유로화 또는 달러화를 선호하고, 대형 건설프로젝트 위주로 참여하고 있어 튀르키예 리라화의 하락, 금리 인상 등 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같은 상황에서 2016년부터는 굵직한 건설프로젝트들에 대한 입찰 및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산업이 회복 추세로 돌아섬

#### □ 시장 전망

- 건설부문의 성장률은 2017년 중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5.6%의 견실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불안요소인데, 이에 따라 건설회사들은 자금회수를 위해 일정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선호.
- 당초 튀르키예 수립 100주년인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발주를 계획했던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스탄불 운하 사업, 이스탄불 제3 터널 사업, Izmir 침매터널 및 사장교 등)이 코로나19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튀르키예 정부는 2021년에도 지속적 사업수행 의사를 보이면서 당해 입찰 공고를 계획했으나, 2020년 말 심각해진 코로나19의 제2차 팬데믹 영향에 따라 2021년도 사업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 바 있음
-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튀르키예의 국책사업으로 현재 러시아가 제1 원전 사업을 수주 및 시공 중이며, 제2 원전사업을 수주했던 일본이 최근 재정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여, 우리 기업의 원전사업 참여 기회가 예상됨
-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의 중요 인프라 및 국책사업이 PPP 모델로 추진됨에도 실질적인 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금융 리스크, 경제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높은 사업환경 위험 점수를 기록함
- 튀르키예는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 사업들을 지속 추진 중이나, 경제회복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강해짐에 따라 향후 PPP 사업들은 경제 리스크를 우려한 외국기업들의 참여 감소 가능성이 커짐
- 2019년 7월 발표된 제11차 경제개발 계획(2019~2023)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인적자원, 환경, 사법부문을 포괄하는 전반적 개혁을 통해 세계경제 대국 반열 진입을 목표로 함
- 튀르키예 정부는 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주요 제조업을 집중 육성산업으로 채택해 중간재의 국산화, 해외직접투자 유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함
- 2020년 10월 튀르키예 재무부는 신경세계획 2021-2023을 발표하고, 2019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제11차 개발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슬로건 : New Balance, New normal, New Economy)
  -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상황을 튀르키예 경제상황에 반영하여 발표했으며, 일부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정책 방향성을 유지했다고 평가됨
- 신경세계획은 2021~2023년의 거시경제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포괄적인 개혁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튀르키예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함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 □ 진출 전략

- 2015년 기준 튀르키예의 건설 시장규모는 국내 960억 달러로 2020년에는 1,23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시장구조는 건축부문 점유율이 60%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인프라 부문이 20%를 차지함
  - 튀르키예 내 대형 인프라 건설 수요가 많아 발전소, 파이프라인, 공항, 도로, 철도 등 분야에 외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많음
- 입찰프로젝트에서 정부의 부채 보증 및 리라화 환율변동 리스크 인수 방식은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크게 경감할 수 있어 이러한 방식 채택 필요
- 우리나라 기업은 SK에코플랜트(유라시아 해저터널), GS건설(정유 플랜트), 현대건설(이스탄불 제3 대교) 등이 진출해 활발한 건설활동에 참여 중임
  - 메가프로젝트로 불리는 대형의 건설 프로젝트를 후속 수주하는 것이 튀르키예 건설시장 진출 확대에 매우 긴요함
- 튀르키예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로, 주변 동유럽 국가와 문화·인종적 유대를 가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이 활발함

## □ 튀르키예 진출시 유의 사항

### 1. 정치·경제 불안요소 여전

- 군부 쿠데타 시도(2016.7) 이후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는 3개월씩 7차례 연장된 후 2018.7.19. 해제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체제 마련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적시 추진이 예상됨
- 다만,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지연과 경제적 불안요소도 여전히 상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 정부재원 부족으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가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되는 추세임

-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튀르키예의 국가신용도 하락은 재원 조달에 부정적이며 향후 전망도 좋지 않음

- 튀르키예 정부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등 정부 보증을 최대한 지원함에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불안감은 여전함
  -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MDB(다자개발은행)의 금융지원이 중요하나, 주요 MDB 시장을 좌우하는 미국, 독일과의 외교관계 악화로 어려운 상황임
3. 취업비자 신청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 및 시간도 많이 소요됨
- 특히 기술직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임
    - 단, 국가 정책 사업들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기술자들에게는 취업비자를 가능한 빠르게 처리해줌
  - 거주비자에 대한 법률 개정 : 대부분의 현지 주재 인력은 3개월마다 제3국 경유를 통해 90일 무비자를 취득하곤 했으나, 이마저 3개월 이상 거주 시 무조건 1년 현지 거주비자를 받도록 변경됨
4. Local contents(현지 물품/인력 의무 사용) 규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확대
- 외국인 1명 근무 시 튀르키예 자국민 5인 고용 의무규정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 단, 연락사무소는 적은 외국인력이 근무해 Local Contents 적용 예외로, 숙련된 노동자는 풍부하나 임금이 높은 수준(1년 또는 반기별로 임금 인상)

## 다. 튀르키예 건설시장 규모 및 추이

튀르키예 건설시장은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4년 연속 역성장함

- 튀르키예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교통·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이스탄불 운하사업, 이스탄불 제3터널 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고속철도사업, 병원 사업, 국제공항, 항만 및 물류, 원자력 발전소 등)가 재정부담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의 BOT 방식으로 프로젝트 우선 추진 중
- 건설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증가, 환율 상승, 외환 대출상환 부담, 현금흐름 악화 등의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 중

## 〈튀르키예 건설시장 연도별 성장률〉

(단위 : %)

연도	2018	2019	2020	2021
성장률	-1.9	-8.6	-5.5	-0.9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 라. 우리기업의 튀르키예 건설업 기회 모색

튀르키예 글로벌 건설경쟁력은 16위이나 현지 기업 금융 조달 능력 낮아 해외기업에 의존도 높은 편임

#### □ 튀르키예 건설업 현황

- 건설업은 2020년 기준 튀르키예 GDP 4.6%를 차지하는 튀르키예의 주력 기간산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튀르키예 시공 능력은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음
- 튀르키예 건설업은 토목산업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 2018년에는 GDP의 6%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8년 하반기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국내외적인 이슈로 산업 규모가 다소 위축되는 추세임

#### □ 글로벌 건설경쟁력 지수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편집)

□ 튀르키예, 상세설계 시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 선호 뚜렷

- 플랜트 설계는 일반적으로 기본 설계, 연결 설계, 상세 설계로 나뉨
- 튀르키예는 플랜트 설계 시, 기본 설계에서 다국적 엔지니어링 기업을 활용하고 상세 설계는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수주하는 형태를 선호함
-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이 현지 지질과 기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외국 기업 대비 튀르키예 내 시공 경험이 많기 때문임
- 그 외 튀르키예의 터널굴착 공사 기술, 건설 시공능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인근 국가 건설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많다는 점도 상세 설계 시 튀르키예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을 활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건설 부문 인적자원 경쟁력 높음

- 튀르키예 건설업 인력은 전문성 대비 인건비가 저렴한 편임
- 튀르키예 내 건설업의 지속적 호황으로 튀르키예 건설 관련 학과는 인기 학과로 영어구사가 능숙하고 경쟁력 높은 학생들이 많으며, 대학에서도 산학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에 힘씀
- 튀르키예 엔지니어링 기업이 인근 국가에서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종사자의 업무 숙련도가 높고 따라서 자부심 또한 높음
- 건설업 특성 상 프로젝트성 공사 업무가 많아 건설인력 이직률은 높은 편임
- 튀르키예 건설인력은 튀르키예 내 타 산업 대비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한국 건설 인력과 비교 시 7~80% 수준에 불과해 특수분야 업무가 아니라면 튀르키예 내 프로젝트 추진 시 현지 인력 고용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유리함

□ 튀르키예 내 프로젝트 참여 시 금융 조달, 자재 조달 방안 철저한 검토 필수

- (금융 조달 방안)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의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 한화큐셀의 카라프나르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활발함
- 이처럼 튀르키예 건설업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외국기업이 수주하는 주된 이유는 자금조달의 안정성임

- 튀르키예 내 건설 프로젝트 자금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며 환율 리스크, 부채 보증 문제 등 경제 상황이 건설업 프로젝트 추진 시 불안 요소로 작용함
- 이에 따라 건설 회사들은 자금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선호함
- 이런 튀르키예 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 내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시 한국 혹은 제3국에서 금융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시사점

- 튀르키예에서 시공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 및 공구류는 현지 기업이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함
- 일례로, 창호용 프로파일은 현지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여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외 고품질 자재(강판,인조대리석 등) 및 수입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재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음
- 앞으로 튀르키예 건설시장은 건설자재 납품보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진입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튀르키예 건설업이 하락세에 있으나 고속철도, 병원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건설 시장 진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21년 8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 지속 가능 농업, 스마트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장기 플랜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해 향후 주요 프로젝트의 공공입찰이 지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튀르키예 건설산업협회(IMSAD), 튀르키예 통계청,Limak Group, ENKA,한국건설기술연구원, Dunya, Haberturk,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0.25.)

## 마. 2053 인프라 비전 발표

- 향후 시장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하며 지속적 경제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라화 유동성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
-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 환율 인상, 인플레이션 폭증으로 튀르키예의 국가신용 등급은 2022년 9월 30일 S&P가 B등급(stable), 2022년 8월 12일 Moody's가 B3등급(stable), 2022년 7월 8일 Fitch가 B등급(Negative)로 평가
- 건설 부문에 있어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BOT 등의 PPP 방식으로 진행되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튀르키예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2022년 11월에 약 85% 수준으로 폭증함
- 튀르키예는 경제발계획에서 “2053 인프라 비전” 을 발표하였음
- 2022년 4월 “Transport Vision 2053” 회의에서 2053년까지 약 1,9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계획을 발표함
  - 회의에서 아딜 카라이스마일로글루 튀르키예 교통 인프라부 장관은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에서 튀르키예의 몫을 7,000억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아딜 장관은 지난 2019년 대비 2053년에는 튀르키예 국민의 차량 소유량이 242% 증가하고 화물 운송에서 철도의 비중은 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이를 대비하기 위해 튀르키예는 2053년까지 Aydin-Denizli 고속도로, Çanakkale-Savaştepe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총 38,060km의 도로망을 구성하고, 철도는 28,590km까지 늘릴 계획임을 밝힘
- 현재 217개인 항만은 255개까지 증설하고 2029년 교통계획모델에 포함되는 운하사업으로 물동량을 감당한다는 계획
- 공항은 6개를 더 건설해 총 61개를 유지할 예정으로 Çukurova 공항, Rize-Artvin 공항 등을 건설 중이며 앞으로도 늘려나갈 예정임

- 철도노선 8,554km, 고속철도(6,196km), 재래철도(1,474km), 고속열차(622km), 초고속열차(262km)
- 물류센터 증대 (13개 → 26개),
- 화물처리량 증대 (254,343,000톤 → 420,978,000톤)
- 항구 증대 (217개 → 255개)
- 공항 증대 (56개 → 61개)

- 튀르키예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 인프라에 1,7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79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함
- 또한, 신규 인프라 사업을 통해 교통시간 절약, 연료비 절감, 사고비용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기타비용 절감으로 총 약 1,760억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함

(출처: 엔지니어링데일리, <http://www.engdaily.com>, 2022.05.13.)

## 바. 한-튀르키예 인프라 협력 강화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22년 3월 17일(목), 튀르키예를 방문하여 엔베르 이스크루트(Enver Iskurt)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특히,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튀르키예 인프라투자청(AYGM)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 (일시장소) 3.17(목) 16시,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회의실
  - (협약주체) KIND 사장(이강훈), 튀르키예 인프라투자청장(얄신 아이건, Yalçın EYİGÜN)
- 양국 간 유망 인프라 사업 발굴 및 공동 사업개발 등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한국기업들과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이 협력하여 유라시아 해저터널, 차나칼레 대교 등 대표적 국책 인프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함
- KIND와 튀르키예 인프라투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 양국 간 상생 발전의 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이스크루트 차관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 또한 향후 튀르키예에서는 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철도, 운하, 항구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과 튀르키예의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이에 윤 차관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항구, 운하 등 인프라 분야의 대대적 정비의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그런 의미에서 당일 한국 KIND와 튀르키예 인프라투자청과의 업무협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가 튀르키예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함
- 한편, 한국과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튀르키예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동지역 등에서 약 26억불 규모의 합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옴  
(출처: 2022. 3.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 **사. 해외건설협회, 튀르키예 투자청과 인프라 투자 설명회 개최**

- 해외건설협회(회장 이진기)는 새로운 투자 유망국으로 부상 중인 튀르키예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2019 튀르키예 인프라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2019.9.26.)
- 이 설명회는 해외건설의 패러다임이 단순 EPC 도급에서 민관협력사업(PPP)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튀르키예의 투자환경과 주요 인프라 투자 예정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됨
- 튀르키예는 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국가 대개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함
  - 이의 일환으로 이스탄불 3층 터널, 이스탄불 운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수백억불 규모의 사업을 PPP 또는 재정 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임



- 이날 설명회에는 튀르키예 투자청과 튀르키예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클린치(KILINC)에서 발표를 진행했으며, 아래와 같은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튀르키예의 투자상황을 생생히 전달함
  - 튀르키예 투자청 Bilal Ilhan 수석연구원 : 튀르키예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 튀르키예 투자청의 Taha Saran 한국 지부장 : 튀르키예의 인프라 투자 및 PPP 사업
  - 클린치 법무법인의 Levent Kilinc 변호사와 Duygu Dogan 변호사 : 튀르키예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법적사항
- 한편, 해외건설협회는 급변하는 해외건설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의 우수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임

(출처 : 건설이코노미뉴스(<http://www.cenews.kr>), 2019.09.27.)

## **아. 韓-튀르키예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속도내나**

양국 경제계 인프라 건설, 新산업 분야 협력 확대기로 함

- 2020년 9월 22일 한국과 튀르키예 경제계가 양국의 두터운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차·의료·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특히 양국은 한-튀르키예 국토교통부 간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시장 고속차량 수출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협력기반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건설 등 튀르키예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도록 적극 노력기로 함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한-튀르키예 비즈니스 포럼을 튀르키예 대외경제협력위원회(회장 나일 올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튀르키예 통상부(장관 루흐사르 께잔)와 공동으로 대한상의에서 온라인 개최함 (2020. 9. 22.)
- 한-튀르키예 경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당초 상반기 중 튀르키예 정상순방과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순방이 순연됨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진행됨

\* (한국 측)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성윤모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한국 측 경험위원장), 이혁재 셀트리온 전무, 윤철진 SK플래닛 그룹장 참석  
 (튀르키예 측) 나일 올팍 (Nail Olpak) 튀르키예 대외경제협력위원회(DEIK) 회장, 루흐사르 펙잔(Ruhsar Pekcan) 통상부 장관, 알리 키바르(Ali Kibar) 키바르 그룹 회장(튀르키예 측 경험 위원장) 등 참석

■ 박용만 회장, “튀르키예와 비대면 산업 협력 기대...인프라 대형 사업 수주 지속돼야” 강조.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튀르키예 양국은 전통의 우방국으로 두터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함
  - 튀르키예 정부의 건국 100주년 경제개발 프로젝트인 ‘VISION 2023’ 계획에 따라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이나 공항·에너지·병원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튀르키예가 전기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하는 만큼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라 칭하며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비즈니스 등 미래 협력은 더욱 다양하고 깊어질 것이라 언급함
-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왕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변함없는 양국 경제협력 교류를 위해 비즈니스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데 큰 의의가 있다 강조함
  - 또한 차나칼레 대교 건설이나 현대자동차 이즈미트 공장 차량 생산처럼 양국의 상징적 협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정부부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함
- 루흐사르 펙잔 장관은 한국과 튀르키예의 FTA가 체결된 2013년 이후 교역량이 약 20% 이상 증가하는 등, 지난 7년간 양국 기업인들의 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함
  - 이어 한국은 바이오·IT 등 여러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만큼 오늘 자리를 통해서 양국 경제인들이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유럽과 아시아가 교차하는 매력적 투자처인 튀르키예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함

■ 양국 주요 기업인 참여, 양국 진출 성공사례·향후 경험 확대 전략 등 논의  
2020년 9월22일 행사에서는 양국 진출 성공사례와 향후 경험 확대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짐

- 먼저 이혁재 셀트리온 전무는 튀르키예를 바이오산업 선진국인 유럽 진출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전략 국가라 언급
  -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튀르키예 젠센타(Gensenta)사와 협력해 현재 완제 의약품(Drug Product)의 40%를 위탁 생산 중이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통해 양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어 발표에 나선 윤철진 그룹장은 SK플래닛은 2012년부터 도우쉬(Dogus) 그룹과 손잡고 튀르키예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해 판매상품 1,800만개, 회원수 1,900만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잡았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커머스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우쉬 그룹과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 대한상의 강호민 국제본부장은 유럽시장 진출 관문으로서 내수시장과 성장성을 함께 갖춘 튀르키예를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향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건설 등 튀르키예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국 정부와 기업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임
- 한편, 국토교통부-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2020.9.3.)를 통해 우리기업의 튀르키예 시장 차량 수출 및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철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등 양국의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함
-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망(143km, 약5조 원) 구축과 94편성의 대규모 고속차량 구매사업을 계획 중임
- 이에 국토부(대표:철도국장)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튀르키예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철도기업의 우수성 홍보 및 정부 간 협력의지 표명을 위해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대표:교통차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함(출처: 철도경제, 2020.09.22.)

## 4 발주 예상 PPP 현황

### 가. 튀르키예, 1GW급 풍력 프로젝트 입찰 시행(2018.11.)

- 튀르키예 정부, 2017년에 이은 2차 입찰시행 공고
- 최저 전력가 제시자 낙찰방식으로, 전력가격 상한은 \$5.5/kwh로 제시

####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Renewable Energy Resources Area Project(YEKA) / 1-GW Wind Power Tender
- 발주처: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에너지청
- 공고일자: 2018.11.7.
- 입찰방식: 최저 전력가 제시자 낙찰방식
  - 프로젝트 참여희망기업은 입찰 참여 시 희망 전력판매 단가(최대 \$5.5/kwh 한도)를 제시하고, 발주처는 최저전력단가 제시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
- 입찰일자: 2019.3.7.
- 프로젝트 내용: Balikesir, Canakkale, Aydin, Mugla 지역에 각 250MW급 풍력발전소를 완공 후 전력판매계약(PPA)상 단가(낙찰가격)로 15년간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임

<프로젝트 예정 지역 위치>



(자료원 : 무역관 자체 편집, GoogleMap 활용)

□ 입찰 참가방법

- 프로젝트 상세사양 등이 포함된 입찰서류는 에너지천연자원부 에너지청에서 5,000TL(튀르키예 리라화) 납입 후 구매 가능
  - 주소: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MENR) General Directorate of Energy Affairs, Eskisehir Yolu 7. Km. No: 166, Cankaya Ankara, Turkey
  - 전화번호 : +90 312 295 51 10
  - 이메일 : yeka@yegm.gov.tr
- 입찰은 단독 참여 및 컨소시엄 참여 모두 가능하며, 2019년 3월 7일 정오까지 희망 전력판매 단가가 기재된 입찰서류 제출을 통해 참가 가능
  - 입찰 참여 시 지역별 입찰보증금 250만 달러씩 총 1,000만 달러의 입찰보증금 납입 필요

□ (참고) 2017년 1차 1GW급 풍력프로젝트 입찰 결과

- 2017년 8월 3일, 지멘스(Siemens) 컨소시엄은 튀르키예 내 Kayseri 등 5개 지역에 총 1GW급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
  - 사업자는 희망전력판매 단가를 \$3.48/kwh로 제시해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향후 15년간 해당 가격으로 전력 판매 예정임
  - 해당 프로젝트는 입찰 참여조건으로 튀르키예산 부품 65% 이상 사용 요건이 부과됐으며, 지멘스 컨소시엄은 로컬 콘텐츠 규정 충족을 위해 튀르키예 내 공장 설립 추진 중임

□ 시사점

- 튀르키예 정부, 1GW 급 풍력프로젝트 입찰 추진 예정으로, 우리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직접 참여 또는 낙찰자 대상 부품 공급 등 간접 참여 가능함
- 최근 YEK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Konya지역 태양광 프로젝트(한화 큐셀 컨소시엄 낙찰), Kayseri 등 풍력 프로젝트(지멘스 컨소시엄 낙찰)의 낙찰자가 모두 튀르키예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임을 유념 필요
  - 입찰 직접 참여 시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함

- 프로 낙찰업체가 모든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음을 감안해 향후 낙찰업체 대상 풍력발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의 간접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전기 제조업체 A사에 따르면 튀르키예 내 풍력 프로젝트는 발전기 부품에 대해서도 로컬 콘텐츠 규정(현지 물품/인력 의무 사용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주업체는 로컬 콘텐츠 규정 충족을 위해 튀르키예 내 소재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를 감안해 프로젝트 간접 참여 희망업체는 튀르키예 내 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자료원: 튀르키예 정부 입찰공고문, turkishtenders.com,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등)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11.07.)

## **나. 튀르키예, 2023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1,250억 달러 투자**

- 신재생, 수력, 화력, 원전 분야를 포괄함
  - 이스탄불 Atlantic Council Energy & Economic Summit에서 밝힘
- 튀르키예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배가 계획 추진
-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 Atlantic Council 행사\*에서 튀르키예 에너지부 장관 투자 세부계획을 발표함
  - \* Atlantic Council ENERGY & ECONOMIC SUMMIT: 범대서양 관계증진 및 정책 협의를 위해 연례 개최되는 국제회의로서, 2015년 11월 18일~11월 20일 제7차 회의가 이스탄불에서 에너지 및 경제 분야를 주제로 개최됨  
 40개국 400여 명의 참가자와 40여 명의 글로벌 CEO가 참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대통령을 비롯, 국내외 20여 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함
  - 튀르키예의 에너지 수요는 매년 7% 증가하고 있어,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3년까지 총 1,2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현재의 7만 2,000MW 에너지 생산능력을 2023년까지 대략 2배 수준인 13만MW로 확충할 계획임
  - ※ 2023년은 튀르키예의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튀르키예는 주요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있음

□ 튀르키예 에너지원의 다양화 추진

- 현재 전력 생산 에너지원으로 48%를 점유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계획임
- 풍력발전 생산능력은 현재 4,200MW 수준에서 2023년까지 2만MW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 튀르키예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아쿠유 원전이 2022년 가동 목표로 운영되고, 흑해 지역에 두 번째의 시놉 원전 가동이 2023년에 이어질 계획임
- 석탄화력발전의 기설치 생산능력은 전체의 29%를 차지하며, 이 생산에 소요되는 석탄의 50%는 자국생산 갈탄으로 충당됨

□ 가스 및 유류 등 에너지 교역에서 튀르키예의 중심적 위치, 투자 적격지로 주목

-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국제 간 투자 협력의 기회 다수 존재
  - Southern Corridor로 불리는 튀르키예를 경유한 주요 가스 및 유류 파이프라인 운영 호조
    - 튀르키예 경유 주요 국제송유 가스관(Southern Corridor)
    - TANAP: 아제르바이잔에서 튀르키예 경유 남부 유럽의 TAP(Trans Adriatic Pipeline)과 연결하는 가스파이프라인
    - 아제르바이잔(바쿠) - 조지아(트빌리시) - 튀르키예(제이한)을 잇는 송유 파이프라인

□ 시사점

- 튀르키예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투자를 수반해 메가프로젝트로 불리기도 함
  - 대부분 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들로, 가장 최근인 2013년 튀르키예 투자청의 투자 계획에 포함돼 있는 확정된 투자 계획들임
  - 2015년 11월 24일 튀르키예의 신정부 출범 전후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잇따랐으며, 이는 기존 투자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임

- 한국의 에너지 분야 기업, 강점 분야 살려 투자프로젝트 참여 필요
  - 프로젝트의 규모가 매우 크며, 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참여로 진행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 분야에 있어 강점을 가진 우리 한국 기업들도 컨소시엄 구성 및 튀르키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참여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데일리휴리엣 2015년 11월 19일, 11월 20일자, 11월 24일자, 튀르키예투자청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12.22.)

## 다. 성장이 기대되는 튀르키예 풍력발전

- 튀르키예 풍력 발전량 전년대비 13.5% 증가
  - 현지 기업들의 잇따른 풍력 발전소 인수 중
- 튀르키예 재생 에너지 발전량 중 풍력 2위, 앞으로도 성장 기대
- 튀르키예 에너지시장규제청(EPDK)에 따르면 2020년 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은 튀르키예 생산량 전체의 40%이며, 전력 생산 비중 중 20%는 풍력발전이 차지함
    - 풍력발전은 튀르키예 전체 전력 생산량의 8.4%를 차지하며, 약 1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19-2020 튀르키예 전력 생산량>

(단위: GWh, %)

구분	2019	2020	비율	2019/2020변동
수력	88,850.2	78,087.9	26.6	-12.1
천연가스	56,522.7	69,277.5	23.6	22.6
석탄(수입)	60,381.3	62,466.5	21.2	3.5
석탄(국내)	52,736.6	43,802.6	15.0	-18.6
풍력	21,636.3	24,561.3	8.4	13.5
지열	8,929.7	9,929.4	3.4	11.2
바이오매스	4,266.3	5,228.5	1.8	22.6
태양	194.4	417	0,1	114.5
석유	732.9	314	0.1	-57.1
합계	294,251.3	294,084.7	100	-0.1

(자료: 에너지시장규제청,EPDK)



- 튀르키예 정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2005년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 정책인 YEKDEM(Yenilenebilir enerji kaynaklarini destekleme mekanizmasi)을 시행함

- YEKDEM : 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의 정부 구매 보장 정책

〈YEKDEM 구매 보장 대상 발전소 현황〉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태양	-	-	-	-	-	-	2	3	9	17
수력	4	44	14	40	126	388	418	447	463	463
풍력	9	22	3	21	60	106	141	151	160	165
바이오매스	3	8	15	23	34	42	57	70	100	126
지열	4	4	6	9	14	20	29	37	45	50
합계	20	78	38	93	234	556	647	708	777	821

(자료:에너지시장규제청,EPDK)

- 2020년 기준 YEKDEM 지원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총 821개로, 튀르키예 정부는 2005.5.18.부터 ~ 2020.12.31.까지 가동 시작 혹은 예정인 발전소를 대상으로 최대 10년 동안 일정 생산량을 구매함
- 이어서 2021.1.1.부터 ~ 2021.6.30.까지 사이에 가동 예정 발전소를 대상으로 임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원을 계속함
- 2021년 1월 30일, 튀르키예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원 개정안을 새로 발표하였고,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임

〈재생 에너지 구매보장 금액〉

(단위: US\$ cent/kWh)

에너지원	2005-2020년	2021-2025년
수력	7.3	6.4
풍력	7.3	5.1
지열	10.5	8.6
바이오매스	13.3	8.6
태양열	13.3	5.1

(자료:에너지시장규제청,EPDK)

- EU 탄소중립 선언, 튀르키예 기업들 풍력발전 산업 투자에 트리거로 작용  
 튀르키예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와 관련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에너지 산업협회(ENSIA) 협회장 Alper KALAYCI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튀르키예 기업의 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 관심이 증가함
    - 튀르키예는 자동차, 백색가전, 철강 등 다양한 분야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어 유럽의 움직임에 민감함
  - 이번 탄소중립 선언 중 주요 사안인 '탄소국경세'는 튀르키예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튀르키예 기업들은 빠르게 대응에 나섬
  -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대체로 발전소의 인수인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인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효율 면에서 더욱 효과적임
    - 이에 대한 본증으로 최근 튀르키예 대기업 Koç 그룹의 전력 회사 Entek은 Süloğlu 풍력발전소를 인수함
      - \* Koç 그룹 : Beko, Grundig 등의 백색가전 기업과 Otokar, Turk traktor 등의 자동차 제조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력 시장이 유럽으로 탄소국경세에 큰 영향을 받음
      - 이에 풍력 발전소 인수를 통해 자사 생산 제품의 탄소함유량을 낮춤과 동시에 향후 재생 에너지 수요의 지속 증가를 감안해 투자한 것임
      - 그 외에도 튀르키예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urkcell사도 일찌감치 풍력 발전소를 인수함
        - \* Turkcell은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품목은 없지만 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저탄소 경영 전략을 위해 인수함
        - 그 외에 또 다른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Vodafone사는 기업의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음
  - 2021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및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 목표를 법률로 설정함 (2021. 6. 기후법 유럽 의회 통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제도(CBAM)를 도입할 예정
  -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탄소함유량을 토대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함
  - 우선 적용 상품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으로 생산 과정 중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품목임
  - 해당 조치는 탄소 누출 감소, 글로벌 기후 합의에 대한 타국의 참여 유도과 동시에 강력한 기후 정책 규제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방침임
  - 2023. 1. 1. 발효 후 2025년까지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

□ 수입산 석탄 가격 전년 동기 대비 3.5배 증가

- 또 다른 튀르키예 풍력 발전 시장 성장 기대 요인 중 하나는 석탄 가격임
  - 2021년 9월 기준, 수입산 석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5배 증가(\$50→\$175)함
- 이처럼 석탄 가격이 폭등하자 수입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 8곳이 일시 가동 중단함
- 이번 가동을 중단한 발전소는 튀르키예 내 전력 수요의 21%를 대응하는 곳으로 가동 중단은 튀르키예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함
-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2015년부터 석탄 연료로 생산한 전기 사용 대신 재생 에너지원 전력 사용 장려 정책을 시행함(제5627호 에너지 효율법)
  - 대상은 튀르키예 내 모든 산업의 기업임
- 기업이 전기 공사 조사관리국(elektrik işleri etüt idaresi genel müdürlüğü)과 전력 사용량 감축 계약서를 작성 후 3년 내 전력 사용을 최소 10% 이상 줄이면 20만 리라 한도 내에서 생산 활동에 사용된 전기세의 20%를 정부가 부담함
  - 단, 감축 대상의 전력은 석탄 연료를 사용한 전력이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은 포함되지 않음
- 이번 석탄 가격 폭등 건에 대해 현지 시장조사기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튀르키예가 외국 자원 사용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원을 통해 재생 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전함

## □ 시사점

- EU와 정치, 통상 등 여러 분야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는 EU 탄소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아래 재생 에너지 수요가 지속 발생 및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튀르키예 정부는 꾸준히 각종 정책을 통해 자국 내 풍력발전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민간 기업도 동참하고 있음
  - 현재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산 풍력 발전 터빈 개발을 적극 장려함
- 튀르키예에 설치된 풍력 발전은 모두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상 풍력 단지는 아직 없는 상태
- 우리나라는 이미 해상 풍력 단지 설계와 제품 및 관련 부품 공급, 설치 등의 경험이 있으므로 추후 관련 프로젝트 진행 시 현지 기업과 공조하여 정부 공공입찰 참가, 기술합작 혹은 이전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고려 가능함

(자료: 튀르키예 환경부, 에너지시장규제청(EPDK), 튀르키예 관보, 튀르키예 풍력발전협회(TUREB), 튀르키예 에너지산업자협회(ENSIA), 시바스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Anadolu Agency, Dunya, Investing.com, Haberturk, YEKA RES,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0.22.)

## 라. 튀르키예 PPP Introduction

(출처: 튀르키예 인프라 및 PPP 프로젝트 투자, 튀르키예 대통령실 투자청, 2022.07.) [www.invest.gov.tr](http://www.invest.gov.tr)

### 1. 인프라 분야

- 1986년부터 2022년까지 튀르키예의 총 PPP 프로젝트 계약금액은 1,840억 달러, 총 262개 PPP 프로젝트
- 2035년까지 목표 고속자동차도로는 8,200km이며, 2023년에 튀르키예 인프라 투자중에 60%는 철도 분야임



**USD 184 billion**  
Total value of PPP contracts in Türkiye during the 1986-2022 period.



**262**  
Total number of PPP projects in Türkiye during the 1986-2022 period.



**8,200 km**  
Total motorway length targeted to be reached in Türkiye by 2035.



**60%**  
The share of rail sector among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Türkiye in 2023.

- 인프라 PPP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AIIB, European Bank, Khazanah Nasional, Sojitz, Astaldi, IFC, Meridiam, Socar 등이 있음



- 튀르키예의 개발 경제는 운송(교통), 의료 및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에 대한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함
- 이러한 PPP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금융 종결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 Türkiye의 전문성이 가장 잘 성장하고 있음을 방증함

- Türkiye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가짐

- 튀르키예 경제는 2002~2021년 간 5.4%의 강력한 연간 GDP 성장률을 보임
- 튀르키예의 약 8,400만 인구는 매년 추가로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음
  - 이것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과 결합되어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24개 이상의 도심이 생겼고 그 중 9개는 인구가 200만 명 이상임
- 튀르키예의 증가하는 국제 무역량과 전략적 위치는 국가가 기반 시설을 개발하도록 종용함
  - 튀르키예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의 중심에 있는 중간 회랑을 이끔
- 연 60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수용하는 튀르키예는 의료 서비스 품질을 크게 개선했으며 OECD를 따라잡기 위해 의료인프라에 계속 투자할 것임
- 운송(교통)에서 의료 및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메가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로 프로젝트에 이르는 다양한 기회가 파이프라인에서 제공됨
- 튀르키예는 건설-운영(BO), 건설-운영-이전(BOT), 운영권 이전(TO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PPP 투자에 유리한 투자 법률을 보유함

- 튀르키예 정부는 프로젝트 개발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함
- 튀르키예의 투자 환경은 투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 중재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제법에 의해 더욱 강화됨

## 2. 에너지 분야

- 튀르키예는 유럽 전력시장에서 5위이며 유럽 에너지 소비 5위임
  - 글로벌 지열발전 능력 4위이며, 유럽 가스 소비 4위 국가임



- 에너지 분야 주요 플레이어들은 RWE, EnBW, LM wind power, BP, GE, SIEMENS, tpi composites, E-on 등임



- 튀르키예의 경제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02년 이후 연간 5.5%의 성장률로 OECD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고 이후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배 증가함

- 총 설치 용량이 31.8GW에서 95.9GW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성장하는 경제 성과는 국가의 발전 인프라에도 반영됨
  - 증가하는 수요 충족을 위해 2019~2023년 11차 개발 계획에 강조된 바와 같이 민간 부문이 위탁할 추가 투자를 통해 현재 용량은 2023년까지 110G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민영화 및 자유화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모든 배전 및 발전 자산의 78%가 민간 부문에 넘겨져 재무부는 미화 23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함
  - 같은 기간에 약 1,000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공공 및 민간 투자가 발전·송전 및 배전 자산에 완료됨
- 시장의 자유화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전력 및 가스 상품을 포함한 에너지 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Energy Exchange Istanbul(EXIST)이 2013년 설립됨
- 튀르키예는 순수 에너지 수입국으로 수입 의존도는 지역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시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및 투자 모델의 공식화 및 구현 뒤에 있는 주요 원동력임
- 튀르키예는 상당한 양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잠재력의 활용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함
- 2020년 말 현재 수력, 풍력 및 태양광 자원은 국가 재생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총 설치 용량은 수력 30.9GW, 풍력 8.8GW 및 태양광 6.7GW를 차지함
- 또한 총 173억 톤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갈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천연 가스 부문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음
- 튀르키예는 공급 보안 및 계절별 가스 배분 용량을 늘리기 위해 2018년에 2개의 부유식 저장 재기화 장치(FSRU) 터미널을 시운전했으며 Tuz Golu(솔트레이크) 천연 가스 저장 시설의 1단계를 개방함
  - 이러한 투자는 튀르키예의 가스 저장 용량을 현재 4bcm에서 2023년까지 11bcm로 확장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함

### 3. 튀르키예 10대 투자 이유

- 1) 튼튼한 경제 2) 국내 접근 가능시장 3) 전략적 위치 4) 우호적인 인구통계학
- 5) 숙련 및 경쟁적인 노동력 6) 지속적인 개혁과정 7)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 8) 유리한 인센티브 9) 좋은 연구개발 생태 환경 10) 분야별 기회 존재

WHY INVEST IN TÜRKİYE?

10 REASONS TO INVEST IN TÜRKİYE



## 10 reasons to invest in Türkiye



### 4. 핵심 보고 요약

□ 튀르키예는 인프라 투자의 강한 근거를 보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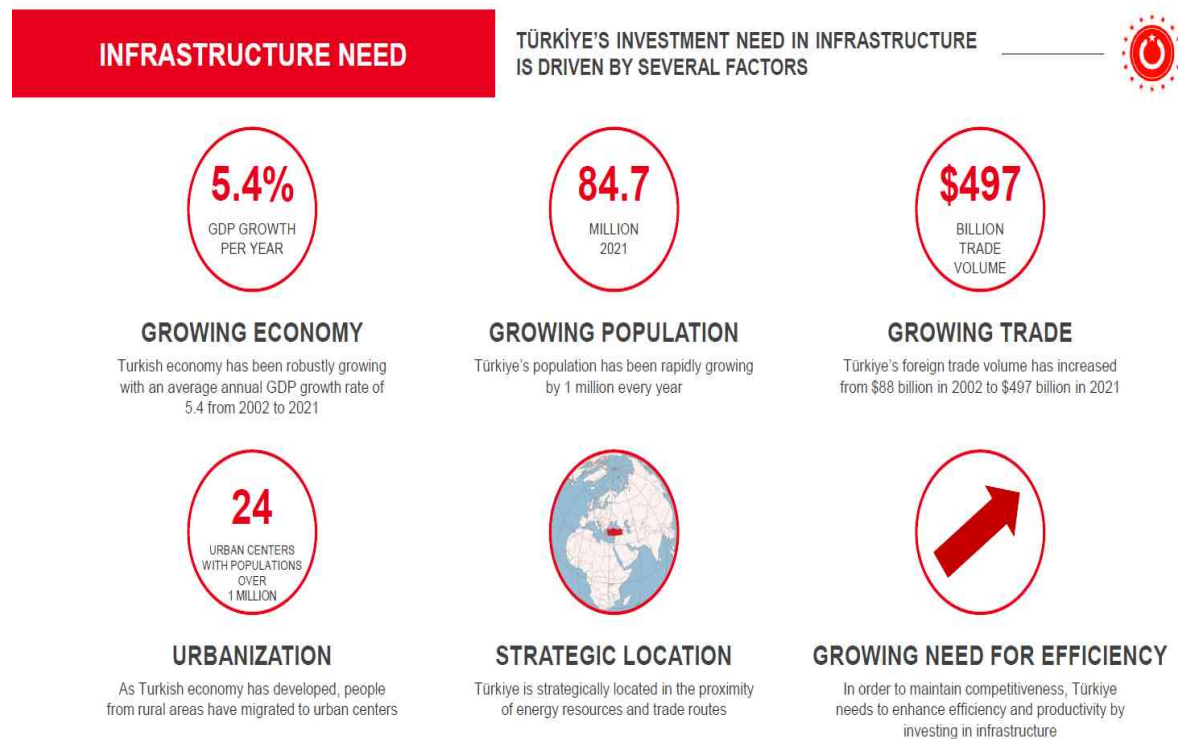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개발투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튀르키예 경제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5.4%로 견조하게 성장</li> <li>- 약 8,470만 명의 강력한 인구는 매년 100만 명이 추가로 증가하고 있음</li> <li>- 인구 100만 명이 넘는 24개 이상 도심이 생겨난 도시화 과정</li> <li>- 증가하는 거래량과 전략적 위치로 인해 튀르키예는 인프라를 개발해야 함</li> </ul>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기회를 가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튀르키예의 1,840억 규모의 민관협력사업 (다양한 부문의 PPP 프로젝트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밝은 전망을 보임)</li> <li>- 튀르키예는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움</li> <li>- 운송(교통)에서 의료 및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파이프라인에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li> </ul>
우호적인 투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튀르키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현가능한 PPP 투자에 유리한 투자 법률을 보유함 : 건설-(소유)-운영 (BO,BOO), 건설-운영-이전(BOT), 운영권 양도(TOR) 등</li> <li>- 튀르키예의 투자 환경은 투자를 보호하고 국제 중재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제법에 의해 더욱 강화됨</li> <li>- 튀르키예의 거시 경제 정책, 투자 및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공공 재정 관리가 구매보증이 필요한 PPP 투자를 지원하는 것임</li> </ul>



## 5. 인프라 필요성

□ 인프라에 대한 TÜRKİYE의 투자 필요성 결정요인들

- 1)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튀르키예 경제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5.4%로 견고하게 성장함
- 2) 2021년 인구 8,470만명이고 세계 11위 경제규모, 튀르키예 인구가 매년 100만씩 급속히 증가함
- 3) 튀르키예 대외 무역량이 2002년 880억 달러에서 2021년 4,970억 달러로 증가함
- 4) 튀르키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심으로 이주, 인구 100만 이상의 24개 도심이 있음
- 5) 튀르키예는 에너지 자원 및 무역로 근접성에서 전략적인 위치에 있음
- 6)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는 인프라에 투자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함



- 2022년부터 2040년까지 현재 투자 추세로는 5,690억 달러 예상, 투자 필요는 9,750억 달러로서 4,060억 달러의 투자갭이 존재함
-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운송(교통)인프라 투자 필요액은 5,631억달러이며 이중에 도로가 4,990억 달러, 철도가 630억 달러, 항만이 11억 달러, 에너지 투자는 2,420억 달러가 필요함

## INFRASTRUCTURE NEED

TÜRKİYE HAS A SIGNIFICANT INVESTMENT NEED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2022-2040

**\$569 Billion**

Investment current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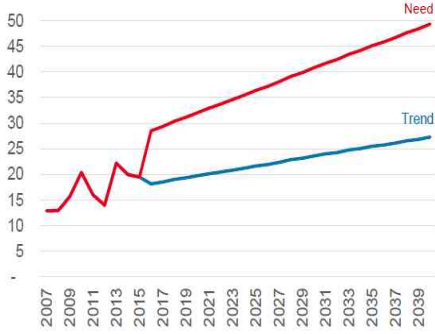
**\$975 Billion**

Investment nee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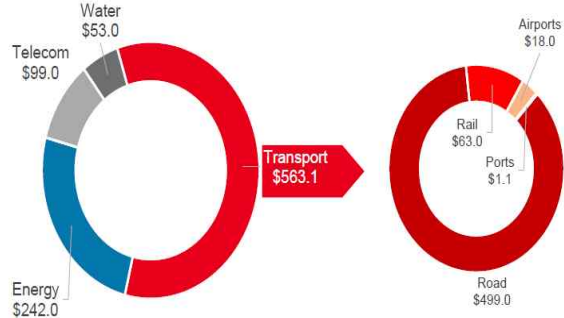
**\$405 Billion**

Investment gap

Türkiye's Infrastructure Current Trends and Need (\$Billion)



Investment Need by Sector (2022-2040)



## 6. 교통 인프라

□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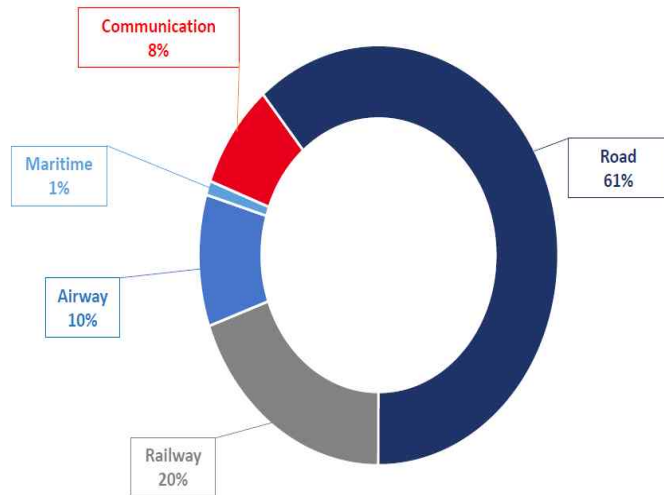
- 1) 도로 697.9 십억 리라(61%)
- 2) 철도 225.6 십억 리라(20%)
- 3) 공항 115.2 십억 리라(10%)

## INVESTMENTS IN TRANSPORT

SECTORAL SHARE OF INVESTMENT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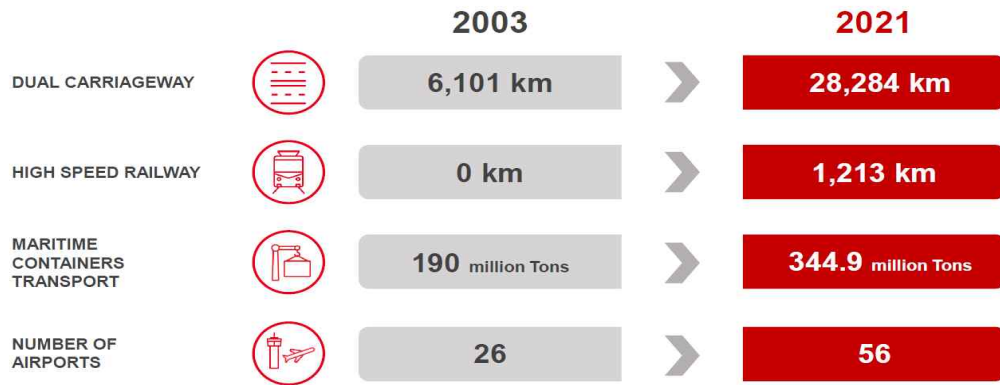
Sectors	Billion TL
Road	697.9
Railway	225.6
Airway	115.2
Maritime	12.5
Communication	93.2
<b>Total</b>	<b>1,144.8</b>



□ 2003년과 2021년의 교통 인프라 투자 비교

- 1) 도로 왕복차선 : 6,101km에서 28,284km로 증가
- 2) 고속철도 : 0km에서 1,213km 증가
- 3) 공항 : 26개에서 56개로 증가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TRANSPORT** INVESTING IN TRANSPORTATION HAS REMARKABLY TRANSFORMED TÜRKİYE'S INFRASTRUCTURE LANDSCAPE, YET TÜRKİYE IS DETERMINED TO IMPROVE IT FURTHER



□ 튀르키예 고속도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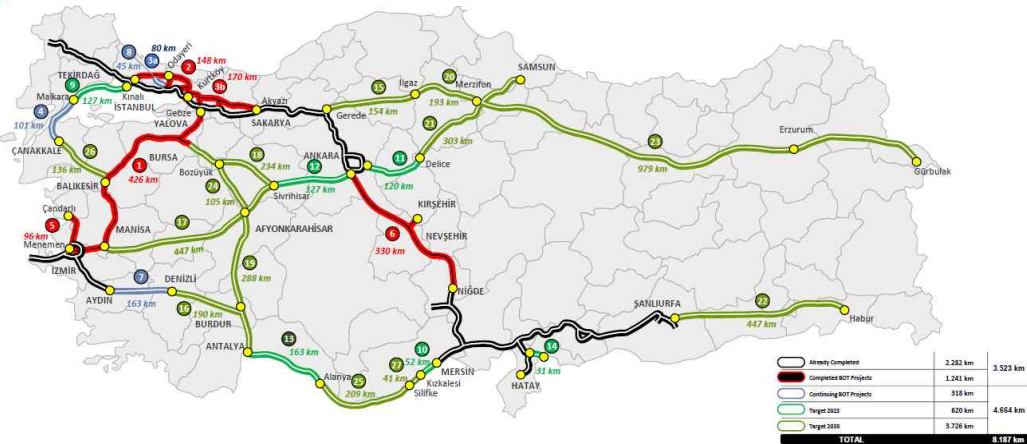
고속 자동차 도로(유료도로)는 튀르키예 도로 교통의 핵심

- 현재 운행 중인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3,532km이며 아래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건설 및 계획 단계를 거쳐 2023년 4,461km, 2035년 8,187km로 총연장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HIGHWAY PROJECTS IN TÜRKİYE** MOTORWAYS (TOLL ROADS) ARE KEY TO TÜRKİYE'S ROAD TRANSPORTATION



The total length of highways currently in service is 3,532 km.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highway projects under construction and planning stages, it is aimed to increase the total length of the highway to 4,461 km in 2023 and 8,187 km in 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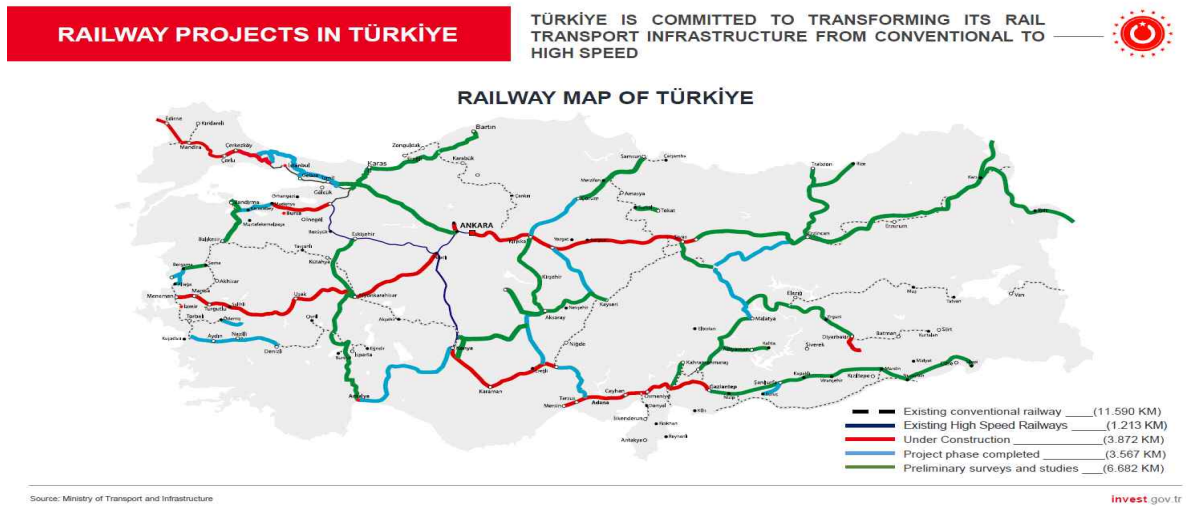


Source: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 □ 튀르키예 철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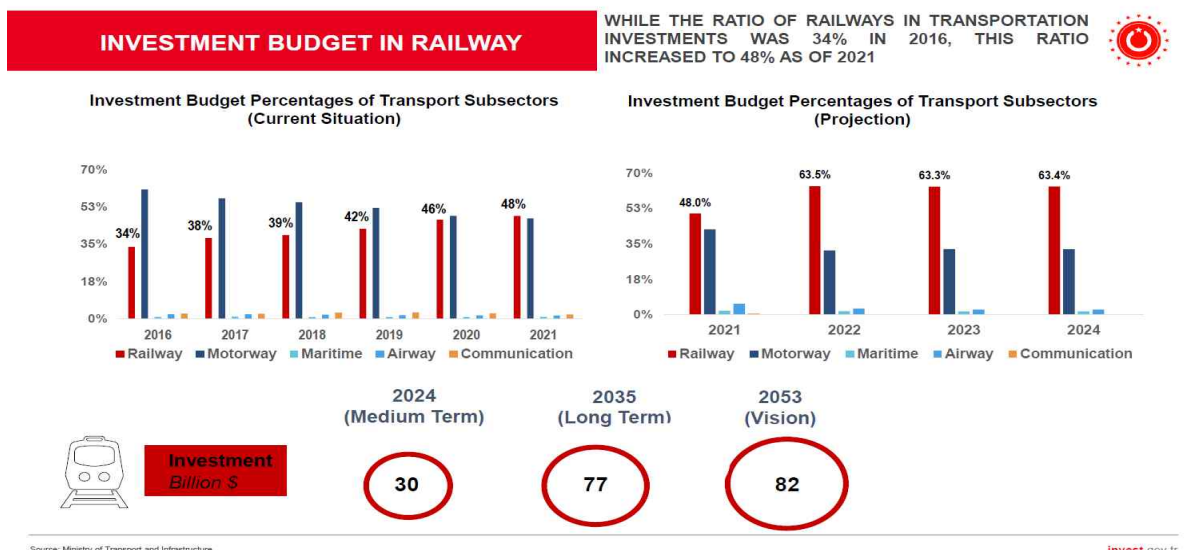
전통적 국철에서 고속철도로의 철도 교통 인프라 변형에 최선을 다함

- 1) 기존 국철 : 11,590km
- 2) 기존 고속철도 : 1,213km
- 3) 건설이 진행중인 철도 : 3,872km
- 4) 프로젝트 단계로까지 완료된 철도 : 3,567km
- 5) 예비 조사 및 연구가 진행중인 철도 : 6,68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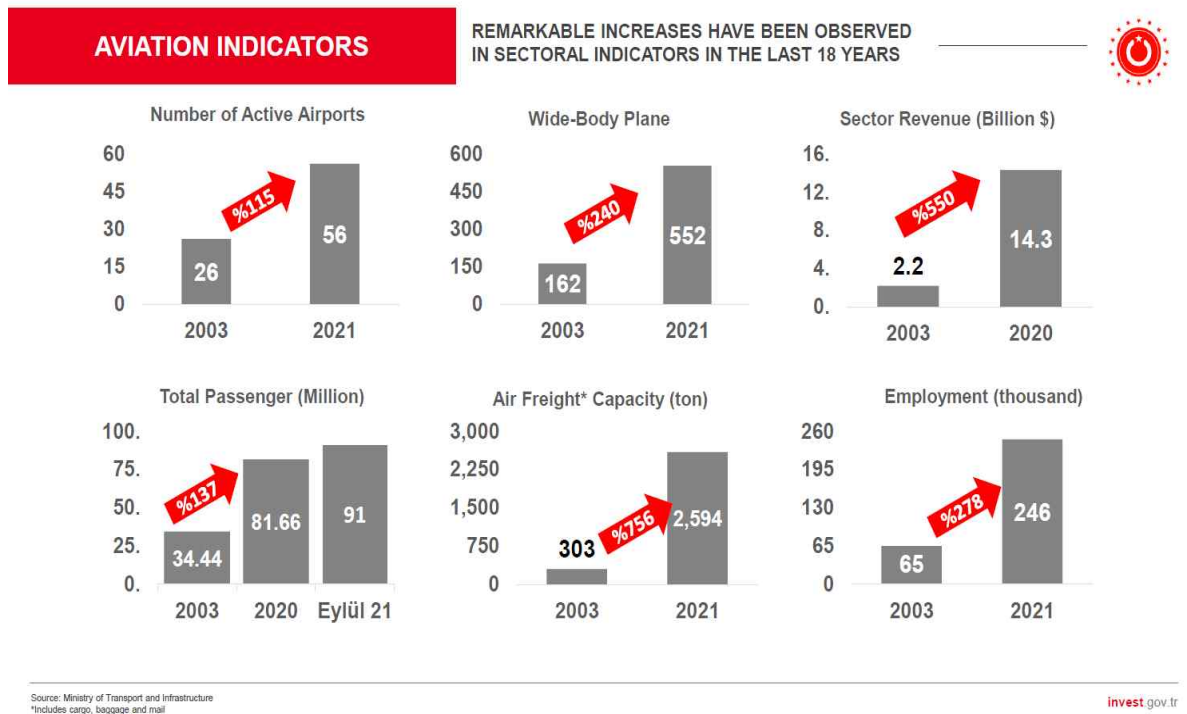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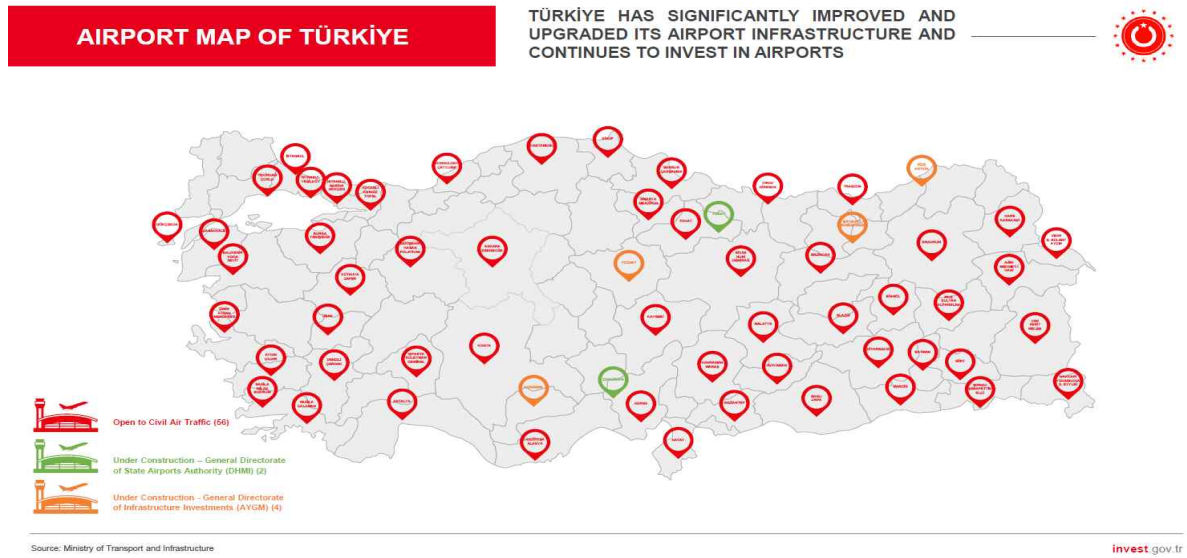
## □ 철도 투자 예산

- 운송(교통) 투자에서 철도의 비율은 2016년에 34%였으나 2021년 현재 48%
- 2022년~2024년에는 약 63% 일 것이며, 2024년 중기 철도 투자예산은 300억 달러, 2035년 장기 철도 투자예산은 770억 달러, 2053년 비전 철도 투자 예산은 820억 달러에 달함



□ 공항

- 1) 민간항공교통에 개방된 공항 : 56개
- 2) 국가 공항청 총국이 건설중인 공항 : 2개
- 3) 인프라투자 총국이 건설중인 공항 : 4개



□ 공항 지표

과거 18년 동안 분야별 지표 중 운영 중인 공항 수는 2003년 26개에서 2021년 56개로 놀라운 증가를 보임

## □ 튀르키예 공항 순위

2021년 승객 교통 순위에서 이스탄불 공항이 유럽 1위, 전세계 13위 차지함

### AIRPORTS RANKING

ISTANBUL AIRPORT IS THE 1<sup>st</sup> IN EUROPE ACCORDING PASSENGER TRAFFIC RANKING IN 2021



#### Ranking of Airports in EUROPE by Passenger Traffic in 2021

Rank	Airport	Passenger
1	İSTANBUL	37,176,509
2	MOSCOW - SHEREMETYEVO	30,623,796
3	PARIS - DE GAULLE	26,195,575
4	AMSTERDAM - SCHIPHOL	25,492,633
5	MOSCOW - DOMODEDOVO	25,065,087
6	İSTANBUL SABIHA GÖKÇEN	24,991,916
7	FRANKFURT	24,812,849
8	MADRID - BARAJAS	24,135,220
9	LONDON - HEATHROW	19,392,178
10	BARCELONA - EL PRAT	18,874,896
11	SAINT PETERSBURG - PULKOVO	18,043,464
12	MOSCOW - VNUKOVO	17,999,084
13	ANTALYA	17,148,111
14	PARIS ORLY	15,724,580
15	MALLORCA	14,496,857
16	MUNICH	12,496,432
17	ATHENS	12,346,078
18	LISBON	12,149,000
19	ROME - DA VINCI	11,662,842
20	VIENNA	10,405,523

#### Ranking of Airports in the WORLD by Passenger Traffic in 2021

Rank	Airport	Passenger
1	ATLANTA, GA	75,537,213
2	DALLAS- FORT WORTH	62,465,756
3	DENVER	58,828,552
4	CHICAGO	54,020,399
5	LAX- INTERNATIONAL	48,007,284
6	CHARLOTTE – DOUGLAS	43,302,230
7	ORLANDO – FLORIDA	40,351,068
8	GUANGZHOU	40,249,679
9	CHENGDU- SHUANGLIU	40,117,496
10	LAS VEGAS – NEVADA	39,710,493
11	PHOENIX – ARIZONA	38,846,713
12	MIAMI - INTERNATIONAL	37,302,456
13	İSTANBUL	37,176,509
16	MEXICO CITY	36,056,614
24	XIANYANG – INTERNATIONAL	30,173,312
29	AMSTERDAM SCHIPHOL	25,500,000
31	MOW – DOMODEDOVO	25,100,000
33	İSTANBUL SABIHA GÖKÇEN	24,991,916
36	SAO PAULO - INTERNATIONAL	24,170,612

Source: <https://ad.aero/resources/data-center/>

invest.gov.tr

## □ 건설 중인 공항 프로젝트들

새로운 공항 터미널과 활주로 공사를 계속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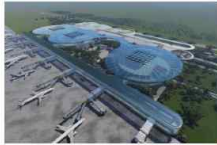
- 1) 공항 건설 : 3개
- 2) 활주로 건설 : 8개
- 3) 터미널 건설 : 6개

### PROJECTS UNDER CONSTRUCTION

TÜRKİYE CONTINUES TO INVEST IN AIRPORTS WITH NEW TERMINALS AND RUNWAY CONSTRUCTIONS



#### Airport Projects (3)



ÇUKUROVA AIRPORT 8 MIL. PASS/YEAR (DHİM)



YOZGAT AIRPORT 2 MIL. PASS/YEAR



BAYBURT-GÜMÜŞHANE AIRPORT 2 MIL. PASSENGER/YEAR

#### Runway Projects (8)

1. Trabzon Airport new runway construction
2. Çukurova Airport runway construction
3. Elazığ Airport runway construction
4. Zonguldak Airport runway expansion
5. Diyarbakır Airport runway construction
6. Kars Airport runway renovation
7. Sivas Airport runway renovation
8. Ankara Esenboğa 3. runway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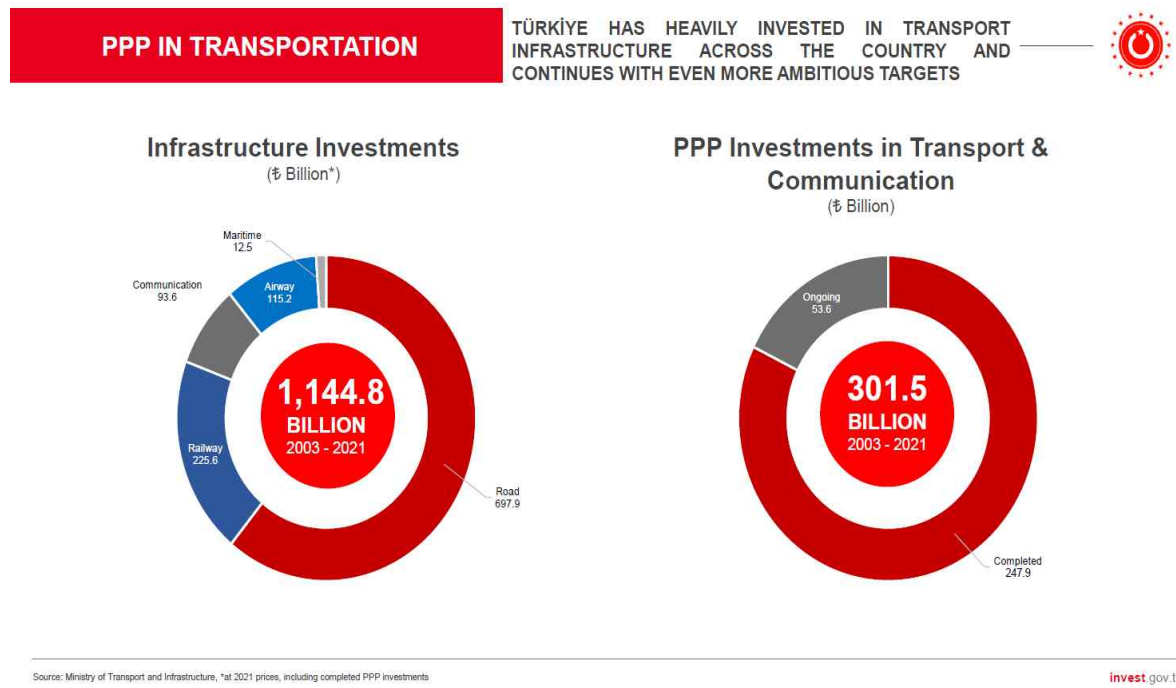
#### Terminal Projects (6)

1. Gaziantep Airport terminal construction
2. Kayseri Airport terminal construction
3. Malatya Airport terminal construction
4. Samsun Airport new terminal construction
5. Siirt Airport terminal reconstruction
6. Kapadokya Airport terminal construction

Source: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invest.gov.tr

## 7. 교통 PPP 투자액



□ 2003년 ~ 2021년 인프라 투자액 1조 1,448억 리라 구성 비율:

- 1) 도로 : 6,979억 리라
- 2) 철도 : 2,256억 리라
- 3) 공항 : 1,152억 리라

□ 2003년 ~ 2021년 교통 및 통신 PPP 투자액 3,015억 리라 구성 비율:

- 1) 완성 : 2,479억 리라
- 2) 진행중 : 536억 리라

□ 튀르키예 PPP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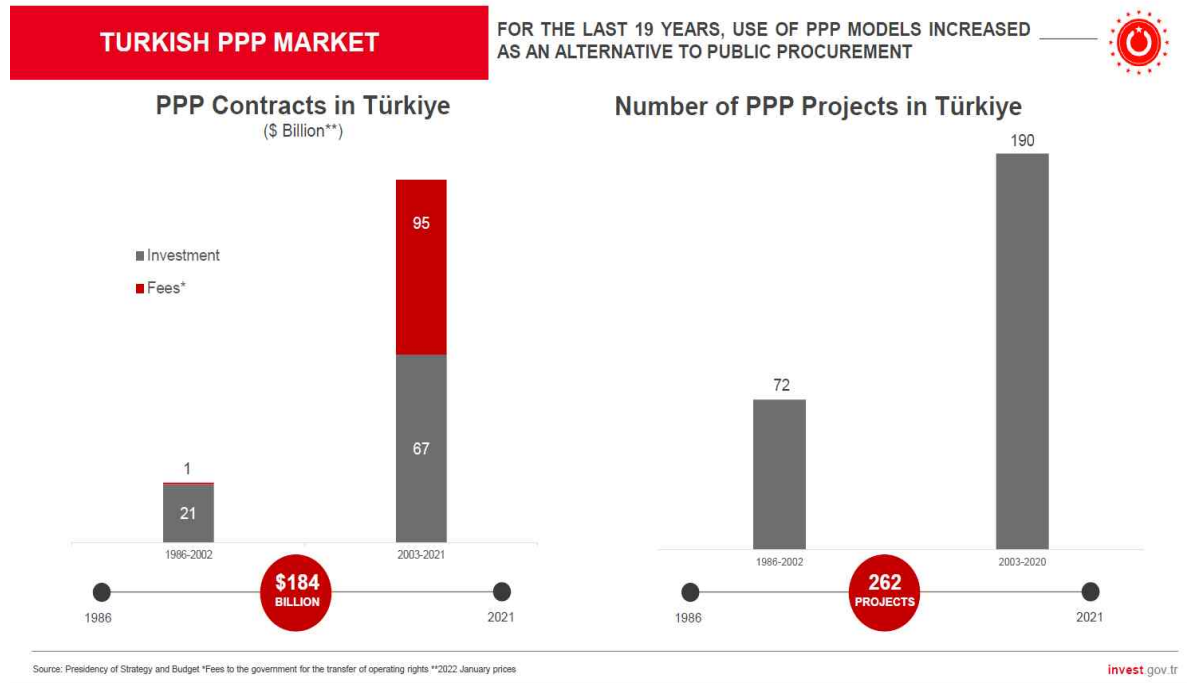
과거 19년 동안 PPP 모델은 전통적인 공공 조달의 대안으로 증가함

1) PPP 계약금액(총 1,840억 달러) 비교

- 1986년부터 2002년까지 : 투자액 210억 달러, 서비스료 10억 달러 (총 220억 달러)
- 2003년부터 2021년까지 : 투자액 670억 달러, 서비스료 950억 달러 (총 1,620억 달러)

## 2) PPP 계약건수(총 262건) 비교

- 1986년부터 2002년까지 : 72건
- 2003년부터 2021년까지 : 190건



## 3) 1986년부터 2021년까지 PPP 계약액 1,840억 달러 분석 내역

- 공항 : 89,640 백만 달러
- 에너지 : 40,696 백만 달러
- 고속 자동차도로 : 28,876 백만 달러
- 보건 : 11,884 백만 달러
- 철도 : 304 백만 달러

## 4) 1986년부터 2021년까지 PPP 계약건수 262건 분석 내역

- 에너지 : 100건
- 고속 자동차도로 : 43건
- 항만 : 24건
- 보건 : 18건
- 공항 : 20건
- 철도 :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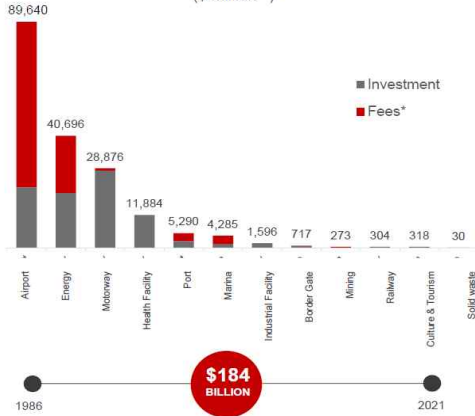


## TURKISH PPP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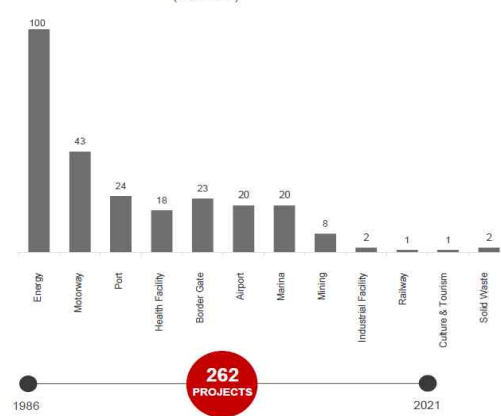
TRANSPORTATION AND ENERGY INFRASTRUCTURE PROJECTS DOMINATE THE PPP MARKET IN TÜRKİYE



Breakdown of the PPP Contracts  
(\$ Million\*\*)



Breakdown of the PPP Contracts  
(Number)



Source: Presidency of Strategy and Budget \*\*Fees to the government for the transfer of operating rights \*\*2022 January' prices

invest.gov.tr

### 5) PPP 계약 모델 분석(1986년~2021년)

○ 계약금액 기준(총 1,840억 달러, 정확하게는 1841.5억 달러)

- BOT : 106.30 십억 달러
- TOR(운영권 양도) : 58.34 십억 달러
- BLT : 11.89 십억 달러
- BO(BOO) : 7.62 십억 달러

○ 계약건수 기준(총 26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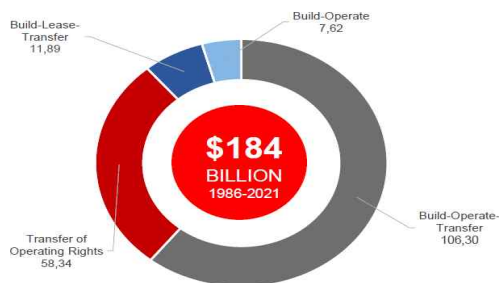
- BOT : 123건
- TOR(운영권 양도) : 116건
- BLT : 18건
- BO(BOO) : 5건

## TURKISH PPP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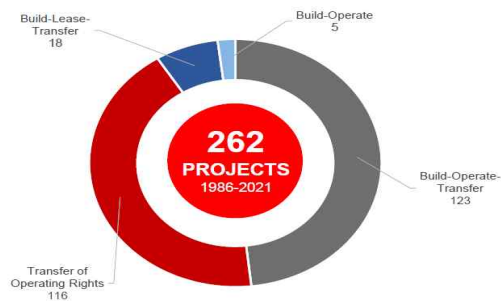
BUILD-OPERATE-TRANSFER AND TRANSFER OF OPERATING RIGHTS ARE THE MAIN CONTRACT MODELS IN THE TURKISH PPP MARKET



PPP Contract Models  
(\$ Million\*\*)



PPP Contract Models  
(Number)



Source: Presidency of Strategy and Budget \*\*2022 January' prices

invest.gov.tr

## 8. 교통 PPP 프로젝트 사례

### 1) 이스탄불 신공항

- 2019년 4월 시운전
- 65억 달러 투자
- 디벨로퍼 : Cengiz, Mapa, Limak, Kalyon

### 2) 야부즈 술탄 세림 교량

- 2016년 8월 시운전
- 35억 달러 투자
- 디벨로퍼 : ictas, Astaldi

### 3) 게브제-오르항가지-이즈미르 고속 자동차 도로

- 운영중
- 65억 달러 투자
- 디벨로퍼 : Nurol, Özaltin, Makyol, Astaldi, Yüksel, Göçay

### 4) 유라시아 터널

- 2016년 시운전
- 12억 달러 투자
- 디벨로퍼 : SK에코플랜트, Yapi merkezi

## SHOWCASE IN TRANSPORTATION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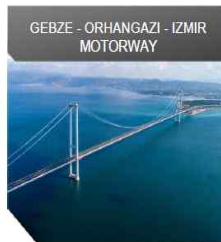
TÜRKİYE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MEGA PROJECTS WITH BOT MODEL AND CONTINUES TO DO SO



- Set to become world's largest airport
- Annual capacity of 150 million passengers when all phases are completed
- Commissioned in April 2019
- Investment of \$6.5 billion



- 95 km-long motorway featuring a bridge for rail & motor vehicle transit over Bosphorus
- Commissioned in August 2016
- Investment of \$3.5 billion



- 427 km-long motorway connecting Istanbul, Bursa & Izmir via world's 4<sup>th</sup> longest suspension bridge
- All phases are under operation
- Investment of \$6.5 billion



- Double-deck underwater tunnel connecting Asia & Europe in Istanbul
- Commissioned in December 2016
- Investment of \$1.2 billion

CENGİZ MAPA LIMAK KALYON

ICA  
İÇİNDE ASTALDI

ÖZALTIN MAKYOL ASTALDI YÜKSEL GÖÇAY

SK E&C YAPI MERKEZİ

## 5) 차나칼레 교량

- 2017년 3월 착공
- 2023년전 운영 시작(2022년 3월 임시 개통, 2023년 4월 준공 예정)
- 운영기간 : 건설 포함 16년 2개월
- BOT 방식 투자 : 28억 달러
- 디벨로퍼 : DL이앤씨, Limak, SK에코플랜트, Yapi merkezi

SHOWCASE IN  
TRANSPORTATION PPP

ANOTHER MEGA PROJECT IS COMPLETED

### 1915 ÇANAKKALE BRIDGE

**DARDANELLES**

TÜRKİYE

- Longest main span (2,023 km) of any suspension bridge in the world
- Bridge Length: 4,608 m
- 101 km motorway (including the Bridge)
- Construction started in March 2017
- Operation to start by 2023
- Operation period: 16 years 2 months (including construction)
- Investment: \$2.8 Billion with BOT

## 9. 보건(헬스케어) PPP 프로젝트 사례

- 보건 PPP 프로젝트는 설계, 건설, 금융 및 시설관리 유지를 하고 핵심 의료 서비스는 보건부의 책임하에 됨
- 통합 헬스케어 캠퍼스 PPP 프로젝트들 : 건설 중 : 6건, 11,779 병상, 서비스 완료 : 13건 17,836 병상

SHOWCASE IN HEALTHCARE PPP

THE PPP PROJECTS ARE STRUCTURED AS DESIGN, BUILD, FINANCE AND MAINTAIN FOR FACILITIES MANAGEMENT, WHILE CORE MEDICAL SERVICES REMAI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 PPP PROJECTS IN INTEGRATED HEALTHCARE CAMPUSES

Status	Number	Bed Capacity
Completed (in service)	13	17,836
Under Construction	6	11,779
<b>TOTAL</b>	<b>19</b>	<b>29,61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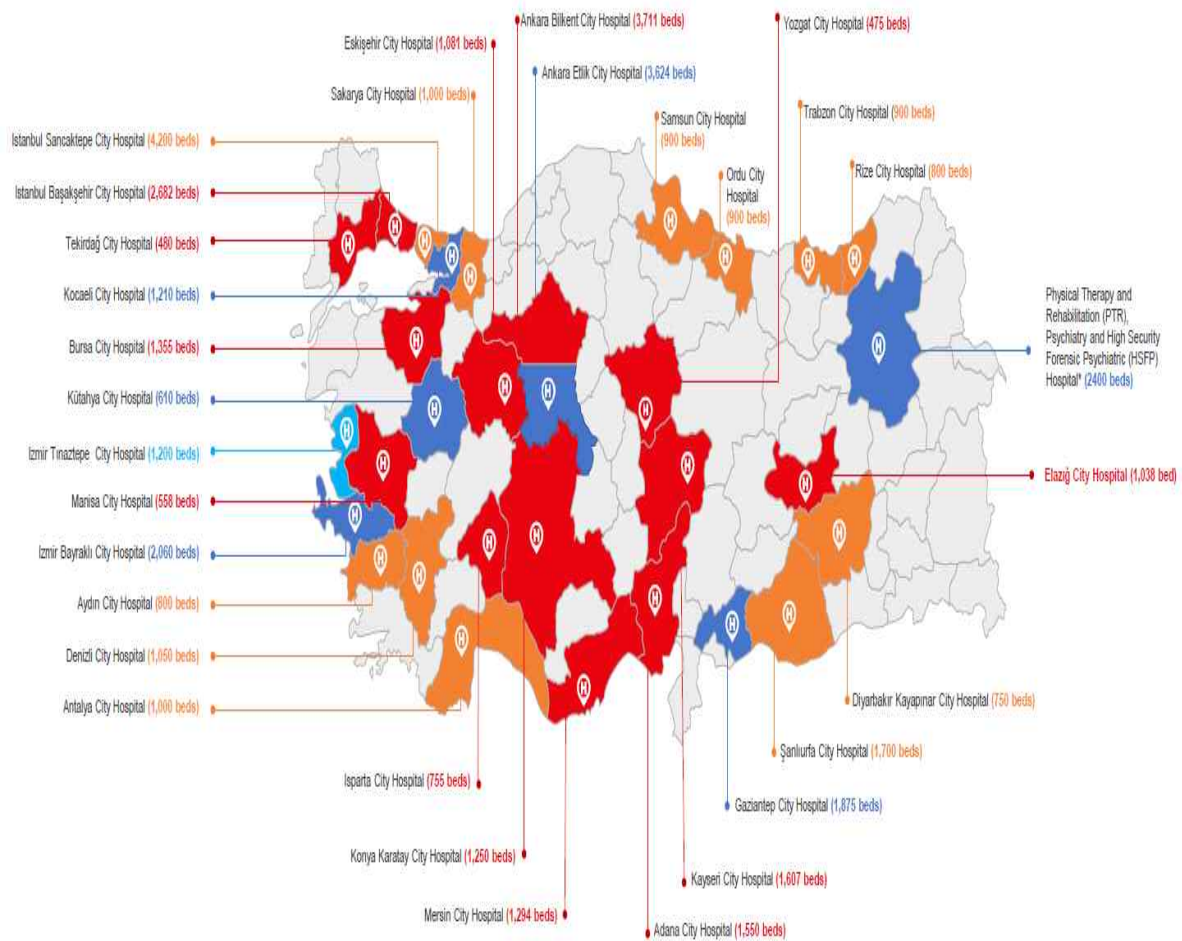
○ 튀르키예는 최근 전국에 통합 헬스케어 캠퍼스 건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소개했고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음

○ 통합 헬스케어 캠퍼스 PPP 프로젝트들 소개

- 1) 운영 중 : 13개
- 2) 건설 중 : 6개
- 3) 공공투자 계획 : 11개
- 4) 계획 : 1개

## SHOWCASE IN HEALTHCARE PPP

TÜRKİYE HAS RECENTLY INTRODUCED NEW PROJECTS TO BUILD INTEGRATED HEALTHCARE CAMPUSES ACROSS THE COUNTRY AND MORE OPPORTUNITIES ARE IN THE PIPELINE



PPP In Operation (13) PPP Under Construction (6) Planned Public Investments (11) Planned (1)

Source: Ministry of Health, \*Total bed capacity of PTR & HSFP Hospitals to be built in Afyon-Diyarbakır-Samsun-Malatya-Erzurum-Istanbul-Trabzon-Van: 2,400

invest.gov.tr

□ 엘라직 페티 세킨 시 병원

- 1) 사업주 : RÖNESANS SAĞLIK YATIRIM, Meridiam, SAM Yapı
- 2) 병상수 : 1,038 병상
- 3) 신용보강 : MIGA, European Bank
- 4) 낙찰 : 2014년 7월
- 5) 운영개시 : 2018년 8월
- 6) 운영기간 : 25년

**SHOWCASE IN HEALTHCARE PPP**

THE ELAZIĞ FETHİ SEKİN CITY HOSPITAL PROVIDES HEALTHCARE SERVICES TO THE COMMUNITIES IN ELAZIĞ AND NEIGHBORING PROVINCES, WITH A COMBINED POPULATION OF 1.6 MILLION PEOPLE



**Elazığ Fethi Sekin City Hospital**

July 2014  
Project Awarded

August 2018  
Operational

Operation Period  
25 Years

Sponsors: RÖNESANS SAĞLIK YATIRIM, meridiam, SAM YAPI

Credit Enhancers: MIGA, European Bank

Enhanced Bondholders: MUFG, SIEMENS, ICBC, FMO, INTESA SANPAOLO BANK, PROPARCO

Unenhanced Bondholders: IFC

**Main Hospital**

Beds : 888  
Polyclinic Rooms : 227  
Patient Rooms : 219  
Operating Rooms : 37  
Beds at the Intensive Care : 160

**HSFP and Detainee**

Beds : 100 HSFP + 50 Detainees  
Polyclinic Rooms : 8 HSFP  
Patient Rooms : 100 HSFP + 50 Detainees

**ODHC**

Polyclinic Rooms : 69  
Operating Rooms : 2

✓ The campus consists of three towers and annexes located around a central core and includes the following hospitals:

- General Hospital
- Maternity and Pediatric Hospital
- Detainee Forensic Psychiatry Hospital
- High Security Forensic Psychiatry (HSFP) Hospital
- Oral and Dental Health Central (ODHC)

✓ Bed capacity: 1,038  
✓ LEED Gold Certificate (a designation for green buildings)  
✓ Employment: 3,650

✓ Project Cost: €360 million = €288 million senior debt + €72 million equity  
✓ First project benefitting from risk mitigation provided jointly by MIGA's political risk insurance coverage and EBRD's unfunded liquidity facilities  
✓ First project bond financing for a greenfield infrastructure project in Türkiye  
✓ A1 Bonds were rated Baa2  
✓ Vigeo Eris certified the Elazığ project bond as a 'green and social' bond – the first such certification for an infrastructure project in Türkiye  
✓ With a 20 year maturity, the bond had the longest maturity for the Turkish Integrated Health Campuses PPP Programme

Source: Rönesans, GH invest.gov.tr

□ 보건 PPP 프로젝트 리스트

번호	프로젝트명	투자기간 (년)	운영기간 (년)	병상수	투자액 (백만원)
1	Kayseri 통합 헬스케어 캠퍼스(IHC)	3.5	25	1,583	403.9
2	Ankara Etlik 통합 헬스케어 캠퍼스(IHC)	3.5	25	3,566	1,105
3	Ankara Bilkent 통합 헬스케어 캠퍼스(IHC)	3.5	25	3,662	1,086
4	Istanbul Basaksehir Ikitelli IHC	3	25	2,680	1,232
5	Elazig IHC	3	25	1,048	308.7
6	Yozgat 교육연구병원	2	25	475	155.5
7	Manisa 교육연구병원	2	25	558	182.7
8	Adana IHC	3	25	1,550	680.4
9	Mersin IHC	3	25	1,250	339.9
10	Gaziantep IHC	3	25	1,875	840.1
11	THSK + TITCK(양카라)	3	15	-	776.9
12	물리치료, 재활, 정신 고등보안 포렌식 정신병원	2	25	2,400	658
13	Isparta 시 병원	2	25	755	263.9
14	Izmir Bayrakli IHC	3	25	2,000	758.3
15	Kocaeli IHC	3	25	1,180	504.7
16	Konya Karatay IHC	3	25	840	255
17	Bursa IHC	3	25	1,355	315.9

## 마. 튀르키예 PPP Opportunities

(출처: 튀르키예 인프라 및 PPP 프로젝트 투자, 튀르키예 대통령실 투자청, 2022.07.)

www.invest.gov.tr

### □ 운하 및 철도

튀르키예는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인공 해수면 수로와 제3 보스포러스 교량을 건너는 게브제 할칼리(GEBZE HALKALI) 철도를 준비 중임

#### 1) 이스탄불 운하

- 단계 : 입찰과정이 곧 시작 예정
- 내역 : 폭 275미터, 깊이 21미터, 길이 45km 수로 운하

#### 2) 게브제 할칼리(GEBZE HALKALI) 철도

- 단계 : 입찰과정이 곧 시작 예정
- 내역 : 10개 역사 포함, 213km 철도  
31개 고가교(8km 길이), 53개 터널(120km 길이)

### OPPORTUNITIES IN PPP

TÜRKİYE IS SET TO IMPLEMENT A MAGNIFICENT FEAT OF ENGINEERING PROJECTS; AN ARTIFICIAL SEA-LEVEL WATERWAY CONNECTING THE BLACK SEA TO THE SEA OF MARMARA, AND GEBZE-HALKALI RAILWAY PASSING OVER 3<sup>RD</sup> BOSPHORUS BRIDGE



CANAL ISTANBUL

- 45 km, 21 m depth and 275 m width
- 6 bridges
- New satellite cities



GEBZE - HALKALI RAILROAD

- 213 km with 10 stations
- 31 viaduct (8 km) and 53 tunnel (120 km)
- Passenger capacity: 13 million (Passenger/Year)
- Freight capacity: 12 million (Ton/Year)


Tender process to start soon

□ 고속철도

- 1) 프로젝트명: 앙카라-이스탄불 고속철도
- 2) PPP 모델 : BOT
- 3) 연장 : 347km
- 4) 투자비(예가) : 56억 유로
- 5) 입찰기준 : 최소 운영기간 제안
- 6) 지급 메커니즘 : Fees
- 7) PPP 준거법 : 법률 제3996호 BOT 법
- 8) 계약당국 : 인프라투자총국
- 9) 건설기간 : 5년
- 10) 기대 계약기간 : 30년
- 11) 토지 수용책임 : 정부
- 12) 설계 운행속도 : 시속 350km
- 13) 예상 입찰일자 : 2022년말


PROJECT 1

ANKARA-İSTANBUL HIGH SPEED RAILROAD (BOT)




Project Overview

Project Snapshot




**Location**

Ankara-Istanbul




**Total Length**

347 KM




**Passenger**

11 Million / year (2027)




**5.6**  
Billion (€)

Contract Type	Built-Operate-Transfer
Tender Criteria	Minimum Operation Period
Payment Mechanism	Fees
Governing Law	3996 BOT Law
Contracting Authority	Directorate General of Infrastructure Investments
Construction Period	5 years
Expected Contract Duration	30 years
Indicative Investment Amount	5.6 Billion Euro
Expropriation Responsibility	Government
Total Passenger Capacity	11.000.000 passenger/year (2027)
Total Length (km)	347
Design Speed (km/h)	350 km/h
Expected Tender Date	The end of 2022



Passenger Projection



Year	Passenger (Millions)
2026	11
2027	11.3
2028	11.7
2029	12.3
2030	12.9
2031	13.4
2032	13.8
2033	14.6
2034	15.1
2035	15.4
2036	16.7
2037	16.9
2038	17
2039	17.1
2040	17.5
2041	17.5
2042	17.8

Source: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invest.gov.tr

## □ 고속도로

### 1) 앙카라-키리칼레-델리체 고속도로

- 연장: 120km
- 3,679m의 고가교 2개
- 3,656m의 터널 2개
- 3개 시설 및 7개 교차로

### 2) 안탈리아-알란야 고속도로

- 연장 : 163km
- 8,822m의 고가교 2개
- 11,167m의 터널 2개
- 7개 시설 및 9개 교차로

## OPPORTUNITIES IN PPP

TWO BUILT-OPERATE-TRANSFER HIGHWAY PROJECTS ARE EXPECTED TO BE TENDERED IN AUGUST 2022



### 1. ANKARA - KIRIKKALE - DELICE

Reduced traffic density and an important highway corridor for Kirikkale, which is becoming day by day a large industrial zone

Total length: 120 km

- 3.679 m x 2 Viaduct
- 3.656 m x 2 Tunnel
- 3 Facilities and 7 Crossroa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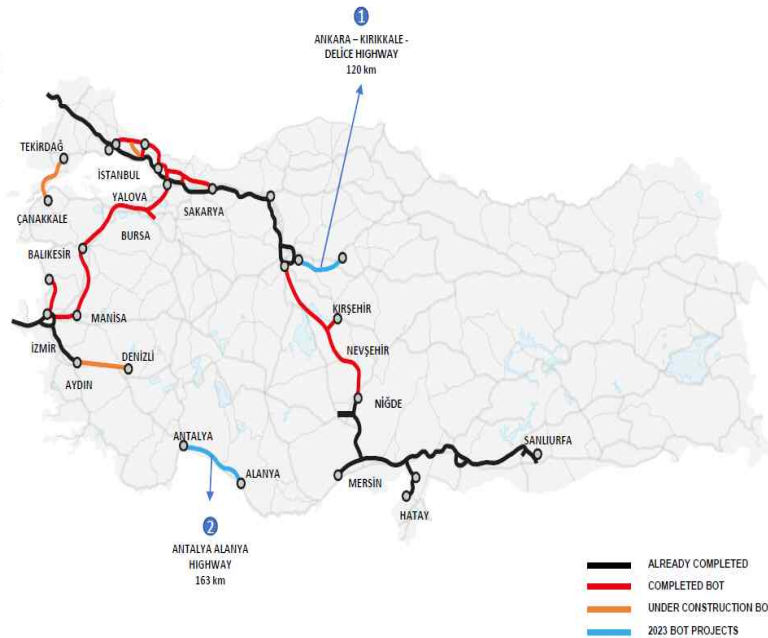


### 2. ANTALYA - ALANYA

Reducing heavy vehicle and transit traffic and increasing travel comfort

Total length: 163 km

- 8.822 m x 2 Viaduct
- 11.167 m x 2 Tunnel
- 7 Facilities and 9 Crossroads



Source: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invest.gov.tr



## □ 항만

### 1) 필요스 항구

- 인프라 건설 진행중
- 연간 2,500만톤 처리 용량
- 항만관리 : BOT 모델

### 2) 칸다르리 항구

- 연간 400만 TEU 처리 용량, 3단계 시행
- 1단계 입찰 예상
- 항만관리 : BOT 모델

### 3) 메르신 컨테이너 항구

- 조사가 진행중
- 연간 1,280만 TEU 처리 용량
- 항만관리 : BOT 모델

## OPPORTUNITIES IN PPP

TÜRKİYE IS ALSO INVESTING IN MARITIM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PORT OF FİLYOS

Ongo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 25 million ton/year capacity
- With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hinterland
- Port management to be BOT model



### PORT OF ÇANDARLI

- 1,500 m jetty work completed
- To reach 4 million TEU/year capacity in 3 phases;
- Phase I: 1 million TEU
- Phase II: 2 million TEU
- Phase III: 1 million TEU
- Tender for Phase I is expected
- Port management to be BOT model



### MERSIN CONTAINER PORT

- Studies ongoing
- 12.8 million TEU/year capacity
- Port management to be BOT model



# IV. PPP 주요 제도

## 1 PPP 제도 및 관련법

### 가. 튀르키예 PPP 개관

(출처: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실, 투자청, Public Private Partnerships Q&A and Legislation in Turkiye)

- 대통령제하에서의 행정부처 변경
  - 2018년 튀르키예 헌법 변경후, 튀르키예공화국은 대통령제로 전환함
  - 튀르키예는 투자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관료주의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새롭고 더 다이내믹하고 좀 더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도입함
  - PPP 프로젝트들은 이전보다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고, 헌법 변경 및 대통령제의 수립으로 특정 행정 부처들이 형성뿐 아니라 이름도 변경함
  - 따라서, 입법에서 이전 기관들에 대한 참조는 재조직된 기관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함

#### < 행정부처들 변경 >

변경전 기관	변경사항	현재 기관
내각회의 (Council of Ministers)	헌법개정으로 변경	대통령 내각 (Presidential Cabinet)
고위기획위원회 (High Planning Council)	PPP 프로젝트 관련 직무는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실로 이전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urkiye)
	몇몇 다른 직무들은 다음 기관들로 이전	재무부 (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
		대통령실 경제정책위원회 대통령실 정책위원회
관세무역부	경제부와 통합	무역부
개발부(전, 국가기획조직)	지역개발 관련 직무는 산업 기술부로 이전	무역부
	전략 및 예산실로 변경	전략 및 예산실
경제부	관세무역부와 함께 통합	무역부
환경산림부	환경 및 산림부서가 분리	환경도시화부
		농업산림부

변경전 기관	변경사항	현재 기관
유럽연합부	대통령령으로 외교부와 통합	외교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재정차관과 통합	재무부 (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
식량농업축산부	산림용수부와 통합	농업산림부
산림용수부	식량농업축산부와 통합	농업산림부
공공사업이주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settlement)	법령으로 재조직	환경도시화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과학산업기술부	지역개발관련 직무를 얻고 재조직	산업기술부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대통령령으로 재조직	운송인프라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운송해사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 Maritime Affairs and Communications)	대통령령으로 재조직	운송인프라부
총리부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실과 통합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실
민영화 고등위원회	직무들이 대통령실로 이전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실
공중보건청	재조직	공중보건총국
공공병원청	재조직	공공병원총국
국가기획조직	개발부와 전략예산실로 전환	전략예산실
튀르키예 발전송전주식회사	분할이라는 매개로 재편성	튀르키예 송전주식회사
		발전주식회사
		튀르키예 전기매매 및 계약 주식회사
튀르키예 전기매매 및 계약 주식회사	권리 및 의무가 이전	발전주식회사
튀르키예 철도차량 제조회사	튀르키예 철도 차량산업 주식회사로 합병	튀르키예 철도 차량산업 주식회사
튀르키예 철도기관차객차 제조회사		
튀르키예 철도객차주식회사		
국가기획조직 차관	개발부와 전략예산실로 전환	전략예산실
재정차관	재무부와 통합	재무부
재정외국무역 차관	재정 및 외국무역부가 분리	(재정)재무부 (외국무역)무역부

## □ 서 론

본 가이드(Public Private Partnerships Q&A and Legislation in Turkiye)는 이해 당사자들이 주요 당사자들, 입찰과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자금공급, 이용가능한 인센티브, 보증 매커니즘, 위험배분구조,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분쟁해결 조건 관련 질문에 답을 제공함

- 튀르키예에서 단일의 민관협력 수행체계법(PPP framework law)은 없는 대신 PPP 모델은 헌법 자체와 다수 관련 입법들에 의존함
  - 본 가이드는 PPP 시스템에 관한 관련 입법에 대한 번역을 포함함
- 튀르키예에서 개발된 인프라 시스템의 존재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됨
- 따라서, 인프라 투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투자를 위해 배분된 전통적인 공적자금의 많은 부분을 소비함
  - 새로운 투자 파이낸싱의 필요성은 최근 특히 튀르키예 등의 신흥시장에서 상당히 증가함
- 이처럼 증가하는 필요에 병행해 PPP 모델은 재무 및 관리모델로서 새로운 투자의 실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
- 튀르키예는 1986년 이후로 PPP 모델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으며, 1994년 법률 제3996호의 도입으로 PPP 모델이 널리 퍼져 고속도로에서 공항, 마리나들(계선장, Marinas)과 세관 게이트들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됨
- BOT(Built-Operate-Transfer, 건설-운영-이전) 모델에 추가하여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 주로 전기발전 플랜트는 1990년대에 BO(Built-Operate, 건설-(소유)-운영) 메커니즘으로 실현됨
- 새천년의 시작으로 여러 투자들은 운영기간의 종료를 맞아 정부에 재이전됨
  - 이러한 투자들의 운영권(operating rights)은 양허료(concession fee)와 교환으로 다시 한번 민간부문에 주어짐

- 튀르키예 정부는 운영권 이전(TOR, Transfer of Operating Rights) fee로부터 상당한 금액뿐 아니라 민간 파트너의 운영 효과 및 활력으로부터도 지속적 혜택을 받음
- 2013년에 PPP 시스템은 도시 병원 프로젝트의 조달 시 BLT (Built - Lease - Transfer, 건설-임대-이전) 모델 사용을 가능케 한 법률 제6428호의 도입으로 새로운 차원을 얻음
  - 비록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는 프로젝트는 없지만 교육시설과 기숙사에서 BLT 모델 사용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legal framework) 역시 개정됨
  - 2020년 말 기준, 계약금액 1,560억달러에 달하는 총 249개 PPP 프로젝트들이 BOT, BO(BOO), BLT, TOR과 같은 4개의 주요 모델 하에서 실현되어 있음
- 튀르키예 정부는 이 방대한 경험위에서 건설하고 공공투자들에 대한 보충으로서 PPP 모델을 사용하고자 함
- 가까운 시일 내 실현을 위해 파이프라인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 다수 존재

## □ 일반사항

### 1) Public Party의 정의

(질문)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들에서 공공 당사자는 어느 조직인가?

(답변) 분야에 따라 공공 당사자는 중앙정부기관들, 지방정부들(즉, 시청 같은 지방 자치단체들) 및/또는 국영 경제 기업들임

### 2) Private Party의 정의

(질문)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들에서 민간 당사자는 누구인가?

(답변) 튀르키예 입법에서 민간 당사자의 여러 정의가 있음

- PPP 모델로 보건부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시설 건설, 갱신에 관한 법률 제6428호와 몇몇 법률 및 법령의 개정에서 PPP 프로젝트들의 입찰자들은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실제 개인 및 법인실체 모두일 수 있음
- PPP 입찰 낙찰 후 성공적 입찰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을 설립해야하고 관련 정부와 민간 당사자로서 PPP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할 것임

- BOT 모델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몇몇 투자 및 서비스의 아웃소싱에 관한 법률 제3996호 5조에 따르면, 외국 회사들 역시 튀르키예에서 BOT 모델 계약의 민간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실제로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들의 민간 당사자는 공공 당사자로 활동하는 관련 국가당국에 의해 발행된 해당 PPP 입찰에서 성공적 입찰자인 실제 개인들 및/또는 법인들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 형태(Anonim Sirket)의 특수목적법인(SPV) 또는 합작법인(Joint venture) 일 수 있음

### 3) 외국인 투자

(질문) 외국인 투자자들이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들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

(답변) 개발 및/또는 운영 면에서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이 없음

- 추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목적에 관한 법률 제4875호와 같은 튀르키예 입법은 PPP 프로젝트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촉진함

### 4) PPP 분야들

(질문) PPP 모델들은 튀르키예에서 어떤 분야들에 흔히 사용되는가?

(답변) PPP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튀르키예에서 고속자동차도로(motorways), 공항, 병원 및 발전소들과 같은 주요 인프라 시설들의 투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선호됨

<전략 및 예산실 웹사이트에서 발행된 정보에 기초한 분야별 PPP 프로젝트에 대한 배분>

분 야	개	비율(%)
고속자동차도로(motorway)	41	16.47
공항	18	7.23
마리나(요트,모터보트 따위의 계선장)	18	7.23
철도	1	0.40
문화 및 관광시설	1	0.40
국경 게이트(관문)	19	7.63
산업시설	2	0.80
보건시설	20	8.03
에너지	97	38.96
항만	23	9.24
광산(채광)	8	3.21
고체폐기물	1	0.40
합 계	249	100.0

(출처: data from <https://koi.sbb.gov.tr> as of 01.03.2021, for the update you may visit [www.sbb.gov.tr](http://www.sbb.gov.tr))

- 1980년대부터 튀르키예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PPP 프로젝트를 개발함
  - 에너지 및 고속자동차도로와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 추가해 보건 및 항공 분야들에서 PPP 프로젝트를 실현함
  - 추가적으로 현재 PPP 입법은 교육 및 철도 같은 다른 주요 분야들에 PPP 프로젝트들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법적 인프라를 보유함

## 5) PPP 모델

(질문) 튀르키예에서 흔히 사용되는 PPP 모델은 무엇이 있는가?

(답변) 4개의 주요 모델들이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들에 사용되어옴

- BOT(Built-Operate-Transfer, 건설-운영-이전) : 1980년대 이후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에너지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고속자동차도로 분야에서 튀르키예의 최초 및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PPP 모델임  
BOT 모델에서 시설은 민간 당사자들에 의해 건설, 금융, 운영되고 해당 시설은 민간 당사자의 운영 기간 만료 후 공공당국에 이전됨
- TOR(Transfer of Operating Rights) : 공공당국이 합의된 금액의 대가로 특정 기간 동안 민간 부문에 특정 인프라 시설의 운영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PPP 모델임  
PPP 모델은 보통 발전소 시설, 공항 및 항만에서 선호됨
- BLT(Built-Lease-Transfer, 건설-임대-이전) : 보건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시설 건설 및 갱신에 관한 법률 제6428호와 몇몇 법률 및 법령의 개정(별칭: 도시병원법)으로 2013년에 튀르키예 PPP 실무에 도입됨  
이 모델에서 병원은 30년까지 민간에게 수여한 건설권리(iist hakki)의 대가로 민간에 의해 건설되고, 민간은 30년까지 동안 재무부 토지위에 병원을 리스 및 운영한 후 합의된 기간 말에 병원(모든 시설)은 재무부에 이전함
- BO(Built-Operate, 건설-운영 = BOO, Built-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 이 모델은 공공당국에 소유권 이전 의무 없이 민간 부문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발전소 시설들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됨

<전략 및 예산실 웹사이트에서 발행된 정보에 기초하여 PPP 모델별 PPP 프로젝트의 배분>

PPP 모델	개	비율(%)
BOT(건설-운영-이전)	115	46.18
TOR(운영권 이전)	109	43.78
BLT(건설-리스-이전)	20	8.03
BO(=BOO,건설-(소유)-운영)	5	2.01
합 계	249	100.0

(출처: data from <https://koi.sbb.go.tr> as of 01.03.2021, for the update you may visit [www.sbb.gov.tr](http://www.sbb.gov.tr))

#### 6) 튀르키예 PPP 금액 및 비율

(질문) 투자 및 분야면에서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들의 양은 얼마인가?

(답변)

분 야	투자금액(USD)	투자비율(%)
고속자동차도로(motorway)	23,577,702,544.87	30.11
공항	19,076,622,299.53	24.36
에너지	18,232,740,149.74	23.28
보건시설	11,594,889,372.24	14.81
항만	2,119,083,011.80	2.71
산업시설	1,465,022,801.84	1.87
마리나(계선장)	1,257,960,690.60	1.61
국경 게이트(관문)	529,436,428.00	0.68
철도	278,796,501.00	0.36
문화 및 관광	144,050,185.45	0.18
고체폐기물	30,589,498.97	0.03
합 계	78,306,893,484.04	100.0

(출처: data from <https://koi.sbb.go.tr> as of 01.03.2021, for the update you may visit [www.sbb.gov.tr](http://www.sbb.gov.tr))



## 나. 튀르키예 PPP 법적 프레임워크

### 1) PPP 법률과 규정

(질문)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들을 지배하는 법률과 규정은 무엇인가?

(답변) 튀르키예 헌법은 PPP 프로젝트에서 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47조, 제125조 및 제155조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며, PPP 프로젝트 또는 PPP 모델을 담당하거나 다루는 기본법은 없음  
한편, 여러 분야의 PPP프로젝트 및 모델을 지배하는 수많은 법규가 있음

○ PPP 프로젝트들을 규정하는 튀르키예의 법규들은 다음과 같음

#### □ BOT(건설-운영-이전) 모델 관련 법률

- BOT 모델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몇몇 투자 및 서비스의 아웃소싱에 관한 법률 제3996호
- BOT 모델의 프레임워크내에서 몇몇 투자 및 서비스의 아웃소싱에 관한 법률 제3996호의 이행절차 및 원칙에 관한 결정
- 발전, 송전, 배전 및 매매를 위한 튀르키예 전력청 외의 기업들의 권한 부여에 관한 법률 제3096호
- 접근 통제된 고속도로(고속자동차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속도로총국 외의 기업들의 권한부여에 관한 법률 제3465호
- 접근 통제된 고속도로(고속자동차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속도로총국외의 기업들의 권한부여에 관한 법률 제3465호의 이용에 관한 규정

#### □ TOR(운영권 이전) 모델 관련 법률

- 민영화 실무에 관한 법률 제4046호
- 특정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법률 제5335호
- 관세에 관한 법률 제4458호
- 일반적인 혜택에 관련 양허에 관한 법률 제576호
- 이즈미르 트램 및 튀르키예 전기 주식회사의 양허 및 그 운영과 설비관련 계약의 승인에 관한 법률 제4483호

- 공공 서비스에 관련된 양허 조건 및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 적용의 경우 준수될 필요가 있는 원칙들에 관한 법률 제4501호
- 텔레그램과 전화에 관한 법률 제406호
- 전기 통신에 관한 법률 제5809호

#### □ BLT(건설-리스-이전) 모델 관련 법률

- PPP 모델로 보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 건설 및 갱신에 법률 제6428호 및 몇몇 법률 및 법령 개정들
- 보건서비스 기본법에 추가 조항의 추가에 관한 법률 제5396호
- 보건부에 의한 PPP 모델에 따라 수령한 서비스, 시설 건설 및 갱신에 속하는 이행 규정들
- 고등 교육 신용 및 기숙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351호
- 특별 주택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에 관한 법률 제652호 및 몇몇 규정들
- 리스의 대가로 교육 및 훈련 시설 건설, 그러한 서비스 및 영역을 위해 운영 대가로 시설에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영역 밖의 영역 및 서비스 리노베이션에 관한 규정들
- 고속도로 교통에 관한 법률 제2918호
- 전기 시장에 관한 법률 제6446호

#### □ BO(건설-운영, BOO 건설-소유-운영) 관련 법률

- BO(BOO) 모델에 따른 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83호와 에너지 판매 규정

#### □ 기타 관련 법률들

- 공적 금융 및 부채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 제4749호
-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제3065호
- 재정에 속하는 부동산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06호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 튀르키예 철도 운송 자유화에 관한 법률 제6461호
- 국제중재에 관한 법률 제4686호

-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2577호
-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에 관한 법률 제5216호
- 국가의회에 관한 법률 제2575호
- 재무부에 의해 수행될 채무보증에 관한 규정

## □ 튀르키예 PPP 모델 및 Legal Framework

### INVESTMENT CLIMATE

RELEVANT LEGISLATION IS QUITE FLEXIBLE, ENABLING TO ADAPT VARIOUS PPP MODELS ACCORDING TO THE NATURE AND REQUIREMENTS OF PROJECTS



### MODELS AND LEGAL FRAMEWORK FOR PPP IN TÜRKİYE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Operate	Build-Lease-Transfer	Transfer of Operating Rights
Relevant Legislation (Law No)	№ 3996 № 3465 № 3096	№ 4283	№ 652 № 6428 № 351	№ 4046 № 5335 № 4458
Sectors	Motorway Port Airport Marina Border Gate Power Plant	Thermal Power Plant	Hospital College Dormitory School	Airport Port Power Plant Electricity Distribution

Source: Presidency of Strategy and Budget

invest.gov.tr

(출처: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실 투자청)

- BOT
  - 법률 제3996호, 제3465호, 제3096호
  - 분야 : 고속자동차 도로, 항만, 공항, 마리나, 국경관문, 발전소
- BO(BOO)
  - 법률 제4283호
  - 화력발전소
- BLT
  - 법률 제652호, 제6428호, 제351호
  - 병원, 대학, 기숙사, 학교
- TOR
  - 법률 제4646호, 제5335호, 제4458호
  - 공항, 항만, 발전소, 배전

## 2) 규제당국들

(질문) 튀르키예의 PPP를 위한 주요 규제 기관 또는 PPP 당국은?

(답변) 과거 튀르키예에는 중앙 PPP 당국이 없었으나 국회 시스템이

새로운 대통령제로 이전되어 행정력은 관료제도 메커니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실 아래에 중앙화됨

- 튀르키예 공화국 헌법 104조 하에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은 법률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규칙(by-law)을 발행하고 집행력에 관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행할 권한이 있음
- 이에 전략 결정과 프로젝트 승인 면에서 튀르키예의 PPP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고위 기획 위원회(High Planning Council)의 권한은 튀르키예 대통령실로 이전됨
- 튀르키예 대통령은 튀르키예 헌법 하에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PPP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앙 의사결정자로 명명될 수 있음
  - 실제로 PPP 프로젝트 필요에 따른 관련 공공당국 요청 시 공공이익을 결정하는 사업 타당성 충족 이후 대통령은 PPP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법령(Decree)을 발행 가능
- 또한 대통령제의 실행으로 대통령은 제안된 PPP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튀르키예 대통령실의 전략 및 예산실(PoSB)과 재무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PPP 프로젝트들의 입찰을 수행하는 이행기관

- 에너지천연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운송인프라부(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민영화 행정부(Privatization administration)
- 국가공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tate Airports)
- 고속도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Highways)
- 국가철도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ate Railways)

3)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실의 투자청(Investment office)의 역할  
(질문) PPP 프로젝트를 위한 튀르키예 대통령실 산하 투자청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답변) 튀르키예 대통령실 산하 투자청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튀르키예의 투자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튀르키예로 진출하는  
투자자들에게 전 시기에 걸쳐 도움을 제공하는 공식 조직임

- 대통령 직접 보고 및 경제발전을 고양할 투자 장려 책임 존재
  - 이런 취지로 투자청은 해당 투자의 전 과정 동안 촉진 및 후속조치  
서비스를 가지고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투자를 지원함
  - 투자청은 선행적 혁신적인 구조로서 계획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공공당국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집함
  - 계획된 프로젝트 관련 정보는 관심 있는 민간 투자자와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투자청에 의해 프로젝트 요약\*으로 전환됨
- \* 프로젝트 요약(Project teaser) : 공개적으로 공표 전 잠재적 투자자에게  
배포되는 투자의 간략한 요약 보고서로, 목표 시장에서 투자제안의  
고려를 목적으로 관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디자인됨

- 또한 투자청은 임시 B2G(Business-to-Government, 기업과 정부 간  
전자상거래) 회의 조직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
- 공공행정기관, 민간 투자자, 금융 제공자 사이 연결다리로서 기능함
- 이런 점에서 투자청은 잠재 투자자, 재무부 (주로 잠재적 채권자  
및 EPC 플러스 금융 투자자), 튀르키예 철도청(TCDD) 또는 인프라  
투자총국(AYGM)과 같은 이행기관으로 활동하는 공공행정기관과  
초기 소개 연결과 회의를 지원함

#### 4) PPP 입법의 변경

(질문) 튀르키예 PPP 입법에서 기대되는 주요 변경은 있는가?

(답변) 2019. 7. 18. 국회에서 승인된 11번째 개발계획에 따르면 장래  
PPP 법이 튀르키예에서 PPP 실행 효과, 효율 및 사업가치  
(VfM, Value for Money, 민자 적격성)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으로 디자인되고 있음

## 다. PPP 입찰 과정

### 1) 입찰 기준

(질문) PPP 제안을 위한 입찰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모든 입찰자들 중 공개입찰 및 단체교섭(Open bidding and Bargaining), 비공개입찰(closed bidding)과, 미리 결정된 입찰들 중 비공개입찰과 같은 해당 PPP 법에 따라 결정된 여러 조달 절차가 있음

- 대부분의 PPP 입찰을 위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해당 공공당국이 주제의 PPP 조달 과정의 실행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튀르키예 대통령실의 예비 승인임

○ 조달절차처럼, 선별기준 역시 해당 PPP 법률에서 결정됨

- 예를 들면, BOT 프로젝트들 입찰은 가장 짧은 운영기간을 제안하거나 공공당국에 최대 이익(즉, 공공당국에 민간 당사자가 지급할 최대 리스금액)을 제안하는 입찰자들에게 수여됨

- BLT 프로젝트 입찰은 최대 이익금액(즉 공공당국에 의해 지급되는 최소 리스금액)을 제안하는 민간 당사자가 낙찰됨

### 2) 민간 제안형 제안(unsolicited proposals)

(질문) 튀르키예 PPP 관계에서 민간제안이 허용되는가?

(답변) 원칙적으로 민간제안형 제안들은 PPP 프로젝트 입찰에서 공공당국에 의해 고려될 수 없음

- 유일한 예외는 정부간 협약(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 및 호스트 정부 협약(HGA, Host Government Agreement) 프로젝트들과 같은 대형 규모 프로젝트에서 보여짐

○ PPP 프로젝트 입찰은 법정 입찰 규칙을 정하는 입법에 따라 공공당국에 의해 발행됨

- 법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 입법은 공공이익을 위한 참여자 수 증가를 목적으로 특정 입찰 요구조건에 대한 민간제안형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당국에 유연성을 부여함

- 이런 점에서 입찰자들은 입찰 사양 또는 입찰 조건에서 입찰자 공공기관에 요청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개정(Zeyilname, addendum 부록) 신청 가능함

- 만약 행정기관이 요청을 수용하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공익적이라 판단하면, 행정기관은 입찰 사양에 수정(부록)을 발행하고 모든 입찰자와 대중에 공표함

### 3)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들에 대한 보상

(질문) 정부는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들에게 보상을 하는가?

(답변)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는 비록 입찰이 낙찰 없이 취소될지라도 행정기관에 보상 또는 어떤 권리도 청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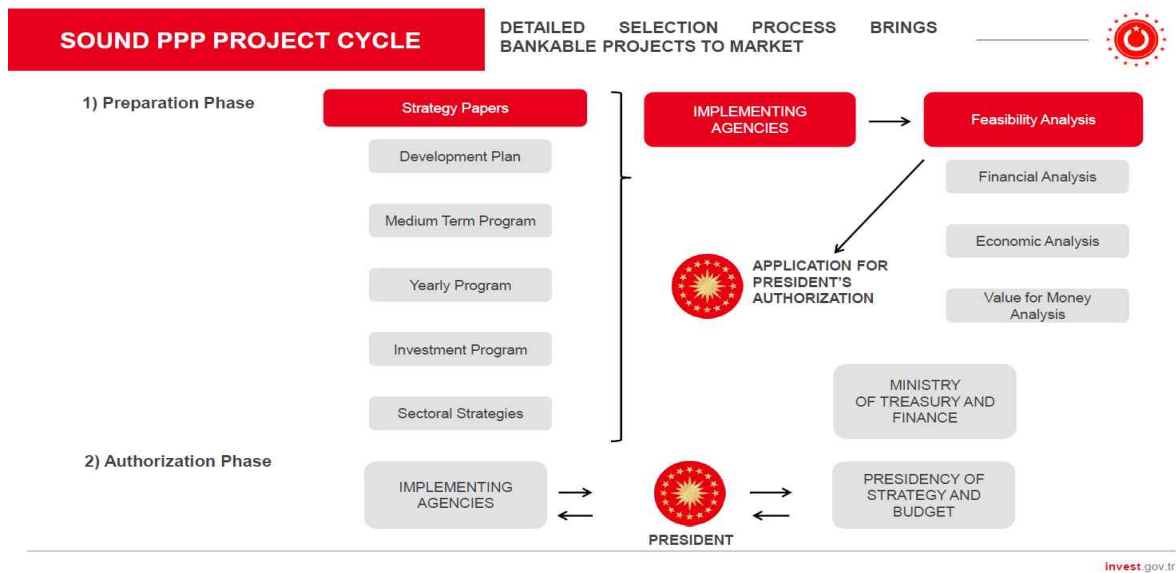
### 4) 입찰후 변경 또는 수정

(질문) 계약이 낙찰된 후 프로젝트/시설/서비스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을 공공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가?

(답변) 튀르키예 법 일반 원칙으로, 계약은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적 조건들 또는 상황들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변경 때문에 개정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실제로 공공당국은 PPP 프로젝트 계약에서 정해진 특수 규정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명백하게 유지하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수정은 투자비용의 10% ~ 20% 사이 특정 비율로 제한됨

## □ PPP 프로젝트 신청 및 승인 과정



(출처: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실 투자청)

## □ PPP 프로젝트 신청 및 승인 과정(번역)

### 1) 준비단계

#### ○ PPP 전략 계획서류:

- PPP 개발계획
- 중기 프로그램
- 연간 프로그램
- PPP 투자 프로그램
- PPP 투자 분야별 전략
- 이행기관이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제출(재무타당성분석, 경제성분석, VFM분석)
- 대통령 승인 신청
- 재무부, 전략 및 예산실 협조

### 2) 승인단계

- 이행기관이 재무부, 전략 및 예산실 검토 구한 후 대통령에게 승인 신청
- 대통령은 재무부, 전략 및 예산실 검토보고서 참고하여 승인

## 라. PPP 파이낸싱, 인센티브 및 보증

### 1) 자금원의 형태

(질문) 튀르키예 공공 투자 시스템에서 어떤 형태의 자금원이 적용가능한가?

(답변) 아래 3개 형태의 공공 투자가 적용 가능하며, 모든 형태는 연간 공공 투자 프로그램 내 공공 투자의 포함은 전략 및 예산실(PoSB)에 의해 준비됨

#### i)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EPC

- 이행 기관인 공공 행정기관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형태
- 관련 공공행정기관이 제출한 프로젝트에 대해 전략예산실이 승인, 이후 건설기간의 자금이 예산에서 배분되고 공공당국이 프로젝트 입찰 수행을 허용함
- 이 형태에서 우선협상 입찰자는 EPC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진행기성(progress payment)을 받음



- 새롭게 예산이 들어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매년 1월마다 발행된 연간 투자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
- 공공 조달에 대한 법률 제4734호를 통해 조달된 모든 공공 프로젝트를 포함해 입찰될 프로젝트는 전자 공조달 플랫폼(EKAP)로부터 추적될 수 있음

## ii)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파이낸싱

- 튀르키예에서 몇몇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형태에 따라 외국 정부, 국제금융 기관 및 상업 대주는 자주 금융을 제공 의지를 포함
  - 그 경우 이 기관들은 이행기관으로 활동하는 공공당국들과 의사소통하며, 특수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제안형 제안을 전달함
  - 공공당국이 외부 신용 배분을 위해 민간제안형 제안에 대한 공공이익을 구하는 경우 아래 과정이 시작됨

- 공공당국은 외부 신용 승인을 위해 재무부에 신청함
- 재무부는 전략예산실의 공식의견을 문의함
- 전략예산실의 의견이 긍정적일 시 재무부에 의해 재무분석이 수행되고 협상 과정이 시작됨 (제안의 금융조건뿐 아니라 신용약정 자체는 대주와 협상)
- 재무부의 신용약정 승인 후 투자는 연간 투자 프로그램에 외부 신용 프로젝트로 목록에 등재됨
- 그에 따라 행정기관은 입찰을 수행하고 입찰 과정 종료시 우선협상 입찰자를 선정함
- 신용약정은 입찰과정이 수행된 후 서명됨

- 이런 형태의 파이낸싱에서 당사자 사이 약정에 따라 재무부는 보증인 또는 차입자 중 하나로 활동함
  - 차입자로 활동하는 경우 금융제공자와 재무부 사이에 대출약정이 서명됨
  - 보증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금융제공자와 재무부 사이에 보증 프로토콜 (의정서, 협정)이 서명됨

- iii)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EPC 및 파이낸싱 : 자금원 세 번째 형태는 프로젝트를 위해 EPC를 책임지고 자신의 금융을 가져오는 민간 투자자들을 위한 것임
  - 국제 신용 배분을 통한 프로젝트 입찰의 승인 과정 후 관심있는 당사자들은 파이낸싱 Term sheet(주요조건 요약문서) 및 입찰 수행 관련 공공당국에 가격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서를 제출함
  - 입찰 수행 후 공공당국은 낙찰자와의 협상 수행을 위해 당국을 대신해 낙찰자의 파이낸싱 서류들을 재무부에 전달함
  - 당사자들이 파이낸싱 조건에 대한 상호 약정에 도달하는 경우 재무부는 낙찰자에 파이낸싱 확보 및 건설 시작을 위한 기간 1년을 수여함
  - 이 시간 제한은 일반적 경제 조건에 근거해 연장 가능

## 2) 경제적 사건에 대한 보호

(질문) PPP 프로젝트 하의 지급 시 인플레이션 또는 환율 변동이 보호되는가?

(답변) 규정들은 그러한 보호 메커니즘을 방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PPP 계약은 인플레이션 또는 환율변동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함

- 보호 메커니즘은 분야 또는 프로젝트에 따라 변동 가능
  - 예를 들어, 고속자동차도로 PPP 프로젝트에서 계약금액은 USD 또는 EUR과 같은 외화로 결정됨
  - 이런 점에서 통행료는 가능한 환율변동으로부터 발생된 위험을 경감하고 민간의 용이한 외국 금융 조달을 위해 계약통화에 지수화됨
  - 추가로 통행료는 계약통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기초해 정기적으로 증가함
- 헬스케어 PPP 프로젝트들(튀르키예 도시 병원 프로젝트들로 명명)에서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평균이 가용조건부 정부지급(AP, Availability Payment)과 서비스 지급에 반영됨
  - 그러므로 도시 병원 프로젝트들에 민간 계약자를 위하여 적용된 지급 메커니즘은 튀르키예 리라 감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
  - 이는 도시 병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포함된 은행의 신뢰성을 증대함

### 3) PPP 프로젝트들을 위한 인센티브

(질문) 튀르키예에서 PPP 프로젝트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답변)

- 세금 인센티브 : 대부분의 PPP 프로젝트는 투자기간 동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와 인지세로부터 면제되고 운영기간 동안 어떤 인센티브도 없음
- 국내 설비 사용 인센티브 : 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 제5346호는 국내 설비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민간 당사자에 추가 수당 또는 세금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
- 기타 인센티브 : 투자를 위한 국가 지원에 관련된 법령 2012/3305호와 이에 따라 발행된 공식성명서 2012/1호는 관세토지 할당, 이자율 지원, 관세 면제, 세금 감액, 사회보장 프리미엄 지원 등을 투자자들에 제공함
  - 소득세 원천징수 공제는 프로젝트들의 수량, 형태, 분야, 위치와 등 몇몇 특정 요인에 따라 공공당국에 의해 제공됨
  - 튀르키예 시민권법 적용 관련 공식성명서에 따라 최소 50만 달러 또는 외화 상당액, 또는 튀르키예 리라 상당액의 고정자본투자를 하거나 튀르키예에서 최소 50명을 고용하는 개인 투자자(또는 법인 투자자의 외국 주주)는 튀르키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4) PPP 프로젝트들을 위한 보증

(질문) 공공당국이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보증의 형태는 무엇인가?

(답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주요 보증 형태는 다음과 같음

- 재정투자보증(Treasury Investment Guarantee) : 공공행정기관은 투자자들의 금융대출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재정투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전기발전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판매 관련 계약 규정에 따른 공공행정기관의 지급 의무를 위해 투자자 회사에 재정 보증이 제공될 수 있음
  - 보증 금액의 1%까지 일회 보증 수수료가 수익자들에게 부과됨
- 채무인수보증(Debt Assumption Guarantee) : 국가에 의한 채무인수 조건들은 공적 금융 및 부채 관리에 대한 규정에 관한 법률 제4749호에서 결정됨
  - PPP 계약에서 해당 계약이 해지되고 금융이 공공 당국에 의해 인수된다면 공공행정기관을 대신해 재무부가 주요 부채 및 파생 비용을 위해 민간 채권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함

- 법률 제4749호에 규정된 메커니즘이 있음
  - 법률 제4749호 8/A조항에 따르면 최소 투자비용 10억 리라의 BOT 프로젝트와 최소투자비용 5억 리라의 BLT 보건 및 교육 프로젝트들은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 시 부처에 의해 인수될 수 있음
  - 법률 제4749호 이행을 위한 부채 인수(재무부 수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규정의 요구조건 (계약자가 투자비용의 3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을 충족한다면 주요 부채 및 관련 파생비용 지급에 관한 계약자의 채무는 부처에 의해 인수될 수 있음
  - 수요/교통(량) 보증 : (예시) 공항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승객 수; 도로의 경우 특정 차량 이용 수
  - 구매 보증 : 전기 분야 PPP 프로젝트의 경우 전기 발전 시설이 설립되는 위치 및 특징에 따라 국가 전기 시스템의 조건에서 공급-수요 균형을 고려해 전기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 (전기 생산금액)를 위해 공공행정 기관이 제공할 수 있음

#### 5) 금융 제공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질문)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제공업자를 위한 보증은 무엇인가?

(답변) 특정 PPP 프로젝트의 실현만을 위해 프로젝트 민간 당사자들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 특수목적법인(SPV)의 주식에 대해 금융 제공업자가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가될 수 있음

- 추가로 PPP 계약(또는 공공당국, 민간과 금융 제공업자 사이 3자계약)에서 상호 약정에 의해 당사자들은 개입권, 대위권, 복구시험절차 등 금융제공업자의 이해를 위한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PPP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 흐름에 따라 공공당국은 그들의 금융제공업자의 이해 유도를 위해 민간 당사자에게 최소수익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 최근 몇몇 튀르키예 PPP 법률은 금융 제공업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설정함

- 법률 제6428호에 따라 PPP 프로젝트에서 계약자 불이행의 경우 공공당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융 제공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자금 보장 솔루션을 찾기 위해 금융 제공업자와 조정해야함

## 6) 리파이낸싱의 이점

(질문) PPP 프로젝트의 파이낸싱 비용은 리파이낸싱에 의해 감소되는가?  
누가 그러한 비용 절감으로부터 이익을 보는가?

(답변) 이는 프로젝트의 형태, 관련 법률 또는 당사자들의 약정 등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음

- 예를 들면, (헬스케어 분야 PPP 프로젝트 관련) 법률 제6428호의 적용과 관한 규정 56조에 따라, 리파이낸싱의 비용 혜택은 계약자와 공공당국 간 동등히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관련 PPP 계약에서 결정되어야 함

## 7) 수익 제한

(질문) 민간 당사자의 수익에 대해 어떤 제한이 있는가? 만약 민간 당사자가 예상된 수익보다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낸다면, 민간 당사자가 추가 수익을 공공당국에 이전할 의무가 있는가?

(답변) 일반적으로 최소 수익 또는 최대한도를 포함한 민간 당사자의 수익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한편, 공공당국에 의해 제공된 지급보증은 특별 가격산정 공식 및 또는 시험절차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헬스케어 PPP 프로젝트 서비스 수수료는 관련 PPP 계약에서 결정된 매 5년마다 상세하게 시장 테스트 수행으로 업데이트 됨
- 헬스케어 PPP 프로젝트에서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최고 한도 사이에 변동이 기대되는 가용조건부 정부지급(AP, Availability Payments)의 경우 가치(NPV)의 결정을 위한 특별 산정이 있음
  - 입찰자들이 70% 환자 점유율에 근거해 입찰을 제출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단가를 위한 할인은 초과 점유 때문에 관련 PPP 계약에서 결정된 해당 가격산정 공식에 따라서 적용될 것임

## 마. PPP 계약의 성과

### 1) 프로젝트의 승인(acceptance, 수락)

(질문) 시설의 승인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답변) 승인은 임시 승인과 최종 승인의 2단계로 수행됨

○ 승인 절차는 주로 공공당국에 의해 수행됨

- 보건 PPP와 같은 특정 PPP 프로젝트의 경우 독립적인 기술 컨설턴트 회사가 이 과정에 참여하며, 컨설턴트는 시설 건설이 관련 PPP 계약의 기술 사양을 따르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공공당국의 주의를 위해 발행함
- 공공 당국이 보고서에 구속되지 않아도 보고서 획득은 여전히 요구되며 실제로 공공당국은 승인 시 그 보고서를 고려함

### 2) 복구 시험 절차(Reinstatement test procedure)

(질문) 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된 대출의 상환 또는 시설의 복구 면에서 발행 수익금을 시험하기 위해 PPP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복구 시험 실무가 있는가?

(답변) 복구 시험 실무는 튀르키예 PPP 법률에서 결정되지 않으나 PPP 계약에서 그러한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함

### 3) 보험가입 불가능성(un-insurability) 개념

(질문) 공공당국은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에 보험가입 불가능성 개념을 수락하는가?

(답변) 일반적으로 공공당국은 PPP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보장을 민간이 획득하도록 요구함

- 그러나 프로젝트가 잠재적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몇몇 위험 요인에 대하여 보험의 불가능성을 가지는 등의 합리적인 상황에서 공공 행정기관은 제한된 보험가입 불가능성 개념을 수용함

### 4) 시장 테스트 절차

(질문) 민간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하여 PPP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시장 테스트 절차가 있는가?

(답변) 법률 제6428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PPP 프로젝트 계약의 계약적 규정으로 삽입된 시장 테스트 절차의 원칙을 결정함

- 해당 규정에 따라 시장 테스트 절차는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가격 획득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 결정 목적으로 매5년마다 수행되어야 함
- 어떤 경우에도 프로젝트 회사(민간 당사자)는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인 가격을 제출했던 성공적 입찰자에 의해 제안된 같은 조건 및 가격으로 서비스를 약속할 우선권을 가짐

## 5) 인도 조건

(질문) 민간 당사자가 운영기간 종료 시 시설을 새롭게 수선할 의무나 요구조건이 있는가?

(답변) 의무나 요구조건은 없으나 민간 당사자들은 운영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고 이용 및 작동을 위한 적절한 상태로 시설을 인도해야 함

## 바. PPP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 1) 지급으로부터 상계

(질문) 국가가 민간에 지급될 지급액으로부터 어떤 항목을 상계할 수 있는가?

(답변) 민간 당사자가 PPP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설 및 운영에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튀르키예의 PPP 당국의 주요 접근이 있음

- 따라서 PPP 프로젝트 계약은 만약 민간 당사자가 관련 계약에서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공당국에 의해 초래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미수행 또는 빈약한 수행,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공공 당국에 의해 공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패널티는 계약금액의 10%~20% 사이에서 결정되며 특정 비율로 제한됨
- (예시) 빈약한 수행 시 헬스케어 PPP 프로젝트에서 보건부는 가용조건 지급액(Availability payment)의 10%와 서비스 공급의 결함으로 서비스 지급액의 20%를 공제할 권리가 있음

- 건설 완료 지연 및 또는 운영 개시 지연의 경우 공공 당국은 지급을 중지할 권리가 있음

## 2) 민간 당사자의 불이행시 공공 당국 및 금융 제공업자의 권리

(질문) 만약 프로젝트 회사(민간 당사자)가 불이행한다면 프로젝트의 공공당국 및 또는 금융 제공업자가 무슨 권리를 가지는가?

(답변) 규정들은 PPP 프로젝트 계약이 무슨 규정을 포함해야 하는지 기술하지만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음

- 계약 불이행의 결과들은 PPP 프로젝트 계약이 결정해야할 언급된 이슈들 중에 하나로, 규정들은 금융 제공업자 또는 공공당국이 가질 수도 있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 어떤 제한도 부과하지 않음 (계약 협상의 사안임)
- 실제로 금융 제공업자는 일반적으로 PPP 프로젝트 등의 이전, 민간 당사자의 경영관리에 개입할 권리가 주어짐

- 건설계약 서명 후 고정투자기간 동안 계약자가 계약범위 내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행정기관은 하자수리기간을 주어 불이행 통지를 보내며, 프로젝트의 금융업자에게도 통지함

- 공공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된 하자수정기간 종료 시 계약자가 자신의 약속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행정기관과 금융제공업자는 계약자의 파트너쉽 구조에서 공사가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합의할 수 있음

- 대신, 특히 보건 프로젝트에서, 계약 불이행의 경우 공공행정기관은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공공행정기관은 계약자를 대신해 계약자의 비용으로 잔여 공사를 해야 함

- 또한 수정 기간을 계약자에 주지 않고 계약자에 소구권을 행사해야함

- 계약자가 운영기간 동안 불이행에 들어가는 경우(예를 들면, 성과 점수 아래로 유지되면) 공공행정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공행정기관과 금융 제공업자는 계약자 파트너쉽 구조 변경 관련 합의를 할 수 있음



- PPP 모델로 보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 건설 및 갱신 관련 법률 제6428호와 몇몇 법률 및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금융 제공업자의 개입권(step-in right)이 헬스케어 PPP 프로젝트에 수여됨
- 실제로 PPP 프로젝트 계약 대부분(또는 공공 당국, 민간 당사자 및 금융 제공업자 사이 서명된 제3자 계약)은 금융 제공업자의 개입권과 대위권을 제공함
- 개입권은 금융 제공자가 민간 당사자들의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프로젝트 관리를 통제하는 것을 허가함
  - 개입 조치가 상황 해결에 충분하지 않으면, 금융 제공업자와 공공당국이 합의 시 대위 메커니즘(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 또한 적용할 수 있음
- 공공서비스의 미수행을 초래하는 정도로 민간 당사자가 법과 규정을 침해하는 경우 공공당국 역시 개입권을 가질 수 있음
  - 공공당국의 개입권은 주로 민간의 의무 인수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금융 제공업자와 조정으로 수행됨

### 3) 개입권(Step-in rights)

(질문)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들에서 파트너십 구조를 재정리하는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특히 금융 제공업자를 위해서) 주어진 개입권이 있는가?

(답변) 법률 제6428호는 민간 당사자가 PPP 계약에 따른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파트너십 구조의 재정리를 설계하는 조항을 가짐

- 그러한 경우에 법률 제6428호에서 요구된 공공당국은 파트너십 구조를 재정리하거나 공공당국과 함께 민간을 대체하기 위해 불이행 중인 민간에 파이낸싱을 하고있는 금융 제공업자에게 알림

- 이들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준비된 사법 계약이기 때문에 PPP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대위조항, 개입조항 또한 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
  - 실제로 대위 및 개입에 대한 금융 제공업자의 권리에 관련 규정들은 공공 당국, 민간 당사자, 금융 제공업자 사이에 서명된 제3자 계약(direct agreements) 또는 PPP 계약에 둔다는 것은 매우 혼함

#### 4) 정치적 및 법적 위험

(질문)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에서 정치적 또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수용과 같은 정치적 위험, 법의 변경 또는 불리한 법원 판결 등의 법적 위험 발생에 따른 PPP 프로젝트에의 부정적 영향이 드물지만 작용함  
- 위험 대부분은 이들의 특성 때문에 국가의 통제하에 있거나 공공당국의 책임이 되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PPP 계약 공공 당사자들에 의해 인수됨  
- 그러한 종류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공 당국은 민간 당사자의 지급 조정 또는 계약기간 연장과 같은 몇몇 종류의 구제조치를 제공함

○ 한편, 재정투자보증(Treasury Investment Guarantee) 및 채무인수보증(Debt Assumption Guarantee)과 같이 국가가 제공하는 몇몇 보증이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의 정치적 또는 법적 위험을 경감함

- 비록 그러한 구제조치가 민간을 보상할 수 없거나 프로젝트 지속을 보장할 수 없을지라도 공공당국은 비용 등 민간 당사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함

○ 최후의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공당국의 행위 또는 관련 당국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신청 가능함

\*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 : 1966년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투자분쟁을 중재함. 다자간 무역협정이 증가하면서 센터에 회부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 5) 국가에 의한 보상

(질문) PPP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정부가 민간 당사자에게 보상하는가?

(답변) PPP 계약은 사법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공공 당사자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보상책임조건은 계약자유 원칙 안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공공 당사자의 잘못(예를 들면, 수용)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민간 당사자를 위한 보상은 민간 당사자의 지분(자기자본), 금융이자를 포함한 파이낸싱 비용과 몇몇 분야에서의 이익의 손실을 포함함

## 6) 민간 당사자에 의한 보상

(질문) 손해배상금으로 인하여 정부가 민간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가?

(답변) PPP 프로젝트 계약의 관련 조항 및 의무 코드와 같은 관련 튀르키예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민간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직접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민간 당사자에게 정부는 책임을 부과함

## 7) 분쟁해결과정 및 절차

(질문)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에서 분쟁해결과정 및 절차는 무엇인가?

(답변) 1990년 후반까지 PPP 계약서는 전통적인 양허계약으로 취급되었고 PPP 프로젝트 입찰을 투자자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꺼리게 만드는 국가회의 검토와 공법의 지배를 받음

- 1999년 튀르키예 헌법 개정으로 사법계약 옵션들이 공공 서비스에 허가됨 이러한 헌법 개정으로 PPP 계약은 사법 계약으로 취급되고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의 결정에 상호 합의할 수 있음
- 법률 제6428호 411조항에서 적용 법규(준거법)를 달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관련 PPP 계약에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결정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튀르키예는 투자 보호 관련,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투자조약의 당사자였고 그중 대부분은 중재를 통한 PPP 프로젝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허용함
- 튀르키예는 또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사이의 투자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ICSID, 국제 투자분쟁해결 센터)과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모두를 비준한 국가 중 하나임
-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금융자원을 통해 파이낸싱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음

## 2 외국인 투자 환경

### 가. 튀르키예 투자진출방법

- 기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모두 구비 시 평균 2-3주 안에 설립 가능
- 튀르키예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외국계 기업도 현지 기업과 동등한 지위 획득
- 한국보다 낮은 인건비에 현지 진출 문의

#### □ 기업 설립 유형

- 튀르키예에서 법인의 유형과 설립, 운영에 대한 사항은 튀르키예 상법 6102호, 협동조합법 1163호에 제정되어 있음
- 튀르키예 상법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등 5개 유형의 기업 설립이 가능함
- 튀르키예에 설립된 기업의 82%는 유한회사이며 13%가 주식회사, 4%가 협동조합이고 합자회사와 집단기업은 법인의 1% 비중만 차지함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합자회사, 협동조합, 합명회사는 비법인 형태의 기업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분할 합자회사의 경우 자본회사로 분류됨  
- 자본회사에서는 파트너가 보유한 자본금에 따라 회사 운영에 대한 지분을 가짐
- 주식회사는 튀르키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선택하는 주요 법인 형태 중 하나이며, 튀르키예에서는 1인 주주의 주식회사도 설립 가능함(자연인 및 법인 모두 주주로 등록 가능)
  - 자본금 최저한도는 5만 리라이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주식회사 (Non-public Joint Stock Company)의 경우 10만 리라의 자본금 필요
  - 현금으로 약정된 주식 명목 가치의 1/4이 주식회사 등록에 앞서 자본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나머지 자본금은 주식회사 등록 후 24개월 이내 납입되어야 함
  - 자본금 납입 일정은 주식회사의 정관에 명기되어 있거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 주식회사는 대부분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보다는 대규모 형태의 회사설립에 적합한 편임
  - 주식회사의 지분 양도에 대한 별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특정 활동 영역의 주식회사와 총자산, 연간 순매출액, 직원 수가 튀르키예 상법상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독립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에는 총회, 이사회, 두 개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으며 총회에서는 기업 정관, 이사 선출, 감사 선출, 회사 청산 등 회사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함
  -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국적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선출 가능함
  
- 유한회사는 의사결정이 이사회 개최없이 이뤄질 수 있기에 소규모 회사 설립에 이용됨
  - 유한회사의 주주는 50명을 넘을 수 없음
  - 최소 자본금은 1만 튀르키예 리라이며 자본금 전체를 유한회사 등록 후 24개월 내 현금으로 납입 가능
  - 유한회사 또한 총회, 이사회, 두 개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으며 총회에서는 기업 정관, 이사 선출, 감사 선출, 회사 청산 등 회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함
  - 이사회에서 회사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는 국적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선출 가능함
  
- 일반 합자회사와 공동기업은 사기업인 경우에만 설립 가능함
  - 최소 두 명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회사 채무에 대해 설립자 모두 무한 책임을 짐
  - 협동조합은 특히 직업·생계 관련 필요를 제공하고 법인, 개인이 특정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력, 금전적 기여에 의한 상호 지원 및 연대임
  
- 튀르키예에서 법인 설립은 상업 등록 시스템 MERSIS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1) MERSIS를 통한 법인 설립 신청서 작성 및 설립자 서명 승인

- 튀르키예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MERSIS(Central Registry System, 중앙 등기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외국인은 먼저 튀르키예 내 세무서에서 tax number(세번)를 발급받은 뒤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 등록 후 MERSIS(중앙 등기시스템)에 등록 가능함

2) 설립자 인감 증명서 준비

3) 경쟁 규제 당국에 자본금의 0.04% 납입 및 자본금 25%를 현금으로 납입

4) 상업 등록 사무소에 회사 등록 신청

5)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ette)에 등록 내용이 공지된 이후 본격적인 영업활동 가능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튀르키예어로 공증 받은 회사 정관 공증서류 3부(원본 1부 포함)</li> <li>- 자본금의 최소 25% 납부 확인 증명서(은행 영수증)와 자본금의 0.04%를 경쟁 규제 당국에 납부한 증명서(은행 영수증)</li> <li>- 상업 등록 사무소 제출용 신청서(상업 등록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li> <li>- Establishment Statement(회사설립 보고서) 5부</li> <li>-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li> <li>- 회사 대표자의 서명 회람</li> <li>- 주주(발기인)의 사진 및 여권 사본(공증본)</li> <li>- 이사회 구성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대표자인 자연인의 실명 및 해당 자연인의 법인 대표 자격에 관련된 증명서</li> <li>- 튀르키예 상업등기 규정 준수 각서(상공회의소 비치)</li> <li>- 비현금자본이 있을 경우 공식 가치 평가서</li> <li>- 비현금자본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li> <li>- 부동산, 지적재산, 현물자본은 등록 시 반드시 표시하여 서류로 제출</li> </ul>
<p>○ 주식회사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영역의 회사의 경우 관련 기관의 회사 설립 승인 확인서</li> <li>-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의 경우 이사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서</li> </ul>
<p>○ 유한회사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자가 아닌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서</li> </ul>

주: 정관 공증일자 기준 최소 15일 이내에 여타의 필요서류와 함께 상업 등록 사무소에 제출 필요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 상기 절차 진행을 위해 서류 준비 비용으로 대략 2,000리라가 소요됨

□ 지사의 설립과 절차

- 외국 기업의 지사는 투자법상 튀르키예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해외에 있는 모기업의 영업 기간 동안 지사 운영이 가능함
- 지사 설립 시 별도의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음
- 지사는 모기업의 사업영역에 한해서만 판매, 대금수취 등 튀르키예 내 영업활동이 가능함
- 영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이나 한국과 튀르키예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돼 있어 일방에 납세한 경우 다른 국가에는 납세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지사의 영업이익을 송금할 시 튀르키예 정부에서 15%의 지사세 (Branch Office Tax)를 징수함
- 지사 설립은 소재지 상공회의소의 등기부 승인을 얻어 상공회의소에 등록함으로써 가능하며,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회사 인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지사 설립 청원서(대리인 서명 시 위임장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본사의 지사 설립 결의서 공증본 4부
- 본사 정관 공증 원본
- 본사 활동 증명서 혹은 본사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문서
- 지사 대표에게 지사 운영 권한을 부여한 본사의 위임장
- 지사 설립신고서 5부(담당자 작성 및 서명 필수)
- 튀르키예 내 대리인을 명시한 위임장 사본 2부
- 지사 대표가 튀르키예인인 경우 공증된 신분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 공증된 여권 사본
- 지사 대표의 인감증명서 사본 2부
- 튀르키예 상업등록규정 준수 서약서(지사 운영 권한을 받은 사람이 서명)
- 지사 대표 사진이 포함된 상공회의소 지사 등록 신고서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 튀르키예 밖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공증 번역사의 튀르키예어 공증을 받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서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지사 운영 중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외투기업 운영 보고서를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외국인 투자국에 제출해야 함

□ 연락사무소의 설립과 절차

- 튀르키예 내에서 영리활동(판매, 대금수취 등)을 행하지 않는 사무소가 필요할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간편함
  - 연락사무소는 튀르키예 산업기술부에서 해당 연락사무소가 튀르키예 내 어떤 상업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설립 가능함
-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서류는 튀르키예 산업기술부의 외국인투자국 (General Directorate of Incentive Implementation and Foreign Investment)에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연락사무소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청서(산업기술부에서 교부)</li><li>-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비수행 각서(서명자는 모기업에서 승인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함)</li><li>-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확인된 활동 증명서(해외 발급 후 발급한 국가의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함.)</li><li>- 모기업의 활동증명서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li><li>- 연락사무소 설립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li></ul> |
|---|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 모든 서류는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날인받아 튀르키예로 송부하면 튀르키예 내 법무 대리인 등이 튀르키예어로 번역하여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당국에 제출하게 됨
  - 상기 방법 이외 한국 내 튀르키예어 번역 인력을 통해 직접 번역 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튀르키예로 보내는 방법도 있음
  - 서류 원본은 외국인 투자국에서 검토 후 승인 시 반환됨
  - 연락사무소 설립 및 연장 심사는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완료됨
- 연락사무소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추가로 연장 가능함
-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매년 5월 말까지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추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음

<연락사무소 활동 내역에 따른 연장 가능 기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사와 현지 기관 간에 연락 및 현지 출장자 지원 : 5년</li><li>- 현지 공급업체 관리 감독 : 5년</li><li>-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 5년</li><li>- 시장조사 : 5년</li><li>- 지역본부 : 10년</li></ul> |
|---|

(자료: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 연락사무소는 본사가 모든 운영 비용을 해외에서 송금해야 하며, 운영비에는 사무실 임차료, 급여, 집기 비용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됨
-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행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및 기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이에 따라 영리활동의 수행이 엄격히 금지되고 본사와 현지 간 연락책 역할만 허용되고, 정부 입찰 등에 본사를 대리해 참가하는 것도 금지됨
- 폐쇄 또는 청산을 제외하고는 이익 및 유사한 수입의 해외 송금도 불허됨
  -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튀르키예 현지 직원들의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사회보장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함
- 산업기술부 및 유관기관은 연락사무소가 허가 시에 기재한 활동분야에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음
  - 허가 시의 활동 분야를 벗어났을 경우 30일 이내에 활동 분야를 수정할 수 있으며 미수정 시에는 연락사무소 활동 허가가 취소됨

#### □ 기타 회사유형 및 설립절차

- 합명회사: 최소 2인의 설립자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 회사형태로 자연인만이 합명회사의 설립자로 등록될 수 있음
  - 공동기업 설립자는 회사운영에 관한 권한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으며, 회사 운영 권한 배분은 파트너 다수가 동의 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함
  - 공동기업은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음
  - 공동회사의 설립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간주됨 (회사재산으로 회사 채무 완제 불가능 시 2차적으로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짐)
  - 합명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합명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공증된 설립자 서명이 있는 회사 설립 서류
- 회사 대표자의 서명 회람
- 유한책임사원이 현금 외 자본을 납입했을 시 해당 비현금자본의 가치평가서
- 비현금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부동산, 지적재산, 현물자본은 등록 시 반드시 표시하여 서류로 제출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 합자회사 : 튀르키예 상법상 일반적인 합자회사는 사기업으로, 주식분할 합자회사의 경우 자본회사로 분류됨
  - 합자회사는 최소 2명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설립자 중 한 명은 반드시 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 완제 책임)으로, 다른 한 명은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되어야 함
  -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된 파트너의 권한은 자본금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운영에 관련된 권한을 가질 수 없음
  - 합자회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권한이 구분된다는 점으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역할과 책임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함
  - 합자회사의 설립 시 필요서류는 합명회사와 동일함
-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자연인, 법인 모두가 설립할 수 있으며 특정 경제적 이익, 직업이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음
  - 협동조합에서는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출해야 하며, 협동조합의 감사는 이사의 권한을 지님과 동시에 최소 1년간 협동조합 운영의 관리감독 의무를 짐
  - 협동조합은 최소 7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각각의 설립자는 최소 100리라~ 최대 500,000리라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협동조합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3명은 튀르키예인이어야 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출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설립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음

<협동조합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설립자 서명이 공증되어 있는 조합 설립 서류
- 협동조합 설립 허가 서류
- 조합 대표자의 서명 회람

(자료:튀르키예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 시사점

- 튀르키예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이점이 있음

- 반면, 튀르키예 내 법인 설립 시 현지인이 설립한 국내 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더구나 튀르키예 정부는 점점 자국산 우대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튀르키예로 수출 물량이 많고 인근 지역까지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튀르키예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음

(자료: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튀르키예 무역부, 사회보장국(SGK), 튀르키예 통계청, Bagzibagli Erdem & Sahin Law Firm, Dundar Sir Law firm, Crowe Horwath,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5.16.)

## 나. 튀르키예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 유럽 국가(65%) 중심의 투자 유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 높음
  - 2019년 대비 금융보험업에 대한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행하는 국가별 사업환경에 관한 보고서(Doing Business 2020)에서 튀르키예는 총 190개의 국가 중 76.8점으로 33위 기록
    - 이는 중동지역에서 UAE(16위, 80.9점)에 이은 2순위로, 주요 투자 인센티브 요인으로 각종 부가가치세 면세 및 자산(부동산 등)등록 관련 비용 및 세금 절감효과를 소개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 튀르키예 업종별/국가별 해외직접투자동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유럽 가장 높은 투자액 기록, 네덜란드 비중이 가장 높음
-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FDI자료(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urkey, 튀르키예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5년간 유럽(65%)의 튀르키예 투자액이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아시아(15%) 대비 4배 이상의 투자액을 기록함
  - 그 중 네덜란드는 유니레버, 필립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진출 외 금융 및 부동산 분야에 높은 투자를 하며, 57억 8천만 달러로 투자액이 가장 높음
    - 그 뒤로 스페인(약 45억 달러), 아제르바이잔(약 35억 달러)이 튀르키예에 대한 투자를 진행함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국영 석유회사 Socar에서 Star Refinery가 정유 공장(약 63억 달러 규모) 설립을 하는 등 높은 투자관심도를 보임
- 2017년 이후 네덜란드의 투자규모는 50% 이상 감소한 것에 반해 영국의 투자액이 100% 이상 늘어나고 있음
- 이는 튀르키예 테크노파크(85여 개) 내 소프트웨어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영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아시아에서는 일본(14억 달러), 중국(9억4,000만 달러), 홍콩(4억 달러) 등으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짐

<국가별 튀르키예 FDI 동향(Flow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유럽	4,847	4,927	4,326	3,305	2,045	19,450
아시아	2,245	1,705	1,912	1,808	308	7,978
네덜란드	1,016	1,727	855	845	157	4,600
영국	974	328	445	825	367	2,939
아제르바이잔	661	1,005	510	565	-	2,741
스페인	318	1,460	224	220	17	2,239
독일	440	312	298	436	81	1,567
카타르	420	113	369	570	56	1,528
미국	340	180	435	342	86	1,383
일본	454	193	88	317	43	1,095
러시아	723	5	5	15	-	748
중국	301	115	43	26	8	493
홍콩	31	13	167	45	151	407
기타	1,849	1,950	3,335	1,405	1,487	9,492
총계	7,527	7,401	6,774	5,661	2,453	29,816

\*2020년 1~4월 데이터 기준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무역관 자료)

□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업종별 세부 투자액을 비교 시,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감소세를 기록함
  - 금융보험업이 연 평균 13억 달러씩 이루어지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연 평균 18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을 기록하며, 2017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임
  - 제조업 중에서는 식자재 및 음료업(23.2%), 화학 및 의약 제품(16.4%), 코크스, 석유 정제공업(12.6%) 순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주요 업종별 튀르키예 FDI 동향(Flow기준)>

구분 (단위 : 백만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b>가.농업</b>	38	29	34	23	2
<b>나.일반 산업</b>	3,068	2,022	2,706	2,195	499
광업	148	448	81	91	103
제조업	2,241	1,202	1,934	2,004	386
전기,가스 공급	677	371	687	99	9
수도·환경정화	2	1	4	1	1
<b>다.서비스</b>	4,421	5,350	4,034	3,393	1,952
건설업	293	626	215	451	24
도매 및 소매업	688	1,077	1,125	870	194
운수 및 창고업	635	1,333	629	305	163
숙박 및 음식점업	250	82	271	83	41
정보통신업	92	565	208	281	381
금융 및 보험업	1,765	1,464	1,229	863	1,034
부동산업	284	21	60	241	16
전문,과학 및 기술업	73	52	60	73	25
사업지원 및 사업관리업	23	27	19	70	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업	0	0	0	0	0
교육업	13	0	0	0	6
의료서비스업	274	65	103	98	29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18	9	20	2	13
기타	13	29	93	56	24
<b>총계(가+나+다)</b>	<b>7,527</b>	<b>7,401</b>	<b>6,774</b>	<b>5,611</b>	<b>2,453</b>

\*2020년 1~4월 데이터 기준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무역관 자료)

□ 코로나19 여파에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투자액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여파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3월에 59% 이상 큰 감소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동 기간 대비 전체 투자 유입액은 오히려 증가(9.2%)함
-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 전체 투자액의 50% 이상 규모인 9억3천만달러를 2월에 투자했으며,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각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함

<전년 동기간 대비 국가별FDI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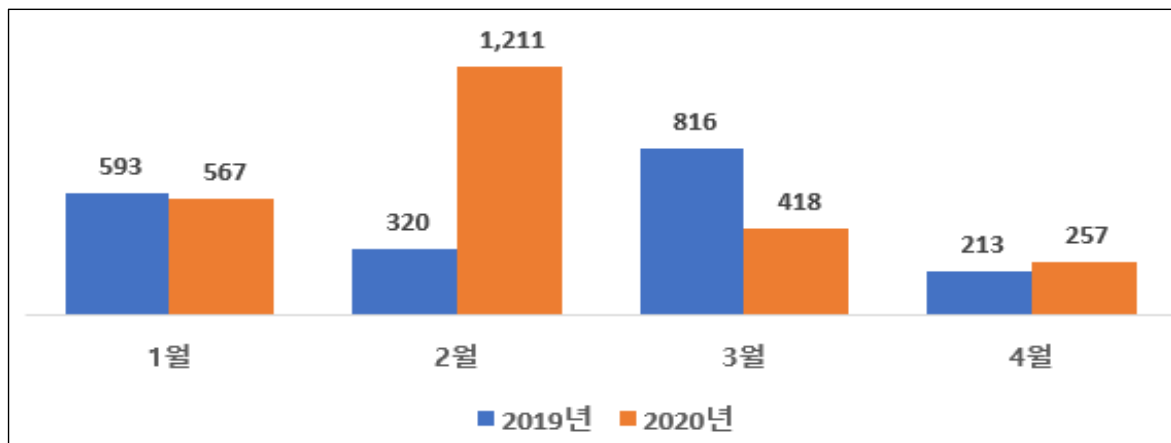
(단위:백만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1월	2월	3월	4월
이탈리아	15	10	23	4	11	935	8	2
영국	190	32	256	33	344	14	6	3
독일	134	35	5	3	10	18	42	11
스페인	32	11	23	43	4	9	3	1
룩셈부르크	4	4	11	23	3	20	200	3
네덜란드	26	13	8	4	116	30	6	5
홍콩	1	9	0	1	4	15	0	132
미국	25	91	2	25	4	3	31	48
일본	9	10	9	1	1	15	1	26
홍콩	1	9	0	1	4	15	0	132
중국	2	4	2	2	2	2	2	2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무역관 자료)

<전년 동기간 대비 월별 FDI 현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무역관 자료)

□ 금융·보험업 투자 증가 대비 제조업 등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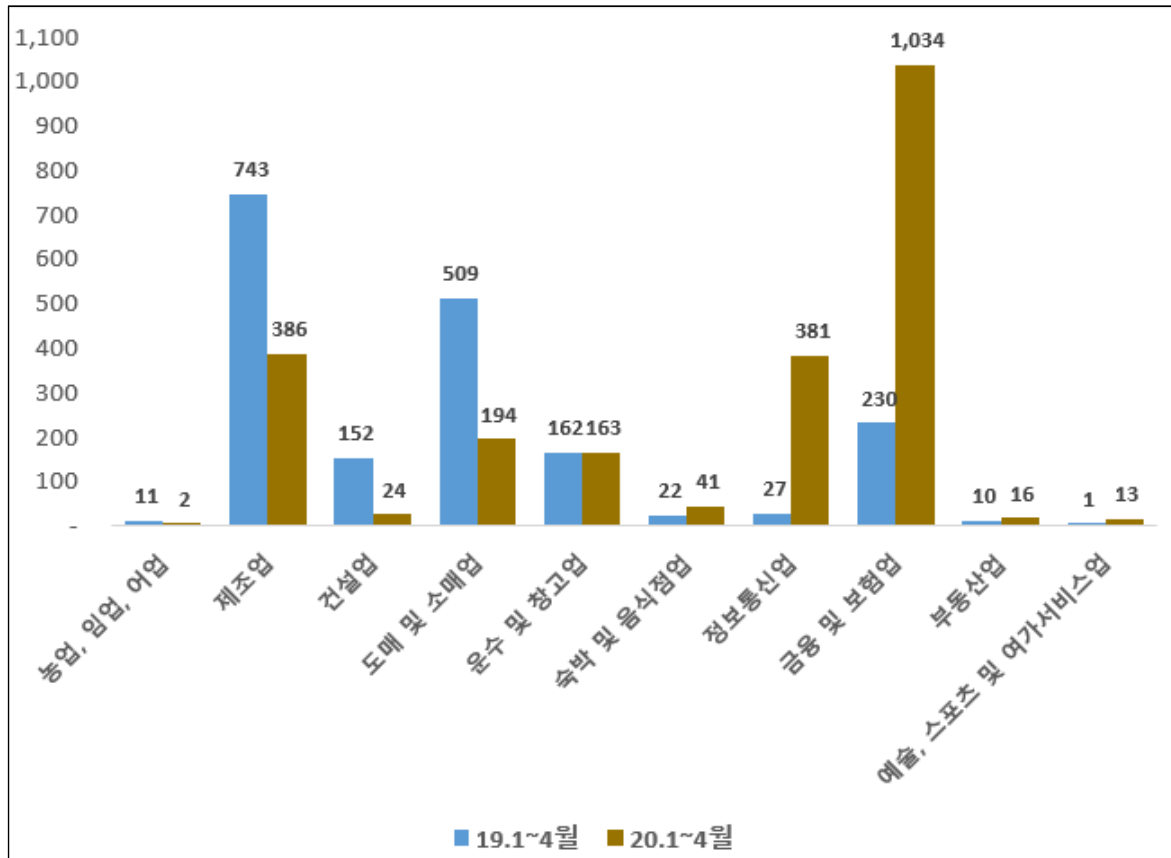
-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은 2019년 동기간 대비 금융 및 보험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함
  - 특히 은행업은 2019년에 2천만 달러에 그쳤던 것에 반해, 2020년에는 약 50배 이상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보험업 분야의 투자 감소분을 만회함
- 현지 컨설팅 회사 Deloitte의 투자 컨설팅 전문가는 2020년 2월 튀르키예 주요 금융법(자본시장법 및 은행법, 신용카드 등에 관한 법 등)이 개정 및 공식 발효됐으며, 그 중 은행의 투자 제한 관련 조항의 폐지 등이 2020년 상반기 해외자본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함
- 이 외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자로부터의 모바일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업의 해외직접투자유입액도 대폭 증가함
  - 이는 2019년 대비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튀르키예 전체의 투자액이 37%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 있음
  - 현지 언론 Analulu Agency은 5G기술의 상용화 및 M2M 기술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 모멘텀이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함
-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투자 유치가 각각 48%, 62%씩 감소했으며, 제조업 중에서 코크스 및 석유 정제공업(△4억 2000만 달러)에서 감소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의 對 튀르키예 투자 동향

- 한국은 튀르키예 시장의 도매 및 소매업(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제조업(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 대표적 예시
    - \* 2016년 CGV의 튀르키예 엔터테인먼트 최대기업인 MARS 인수를 위한 정보통신업 분야 투자
    - \* 2018년 CS윈드의 풍력타워 제조업체(EGE TOWERS) 인수
    - \* 2019년 롯데케미칼의 인조대리석 제조업체(엔지니어드스톤) 해외인수합병

## <전년 동기간 대비 업종별 FDI 현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무역관 자료)

### □ 현지전문가 코멘트

- 튀르키예 딜로이트 컨설팅사의 Mertan Ostork는 튀르키예의 관심국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중국의 ICBC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2015년 튀르키예 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중국 금융기관
  - 이후 튀르키예 내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투자 실행
  - 튀르키예와의 무역량 증가에 따라 투자액 증가 예상
  - 한국 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함께 관심이 커질 것
- 현재 튀르키예는 교육업, 농업, 가축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유치에 관심이 높는데,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해당 산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관심이 높아 튀르키예가 매력적인 투자국이 될 것이라 밝힘



<한국의 對 튀르키예 업종별 해외투자동향>

(단위: 개사,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	투자액	신규	투자액	신규	투자액	신규	투자액	신규	투자액
농업, 임업, 어업	1	0	0	1	0	1	0	1	0	0
제조업	3	7	0	11	3	32	6	132	0	0
전기, 가스 등	0	10	0	5	1	2	1	56	0	18
건설업	0	31	2	32	1	69	2	11	0	0
도매 및 소매업	2	24	3	18	3	185	0	0	0	0
운수 및 창고업	1	1	1	0	0	0	0	0	0	0
정보통신업	1	681	1	10	0	4	0	0	0	0
금융 및 보험업	0	1	0	1	0	0	0	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	1	1	1	0	1	0	0	0	0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1	0	0	0	0	0	0	0	0	0
보건·사회 복지 서비스업	0	0	1	65	0	0	0	0	0	0
기 타	0	0	0	0	1	0	0	0	0	0
합 계	9	756	9	144	9	294	9	202	0	18

\*2020년 1~4월 데이터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시사점

- 튀르키예 재무부는 2020년 1월, 튀르키예의 투자유치 대상 국가를 다각화하고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카타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라 밝힘
- 또한 이스탄불의 Ataşehir 지역의 IFC 프로젝트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뉴욕, 런던, 두바이의 기존 금융센터보다 더 큰 글로벌 국제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함
- 해당 지역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기관들의 입주 확대에도 높은 비중을 두며, 이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임
- 아직까지 한국의 튀르키예 투자규모는 유럽 주요 국가 대비 높지는 않으나, 튀르키예가 아시아 지역의 투자유치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인센티브, 세제 및 법안의 정비 등 투자 환경에 대해 지속적 관심 필요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튀르키예 중앙은행(TCMB), 투자청(Turkey Investment Office), 현지 언론(Daily Sabah, AA), Socar사 홈페이지 자료, ODTU TECKNOKENT 자료, Santander 보고서(TURKEY: FOREIGN INVESTMEN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07.06.)

## 다. 2020년 튀르키예 주요 금융법 개정 사항

-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주요 금융업 관련 법률 개정
-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자금조달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법안 발효

- 2020년 2월 자본 시장법(Capital Market Law No.6362) 및 은행법(Banking Law No.7222), 신용카드 등에 관한 법(Debit Cards and Credit Cards Law No. 5464) 등 금융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동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효됨
- 개정법은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Basel Banking Supervision Committee)가 발표한 국제표준내용이 주요 골자로, 은행의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해 향후 튀르키예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영업활동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 주요 개정 내용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시장 불공정거래 등 처벌 강화
- 채권자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
-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 세부 내용

- 예방계획(Precution Plans) 제출 의무화
  - 은행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파산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해 예방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상위 은행 규제감독기관(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 이하 BRSA)은 해당 예방계획 및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은행에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단, BRSA이 금융시장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은행에 한해서만 제출 의무 있음
- 위험 대상군(Risk Group) 확대
  - 대출 이용 제한이 있는 리스크 그룹에 대한 정의 확대
  - 대상 : 1) 해당 은행 임원(또는 이와 준하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2)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  
3) 재무부, 튀르키예 부 기금(Turkish Wealth Funds) 등이 투자한 은행

- 튀르키예 형법 106조 및 107조에 명시된 내부자 거래 및 조작 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 최소 형량(2년→3년)으로 증가
- 채권자위원회(Borçlanma Araci Sahipleri Kurulu 또는 BPSK) 설립 근거 명시

□ 채권자 위원회 주요 내용

- 구성 : 채권자
- 설립 시기 : 발행인의 모든 부채에 대해 또는 개별 발행 채권에 대해 별도로 설립
- 주요 기능 : 발행인과 채무 상품에 대한 세부조건을 협상 조율
- 소집 및 의결조건 : 채권 명목가격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의결 시 정족수 충족 간주, 관련 의사결정은 유효
- 의결 효과 : 채권자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해당 채무 상품 보유자 모두에게 구속력있음
- 기타 사항 : 투자설명서(izahname)또는 부채 발행 증명서(ihraç belgesi)에 위원회 소집의 절차와 의사 결정과정을 명시해야 함.
- \* 상기 외 세부원칙 및 절차는 자본시장 위원회(CMB)가 정하는 세부 시행령에 의거 적용

(자료: KOTRA이스탄불무역관 자체 작성)

- 담보신탁사(Security Trustee) 및 담보대리인(Security Agent)
  - 담보 신탁사/대리인 개념은 영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튀르키예에서도 채권자 권리 보호 및 채무불이행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발효됨
  - 담보 신탁사(Security Trustee)는 채권자와 채권 발행인(채무자) 사이의 독립 기관으로 채무자가 채권지급의무 미이행 시 채권자의 권리 보호 및 대리 역할을 수행함
  - 담보 대리인(Teminat Yöneticisi, Security Agent)과 채권발행기업은 담보 자산 관리 협약(Teminat Yönetim Sözleşmesi)\*을 서면으로 작성함
  - \* 담보 자산 관리 및 매각 등 집행 절차, 이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담보 대리인의 주요 의무 및 권한이 포함됨
  - 담보 대리인은 위 협약서에 의거해 담보 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니며, 필요 시에는 별도의 조치사항(사전 공지유무, 권한 부여 및 승인 절차 등) 없이 채권자에게 담보 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을 분배할 수 있음
  - 담보자산은 담보 대리인이 보유한 고유자산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파산할 경우에도 위탁한 담보자산은 영향을 받지 않음

- 담보 대리인은 오직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여야하며, 담보 자산관리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강화

-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의 요청이나 지시없이 국내외에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 미제공
- BRSA는 고객의 정보 또는 은행의 영업에 관한 비밀 등은 제3자에 공유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은행이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사 및 제한 권한도 보유함
- BRSA는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 질서에 위배되는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유출 및 유사한 목적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음
- 상기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 위반 시 최대 전년도 총 은행 수입의 5%까지 행정 벌금을 부과 예정

○ 프로젝트 채권(Project Security) 및 프로젝트 금융 기금(Project Finance Fund)

- 프로젝트의 장기 자금 조달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하기 위해 개정법은 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IT분야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채권 발행을 허가함
- 프로젝트 금융기금(Project Finance Fund)은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자를 대신해 자금 및 기타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함
-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만 PFF를 설립할 수 있고 PFF 자산은 PFF운영회사의 고유 자산과는 별도로 관리되며, PFF 운영 회사 파산 시에도 PFF의 자산은 유효함

○ 은행의 투자 제한 사항 폐지

- 주요 폐지 조항 : 은행법 제56조, 제5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부동산의 순장부가액(Net Value)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li> <li>- 영업용이 아닌 투자거래 목적으로 부동산 및 상품의 매매를 취급하지 못함</li> <li>- 부동산 거래를 주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불가함</li> <li>- 은행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해 타 기관에 투자하지 못하며(단, 신용기관 및 금융 기관 제외), 투자 시에도 투자 대상 기관 또는 기업의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지 못함</li> </ul>
--

(자료: KOTRA 이스탄불무역관 자체 작성)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플랫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규 조항 추가
- 튀르키예 형법 106조 및 107조에 명시된 내부자 거래 및 조작 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 최소 형량(2년→3년)으로 증가
  - 대출 및 예금이자율, 은행 수수료율 등의 최대 상한선 결정권 대통령에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epublic Turkey, 튀르키예 공화국 중앙은행)으로 변경
- 주식 처분 권한 절차 합리화
  -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서면으로 반대의견 개진 시 본인 지분의 주식 처분이 가능
  - 처분권 행사 시 과거에는 30일 동안의 평균주가로만 매도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따라 공정 가액으로 매도 가능
  - 세부적인 공정가액 측정 방법은 추후 재공표 예정

#### □ 현지 전문가 의견

- Saribrahimoğlu Law Office의 Yavuz Selim Sarıbrahimoğlu 변호사에 따르면 상기 개정법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음
-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기관 또는 법인의 도입은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튀르키예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시사점

- 개정법은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금융시장의 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등을 통한 금융 시장 거래의 활성화 목적을 담음
  - 이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특히 프로젝트 기반 증권,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법안 발효 덕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대중 대상으로도 장기적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 특히 Kanal Istanbul 프로젝트 등에 긍정적 자금조달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Legal Report Concerning the law No.7222(Sarilbrahimoglu 법률사무소), YBK법률 사무소 현지 언론(Sozcu, AA, Finans Gundem),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 라. 외국인 투자 제도

### □ 튀르키예 외국인직접투자법(FDI)

- 튀르키예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4875)에 따라 외국인의 튀르키예 투자 활동을 장려 및 보호함
-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에 의한 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지사 설립 또는 튀르키예의 설립된 회사의 지분 매입 등으로 구분됨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튀르키예 중앙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화 현금, 국채를 제외한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기계나 장비 등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튀르키예 외국인 직접투자법의 기본원칙은 내외국인 동등 대우
  - 즉, 튀르키예 상법 하에서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는 외국 회사가 아닌 튀르키예 회사로 간주하며, 수출 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등 제한이 없고 자본금의 외화 계좌 납입도 가능함
  - 관련 법에 따라 투자자는 이익, 배당금, 투자의 청산이나 경영계약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 등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함
  - 또한 회사 설립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설립 후 재무부에 신고하는 신고제 운용 중
- 2018년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가 있는 기업은 전자 인센티브 신청 및 외국인 투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분 구조, 주식 양도, 자본금의 증감 등을 등록 가능하며, 자유롭게 기업 및 지점 설립, 기존 회사의 지분 인수, 기업 폐쇄 등을 할 수 있음
- 한편, 튀르키예는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 또는 장려책이 있음
  - 일부 산업은 국가 독점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이 제한됨
  - 다른 일부 산업은 투자 장려산업으로 분류돼 외국인 투자가 적극 장려됨
- 수입 의존도 높은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21년 6월 튀르키예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 기준 중 지역별 최저 투자금액 상향 조정, 분야별 최저 투자 비율 하향 조정, 전략 투자 조건, 설비 투자 관련 일부를 변경함
  - 이를 통해 지역별 최저 투자금액 상향,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조건 완화, 설비 투자용 기계, 부품 관세 면제 조치 철폐가 이뤄짐

- 2021년 6월 변경된 투자 지원 정책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21.6.29. 관보번호 제31526호, 대통령령 제4191호)

<2021년 6월 투자 지원 정책 변경 내용>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 투자 비용 상향 조정	- 1,2지역: 100만 TL (약 7759만원) - 3~6지역: 50만 TL (약 3,879만원)	- 1,2지역: 300만 TL (약 2억 3,270만 원) - 3~6지역: 150만 TL (약1억 1,638만원)
분야별 최저 투자 비율 하향 조정 - 브랜드, 특허 등 지적 재산권	50%	25%
전략 투자 조건 변경	-미생산 품목 : 튀르키예 내 생산이 전무한 품목은 1년 수입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전략투자 조건에 부합  -정유 및 석유화학 : 투자하는 제품의 튀르키예 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전략 투자 품목 지정 가능  -방위 : 국내 총 생산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작아야 전략 투자 품목 지정 가능	조건 폐지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가능
관세 면제 조치 철폐	-설비투자 목적으로 튀르키예에 수입되는 일부 기계, 부품 대상 관세 면제 조치 -대상 품목: 시멘트, 인쇄장비, 섬유기기 등 174개	해당 조치 철폐로 인해 관세 부과

주: 1TL=77.59원(2022.5.25.기준)

(자료: 튀르키예 투자청)

(자료: 튀르키예 투자청, KPMG, 튀르키예 국세청, 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계획, 제11차 경제 개발 계획,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5.31.)

## 마. 튀르키예 국가신용등급

### □ 국가신용등급

금융시장 불안, 환율 인상, 인플레이션 폭증으로 인해 튀르키예의 국가신용등급은 2022년 9월30일 S&P가 B등급(stable), 2022년 8월12일 Moody's가 B3등급(stable), 2022년 7월8일 Fitch가 B등급(Negative)으로 평가함

Credit Rating Scales by Agency, Long-Term

Moody's	S&P	Fitch	
Aaa	AAA	AAA	Prime
Aa1	AA+	AA+	High grade
Aa2	AA	AA	
Aa3	AA-	AA-	
A1	A+	A+	Upper medium grade
A2	A	A	
A3	A-	A-	
Baa1	BBB+	BBB+	Lower medium grade
Baa2	BBB	BBB	
Baa3	BBB-	BBB-	
Ba1	BB+	BB+	Non-investment grade speculative
Ba2	BB	BB	
Ba3	BB-	BB-	
B1	B+	B+	Highly speculative
B2	B	B	
B3	B-	B-	
Caa1	CCC+	CCC	Substantial risk
Caa2	CCC		Extremely speculative
Caa3	CCC-		Default imminent with little prospect for recovery
Ca	CC	CC	In default
C	C	C	
/	D	D	

WOLFSTREET.com

"Junk"



## 바. 건설업 면허·허가제도

### □ 건설업 면허·허가제도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1) 관련법 : 재건축법(Reconstruction Act, 1985): 건축허가 절차

1-1) 관련 규정(2014년 9월)

- 튀르키예 건설면허는 2011년 이후,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등록 및 건설업자 고용증명서 없이는 건설을 불허하는 규정이 제정됨
- 건설업자 증명서는 개인, 현지법인, 지사, JV(합작기업), 컨소시엄 등의 회사 종류에 따라 신규 취득 또는 소유, 양도가 가능함
- 공공부문 건설 참여는 관련부서의 허가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건설, 입찰시의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 확인이 필요함



- 건설 면허 신청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조건에서 10일 이내 또는 한달 이내에 건설 면허 허가 발급 가능함
- 2015년 한-튀르키예 양국의 FTA 서비스 투자 협정 발효 시, 한국 건설기업은 튀르키예 진출 시의 각종 자격요건이나 절차 등의 규제가 튀르키예 현지 기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2) 면허

-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자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 개인, 현지법인, 지사, JV 등 회사 조건에 따라 신규 취득 및 양도 등 가능
- 공공부문 건설은 주택공공사업부(Ministry of Housing and Public Works)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 관련 기준이 매우 모호한 상태로 건설 또는 입찰 경우마다 다르므로 발주처 확인이 필요함
-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함

## 3) 허가

### □ 건설면허 허가 구비 서류(2014.9월 기준)

- 튀르키예 건설주택부 신청서(튀르키예어 작성)
- 건설업자 신분증 복사본 번역 및 공증
- 건설업자 최종 학력 증명서 번역 및 공증
- 상공회의소 등록 증명서(튀르키예어)
- 튀르키예 상공회의소 연합회(TOBB)의 상업회의소 등록증(기술자 및 설계사 해당)
- 건설업자 서약 증명서(첫 신청시 자가 직접 친필 작성)
- 사업완료 실적 증빙서류
  - \* 공공부문 사업 완료 실적 증빙서류(진출업체 준비)
    - 공사완료 증명서 원본 및 튀르키예어 번역, 공증본
    - 건설업체 평가보고서(MKR) 등기부
    - 입찰 결과 증명서 원본 및 입찰기관 확인 복사본
    - 최초 및 최종 기성금 보고서 원본 및 입찰기관 확인 복사본

- \* 하도급 건설업체(원도급 업체로부터 하청 수주시)
  - 공사완료 증명서 원본 및 튀르키예어 번역, 공증본
  - 입찰 결과증명서 원본 및 입찰 기관 확인 복사본
  - 계약업체와 하청 건설업체간 계약서(서명본) 또는 입찰기관의 허가증명서

- \* 하도급 건설업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시)
  - 공사완료 증명서 원본 및 튀르키예어 번역, 공증본
  - 입찰결과증명서 원본 및 입찰 기관 확인 복사본
  - 최초 및 최종 기성금 보고서 원본 및 입찰기관 확인 복사본

□ 건축허가(Building construction licences)

- 목 적 : 지정된 토지에 건설 작업 자체에 대한 허가로 건설 전에 취득
- 주관부처 : 해당 자치구(Municipality)
- 제출서류 : 권리증서, 설계도면, 구조설계, 전기 및 기계 설치 도면
  - 소요 기간 : 30일
  - 허가후 2년 내 공사착공, 5년 내 완공 의무

□ 준공허가(Permit to Use the construction)

- 목 적 : 건설이 완료된 건물에 대한 사용 허가로 건설 후 취득
- 주관부처 : 해당 자치구
- 절 차 : 완공상태 점검 후 발급
- 허가기준 : 건물의 안전성, 도시미관, 환경보호 등 요소 적용

4) 건축검사원(Building Inspector)

- 건축허가 신청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 전 반드시 건축 검사를 받아야 함

5) 관련 정책동향

□ 튀르키예 건설업체 등록 번호 부여

- 도입배경 : 2011년 11월 튀르키예 VAN 지진 시 무너진 건물에 대한 조사 결과 많은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이 드러남
  - 2012년부터 건설업체의 상황 및 건설 건물들 간 상관관계의 용이한 파악을 위해 건설업체 등록 번호제를 실시함

- 목 적 : 부실시공 예방 및 부실시공된 건물의 시공사 파악 소재 용이
- 주요 내용 : 500㎡이상의 건축물 시공사 확인 가능
- 시행 시기 :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제재 사항 : 건설사 등록 번호를 미신청한 건설사는 등록번호가 취소되어 건설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 외국 건설사도 해당됨

## 사. 현지법인 설립 및 지사 설치제도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1) 관련법: 외국인투자촉진법('03.6.17)

2) 주무부처

- 투자청(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urkey Investment Office)  
(한국사무소 : 02-2015-7655 ) : 국무총리실 직속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
- 튀르키예 상공회의소 연합(TOBB: The Unions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s of Turkey)

3) 특 징

- 사업 기간이 183일 이상인 사업에 대해 고정 사업장 설치 의무화
- 설립 비용 및 승인 기준, 행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며, 지방 및 담당 공무원마다 불규칙해 인간관계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 설립 및 청산 시 반드시 현지 로펌 및 회계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
-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튀르키예어 번역공증을 의무화하여 부가비용 및 시간 소요
  - 영어 공증본 미인정

4) 현지 법인 설립 절차

- 회사 정관 공증
  - 회사 정관은 튀르키예 상법(제279조)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함
  - 공증서류
    - 정관 3부(원본포함)
    - 회사명 및 대표인 서명(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해당,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상업등기소 제출
  - 공증일자 기준 15일 전에 투자지역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에 제출
  - 주로 해당지역 상공회의소가 역할 수행
  - 주요 상업회의소 명단
  - 필요서류
    - 정관 3부(공증본, 원본포함)
    - 회사명 및 대표인 서명(공증본)
    - 자본금 납입 증명서(은행 영수증)
    - 소비자보호 기금 납부 증명서(회사 자본금의 0.1%를 은행에 납부)
    - 사진 및 여권 사본(주주 전체에 해당) 등
  
- 세무서 신고
  - 법인 등록 당일 또는 전일, 해당 지역 세무서 신고 및 납세자 등록번호 부여
  - 제출서류 : 임차계약서(공증본), 서명인 명단(Circular of Signatory)
  - 소요시간 : 2~3일 소요
  
-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zete) 공지

## 5) 지사 설립 절차

- 설립절차
  - 회사등록 : 튀르키예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회사 등록 이하 절차는 법인 설립과 동일함
  
- 산업통상부 제출서류
  - 지사 설립 신청서
  - 본사의 지사 설립 결의서 공증본
  - 회사 정관 원본 공증본
  - 본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 증빙서류
  - 본사의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 대표자 서명신고서 및 여권사본 공증본
  - 튀르키예 상업등록 규정 준수 서약서

- 외국기업 지사는 튀르키예 내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익 관련 튀르키예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현지 지사(또는 한국 본사)에서 세금 납부 시 한국(또는 튀르키예)에서 이중 납세의무 없음.
  - 즉 국내 법인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선택 가능

## 6)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 튀르키예 내에서 영리활동(판매, 대금수취 등)을 행하지 않는 사무소가 필요할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간편함
- 설립절차
  - 외국인 투자국에 등록
  - 세무서 등록 : 지사 설립 후 1달 내
- 외국인 투자국 제출서류
  - 본사의 영업활동 증빙(Certificate of Activity) 원본
  - 본사의 영업활동 보고서 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튀르키예 연락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본사의 승인서
  - 연락사무소 설립을 법적으로 진행할 사람에 대한 위임장
- 최대 3년간의 영업허가(3년씩 연장 가능)

## 7) 현지 사무실 임차

- 튀르키예에서의 사무실 및 주거용 주택 임차는 부동산 중개인을 활용해야 함
  - 수수료는 1년치 월세금액의 12%가 관례임
  - 현지 일간지를 통해 부동산 임대정보를 구할 수 있지만 튀르키예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보입수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계약 시 규격화된 계약서 외에 간지를 사용하여 양측이 요구하는 특별사항을 추가 기재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임차계약에는 주요 파손에 대해서 원상회복 관계 조항이 포함됨 따라서 가구가 있는 주택의 경우 파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임차료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통상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관례이나 장기계약일 경우 연 단위로 임차료 인상률을 정하기도 함
  - 현지에서 거래 계약 시 주로 통용되는 미화나 유로화 계약의 경우 매년 인상 없이 장기계약도 가능함
- 임차료는 미화, 유로화, 리라화로 지불하며 대개 1개월, 6개월, 1년분 임차료를 선불조건으로 함

## 아. 현지 건설업 제도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 □ 도급한도 · 등급분류

- 도급한도 없음
- 정부 발주 공공사업의 경우 등급절차가 없으며, 국제입찰의 경우는 해당 실적 우선으로 선정함

### □ 입찰제도

#### 1) 현황

- 주관 부처 : 튀르키예 공공발주청(PP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
- 특 징
  - 튀르키예 정부조달법은 2002년 제정 이후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대내외 요청으로 수시로 개정되는 등 향후에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개정 내용이 국내 기업과 차별대우 철폐 및 효율성 강화 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
  - 국내 사업자 범위를 튀르키예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소유 합작법인까지 확대
  - 공개경쟁 입찰을 표방하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복잡함
  - 자국업체 우대(63항) : 조달금액 하한선(Threshold Value) 미만인 경우 자국 기업만 입찰 참여가능하나 초과인 경우 자국 입찰 참여자에 15%까지 가격 이익 부여

- \* 외국기업과 합작시 우대 혜택 없음
- \* 정부조달 입찰시 외국 제품·서비스 제공 기업보다 국산 제품·서비스 제공 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40항)할 정도로 자국산 우대 경향 높음
- 대규모 토목건설공사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조달사업으로 공개 입찰을 실시함
- 부실공사와 부정공사 방지를 위해 정부 건설 입찰시 예정가의 120% 이상이나 40% 이하의 입찰가는 참여불가함
- \* 다만, 낮은 단가의 경우 입찰서 제출이후 3일 이내에 비용절감 요인 등의 원인을 밝히면 입찰 참여 가능함
- 입찰정보 획득 : 관보(Official Gazette) 또는 현지 신문을 통해서 획득

## 2) 입찰 절차

- 입찰시 제출서류(10항)
  - 재무 증명서류
    - 은행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
    - 재무제표
    - 거래 규모(overall turnover) 증명서류
    - 기술 증명서류
    - 입찰 참여 자격증명(유관 단체 등록증)
    - 관련 경력증명 (15년간 발주공사 규모의 최소 70% 이상 시공 또는 50% 이상 감독 운영 경험)
    - 시공능력 증명
    - 조직 구성도
    - 임원 및 기술자의 교육 및 이력
    - 필요 장비 및 시설
    - 품질검사 담당 기술자 또는 기관(입찰에 직접 소속되지 않아도 명기)
    - 공사가 시방서 및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국제 품질검사 기관의 인증서

### 3) 정부 입찰관련 비용

- 입찰보증금(33항): 일반적으로 입찰가의 3% 미만임
  - 보증수단 : YTL(新 튀르키예 리라) 은행보증서, 튀르키예 재무부 발행채권 (Domestic Borrowing Bill) 등
  - 발급은행 : 튀르키예 내 외국은행, 해외 은행 및 금융기관과 복보증 (Counter-guarantee)을 체결한 튀르키예 현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 이행보증(43항) : 계약금액의 6%, 최종 수락 시 반환됨
  - 서비스의 경우, 공정별로 6%씩 공제
- 공증 수수료 : 서명 1개당 계약액의 0.09%
  - 공증내용 : 합작 참여시 JV여부 증명(계약 전 제출)
  - 공증 수수료는 YTL(新 튀르키예 리라) 11,621.1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공 조달청 수수료(수정조항 4761/32항) : 계약금액의 0.05%, 계약규모가 YTL(新 튀르키예 리라) 165,066.00 초과 시 납부
- 인지세 : 0.189~0.948%이며, YTL(新 튀르키예 리라) 800,000.00를 넘을 수 없음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인지세, 공증비용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조달 하한선(67항) : 정부조달 하한선은 매년 2월 1일 관보에 공시 (YTL 新 튀르키예 리라 1백만 미만은 제외)

### □ 보증제도

#### 1) 입찰보증(Bid Bond)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10% 수준이며 은행보증이나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입찰 보증서를 요구하나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보증은 입찰금액의 3%임

#### 2)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이행보증은 통상 계약금액의 10%가 적용되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초과할 수도 있음

#### 3) 선수금(Advance Payment)

선수금은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통상 계약금액의 10~15%를 지급하나 보증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Advance Payment Bond(지급금액의 100% 보증)를 제출해야 함



#### 4) 유보금(Retention)

유보금은 계약이행과 완공에 대한 추가 보증으로서 매 기성 지급 시 계약금액의 5% 한도 내에서 통상 5%가 적용됨

### 자. 현지 건설산업 현황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 □ 현지 건설업체

##### 1) 현지 건설업체

- 튀르키예 내 고속도로, 고속철도, 메트로 및 항만, 병원(PPP), 도시 재개발 사업 참여에 집중함
- 연도별 해외공사 수주실적은 아래와 같음

기간	프로젝트 수	규모
2022년 1월~7월	56개	총 59.4억불*
2021년	416개	총 722억불
2020년	358개	총 443억불
1972~ 2022년 7월 (누적)**	11,000개 (131개국)	총 4,596억불

\* 동 기간(2022년 1월~7월) 동안 프로젝트당 평균 계약금액은 3,800만불임

\*\* 2005년에 100억불 수주 달성, 2015년에는 285개 프로젝트, 834억불 수주 달성

- 과거 40년 동안 튀르키예 건설업체의 가장 큰 시장은 러시아였음
- 1972년 ~ 2022년 7월 사이 러시아에서 튀르키예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950억 불로, 모든 해외 프로젝트의 21%에 해당함
  - 이외 투르크메니스탄은 499억불, 이라크는 317억불, 리비아는 295억불, 카자흐스탄은 270억불, 사우디아라비아는 243억불을 수주함
- 1972년 이후 공종별 해외공사 수주실적은 주택 14%(630억 불),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등 인프라 13.3%(610억 불), 에너지 플랜트 8.5%(391억 불) 순임
- 2021년 40개의 튀르키예 건설회사들이 ENR(Engineering News Record) Top 250대 국제 건설업체에 진입함
  - 한편, 중국업체는 78개, 미국회사는 41개였음
- 2021년 ENR Top 250대 국제 건설업체 수익(총 4,204억불) 중 튀르키예 회사는 4.4%(183억 불)를 차지함

(출처: 튀르키예 무역부, hurriyet daily news, 2022.08.15.)

## 2) 2021 ENR Top 250대 국제건설업체에 진입한 40개 튀르키예 건설업체

(출처: <https://www.enr.com/toplists/2021-Top-250-International-Contractors-Preview>)

연번	업체명	본사	2021년 순위	2020년 순위
1	RENAISSANCE Construction	앙카라	28	23
2	LIMAK INSAAT SANAYI VET TICARET AS	앙카라	56	61
3	ANT YAPI INDUSTRY & TRADE INC	이스탄불	57	80
4	YAPI MERKEZI INSAAT VE SANAYI AS	이스탄불	68	78
5	ENKA INSAAT VE SANAYI AS	이스탄불	70	86
6	Tekfen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 Inc	이스탄불	80	65
7	ONUR TAAHHUT TASIMACILIK INSAAT TIC VE SANAYI AS	앙카라	92	116
8	TAV Construction	이스탄불	101	84
9	NUROL Construction and Trading Co Inc	이스탄불	102	109
10	ESTA INSAAT SANAYI LOJISTIK VE DIS TICARET AS	이스탄불	115	129
11	GULERMAK	앙카라	122	124
12	ASLAN YAPI VE TICARET AS	앙카라	125	-
13	SEMBOL ULUSL ARARASI YATIRIM TARIM PEYZAL INSAAT	이스탄불	133	-
14	KUZU GROUP	이스탄불	136	142
15	KOLIN INSAAT TURIZM SANAYI VE TICARET AS	앙카라	137	94
16	YUKSEL INSAAT CO INC	앙카라	144	118
17	ESER CONTRACTING	앙카라	145	158
18	IC ICTAS INSAAT SANAYI VE TICARET AS	이스탄불	151	157
19	CALIK ENERJİ SANAYI VE TICARET AS	이스탄불	157	171
20	ILK CONSTRUCTION	이스탄불	158	213
21	GAP INSAAT YATIRIM VE DIS TICARET AS	이스탄불	162	216
22	POLAT YOL YAPI SAN. VE TIC. AS	이스탄불	163	203
23	ALARKO CONTRACTING GROUP	이스탄불	165	189
24	DEKINSAN GRUP INSAAT AS	앙카라	168	137
25	GURBAG GROUP	앙카라	181	182
26	TEPE INSAAT SANAYI AS	앙카라	183	179
27	MAKYOL INSAAT SANAYI TURIZM VE TICARET AS	이스탄불	185	-
28	METAG GROUP	앙카라	188	180

연번	업체명	본사	2021년 순위	2020년 순위
29	USTAY YAPI TAAHHUT VE TICARET AS	이스탄불	198	-
30	YENIGUN INSAAT SANAYI VE TICARET AS	앙카라	201	197
31	SUMMA TURIZM YATIRIMCILIGI AS	앙카라	203	166
32	GAMA	앙카라	204	212
33	NATA INSAAT TURZ. TASIMACILIK TIC. VE SA. AS	앙카라	205	217
34	CENGIZ CONSTRUCTION INDUSTRY & TRADE CO INC	이스탄불	206	219
35	MBD INSAAT SANAYI VE TICARET AS	앙카라	212	-
36	FEKA INSAAT SANAYI TICKARET AS	이즈미르	215	-
37	IRIS INSAAT TURIZM SANAYI VE TICARET AS	이스탄불	222	-
38	SMK GROUP	앙카라	223	-
39	STFA CONSTRUCTION GROUP	이스탄불	238	218
40	DOGUS INSAAT VE TICARET AS	이스탄불	239	165

□ 현지 건설업 단체

1) 튀르키예 건설회사 협회(Turkish Contractors Association)

구분	내용
주소	Birlik Mahallesi, Doğukent Bulvari 447. Sokak No.4 Çankaya, 06610 Ankara, TURKEY
전화	90-312-440-81-22, 90-312-441-44-83, 90-312-438-56-08
팩스	90-312-440-02-53
메일	<a href="mailto:tmb@tmb.org.tr">tmb@tmb.org.tr</a>

2) 튀르키예 건설자재 제조업체 협회 (Association of Turkish Building Material Manufacturers)

구분	내용
주소	Cumhuriyet Caddesi No:329 Harbiye 34367 ISTANBUL
전화	(212) 219 39 39
팩스	(212) 291 07 24
메일	<a href="mailto:info@imsad.org">info@imsad.org</a>

3) 튀르키예 컨설팅 엔지니어 및 건축가 협회(Association of Turkish Consulting Engineers and Architects)

구분	내용
주소	Ahmet Rasim Sok. 35/2 ?ankaya 06550 ANKARA
전화	90-312-440-89-70
팩스	90-312-440-89-72
메일	atcea@atcea.org.tr

공사발주기관

1) 전력

연번	기관명
1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
2	Turkish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TEIAS)
3	Turkish Electricity Trading and Contracting Company(TETAS,국영송전회사)
4	Turkish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TEDAS)
5	Turkish Atonmic Energy Authority(TAEK)
6	Energy Market Regulatory Agency(EMRA)
7	Electricity Generation Co. Inc.(국영발전회사)
8	Privatization Administration

2) 수력발전

연번	기관명
1	State Hydraulic Works(수자원)

3) 지열발전에너지

연번	기관명
1	Mineral Research & Exploration Insitute(MTAE)

4) 도로

연번	기관명
1	General Directorate of State Highways

5) 철도

연번	기관명
1	튀르키예 국영철도회사(General Directorate of State Railways Administration)

6) 항만

연번	기관명
1	튀르키예 국영철도회사(Turkish State Railways)

7) 공항

연번	기관명
1	State Airports Administration

8) 통신

연번	기관명
1	State Airports Administration

9) 상하수도

연번	기관명
1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2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Development
3	Istanbul Water and Sewerage Authority(ISKI)
4	Ankara Water and Sewerage Authority(ASKI)
5	Izmir Water and Sewerage Authority(IZSU)

10) 부동산

연번	기관명
1	House Development Administration(OKI)

11) 석유/천연가스

연번	기관명
1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2	튀르키예정유사(TUPRAS)
3	Energy Market Regulatory Agency(EMRA)

## 차. 현지 투자환경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 1. 투자여건

#### 1) 투자환경 및 정책

- 주무부처 : 튀르키예 투자청(Investment Support and Promotion Agency of Turkey)
  - 역 할 : 투자 정보 제공 및 가이드(총리 직속의 독립기구)
  - 근거법 : Law No. 5523(2006.2월 제정, 7월 발족)
  - 유관기관 : 외국인투자가협회(Foreign Investors Association of Turkey, YASED)
- 관련법(외국인 투자촉진법)
  - 목적 :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및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 근거법 : Law No. 4875(2003.6.5. 법률 제정)
  - 내 용

연번	내용
1	내국/외국 기업의 동등한 대우 : 튀르키예 기업과 동등한 혜택 및 의무 부과 (부동산 취득 포함)
2	회사 설립 사전 승인제 폐지, 신고제로 전환(신고처: 재무부)
3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제도 폐지
4	회사 형태 설립 제한 폐지
5	내국인 고용 의무, 수출 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제한 없음
6	과실 송금 보장 및 자본금의 외화 구좌 납입 보장
7	비현금 자본의 가치 인정

- 2012.11월, 투자 인센티브 법 개정을 통해 4개 투자 지역별 인센티브 항목을 6개 지역으로 세분화시킴

#### ○ 특 징

- 1980년대 중반부터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 추진, 외국인 투자촉진법 대폭 개정(2003)
- EU 가입 대비, 외국인 투자우대 조치 추진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
- 분야별로는 에너지, 항만, 도로 등에 외국인 투자 장려(BOT 방식 적극 유치)

- 투자제한
  - 특정산업\* 제외하고 출자비율에 명백한 제한은 없음
  - \* 특정산업(방송업: 20%, 항공/해운/항만서비스/부가정보통신서비스: 49%)
  - 선진국 지향의 투자정책에 비해 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애로사항
  - 경제주체의 인식부족
  - 관료주의
  - 높은 전기요금
  - 중국 등 저임금 국가 대비 높은 임금

## 2) 투자우대사항

- 특 징
  - 산업별보다는 지역별에 대한 외국인 우대조치가 많은 편이며, 별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우대조치 종류
  - 일반우대조치(general incentives)
  - 우선개발지역에 대한 우대조치(priority-development regional incentives) 등
- 일반 투자 인센티브
  - 세제 특혜, 자금지원
  -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및 기계 장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 R&D, 환경보호,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연구평의회(TUBITAK)가 정한 첨단 기술투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재원을 통한 투자자금 지원이 가능함
- 지역 투자 인센티브
  - 낙후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2012년 투자 인센티브 법 개정, 투자 인센티브 지역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 구분하여 개발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 지원
  - 이스탄불을 포함한 1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축소되고 가장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됨

○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 기술, R&D 자본 및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다음 투자업종에 대해서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연번	내용
1	정유제품 생산 (최소 10억 TL 이상)
2	화학제품 생산 (최소 2억 TL 이상)
3	항구 및 항만용역 (최소 2억 TL 이상)
4	자동차 OEM (최소 2억 TL 이상)
5	자동차부품 생산 (최소 5,000만 TL 이상)
6	노면기관차와 철로, 노면전차와 철로 생산 (최소 5,000만 TL 이상 )
7	통과파이프라인 수송업 (최소 5,000만 TL 이상)
8	전자산업 (최소 5,000만 TL 이상)
9	의료, 고정밀, 광학기기 생산 (최소 5,000만 TL 이상)
10	의약품 생산 (최소 5,000만 TL 이상)
11	우주항공기 및 관련 부품 생산 (최소 5,000만 TL 이상)
12	기계류 생산 (최소 5,000만 TL 이상)
13	광산업 (최소 5,000만 TL 이상)

○ 전략적 투자 인센티브

- 투자액 5,000만 TL(리라) 이상 투자로 생산되는 품목의 튀르키예 내 생산량이 수입보다 더 적어야 함
- 투자가 최소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튀르키예 내에서 생산될 품목의 총 수입액이 전년 기준으로 최소 5,000만 달러 이상일 것
- \* 단, 정유 및 석유화학 투자에는 미적용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총 투자액 대비 최대 50%의 세금감면, 7년간의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지원, 토지지원, 이자비용 지원 등

3) 투자처 활용 가능성

- 동서양 및 유럽-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주요 국가
- 인구 8천4백만명의 내수시장
- 비교적 숙련된 노동인력
- 중동-CIS 지역의 에너지원의 대유럽 및 서구지역 연결통로
- 중동, CIS 및 유럽지역과 종교, 언어, 문화 등의 공통점 보유



## □ 투자신청 및 투자허가 절차

### 1) 투자허가 관련기관

- 외국인 투자국(General Directorate for Foreign Investment, GDFI)
  - 역할 : 재무부 산하로 외국인투자 주무기관
  - <https://www.invest.gov.tr/en/pages/home-page.aspx>
  - 튀르키예 상공회의소 연합(TOBB)
  - 튀르키예 투자청(Investment Support and Promotion Agency) :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외국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 2) 투자제도 특징

- 투자법 : 2003.6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
- 사전허가제(pre permits) 및 5만불 이상의 투자 하한선제도를 폐지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
-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
-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 21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Zone)에 입주하려면 산업부의 특별허가가 요구
-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는 특별 허가 필요
- 법령과 제도가 거의 선진국 수준이나 관료주의, 불투명하고 잦은 개정, 중앙정부와 시행부처와의 일관성이 부족한 편

### 3) 투자절차

- 절차: 회사설립 신청→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순으로 진행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록기관 : 지역 상공회의소에 있는 지역 상업등기소
- 신규 투자허가 신청시 필요서류(법인)
  - 투자의향서
  - 영업활동 증명서(튀르키예 영사관 인증)
  - 최근 연도 영업활동 보고서

- 기존 업체 인수시
  - 모회사의 전년도 영업실적
  - 투자확약서
  - 기존 튀르키예업체 제출서류
  - 최근 5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회사 정관
  - 신청일 현재 주요 부채 내역서
  - 투자 인센티브 인증서(해당업체에 한함)
  - 설비 보유현황
  - 기타 투자허가 참고자료

## □ 국제금융기관 지원현황

### 1) MDB별 지원내용

- IMF 지원 협약
  - 1999.12. 40억불 규모 대기성 차관 협약 체결
  - 2000.12. 100억불 규모 긴급 자금지원 결정
  - 2001.5. 80억불 규모 대기성 차관 승인
  - 2002.2. 160억불 신규자금 지원 승인
  
- EBRD
  - 지원 프로젝트 : 46건, 65억불 2009년부터 지원 시작
  - 주요분야 : 민영화, 전력 등 에너지, 사회 인프라시설 등

### 2) EIB(European Investment Bank) 투자현황

- EIB는 1960년 이후부터 튀르키예 발전을 위해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235억 유로 차관이 지급되었고 특히 2014년에는 20억 유로 이상의 Loan이 지급됨
- 투자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교통, 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최근에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3억불 차관이 진행되었으며 이 차관은 튀르키예의 EIB 파트너사인 T-Exim, Vakfi, Ziraat 은행을 통해 대출되고 있음

### 3)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BRD는 튀르키예에 중소기업발전 및 산업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민영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 중임
- 총 140개 사업에 49.6억 유로를 투자한 가운데 최근 투자금액(40억 유로)의 95%가 민영화 사업에 투자됨

#### □ 튀르키예 국부펀드

- 튀르키예 국부펀드(Turkiye Wealth Fund)는 법률 제6741호(튀르키예 국부펀드의 관리합작회사의 설립 및 유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8.26. 운영회사의 설립과 함께 개시됨
- 법률 제6741호에 따르면, 국부펀드 운영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천만 리라로 민영화 펀드(민영화청 소유)에 의해 출연됨
  - 동 운영회사는 모두 정부 민영화청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튀르키예 국부펀드 및 그 하부 펀드들은 튀르키예 총리실의 감독 하에 있음
- 펀드의 목적
  - 국가 경제 안정화에 기여 : 튀르키예 국가 소유 자산을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 튀르키예 미래 세대를 위한 부강한 국가 건설 : 국가 자산의 부가가치 증대 및 이윤 창출을 통해 튼튼한 국가경제 건설 및 미래의 후 세대 튀르키예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 \* 국부펀드는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 자산의 전략적 투자를 하고 동 자산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등 이익을 증대시켜 튀르키예의 장기 경제적 이익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
  - 국제 시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 국제적인 유동성 및 변동성 증가 등에 따라 튀르키예 경제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튀르키예 금융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국제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활성화 : 튀르키예 기업 및 국제투자기업/기관 간 공동투자 프로젝트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국제투자자들이 튀르키예 경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 튀르키예 국부펀드는 최근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 10억 불 규모의 공동투자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펀드 조성의 재원
  - 국가 최고민영화위원회에 의한 민영화펀드(Privatization Fund) : 각종 공기업 등 국가 보유 지분
- 펀드의 자산 규모
  - 튀르키예 국부펀드는 최초 출범당시 5천만 리라(16백만불)로 출발하였으나, 2017.6월 기준 총 자산 규모는 약 313억 리라(약 80억불) 수준으로 향후 총 2천억 리라(약 550억불)까지 확대 예정
- 펀드에 대한 평가
  -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에 자금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현재의 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저축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국부펀드가 경험한 아래 두 사항을 염려함
    - 튀르키예 국부펀드도 운영 초기에는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다가 점차 국내외 에너지, 항만, 고속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투자범위를 확대하면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 국민 경제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

## □ 외환관리

### 1) 외환관리

- 재무부 및 중앙은행에서 외환제도 담당, 중앙은행에서 환율 매일 고시
- 1999년 12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
- 튀르키예는 자유로운 외환관리제도를 운영
- 외국인 투자와 관련 자본, 수익, 배당금에 대한 자유로운 과실 송금 보장
- 수익 송금, 배당금, 판매와 청산 절차, 라이선스, 노하우, 기술 지원비, 대출 및 이자 상환 등은 제한 없이 가능
- OECD 회원국으로 외환관리 부분은 일찍부터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따름
- ※ 이체 은행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송금(수입, 수출 및 보이지 않는 무역 관련 송금 제외) 또는 미화 50,000달러에 해당하는 튀르키예 통화의 송금 후 30일 이내에 관할 정부 당국에 통보해야 함

- 무역을 통한 외화취득은 지정 수령통화(유로, 엔 등 23개 통화)로 가능
-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70%는 90일 이내)에 튀르키예 리라로 환전, 환율 취득 증명서를 받아야함

## 2) 외환규제

- 1만 유로 이상의 외화 반출시 신고 필수,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 반출시 내각 승인 필요
- 리라화 지속 폭락 상태로 정부의 외화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3) 통화스왑

- 리라화 가치하락을 막는 과정에서 많은 달러를 소진하며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진 튀르키예는 여러나라와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통화스왑 계약 체결(2021.8.12.)
  - 규모 : 2.3조원(약 175억 리라, 20억 달러)
  - 기간 : 3년,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UAE와 통화스왑 계약 체결(2022.1.19.)
  - 규모 : 640억 리라(180억 디르함)

## 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현지 기업과 동등한 권리 및 대우 보장  
광업, 에너지 산업 등의 경우 현지 기업 지분 인수 통해 진입 가능

- 외국인 투자자들은 FDI(외국인 직접투자)법의 동등한 대우 원칙에 따라 튀르키예 투자자들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 촉진법 같은 자금 지원 정책 등이 있음
- 현행 튀르키예의 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아래 네 종류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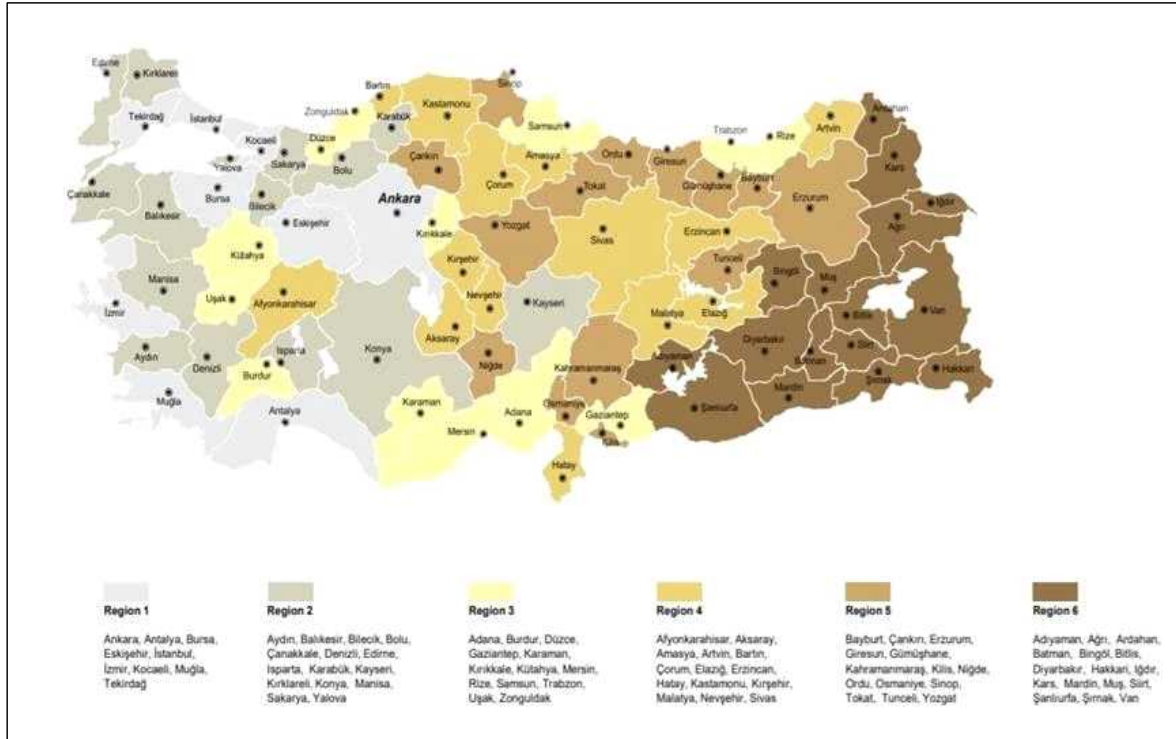
### 1) 일반 투자 인센티브(General Investment Incentives)

- 일반 투자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임
  - (관세 면제) 주된 인센티브는 자격이 부여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 (부가세 면제) 튀르키예 내에서 구매했거나, 수입한 기계나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기타) 이외에도 개발 장려 우선지역 투자,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투자 대출 지원도 운영 중임
- \* 인센티브 제도의 이행은 장소, 규모,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짐

### 2) 지역 투자 인센티브(Regional Investment Incentives)

- 2004년부터 튀르키예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분야보다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을 통해 튀르키예 전 지역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확대 구분하여 개발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 지역별 투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법인세 면제, 사회보장세(고용주 부담분) 면제, 토지 할당, 대출 금리 지원 등이 있음
  - 인센티브 지원 범위 및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름
- 이러한 지역 지정의 의도는 낙후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해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1지역(이스탄불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고 가장 낙후된 6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큼

## <튀르키예 투자지역 구분>



(자료: 튀르키예 투자청)

##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지급 세부 내역>

(단위: TL 튀르키예 리라, %)

투자 인센티브 내용		지역 구분						
		I	II	III	IV	V	VI	
최저 고정 투자 비용		300만 TL	300만 TL	150만 TL	150만 TL	150만 TL	150만 TL	
VAT면제		적용						
관세 면제		적용						
법인세 면제	면제율	50	55	60	70	80	90	
	납부하는 법인세율	11	9.9	8.8	6.6	4.4	2.2	
투자 기여율**	OIZ*밖	15	20	25	30	40	50	
	OIZ안	20	25	30	40	50	55	
사 회 보 장 세 지 원	지 원 기 간	OIZ밖	2년	3년	5년	6년	7년	10년
		OIZ안	3년	5년	6년	7년	10년	12년
	최 대 지 원 율	OIZ 밖	10	15	20	25	35	제한없음
		OIZ 안	12	20	25	35	제한없음	
토지 할당		적용						

투자 인센티브 내용		지역 구분					
		I	II	III	IV	V	VI
금리 지원	TL기준 대출	해당 사항 없음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7포인트
	외화기준 대출			1포인트		2포인트	
사회보장세 근로자 지분 지원 소득세 원천징수율 할인		해당 사항 없음					10년

주1: (OIZ)산업특구

주2: (투자기여율)최저 고정 투자 비용×지역별 투자기여율=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 해당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법인세가 감면되며, 상한액에 도달하면 일반 법인세 납부(2022년 기준 23%)

(자료: 튀르키예 투자청)

### 3) 전략투자 인센티브(Strategic Investment Incentives)

- 튀르키예가 주로 수입하거나, 정부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 일반적으로 전략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품목의 튀르키예 내 생산량이 수입량보다 적어야 하며 해당 생산 품목의 부가가치 중 40%가 튀르키예 내에서 생산되어야 함
- 그러나, 지난 해 튀르키예는 관보 발표를 통해 두 사항을 개정함
  -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 부가가치 40% 이상 창출 조건을 폐지해, 40% 미만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전략투자 품목으로 분류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
  -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튀르키예 내 생산량이 수입량보다 많아도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정

※ 전략 투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투자 금액의 50%까지 법인세 면제, 사회 보장세(고용주 부담분) 7년간 면제, 토지 할당, 5천만 TL(튀르키예 리라) 혹은 투자금액 5% 상한 대출금리 지원이 투자 인센티브로 제공됨

### 4)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Project Based Investment Incentives)

- 고정 투자 금액이 최소 10억 리라이면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입 대체, 튀르키예 내 미생산 품목에 대한 투자의 경우만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이 됨



-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는 해당 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 세부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지원</li> <li>-부가가치세 면제</li> <li>-관세 면제</li> <li>-전체 투자 비용의 200%까지 법인세 면제</li> <li>-사회보장세(고용주 부담분) 10년간 면제</li> <li>-소득세 원천징수분 10년간 면제</li> <li>-인력 5년간 지원</li> <li>-에너지 사용 비용 50%까지 10년간 지원</li> <li>-대출 금리 지원</li> <li>-전체 투자 금액의 49% 상한 자본 지원</li> <li>-49년간 투자용 토지 할당</li> <li>-인프라 지원</li> <li>-구매 보장</li> <li>-건설 허가, 라이선스 과정 단순화</li> <li>-건설 비용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li> </ul>
--

(자료: 튀르키예 투자청)

□ 시사점

- 튀르키예 정부는 위에 언급된 4 종류의 투자 인센티브 혜택 외에도 고용 인센티브, R&D 및 디자인 인센티브, 지역 본부 인센티브, 투자 협정에 따른 대출 지원, 수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
- 튀르키예의 투자 인센티브는 튀르키예 투자청에서 내리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튀르키예 투자청에 문의해 정확한 가이드 라인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함
- 광업, 석유, 전력, 천연가스의 경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튀르키예 투자청에 문의하여 투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광업의 경우 튀르키예 기업과 외국계 기업 관계없이 라이선스 발급이 무척 까다롭고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다수의 외국 기업들은 기존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함
- 정부조달 관련 입찰의 경우, 외국기업도 참여가능한 입찰이 있지만, 간혹 튀르키예에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따라서, 외국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튀르키예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더욱 다양한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많음

(자료: 튀르키예 투자청, KPMG, 튀르키예 국세청, 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계획, 제11차 경제 개발 계획,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5.31.)

## 타.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

튀르키예의 외국인 직접투자법은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다만, 아래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여러 요건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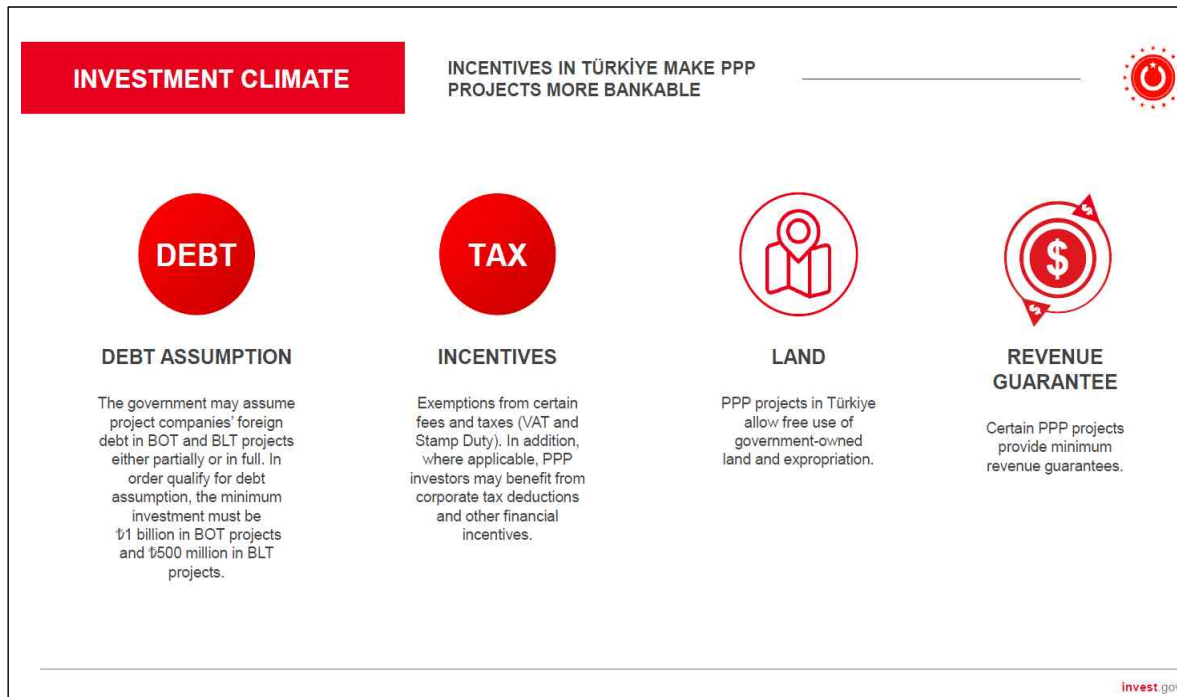
연번	분야	근거법	내용
1	라디오 TV 방송	방송법 Law No. 3984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
2	국내 민간항공	항공법 Law No. 2920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의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3	국내 해운	해운법 Law No. 815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키예 국민만 수행이 가능 *예외적으로 튀르키예 국적 선박에 없는 특수 목적 선박의 경우 외국 선사들이 최소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허가 취득 가능
4	선박 소유	무역법 Law No. 6732	튀르키예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 의 과반수가 튀르키예 국민이어야 가능
5	전화 및 정보 서비스	통신법 Law No. 406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 포함 필요(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6	수산업	수산물법 Law No. 1380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튀르키예 국민에게만 부여, 양식업의 경우 2003년부터 외국인 투자 허용
7	요트 선착장	관광 촉진법 Law No. 2634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튀르키예 국민 또는 튀르키예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운영 가능
8	인력 알선회사	고용법 Law No. 4904	인력 알선회사는 튀르키예 국민만 설립가능
9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	사설 경호 서비스법 Law No. 5188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 역시 튀르키예 국민만 설립 가능

(자료: 튀르키예 투자청, KPMG, 튀르키예 국세청, 튀르키예 대통령실 연간 계획, 제11차 경제 개발 계획,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5.31.)

## 파. 튀르키예 PPP 투자환경

### □ PPP 투자환경



(출처: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실 투자청)

#### 1) 채무인수약정

- 정부는 BOT 및 BTL 프로젝트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프로젝트회사의 외채를 인수할 수도 있음
- 채무인수약정을 위한 적격 요건은 최소 투자액이 BOT 모델은 십억 리라, BTL모델은 5억 리라 이상이어야 함

#### 2) 특정 수수료(Fees) 및 세금(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 추가로 PPP 투자자는 법인세 감면 및 다른 재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3) 정부토지 무료 사용 및 토지 수용 허용

- PPP 프로젝트는 정부가 소유한 토지의 무료 사용과 수용을 허가함

#### 4) 수익 보증

- 특정 PPP 프로젝트는 최소수익보증(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제공함

□ 투자 금융기관 활용

- PPP 프로젝트의 금융지원가능성(금융적격성,Bankability)은 국내, 국제 금융 기관들\* 및 투자자들 모두를 통해서 금융 접근을 가능하게 함

\* 활용 가능 국제금융기관

연번	기관	연번	기관
1	European Bank	8	USIDFC(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
2	IFC(국제금융공사)	9	EDC(캐나다수출개발공사)
3	European Investment Bank	10	Meridam (파리 글로벌 투자자 및 자산관리자)
4	ICIEC (투자보험 및 수출신용 이슬람 공사)	11	CEB(유럽평의회개발은행)
5	MIGA(다자투자보증기구),	12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6	IsDB(이슬람개발은행)	13	KFW-IPEX DEG(독일 수출입은행)
7	JBIC(일본국제협력은행)		

INVESTMENT CLIMATE

**BANKABILITY OF THE PPP PROJECTS ENABLES INVESTORS TO ACCESS FINANCE THROUGH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AND INVESTORS**

[invest.gov.tr](http://invest.gov.tr)

주: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 민간 투자 공사, 대출, 보증, 보험, 간접출자 등 지원)를 2019년 12월 20일 폐지하고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의 일부 기능(보증)을 통합하여 USIDFC(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2019.12.20. 공식 출범함

### 3 조세제도

#### 가. 조세체계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PwC, 2022.02.21.)

##### 1) 특징

- 소득세(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 재산세(상속증여세, 토지세, 자동차세 등)로 구성
- 개인소득세 : 사업이윤, 농업이윤, 임금, 개인사업, 부동산임대, 자산투자 및 기타 수익 등
- 투자자에게 각종 인센티브, 특별지구 및 지방정부 자체 규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음
- 자유지대(Free Zone) : 이곳에서 자유 유통되는 물품은 자유지대로부터 튀르키예나 EU 국가들로 관세 없이 반출 가능,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자유지대 반입시, 자유지대에서 제3국으로 관세 없이 반출 가능
  - 튀르키예에서 자유지대로 판매되는 물품은 수출 규정을 따르며, 자유지대 사용자들이 튀르키예의 자유지대 외 일반지역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하는 경우 VAT 면제
- 1949년 제정된 기존 법인세법(제5520호)을 2006년에 신규 제정하며 외국 투자자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함
  - 법인세율 인하, 과소자본세제 도입
  -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완화
  - 청산, 주식교환, 분사, 세금면제 도입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크레딧 인정
  - 외국에 모기업을 둔 튀르키예 내 상업주체에 대한 경비할당 인정

2) 회계연도: 과세기간은 역년(calendar year)이나, 회계연도(fiscal year)도 허용

##### 3) 회계증빙 보관 의무

기업은 5년간 세무자료 보관의 의무(탈세업체는 세액의 3배 납부)

#### 4) 신고납부기한

세금명	신고 마감	납부 마감
법인세	회계연도 마감 후 4번째 달의 30일	회계연도 마감 후 4번째 달 30일까지 일괄 납부
개인소득세	회계연도 마감 후 3월 31일	3월에 확정된 금액을 3월말과 7월말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분할납부
인지세	익월 20일까지	익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익월 20일까지	익월 26일까지
원천과세	익월 20일까지	익월 26일까지
특별소비세	품목별로 다름	-

5) 담당기관 : 튀르키예 재무부 (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 of Turkey) 산하기관인  
튀르키예 조세국(Turkish Revenue Administration)

○ 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 of Turkey: <https://en.hmb.gov.tr/>

○ Turkish Revenue Administration: <https://www.gib.gov.tr/en>

## 나. 법인세

(출처: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2.02.21.현재)

### 1) 법인세 일반사항

- 표준 법인세율은 20% : 2021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법인세율 25%, 2022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3%, 입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2023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임
- 법인세 과세소득 : 이전 년도의 이월결손금을 포함하여 면제 및 공제를 위한 조정후 순회계이익에 근거하여 계산됨
- 튀르키예 조세입법에 따르면, 소득과세는 납세자의 거주장소에 근거함  
- 거주 법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 법인은 튀르키예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유래한 소득만 과세됨

## 2) 법인세 주요 발전사항

- notional interest(개념적 이자) 공제 규칙에 대한 제한
  - 과거 무한기간 동안 가용했던 개념이자 공제 청구 권한은 자본증가가 등록된 회계연도와 다음 4개 회계연도로 제한됨
  - 신설 법인과 2022년 7월 5일 법 개정 전 자본금을 증가했던 법인의 경우 5년 제한은 2022년부터 시작함
  
- wealth amnesty(부의 사면)
  - 2022년 7월 5일 관보에 공표된 법 7417호는 2023년 3월말까지 운영되는 새로운 부의 사면 프로그램을 발효함
  - 부의 사면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가용하며 개인과 법인이 튀르키예 내외에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조직화하도록 허용함
  - 세무당국은 사전 불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과거 세금 또는 벌금을 요구하지 않음
  - 사면 혜택을 위한 주요 조건들은 아래와 같음
    - 1) 해외에 있는 자산은 물리적으로 튀르키예로 송환되거나,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튀르키예 은행 또는 중개기관 계좌에 이전되어야 함
    - 2) 사면에 따라 신고된 자산에 적용된 세금은 세율이 1%에서 3%로 유동적인데 정시에 납부되어야 함
  
- 법인소득세율의 변화
  - 표준 법인세율은 20%
  - 2021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법인세율 25%
  - 2022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3%
  - 입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2023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임
  
- 인플레이션 회계는 2023년으로 연기됨.
  - 2022년 1월 29일 관보에 공표된 법 7352호는 2023년말까지 인플레이션 회계에 대한 이행을 연기함
  - 2023년 인플레이션 회계로 발생하는 이득 또는 손실은 과세되지 않거나 세금공제가 될 것으로, 세금 산정에 영향이 없을 것



- 튀르키예 리라로 외국 통화를 바꾸는 회사들에게 세금 인센티브 연장
  - 튀르키예 리라로 외국 통화를 바꾸는 회사들에 세금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법 7407호가 2022년 5월 28일 관보에 공포됨
  - 2022년 3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에 가용한 외화를 당년도 말까지 튀르키예 리라로 바꾸고 최소 3개월 동안 은행에 해당 리라를 예치한다면 세금 인센티브가 적용됨
- \* 당초 세금 면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가용한 외화에만 적용되었음

- 이익 배분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10%로 인하
  - 2021년 12월 22일 관보에 공포된 대통령 결정 4936호에 의거,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이전 세율 15%에서 10%로 인하됨
  - 따라서, 튀르키예 거주 법인이 거주자 개인, 비거주자 개인 또는 비거주 법인에 지급한 배당세율은 해당일부터 10%가 유효함
  - 튀르키예에서 지사가 본사로 세후이익을 송환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에 의한 이익 배분과 같아, 원천징수세율 인하(→10%) 결정은 마찬가지로 지사 이익의 송환에도 적용됨
  - 튀르키예 거주 법인이 다른 거주 법인에 지급한 배당에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하 결정은 튀르키예 거주 법인이 다른 튀르키예 거주 법인에 지급한 이익 배당에는 영향이 없음

- 최종 수익 소유권 선언이 튀르키예에서 요구됨
  - 세무서에 연간 최종 수익 소유권 선언을 요구하는 새로운 이행 요구조건이 튀르키예 내 사업 수행 회사들에게 부과됨

### 3) 법인의 거주자 자격

- 회사의 법적 및 사업 본사가 튀르키예 밖에 위치 시, 그 회사는 튀르키예 세무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됨
- 만약 본사들 중 하나가 튀르키예 내에 위치 시, 그 회사는 튀르키예 세무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됨

- 튀르키예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록 간에 구별이 없으므로 법인 또는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일단 세무 목적상 등록 시 모든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인지세 등)에 책임이 있음

#### 4) 고정사업장

- 소득 및 자본에 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 조세협정을 위한 규정들과 달리, 튀르키예 조세법에는 주재(체류)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기 위한 튀르키예 최소 주재(체류)기간은 없음
- 이러한 이유로 고정사업장 평가는 현지 입법 관점과 (해당된다면) 조세협약 관점 모두에서 해당 경우의 시비에 따라 각 경우를 위해 평가되어야 함

#### 5) 법인의 지점 소득(2022.02.21. 최종 검토 결과)

- 지점은 튀르키예 세무 목적상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만 과세됨
  - 지점 이익은 자회사들과 같이 2022년에 23%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3년 지점소득 법인세율은 20%로 돌아감
- 본사로 이전된 지점소득은 해당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됨
- 만약, 소득세 목적상 본인이 거주자인 국가와 튀르키예 사이에 쌍무 조세협약이 있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율은 감소될 수 있음

#### 6) 법인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4번째 달 30일까지
- 납부기한 :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일반적으로 4월30일), 즉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음
- 예정신고납부 : 선납 분기별 세금은 각 분기 후 두 번째 달 17일까지

## 다. 개인소득세

(출처: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2.02.21.현재)

### 1) 개인 소득세 중요한 발전(2022.02.21.현재)

- 2020.11.27.자 관보에 발표된 새 법률 제7256호는 2021.12.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부의 자진신고기간 사면체제(wealth amnesty regime)를 포함함
- 이후 2021.12.31에 관보에 발표된 대통령령 제5058호는 이 기한을 2022.6.30.까지로 연장함
- 이 Amnesty(자진신고기간 사면)의 목표는 튀르키예로 국가 밖에 있는 현금(외화 포함), 금, 증권 및 기타 자본시장 상품들, 동산 및 부동산을 끌어들이기 위함임
- 이 입법은 2022.6.30.까지 튀르키예에 있는 금융기관에 신고된다면 언급된 자산들에 대해 조사, 문의 및 평가로부터 면제를 제공함
- 자산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튀르키예에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물리적으로 가져오거나 이전되어야 함
  - 이전 Amnesty체제와 달리 외국 및 국내 둘 다의 자산에 대해 이전된 자산금액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음
- 위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금 자진신고기간 사면법(Tax amnesty law) 제7326호가 2021.6.9.에 발표됨
  - 이는 납세자에게 미지급 세금 및 사회보장채무 재구조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자와 패널티 납부를 회피할 자진신고기간 사면체제 하에 모든 과거년도의 세금신고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함

## 2) 세무상 거주자(2022년 2월 21일 현재)

- 거주자는 튀르키예에 법적 거주를 가진 자 또는 튀르키예 국가 안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임
  - 불특정 거주 상태를 가진 자들은 그들이 1역년에 6개월 이상 중단없이 튀르키예에 생활하고 있다면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됨
- 거주자는 완전한 납세자로 취급됨
  - 법적 거주가 튀르키예에 없는 개인 또는 1역년에 6개월 미만으로 튀르키예에 거주한 개인들은 제한된 납세자로 취급됨
- 불가항력(질병, 체포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튀르키예에 남아있어야 하는 외국인 개인은 튀르키예에서 비거주자로 간주됨

## 3) 과세대상소득

- 거주자는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튀르키예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 근로소득
  - (과세소득) 사업의 특정 장소와 관련해 고용주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현금 및 비현금보상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혜택을 포함함
  - 급여, 모든 상여금(보너스) 및 수수료, 해외 조정수당, 생활비용 수당, 주택수당, 교육비 지급, 자택 휴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됨
  - 거주자 개인은 지급장소 또는 송금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수행된 작업에 의해 벌어들인 급여에 대해서 과세됨
  - 비거주자 개인은 튀르키예 서비스와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튀르키예로부터 지급된 모든 보수 또는 튀르키예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보수에 대해 과세됨
- \* 하지만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음

○ 지분 보상

- 튀르키예의 세법은 튀르키예에서 근로자 지분 인센티브 계획에 관하여 특수 규정들을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해 허가된 모든 혜택은 현지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함

4) 소득세율

- 특정 공제후 과세소득에 누진세율로 소득세가 징수됨
- 외국 국적자에 대한 특수 세금체제는 없음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 근로소득세율 >

과세소득(TRY)		구간1 세금(TRY)	초과 세율(%)
(구간1) 이상	미만		
0	32,000	0	15%
32,000	70,000	4,800	20%
70,000	250,000	12,400	27%
250,000	880,000	61,000	35%
880,000		281,500	40%

(출처: 튀르키예 국세청,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2.02.21.)

주) TRY : 튀르키예 리라(Lira)

- 2022년 1월 1일부터 비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 비근로소득세율 >

과세소득(TRY)		구간1 세금(TRY)	초과 세율(%)
(구간1) 이상	미만		
0	32,000	0	15%
32,000	70,000	4,800	20%
70,000	170,000	12,400	27%
170,000	880,000	39,400	35%
880,000		287,900	40%

(출처: 튀르키예 국세청, PwC Worldwide Tax Summaries)

주) TRY : 튀르키예 리라(Lira)

- 특정 금융상품으로부터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상품의 유형에 따라 0%, 10%, 15% 또는 18%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세가 적용됨
- 튀르키예에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세는 없음

#### 5) 외국세금 감면

- 거주자의 외국 소득에 대해 평가된 외국 세금은 자신들의 소득세 채무에서 공제됨
- 공제의 한도는 튀르키예에서 그러한 소득에 대해 평가된 세금의 금액

#### 6) 조세 조약

- 한국은 튀르키예와 이중과세방지협정(DTTs, Double Tax Treaties)을 체결함
- 한국은 튀르키예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s)을 체결함
- 튀르키예에는 개인들에 대한 기타의 중요한 세금공제 또는 인센티브는 없음

#### 7) 세무행정

- 과세기간 : 역년(calendar year)
- 세무신고 : 간편 과세방법에 따라 소득이 오로지 거래활동으로부터 발생된다면 당해 년도 연간 세무신고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모든 기타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제출함
- 세무신고 제출 연장은 불가함
- 세금납부 : 소득세는 소득자가 번 만큼 납부한다는 (PAYE, pay-as-you-earn) 체계에 따라 튀르키예의 급여 지급총액을 통해서 지급된 급여로부터 매월 원천징수됨
- 위에서 언급된 원칙에 따라 어떤 미지급된 채무에 대해 소득세 신고가 제출될 때 세금은 신고서 제출시(3월 31일)와 이후 4번째 달(7월 31일)에 나누어 2회 균등 분할 납부됨
- 튀르키예를 떠나는 비거주자는 출국 15일 전에 모든 세금채무를 완납해야 함

- 자신의 상업적·전문적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역년 중 각 분기말에 누적 소득에 대해 15%로 계산하는 임시세(temporary tax) 명목으로 선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관련 분기말 후 두 번째 달의 17일까지 이 세금은 보고되어야 하고 신고하는 달의 17일까지 납부해야 함
  - 미리 납부한 세금(선납소득세)은 같은 해 동안 연간 세금 신고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에 대해 공제됨

## 8) 사회보장 분담금

- 사회보장 보험료는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일당 최소 TRY166.80, 최대 TRY1,251의 급여 한도에 대해 계산됨
- 노동 구분에 따라 정해진 율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튀르키예 국민의 경우 일반적인 율율은 20.5%
  - 만약 특정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고용주는 5%에서 15.5%까지, 근로자는 14%로 감소됨
- 외국인의 경우 모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보장을 받는다면, 튀르키예 사회보장사무소에 외국의 사회보장 가입증명을 제출 시 최대 3개월까지 튀르키예의 사회보장보험료 납부가 면제됨
  - 외국인의 모국과 튀르키예 사이에 사회보장 조약이 있다면 그 조약에 따라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면제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음
  - 만약 근로자가 외국의 사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의 완전한 납부는 튀르키예에서 부과됨
  - 사회보장분담금의 근로자 부담분은 과세소득 결정 시 공제가능

## 9) 실업보험

- 실업보험 보험료는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일당 최대 TRY1,251의 한도로 산정됨
  - 보험료는 근로자가 1%, 고용주가 2%, 국가가 1%를 부담함
  - 외국 국적자들은 튀르키예와 외국인의 모국들 사이에 상호 호혜 조건부로 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음

## 10) 개인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기한 : 매년 3월 31일
- 납부기한 : 신고기한(3월31일) 및 그 이후 4번째 달(7월 31일)에 2회 균등 분할 납부
- 예정신고납부: 매월 신고납부, 선납소득세는 해당 분기말 이후 두 번째 달 17일까지 보고 및 신고한 달의 17일까지 납부

## 라. 부가가치세

(출처: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2.02.21.현재)

### (1)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

- 상품 및 서비스별로 1%에서 18%까지 다양한 세율로 VAT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8%임
- 현지 구매 및 수입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VAT는 ‘매입(input) VAT’ 로, 판매 시 계산되고 징수되는 VAT는 ‘매출(output) VAT’ 로 간주됨
  - input VAT는 세무서에 제출된 VAT 신고서의 output VAT에 대해 상쇄됨
  - output VAT가 input VAT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
  - input VAT가 output VAT를 초과하는 경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향후 output VAT에 상쇄됨
- 투자 인센티브 보유자에 대한 수출 및 판매와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초과 input VAT를 회수하기 위한 현금 환불은 없음
- 부가가치세 역청구 메커니즘(reverse-charge VAT mechanism)
  - 거주 법인이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며 이 메커니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거주자가 계산해 세무서에 납부함
  - 거주 법인은 이 VAT를 매입 VAT로 취급하고 같은 달에 상계함
  - 이 VAT는 매입 VAT를 상쇄하기에 산출 VAT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자에 대한 현금 흐름 효과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음



- VAT는 수입 시점에도 징수되며 VAT 세율은 원산지 국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함

\* VAT의 기준은 세관 세금 목적을 위한 물품의 가치와 수입 시점에서 지불할 모든 종류의 세금 및 단일 행정 문서가 등록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 세율 감면(Reduced rates)

- 세율 감면 목록 번호 I(List No. I) 에 언급된 항목(예 : 원면, 말린 헤이즐넛과 같은 농산물, 금융 임대법의 범위 내에서 물품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1% 감면

- 세율 감면 목록 번호 II(List No. II) 에 언급된 항목(예 : 기본 식품, 섬유, 서적 및 이와 유사한 간행물)의 경우 8% 감면

○ 대외 무역 : 수입 및 수출

- 재화와 용역의 수입은 수입이 사업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거래임

- 수출 거래에는 VAT가 면제되며 수출 상품에 대한 매입 VAT에 대해 공제 및 환불이 가능함

○ 재화와 용역의 수입

- VAT 목적을 위해 튀르키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은 수입업자의 지위 또는 거래의 성격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거래임

- 상품 · 서비스의 수입 및 국내 공급에 대한 세금 부담 균등 분배를 위해 VAT는 튀르키예 내에서 과세할 책임이 있는 상품 · 서비스 수입에만 부과됨

- 따라서 튀르키예에서 면제되는 모든 거래는 수입이 면제될 수 있음

- 수입의 경우, 과세 대상 사건은 실제 수입 시점에 발생하며, 수입에 대한 VAT는 상품 ·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율로 부과됨

- 투자 인센티브 인증서(IIC, Investment Incentive Certificate)에 따른 기계 및 장비 수입은 VAT가 면제됨

## 마. 원천징수세

(출처: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2.02.21.현재)

### □ 한-튀르키예 조세조약

-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서명되고 1984년 6월 3일 발효, 1986년 3월 27일 개정됨
- 고정사업장 :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경영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포함
  - 건축장소, 건설, 조립이나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동 건축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됨
- 거주자 :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등록된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person)
  - 튀르키예의 세무상 거주자는 1역년 중 6개월 이상을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함

1) 배당소득 원천세율 : 아래에 기술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 법인으로부터 획득한 배당총액의 절반은 소득세가 면제됨

- 만약 다른 소득(예를 들면, 원천징수세 대상인 급여, 동산 소득 및 부동산 소득)과 함께 잔여 배당금액이 TRY70,000의 한도를 초과 시, 이 금액은 연간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배당총액에 대하여 과세된 원천징수세는 계산된 소득세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함
  - 개인(거주자/ 비거주자) 및 비거주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세율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현재 원천징수세율은 10%임
- 거주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배당소득 원천세 제한세율은 아래와 같음
  -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튀르키예 법인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배당총액의 15%
  - 기타의 경우 : 배당총액의 20%
  
- 2) 이자소득 원천세율 : 10%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세 제한세율은 아래와 같음
    -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대부금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 이자총액의 10%
    - 기타의 경우 : 이자총액의 15%
  
- 3) 사용료(로열티) 원천세율 : 20%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로열티)에 대하여 사용료(로열티) 원천세 제한세율: 10%
  - 사용료 : 아래의 성격을 띠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총칭함
    - 영화필름과 라디오, 텔레비전용 녹음물을 포함한 문화상, 예술상, 학술상 저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과 사용권에 대한 대가

## 바. 기타 세금

### (1) 재산세

- 튀르키예에서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다른 비율로 연간 부동산 세금이 부과됨

### (2) 인지세(Stamp duty)

- 인지세는 계약서, 재무 제표 및 급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문서에 적용됨
  - 0.189% ~ 0.948% 사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가치의 비율로 부과됨
- 인지세는 현지 종업원의 급료 지급 총액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는 개인들의 경우 총급여에 대해 0.759% 세율이 현재 적용됨
-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경우, 인지세는 TRY132.20의 고정신고 수수료로 대체됨

### (3) 급여세(급여 원천징수세)

- 튀르키예 세금 규정에 따라 거주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현지 급여에 포함됨
- 고용주는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기타 공제를 원천 징수하고 직원은 공제 후 순 금액을 수령함
  - 소득세와 인지세는 원천징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고용주가 신고해야 함
  - 사회 보장 보험료와 실업 보험료는 매월 사회 보장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는 고용주가 신고해야 함
- 소득세, 인지세, 사회 보장 보험료 및 실업 보험료는 급여에서 법적 공제됨

### (4) 사회 보장 보험료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소 TRY 166.80의 급여 한도와 하루 최대 TRY 1,251 한도로 계산되는 사회 보장 보험료는 근로 종류에 따라 정의된 비율로 고용주와 직원이 지불해야 함
- 튀르키예 국민의 경우 일반 비율은 고용주의 경우 20.5%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5%에서 15.5%로 감소)이고 직원의 경우 14%임
-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는 직원 급여의 34.5%를 합산함
  - 직원의 경우 14%, 고용주의 경우 20.5%

- 사회 보장 보험 기여 외에도 실업보험 기여도는 급여의 3%, 직원의 경우 1%, 고용주의 경우 2%임
- 튀르키예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법(5510호)의 보장을 받음
  -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일괄납부 후 근로자 급여에서 지급분을 차감하는 형태
  - 2011년 5월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따라 외국인이 튀르키예 내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시, 3개월 이후 시점부터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함
- 본국의 사회 보장 제도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은 외국 보험 증빙 서류가 현지 사회 보장 사무소에 제출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튀르키예 사회 보장 보험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음
  - 본국과 튀르키예 사이에 사회 보장 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에 따라 면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직원이 외국 사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튀르키예에서 전액 기여금이 부과됨
- 우리나라와 튀르키예간 사회보장관련 협정은 2014년 10월 튀르키예 의회에서 비준심의회가 완료되었고, 동 협정은 2015년 6월1일 발효되어 튀르키예에 파견된 한국직원들의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는 소멸되었음
- 한국-튀르키예 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2015.6.1) 및 시행된 지 5년이 지남
  - 이에 한국과 튀르키예는 기관회담(2021.9.15.)을 통해 면제 기간 5년을 초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양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 2년간 추가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
-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의 근로자가 튀르키예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면제 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 튀르키예 사회보험료 면제를 2년 추가 연장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제출해야 함

연번	제출서류
1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
2	파견(인사)명령서
3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류, 해외 의료비 보장보험 서류(질병, 상해 여행자보험 등), 해외산재가입확인서류(해외파견 산재 또는 해외근재서류)
4	연장 사유 영문 증빙서류(또는 영문 공문)

※ 파견기간 5년 초과 추가 2년 연장 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되고 연장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출처 : 한국-튀르키예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5년 초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터키 사회보험료 2년 추가 면제 안내,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2021.11.04.)

- 한-튀르키예 사회보장협정
  - 2018.06.24. 한-튀르키예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사회보험제도의 외국인/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
  - 가입기간 합산, 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등 효과
  - 한국의 국민연금(10년 이상)나 튀르키예의 공적연금(20년 이상)을 납부한 경우 양쪽 모두 인정 가능

※ 사회보장협정국 : 자국의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 대상에 속하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가 튀르키예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라면 튀르키예에 사회보장료를 내지 않아도 됨

- 사회보장료 미납부 대상자 증명 서류는 해당 지역 사회보장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 사회보장 비협정국 : 근로자가 해외 사회보장제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납부의 의무가 부여되며, 실업보험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 분담금을 사회보장분담금과 함께 사회보장기구에 납부해야 함

- 사회 보장 기여금의 직원 부담 부분은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될 수 있음
- 사회 보장 한도는 2022. 1. 1 ~ 2022. 7. 31.의 기간 동안 TRY 48,532.50으로 결정됨 (출처 : Turkey - Corporate - Other taxes (pwc.com), 2022.2.)

(5) 실업 보험

- 실업보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하루 최대 TRY 1,251의 한도로 계산됨
- 보험료는 직원, 고용주 및 주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불함 (실업보험법 4477호)

<실업보험료>

납부자	비율 (%)
종업원	1
고용주	2
국 가	1

- 직원과 고용주 및 국가는 각각 직원의 급여 총액의 1%, 2% 및 1%를 실업보험기금에 대한 강제분담금으로 납부함
  - 사회보장분담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실업보험료도 매월 납입해야 하고, 고용주들도 과세소득에서 이러한 분담금을 공제 가능
  - \* 단, 직원의 분담금은 직원의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 외국인은 튀르키예와 본국 간의 호혜성을 조건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음

(6) 의료보장제도

-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장만 부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국민연금, 산업재해, 퇴직급여제도로 통합운영함
  -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보험제도가 일반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으로 구분된 지역별 통합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통계상 전체인구의 87%)

(7) 고용주 책임보험 요약

- 고용주 및 고용인은 반드시 사회보장제(SSK: Social Security Schemes)를 사회보험국(Social Insurance Institution)에 납부해야 함

<사회보장제 구성 비율>

보험 종류	부담분		계
	고용주	고용인	
연금	11%	9%	20%
의료보험	6%	5%	11%
실업보험	2%	1%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1.5~7%	-	1.5~7%
출산	1%	-	1%
계(%)	21.5~27%	15%	36.5~42%

(자료원: 외국인투자국(GDFI, 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

## 4 노동 관련법

### 가. 노동 관련법

#### 1. 노동 관련 법규

- 노동법(법률 제4857호)
  - 고용계약체결, 임금지급, 휴가 기준에서 퇴직까지 제반사항 규정함
  - 노동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서에 의함
  - 새로운 노동법 제4857호가 발효된 이후, 기존의 제1475호 조항은 소멸되었으나 그중 14호(퇴직수당, severance pay)는 유효함
- 노동조합법(법률 제2821호) : 노동조합활동 제반사항 규정함
- 노동쟁의조정법(법률 제2822호) : 단체협상, 파업, 직장 폐쇄 등을 다룸
- 사회보장법(법률 제506호)
- 외국인 근로허가법(법률 제4817호) : 튀르키예 내 외국인 근로허가 관련 제반사항 규정함
- 기타 법률 : 주중 휴일법(법률 제394호), 국경일 및 공휴일법(법률 제2429호), 일반건강보호법(법률 제1593호)

#### 2. 정책 특징

- 고용목적에 따른 근로자들의 다양한 근로계약 형태가 제시됨
  - 정규직, 임시직(30일 이내), 유기(definite term) 근로계약, 무기(infinite term) 근로계약, 전일제 및 단시간, 집단 근로계약 등
- 탄력 근로시간제를 도입
- 종전 노동법과 비교 시 신규 개정 노동법(2003년)은 노동고용 보호강화
- 해고사유의 명문화, 고용 종료시 고용인의 증명책임, 고용계약 해지에 앞서 지정된 통지기간(2주~8주) 준수 필요
- 근무 종류별(무기/유기, 단시간/장시간 등) 임금 등의 조건에 차별 대우 금지
- 튀르키예 노동사회보장부는 2016.5.26부터 건설 전문직에 속하는 40개 업종에 대한 전문자격증이 없는 고용인들의 건설작업을 금지함



- 건물 페인트공, 석공, 콘크리트공, 철근공 등의 전문 자격증 없는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는 1인당 500리라의 벌금 부과

### 3. 노동조합

-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자유이나 사무직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음
- 산업별 단위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함(법률 제2821호)
- 최대 노동조합 : TURK-IS (튀르키예 노동조합연맹), 회원수 175만명이나 강경하지 않은 편임

### 4. 사회보장제도

- 튀르키예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법(No. 5510)의 보장을 받음
- 관련법 : 실업보험법 No. 4477
- 고용주 및 고용인은 반드시 사회보장제(SSK: Social Security Schemes)를 사회보험국(Social Insurance Institution)에 납부해야 함
- 특징
  - 고용주가 기준급여의 21.5%~27%, 근로자가 15% 수준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함
  -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일괄 납부 후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급분을 차감하는 형태임
  - 외국인이 튀르키예 내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후 시점부터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함(2011.5월 개정기준)

## 5. 노동법 요약

### ○ 노동법 근거 법률

연번	법명	법률	주요 내용
1	노동법	법률 제 1475호	고용계약서 체결, 임금지급, 휴가기준, 퇴직에 이른 제반 사항 전반
2	노동조합법	법률 제 2821호	노동조합활동
3	노동쟁의조정법	법률 제 2822호	단체협상, 파업, 직장폐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교사, 군무원, 경찰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음

- 튀르키예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회사들이 자체 지부보다는 전국조합의 지도부와 협상을 벌이도록 되어 있음
  - 경영자협회의 회원가입은 협회가 단체협상에서 고용주를 대표하거나 고용주의 이익 증진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나 강제가입 조건은 없음
- 노조가입조건 : 사무직 근로자는 노조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자유로움
- 노조 체계 : 사업장 단위노조-산업별노조-전국노조연합
- 전국노조연합 : TURK-IS(튀르키예노동조합연맹), HAK-IS(이슬람노조), DISK(혁명노조연합)

(출처: 해외건설협회, 국별환경, 2022.11.08.)

## 나. 튀르키예 노동시장 현황

- 튀르키예 현지 고용률 예년 회복
- 한국 기업 진출 문의 증가, 향후 일자리 증가 예상
- 2022년 7월 기준 튀르키예의 고용률은 47.5%로 예년 이상의 고용률을 회복함
  - 코로나19 확산 직후 튀르키예의 고용률은 2020년 42.7%를 기록함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0년 4월~2021년 7월 기업의 노동자 해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아가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함
  - 그 결과 고용률을 회복했고, 또한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2년 6월에는 201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함

<튀르키예 고용률과 실업률>

(단위: %)

년도	2019	2020	2021	2022.1.	2022.2.	2022.3.	2022.4.	2022.5.	2022.6.	2022.7.
고용률	45.6	42.7	45.2	45.4	45.8	45.9	46.7	47.7	48.6	47.5
실업률	13.7	13.1	12.0	12.1	11.4	11.4	10.6	10.1	9.7	10.6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 아울러 최근 들어 튀르키예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법인 설립 문의가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 물류 운송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들이 물류망 재구축과 핵심 지역 내 판매 및 생산 법인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임
  - 엔데믹 분위기 확산에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실제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에는 매달 평균 2건의 투자진출을 위한 방문 상담과 3-4건 가량의 온라인 상담이 접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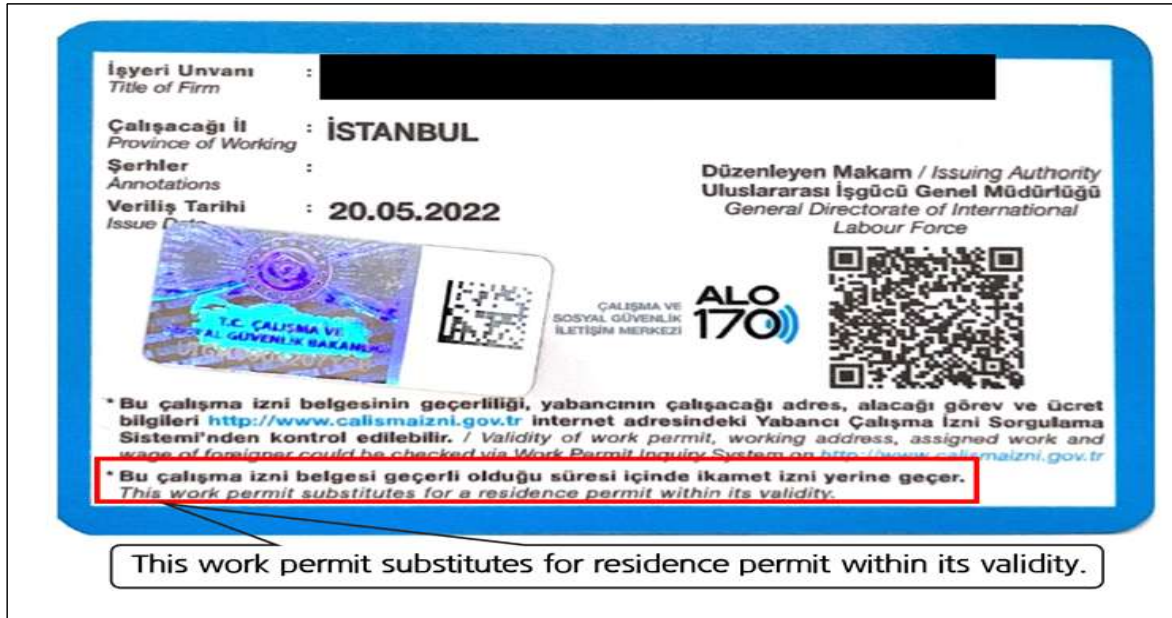
○ 거주 비자의 종류

- 튀르키예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제도가 없어 튀르키예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인 이카멧(ikamet)이라 불리는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튀르키예 입국 전 비자를 받은 후 사증에 명시된 기간보다 체류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도 이카멧 신청을 해야함
- 이카멧은 관광과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 시에만 취득 가능하며, 취직 및 사업 목적인 경우에는 노동 허가를 발급받아야 함
- 발급 주체는 튀르키예 내무부로, 내무부에서 발급하는 거주 허가증은 대표적으로 아래 4개가 있음

연번	허가증	목적 및 자격
1	단기 거주 허가	관광, 학술연구, 비즈니스, 의료 등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
2	장기 거주 허가	현지 8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
3	가족 거주 허가	튀르키예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외국인 자녀나 노동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가족이 신청 가능
4	학생 거주 허가	튀르키예에서 초중고 또는 대학 및 대학원생이 신청 가능 튀르키예어를 학습하는 학생의 경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미리 어학 비자를 신청해야 함
5	노동비자	개인 사업 운영, 법인 및 지사 운영, 취직 등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취득 필요

- 이 중에 한국인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이카멧의 형태는 단기 거주 허가(Kisa dönem ikamet izni)와 학생 거주 허가(öğrenci ikamet izni), 노동 비자(çalışma izni)임
- 노동 비자는 거주 허가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비자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거주 허가 신청 불필요

<노동 허가증 뒷면에 표기된 거주 허가 문구>



(자료: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 신청 시 필요 서류

- 거주 허가증과 노동비자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단기 거주 허가
<p>1. 거주 비자 신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ikamet홈페이지(<a href="https://e-ikamet.goc.gov.tr/">https://e-ikamet.goc.gov.tr/</a>)에 접속하여 작성 가능</li> </ul> <p>2.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이 나와있는 페이지, 최근 튀르키예 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p> <p>3. 증명사진 4매</p> <p>4. 튀르키예 통장 잔고 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동안 사용할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 필요</li> </ul> <p>5. 의료보험(거주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p> <p>6. 주소지 거주 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주택: (본인 소유) 주택 소유증명서(Tapu) / (임차) 공증받은 임차 계약서</li> <li>- 호텔 등의 숙박시설: 호텔에서 발급한 투숙 증명서</li> <li>- 기숙사: 기숙사장의 직인이 찍힌 기숙사 등록 증명서</li> </ul> <p>7. 주소 등록 시스템 등록증(Yerleşim Yeri belges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evlet 또는 거주하고 있는 İl/İlçe에서 발급받은 Yerleşim Yeri belgesi</li> </ul> <p>8. 이카멧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p>

## 학생 거주 허가

1. 거주 비자 신청서  
- e-ikamet홈페이지(<https://e-ikamet.goc.gov.tr/>)에 접속하여 작성 가능
2.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이 나와있는 페이지, 최근 튀르키예 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3. 증명사진 4매
4. 통장 잔고 증명  
-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동안 사용할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 필요
5. 의료보험(거주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6. 주소지 거주 증명서  
- 일반 주택: (본인 소유) 주택 소유증명서(Tapu) / (임차) 공증받은 임차 계약서  
- 호텔 등의 숙박시설: 호텔에서 발급한 투숙 증명서  
- 기숙사: 기숙사장의 직인이 찍힌 기숙사 등록 증명서
7. 주소 등록 시스템 등록증(Yerleşim Yeri belgesi)  
- e-devlet 또는 거주하고 있는 İl/İlçe에서 발급받은 Yerleşim Yeri belgesi
8. 이카멧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9.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교환학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 증빙 필요

## 노동 허가

### ○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튀르키예에서 노동 허가 신청 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단기 거주 허가증  
- 한국에서 노동 허가를 바로 신청할 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단기 거주 허가증 불필요  
- 그러나 튀르키예에 입국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6개월 이상 유효한 단기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2.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이 나와있는 페이지, 최근 튀르키예 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3. 증명사진 1매
4.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5. 고용계약서

○ 고용주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기업 소재지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영업활동증명서(faaliyet belgesi)
2. 기업의 세금계산서 및 납세번호
3. 기업 서명 회람
4. 기업 보험명세서 및 납부 영수증(노동비자 신청일 기준 전월의 영수증 필요)
5. 당해 법인세 납부 영수증
6. 기업의 미납 및 연체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기업의 손익 계산서(세무서또는 회계법인 증명 필요)
8. 상업관보(기업의 설립 및 자본구조가 나와 있어야함)
9. 기업 인감

\* 주: 해당 자료는 2022년 9월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튀르키예 이민청 및 노동부)

- 이카멧 신청 비용은 서류비용과 허가증 비용이 나누어져 있음. 서류 비용은 2022년 기준 160TL
- 허가증 비용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2년 기준 관보에 나와있는 기본 비용은 한 달까진 매일 38.40TL이 부과되고 1개월 이상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1개월마다 246.10TL로 계산함
- 그러나 신청자의 국적과 거주 허가/노동 허가 등 허가증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청 후 담당 부처에서 안내하는 비용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 1:5 규정 (외국인 고용 제한)

- 튀르키예의 최저 임금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6,471TL(2022.9.10. 환율 기준 약 49만원)임
- 튀르키예의 구인구직사이트 (kariyer.net)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현지인 엔지니어의 급여는 평균 11,440TL(2022.9.10. 환율 기준 약 86만원) 내외임
- 동등한 경력과 업무 능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한국과 비교하면 튀르키예의 급여 수준은 낮은 편이라 한국인은 튀르키예 현지 기업보단 대부분 한국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편임

- 그러나 이마저 1:5 규정 때문에 튀르키예에서는 쉽지 않음
- 튀르키예 노동부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한 명을 고용할 경우 튀르키예인 다섯 명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고용된 직원은 모두 튀르키예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야 하여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 따라서 튀르키예에서 한국인이 취직 가능한 한국 기업도 제한적인 편임
- 이러한 내용은 튀르키예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튀르키예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위한 튀르키예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이라는 답을 받음
-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외국인 근로자가 발급받은 노동비자는 취소되고 자동적으로 불법 근로자로 분류됨

#### ○ 이카멧 발급 불가 지역

- 튀르키예 이민청은 2022년 7월 1일 외국인 비중이 2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이카멧 발급 중단을 발표함
- 새로운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신규 이카멧 신청을 할 수 없고, 기존 거주자의 연장 신청만 가능함
- 튀르키예는 2022년 상반기 이미 한 차례 이카멧 발급 중단 마을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마을의 수는 781개에서 1169개로 확대됨

\* 이스탄불 내 주요 지역으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Sariyer, Beyoğlu 등이 있음

\* 마을 리스트 확인 가능한 엑셀 표 다운로드 링크(튀르키예 이민청):

<https://www.goc.gov.tr/mahalle-kapatma-duyurusu-hk2>

#### ○ 시사점

- 튀르키예는 정부가 강력하게 자국민 고용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호주 등과 달리 이민자가 직장을 구하는 게 쉬운 나라는 아님
-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기업은 한국인 직원을 선호함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튀르키예인이 늘어나며 튀르키예 내에 있는 한국 기업에 다수 취직하고 있지만, 한국인이 더 수월하게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분명 존재함



- 튀르키예는 구인구직 시 kariyer.net(튀르키예어만 지원)과 linkedin을 주로 사용하며, 특히 kariyer.net은 튀르키예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도 구인 공고를 낼 때 많이 활용함
- 그 외에는 튀르키예 한인회(turkeykorean.net)의 구인/구직 게시판에도 한국 기업의 구인 공고 글이 올라오기도 함
- \* 특히 한국인 직원을 뽑는 구인 글은 한인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튀르키예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음

(자료: 튀르키예 이민청, 튀르키예 내무부, 튀르키예 노동부, Bagzibagli&Erdem Sahin Law Firm,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9.19.)

## 다. 근로조건

### 1) 근무시간

-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5시간이며, 양자간의 합의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이 1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로 조정이 가능함 (고용주-근로자 합의하에도 11시간은 초과 불가)
- 주 45시간 이상의 근무는 초과근무로 인정하며,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 연간 270시간을 넘길 수 없음.
- 초과근무수당은 주중엔 50%, 일요일과 기타 휴일에는 100%를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0시~익일 06시)
  -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검진비용은 사용자가 지급함
  - 사용자는 지방노동당국(Regional Directorate of Labour)에 야간근로자 명단 및 근로 시작전 건강검진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공지 의무가 있음
  - 주요 내용 : 4시간 근로마다 15분 휴식, 매 4시간~7시간 30분 근로마다 30분 휴식
- \* 지역, 날씨, 계절, 관습 및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가능

## 2) 휴가

- 연차휴가 : 매년 5일의 국정 공휴일과 2 개의 유급종교 휴가(8일)이 있음
- 유급휴가는 근무연수가 1~5년일 경우 14일, 6~15년은 20일, 16년 이상은 26일이 보장됨
- 출산휴가의 경우 총 16주(출산 전 8주 및 출산 후 8주)가 주어짐

## 3) 채용

- 일반근로자는 큰 문제 없이 채용 가능함 (지역고용사무소 또는 채용광고, 지역신문광고를 통해 채용할 수 있음)

## 4) 고용계약 체결

- 노동법 상 파트타임, 계약직, 정규직 고용계약은 모두 합법적으로 인정됨
- 1년 이상 지속되는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이 필수이며 1년 이내의 고용관계라도 최소한 업무범위, 업무조건, 고용종료조건, 고용기간, 급여, 휴가 등 고용관련 사항을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고용계약서는 인지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증 등의 경우 부담이 덜함
- 고용주와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1회 이상 맺을 수 없으며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 고용계약은 시작부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이 되는 것으로 봄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정규직) 고용계약 하에 일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는 부당한 고용계약 해지에 재고용과 보상 요구 소송을 걸 권리가 있음
  - 고용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을 경우 노동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재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음
-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인정되려면 노동시간이 풀타임 일일 노동 시간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서 상 파트타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풀타임 고용계약으로 간주됨
  - 파트타임 노동자도 사회보장국에 신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고용계약 상 수습기간은 인정되며 최대 한도는 2개월이나 단체교섭을 통해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사회보장제 납부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즉시 납부대상이 됨

5) 고용계약의 해지(퇴직 및 해고)

- 고용주 또는 노동자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쌍방 모두 노동법 상에 명시된 사전 통지기간을 준수해야 함
  - 근속기간 6개월 이하의 경우 계약해지 2주 이전
  - 근속기간 6~18개월의 경우 계약해지 4주 이전
  - 근속기간 18~36개월의 경우 계약해지 6주 이전
  - 근속기간 36개월 이상의 경우 계약해지 8주 이전
- 만약 일방이 사전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사전 통지기간 동안의 세전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
- 고용주 측에서 사전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해지사유

연번	사유
1	건강상의 사유
2	비도덕적, 불명예적, 악의적이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경우
3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가 1주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무단결근
5	노동자가 체포 또는 구금되어 사전 통지기간을 초과해 결근했을 경우

- 정당한 고용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연번	사유
1	노조 대표로서의 활동
2	고용주에 대한 행정/사법 상 제소, 계약서 상 정당한 권리 요구를 위한 진행 중인 제소 참여
3	인종, 피부색, 성별, 결혼여부, 임신여부, 종교, 정치적 의견 및 유사한 사유로 인한 해고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가 1주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노동법 74조에 의한 출산휴가(16주) 사용 무단결근
5	노동법 25조에 의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중 노동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의 경우 5일, 기타 사유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의 경우 6주 이내에 고용해지를 통보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방법
  -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할 경우 해고통지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고용주는 해고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고용해야 함
  - 재고용 의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됨
  - 만약 고용자가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급여의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부과함
- 고용계약 해지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지사유가 명백하고 정확한 단어로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을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해지하려 할 경우 먼저 해고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정퇴직금은 은퇴 또는 일방적이거나 쌍방합의에 의한 고용해지 시에 지급될 수 있음
  -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으며 특히 고용주가 상기에 언급된 노동법 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 퇴직금 지급 법정 사유

연번	사유
1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주에 의한 해고
2	노동자 측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직
3	군복무를 위한 사직
4	장애, 질병, 또는 노령으로 인한 은퇴
5	여성의 결혼 후 1년 내 사직

- 퇴직수당 지급액은 근속연수에 1개월치 임금을 곱한 금액에 근무 연수에 따라 구직 기간 동안의 급여(최대 8주)를 합한 금액임
  - 1년에 미달하는 잔여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산출함
  - 다만 기준임금은 매년 발표되는 법정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음

## 6) 현지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 튀르키예는 1980년의 군부 쿠데타 시 좌파 정치세력 및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기업경영 현장에서 노조의 세력이 약한 편이며 노조가입률도 10% 정도로 낮음
- 노동법도 고용주에 유리한 편으로 해고가 특별히 어렵지 않다는 평가이나 노무관리 현장에서는 자존심 강한 현지인들의 기질과 문화를 배려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항상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현지인의 경우 정당하게 해고되었음에도 앙심을 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전 직장의 위법사례를 신고하여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고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자존심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자료: Sariibrahimoglu Law Office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조사)

## 7) 외국인 근로자 규제

- 튀르키예인에 대한 고용은 규제가 없으나 외국인 채용 시 노동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함
  - \* 외국인 채용 절차 : 튀르키예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외국인 노동자 노동 허가 취득 관련 법 참조
- 2010년 8월 2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노동허가 기준이 적용됨
  - 외국인 노동허가를 요청하는 기업은 최소 5명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업 동업자인 상황에도 5명 고용 조건 적용
  - 노동부에서 발급된 1년 노동허가의 마지막 6개월이 요구됨
  - 동일한 기업에서 1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허가를 요구할 때 노동 허가가 발급된 첫 외국인 노동자 이후의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각각 5명씩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함
- 외국인 노동허가 요청 기업은 투자 자본금은 최소 100,000TL이거나 총 매출액이 최소 800,000TL 또는 최근 연 매출 총액이 최소 250,000TL이어야 함
- 외국인 노동허가를 요구하는 회사의 동업인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40,000TL 선에서 자본 배당 몫은 최소 20%여야 함

- 고용주에 의해 외국인에게 지불될 월 임금은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와 능력에 알맞은 수준이어야 함
  - 고위 간부나 지도자들, 우선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기술자와 건축 기사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의 6.5배 이상
  - 단체와 지점장과 기술자 및 건축기사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의 4배 이상
  - 전문가와 숙련공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에 고용될 고용자들과 교육계 관련 일자리의 피고용인들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의 3배
  - 가정 고용인과 다른 직업에서 고용될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 임금의 1.5배
- 최근 튀르키예 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튀르키예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할 노동자들의 노동 제도 및 비자 발급 관련 규정을 대폭 간소화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계획안은 노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교육 수준과 투자 규모에 따라 발급 절차와 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
  - 교육 수준이 높고 투자 규모가 클수록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줄어들고 허가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임
-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필수이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함
- 고용 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시에는 노동법 제22조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6일 이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
  -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주는 변경사항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임을 서면으로 재통보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계약서 조건 및 양식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계약 방식이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작성할 것을 권장하며 급여, 급여에 준하는 보상체계, 근무시간, 계약 종료 조건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추천함
- 근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무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1회로 제한됨
  -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세부 업무 등에 대한 내용 및 기간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함

- 객관적인 사유로는 통상적으로 프로젝트성 업무 또는 행사 담당, 기존 근로자의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이 있음
- 근로시간은 주 45시간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별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11시간임
  -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간에 합의하더라도 11시간 초과 불가
  - 일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별 근무 시간은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음
- 계약서나 단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주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무 시에는 휴일 수당 별도 지급이 필요함
  - 또한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 날짜에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해야함

## 라. 임금 및 복리후생

### 1) 임금 수준

- 평균임금 수준
  - 임금의 경우 일반 노동자는 1,000~1,500달러, 엔지니어(중견기술자)는 2,000~4,000달러, 중간 관리직은 2,500~4,500달러 수준
  - 외국인회사의 노동자는 일반 튀르키예회사보다 높은 임금을 기대함
- 최저임금(노동법 제4857호39조 및 대통령령 제1호 제522조)
  -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을 200% 가까이 인상했으며, 2022년에도 최저임금을 50% 인상했으나, 리라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소득은 미화 26달러가 감소함
  - 이에 2022. 7. 1.부터 12. 31.까지 일당 기준 215.70TL로 대폭 인상함
  - 월 기준 5,004TL(미화 298달러)에서 6,471TL(미화 387달러)로 인상됨.
- 임금 구성
  - 일반적으로 식비, 의복비, 교통비 지급됨
  - 경조사 시 재정지원
  - 대기업의 경우 보너스 이외에 연말 보너스, 특별 보너스(명절, 휴가), 가족수당 등이 단체협상에 따라 지급됨

## 2) 임금 지급 원칙 및 특징

-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됨(노동법 제32조)
- 채권, 쿠폰 등 현금이의 형태로는 임금지급이 불가함
- 임금명세서(wage account sl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3) 퇴직금

- 고용주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나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남성의 경우 군복무, 여성의 경우 결혼, 은퇴, 사망 등) 퇴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불해야 함
- 정년 퇴직은 2007년 이전에 취업한 경우, 남자 만 60세/여자 만 58세이며, 2007년부터 취직한 경우, 남녀 모두 만 65세임
- 퇴직수당 지급액은 근속연수에 1개월치 임금을 곱한 금액에 근무 연수에 따라 구직 기간 동안의 급여(최대 8주)를 합한 금액임
- 튀르키예정부는 퇴직수당 계산을 위해 최고 월급수준을 정하고 연4회에 걸쳐 한도를 조정하며 근로자의 실제임금이 해당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정부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 4) 임금인상

- 보통 1년 단위, 식비, 교통비 지급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 출생, 질병, 사망 시에도 재정지원이 있음
-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회계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부대편의 관련 지출을 임금에 포함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5) 보너스

- 연말, 가족수당, 휴가 및 종교 명절 전 상여금 지급, 고수의 산업은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함

## 6) 최신동향

- 2020년 최저임금 월 2천324리라(약 34만1천원)
- 2021년 월 2천826리라(약 41만5천원): 이는 아이가 없는 미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아이가 있는 기혼 노동자는 월 3천13리라(약 44만2천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 2022년 튀르키예의 최저임금은 5,004리라.(2022.5.10. 기준 326달러)
- 대졸 사무직 초임의 평균 임금은 약 428달러, 고졸 생산직 초임의 평균 임금은 약 327달러
- 튀르키예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장법 제506조 제1항 2호에 따라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단기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일용직 노동자, 단기 인턴 등에게도 적용됨
- 따라서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회보장세는 연금, 산재보험, 건강(의료)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총 급여의 35.5%~41%(근로자 부담 15% + 고용주 부담 20.5%~26%)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은 근로자 근무 시작 전 튀르키예 사회보장국(SGK)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근로자 채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미신고 인원 x 최저임금(5,004리라)’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또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도 10일 내 온라인 신고가 필요하며 이때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함

## 마. 현지인 의무 채용비율

### □ 1:5 규정

- 튀르키예 노동부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한 명을 고용할 경우 튀르키예인 다섯 명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고용된 직원은 모두 튀르키예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야 하여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리활동이 없고 대표자가 대체불가인원으로 분류되어 1:5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과 지사는 대표자 역시 1:5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n명의 외국인 x 5명’의 튀르키예인 고용 의무가 있음
  -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외국인 근로자가 발급받은 노동비자는 취소되고 자동적으로 불법 근로자로 분류됨
  - 고용주는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2022년 기준, 기업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1명당 16,066리라, 고용 관계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는 6,421리라를 고용계약 해지시점까지 매달 부과함

- 1:5 규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진출 시 튀르키예 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프로젝트의 특수성과 기업의 규모 등을 설명 후 현지인 고용 인원 조정 요청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내부 검토 후 예외를 허용하기도 함

(자료: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튀르키예 무역부, 사회보장국(SGK), 튀르키예 통계청, Bagzibagli Erdem & Sahin Law Firm, Dundar Sir Law firm, Crowe Horwath,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5.16.)

## 바. 사회보장

- 튀르키예 정부,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을 통합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중
  - 고용주는 일용직, 파트타임 노동자 포함 노동자 전원 사회보장제도 가입 지원 필요
- 가입 대상
- 튀르키예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장법 506조 1항 2호에 따라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음
    - 이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2~3개월만 일하는 인턴에게도 사회보험 적용을 법으로 강제함
  - 한편,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튀르키예 내에서 3개월 이하 근무 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중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입증임을 증빙할 경우 튀르키예 내 사회보장세 납입 의무가 없음
- 납입 구조
- 사회보장세는 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총급여의 35.5%~41%(근로자 15%+고용주 20.5%~26% 부담)를 납입해야 함

- 이에, 근로자는 총 급여에서 사회보장세 개인부담분 15%와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며, 고용주는 이와 별도로 총 급여의 22.5%를 사회보장세로 납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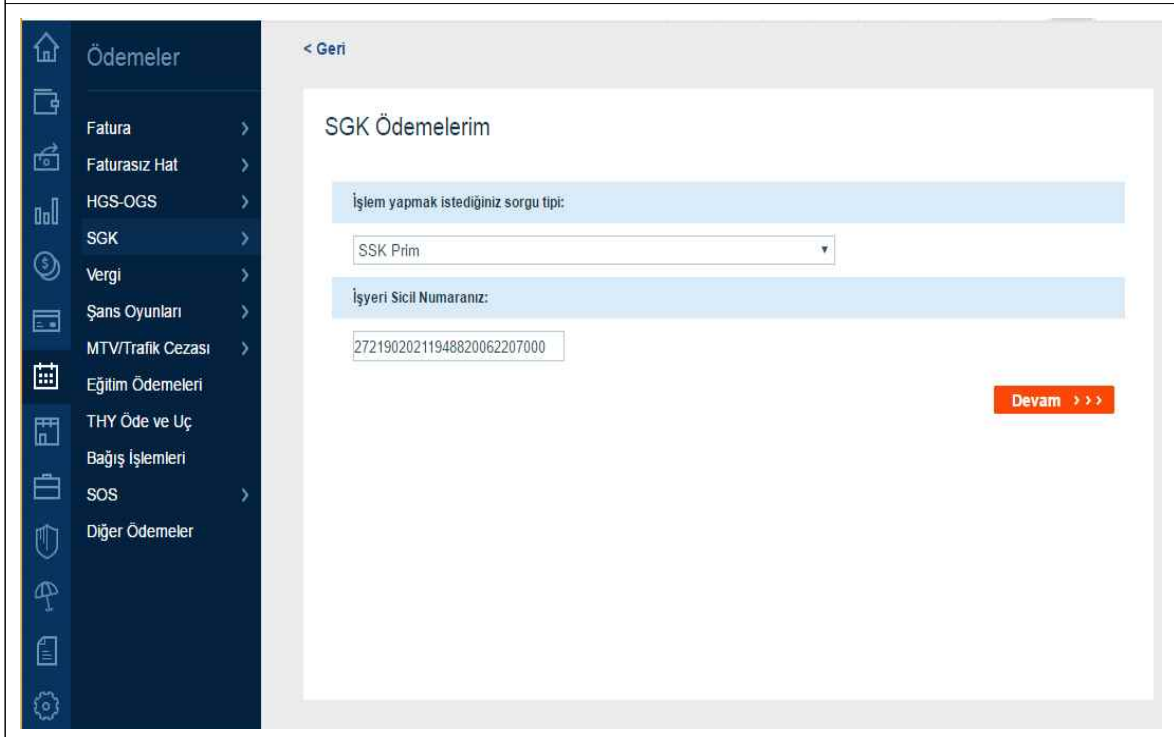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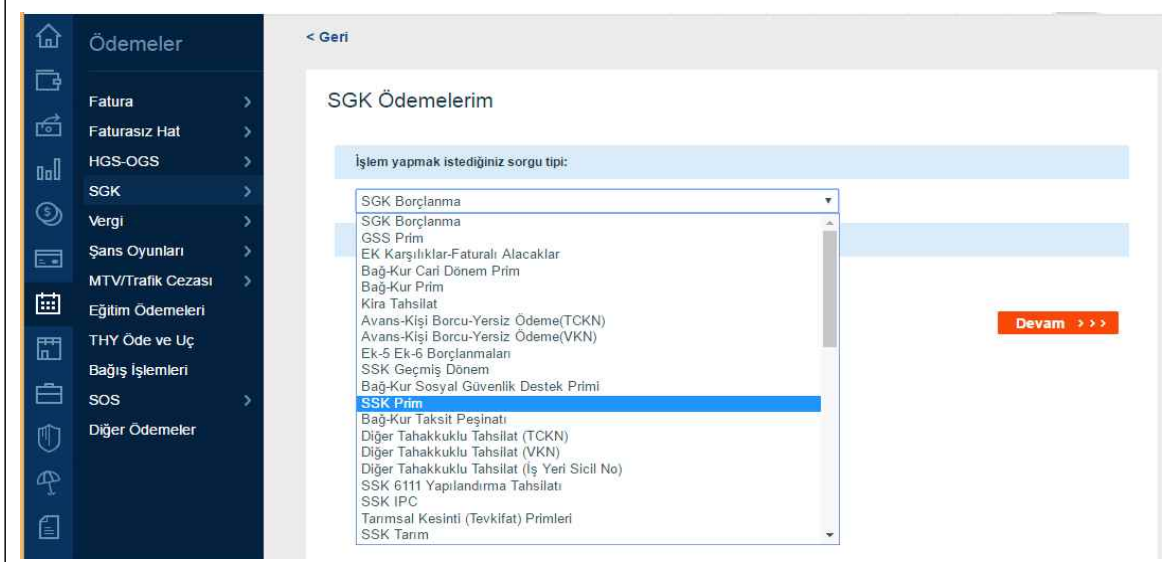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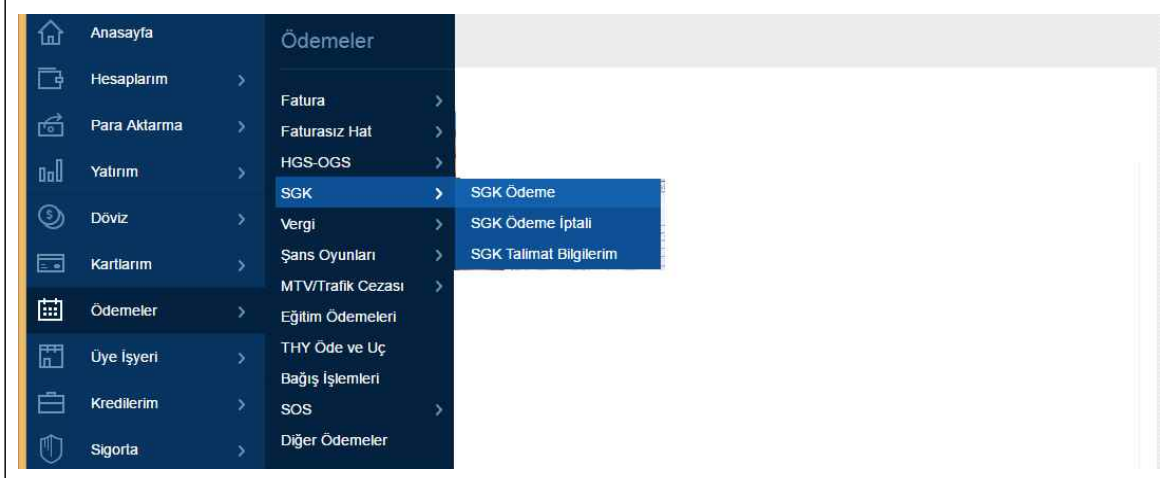
#### □ 한국-튀르키예 간 사회보장협정 발효 효과

- 한국-튀르키예 간 사회보장협정이 2015.6.1. 발효 및 시행된 지 5년이 지남
- 이에 한국과 튀르키예는 기관회담(2021.9.15.)을 통해 면제기간 5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양국의 동의절차를 거쳐 2년간 추가로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

#### □ 납입 방법

- 튀르키예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e-Bildirge 시스템을 통해 매달 급여신고 후 SGK 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시스템 등록을 위해서는 SGK 기관에 양식 제출 후 ID, SGK 비밀번호, 기업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사용자 정보로 SGK 홈페이지> E-SGK > e-Bildirge 메뉴로 접속해 급여신고 작업 진행이 가능함
  -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e-Bildirge 시스템에 접속해 SGK 산정 작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회계사를 통하여 대행 중에 있음
- 사회보장세 납부는 매달 말일까지 SGK홈페이지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SGK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가능함
  - 당월 근로자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익월 청구되며, 사업장은 월말까지 사회보장세를 납입해야 함
  - 월 마지막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끝난 가장 가까운 근로일에 맞춰 납부해야 함
- \* 예시) 2019.04.01.~30. 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는 2019.05.31.까지 납부 되어야 하며, 5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 6월 1일까지 납부가능함

< (납입 예시) IS BANK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입 방법 >



(자료: IS BANK 인터넷 뱅킹홈페이지)

□ 사회보장제도 가입시 근로자의 혜택

- 실업급여 혜택 : 근로자 실직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령가능함
  - 600일 이상 900일 미만 근무시 : 18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900일 이상 1,080일 미만 근무시 : 24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1,080일 이상 근무시 : 30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산재보험 혜택 : 종사하는 직업에서 기인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부상사고 : 인공기관 제공, 장착, 보수, 교환 비용 지원, 장애연금 지급 가능
  - 사망사고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한정)에게 사망 연금 지급, 장례비 지원
- 기타 : 출산 장려금 지원, 은퇴 후 노령연금 지급 등 혜택도 제공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장은 근로자 근무 시작 전, SGK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근로자 채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미신고 인원 x 최저임금’ 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근로자 퇴직시에는 10일 내 온라인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됨
- 전월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익월말까지 미납 시 사회보장세 총액의 2%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됨

□ 시사점

- 튀르키예 내 모든 기업체는 원칙적으로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 지원을 해야 함
  - 모든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 지원이 강제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미지원하기도 함
  - 그러나 향후 관련 분쟁 발생 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모든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장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지원의 중요성 관련 의견이 제기되기도 함
- 주재원의 경우, 최초 3개월까지 사회보장세 납입이 면제되며, 3개월 이후부터 사회보장세 납입 의무가 발생함

- 그러나, 우리나라 주재원들의 경우 튀르키예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내 국민연금 납부 증빙시 튀르키예에서의 사회보장세 납입이 면제됨
- 사회보장세는 SGK에서 운영하는 e-Bildirge 시스템에 급여를 신고해 산정 가능하며, 통상 현지 회계사를 통해 대행함
- 사업장은 회계사를 통해 산정된 급여를 익월말까지 납입 필요함.
- 채용된 근로자를 e-Bildirge 시스템에 미신고하거나, 사회보장세 납입 기한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SGK 홈페이지, İŞ BANKASI 홈페이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05.15.)

## 사. 고용절차

### 1) 현지인

#### ○ 노동시장

- 노동인구 : 평균연령 28.3세 / 2,470만명, 유럽 27개국 중 4번째로 큼
- 노동인구증가율 : 0.86%, 경쟁국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에 비해 높음
- 월 평균임금 : 436불, 유럽국가에서 낮은편임
- 실업률 : 9.9%

#### ○ 현지인 고용 의무

-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의료 및 법률, 서비스업은 내국인에게만 개방됨
- 외국인이 6개월이상 취업 및 경영을 위해서 해당업체가 재무부로부터 취업허가를 얻은 후 노동 및 사회보장청으로부터 비자를 취득해야함

### 2) 근로계약(노동법 제2장)

- 근로계약은 동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 특정형식은 없음(6조)
- 근무형태(상시, 임시, 간헐적 근로), 근무기간(기간 산정 유무), 근무종류 (전일제, 단시간), 임금, 근무시간, 계약종료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
- 노동법 제22조에 따라 고용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시에는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함

- 6일 이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미동의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고용주는 변경사항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임을 서면으로 재통보 후에 계약 종료 가능함
- 계약체결 형태
  - 근로계약은 서면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 내에 근로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함(6조)

### 3) 외국인(외국인 고용허가법, 2010년)

- 대상자 : 튀르키예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 근로 허가
  - 튀르키예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시간이 한 달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불가항력 및 국익에 의한 경우는 근무시작 후 획득 가능함
  - 1년 근로이후 최장 3년까지 가능(단, 같은 사업장 및 직종에 근무한다는 조건)
  - 3년 근로 종료 후 고용허가의 유효기간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근로허가 절차
  - 거주국 튀르키예 대표부에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 거주국 튀르키예 대표부는 튀르키예 정부에 신청서 전달
  - 고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입국비자 신청 필수
  - 튀르키예 입국 이후 30일 이내에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에 거주허가 신청
  - 사유 발생 후 15일 내 고용주는 튀르키예 정부에 고용 기간 등 통보 필요
- 기준 자료
  -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시 튀르키예인 의무고용 규정 준수
  - 동일한 작업장에서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노동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두번째 외국인 노동자부터 1인당 튀르키예 시민권자 5명을 고용해야 함

- 튀르키예인 의무고용 규정 적용 예외
  - 튀르키예 노동부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의해 고용되는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우에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의 예외를 적용함
  - FDI에 따른 외국인 고용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특별심사 없이 튀르키예인 5명 의무고용 규정을 면제함
  - 상기 규정 2조에 따르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특별한 FDI에 따라 고용되는 핵심인력’ 으로 한정되며, 특별한 외국인직접투자 및 핵심인력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특별한 외국인 직접투자 (하기 요건 중 최소 1개 요건 충족 필요)

연번	자격요건
1	현지법인의 전년도 매출액이 30조 튀르키예리라 이상이고 외국인 주주들의 총 지분 가액이 최소한 4,000억 튀르키예리라 이상
2	현지법인의 전년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외국인 주주의 총 지분가액이 최소한 4,000억 튀르키예리라 이상
3	현지법인의 전년도 고용인원 수(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가 250명 이상이며 외국인 주주의 총 지분가액이 최소한 4,000억 튀르키예리라 이상
4	현지법인의 최소 투자 예정액이 10조 튀르키예리라 이상인 경우
5	모기업이 본사 소재국 이외 (튀르키예 제외) 최소 1개국에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 핵심인력의 요건(이하 요건 중 최소 1개 요건 충족 필요)

연번	자격요건
1	법인의 최고경영자 및 고위 관리자
2	회계, 관리, 기술 관리자 또는 임원

- 상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적용에 대한 평가기준 9조를 적용하여 특별 승인을 거쳐 예외를 적용함

○ 노동부 외국인 담당국의 특별 승인이 있으면 첨단기술을 요구하거나 같은 수준의 튀르키예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는 직종에 대해 튀르키예인 5인 의무고용 조항의 예외 적용

- 상기 특별 승인 시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판정기준에 대한 구체 지침은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특히 임금 수준을 중요한 판단지표로 봄



-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한 예외적용 특별승인 요건과 절차
  - 고위관리자는 튀르키예 법정 최저임금의 6배, 전문가는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일에 적합한 교육수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고용주(현지법인)가 해당 노동허가 신청 외국인을 고위관리자나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튀르키예 노동부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을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삼음
-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기 평가기준의 첨단기술분야 및 튀르키예인 고용 불가능 직종을 상당히 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고위 관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6배에 미달할 경우 전문가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가능함
- 예외적용에 대한 특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신청 시 청원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 청원서 양식은 없으며 튀르키예에 온 이유, 튀르키예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전문 직종이 튀르키예 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술 필요
  -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사진 첨부
- 특별승인 심사 결과 노동허가가 거절될 경우
  - 튀르키예 국내법에 따르면 노동허가 심사 후 발급이 거절될 경우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함
  - 심사진행 중 당사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서류 보완 기회를 제공하고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의제기 이후 최종적으로 거절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함

#### 4) 튀르키예 노동부

- 노동부 노동국 Nurcan Onder 부국장

구분	연락처		
전화번호	90-312-296-6331	팩스	90-312-212-0781
이메일	nonder@csgb.gov.tr		

- 노동부 노동국 Ceylan Cifci 전문관

구분	연락처
전화번호	90-312-296-6280
이메일	carik@csgb.gov.tr

## 아. 출입국 관리

### □ 입국사증

- (단기) 6개월 내 90일 한도 무비자 체재 가능
- (장기) 관광비자로 입국후 한 달 이내에 현지에서 거주증 신청 필요
  - 통상 거주증 발급에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현지에 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거주증 인터뷰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함
- 의료보험 : 거주증 신청 시 가입 필수

### 1) 비자발급처 (주한튀르키예대사관)

- 주 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나길 40
- 전 화: 02-794-0255/3778
- 팩 스: 02-797-8546
- 업무시간 : 월~금 9:30~18:30
- 휴 일: 토, 일요일 및 양국의 공휴일
- 홈페이지: <http://seul.be.mfa.gov.tr/Mission>

### 2) 비자발급 절차

-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관광비자의 경우 3개월까지 무비자체류 가능
  - 여권 유효기간 2개월 이상 남아야 함
- 취업 또는 파견근무 입국 전: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및 비자 발급, 튀르키예 현지지사가 있을 경우 직접 노동부로 신청
- 입국후: 외국인 거주 허가서를 발급(튀르키예 경찰청)
  - 거주허가증이 없으면 이삿짐을 찾을 수 없으며, 차량구입도 불가능
  - 비자 발급 절차는 수시로 바뀌고 있어 반드시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 확실하게 문의한 후 진행
- 비자는 법적으로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통상 약 1~2개월이 소요(최소 일주일)
  - 비자발급비용 : 90일 이하 \$40, 90일 이상 \$60

### 3) 취업비자 발급

- 관련법 : The Law Concerning Work Permits of Expatriates No. 4817(2003.3.6)
- 주무기관 : 노동 및 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 취업비자 종류
  - 일시비자 : 최대 1년(상용) / 상황에 따라 3년까지 연장가능
  - 영구비자 : 튀르키예 거주기간 8년 이상 및 근무기간 6년 이상인 경우.  
경찰 당국의 승인을 받아 주무기관에 신청
- ※ 거주기간에서 교육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자영업비자 : 튀르키예 거주기간 5년 이상 자영업 활동 영위 가능
- 비자 면제사항 : 튀르키예 국민과 결혼한 경우 등
- 해외거주 외국인의 경우 거주국 혹은 본국에 위치한 튀르키예 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유효한 거주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최소 6개월 이상, 교육 목적의 거주 허가 제외)의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부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음
- 구비서류(신청자 개인)

연번	구비서류
1	비자 청원서(Petition)
2	비자 신청서 4부
3	학업증명서(튀르키예어 공증본 / 대학 이상, 경우에 따라 고등학교 증명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4	거주 허가서(튀르키예에서 신청할 경우)
5	이력서 등

- 구비서류(신청자 고용회사)

연번	구비서류
1	비자 청원서(Petition)
2	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입찰참여하는 경우, 관련 실적 증명서 등

- 취업비자 연장
  - 비자 연장기한 : 비자만기 15일 이내
  - ※ 연장 시작일은 만기일과 동일함

#### 4) 특징

- 건설 기술직(토목기사 등)의 경우 타 직종보다 발급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발급이 매우 어려움
- 심사 기준이 모호하며, 기준 또한 통일돼 있지 않음
- 현지 주재 인력은 3개월마다 인근 그리스에 출국 후 재입국하여 90일 무비자를 취득, 체재하고 있음
- 튀르키예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노동허가 발급심사 강화 추세
-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자국민 고용실적 등 각종 조건을 면밀히 검토함
- 튀르키예 정부는 2010.8월부터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시 최소 5명의 튀르키예 인을 고용할 것을 법률화함
  - 튀르키예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튀르키예인 전문가 고용이 어려운 경우, 고위관리자(최저임금의 6배 이상 수준)인 경우, 또는 튀르키예에 직접 투자할 경우 예외로 적용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튀르키예어 번역공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부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됨

#### □ 출입국 수속

##### 1) 특징

- 한국 국적 소지자는 비자 없이 3개월까지 체류 가능(관광비자)
- 단기체류비자의 경우 튀르키예 내 부동산 소유, 사업활동, 학술연구, 여행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2년 기한으로 신청가능
- 튀르키예는 통관이 까다로운 편으로, 통관절차를 위해서는 서류작성, 외무부 송부(앙카라 대사관 경유), 외무부 승인, 이삿짐 회사에 동 서류 전달 등을 거쳐야 함
- 통관절차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부터 가능하여 화물이 세관에 장기간 머무르며, 세관은 7일의 무료보관 기간 경과 후부터 보관료 부과할 수 있음
-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심사대를 거침
  -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

- 이사물품 과다 반입 방지를 위해 아래의 조치 실시
  - 이사자와 이사물품의 요건(외국 체류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 체류자로 분류)
  -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필수 과세물품,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을 지정
  - 이사물품의 반입기한 제한

## 2) 현금반입/반출

- 튀르키예 내로 들여오는 외화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음.
- 5,000 달러 이상 반입 및 반출 시에는 인출 은행의 증명서가 필요함
- 은행을 통한 내외국환 송금은 자유

## 3) 환전

- 환전소(Dovis)와 은행, 호텔에서 수수료 없이 환전 가능하며, 유로 및 달러를 주로 환전하며, 유로가 가장 보편적임
- 여행자수표는 은행에서만 환전 가능하며, 추가 환율 요금을 피하기 위해 달러 또는 유로 수표를 권장함

## V. 진출 사례

### 1 프로젝트별 사업현황(EPC, PPP 사업 등)

#### 가. 한국 건설업체 주요 완공 공사 현황(EPC/시공/엔지니어링 분야)

○ 한국 건설업체 전체 수주공사 현황

(단위: 미화 백만달러, 건)

구 분	합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 액	5,684	5,556	193	6.8	12.6	6.0	-90
건 수	41	34	2	2	1	2	0

(출처: 해외건설협회, 2022.12.15.)

- 2019년 이후 대형 공사 수주는 없었음

○ 한국 건설업체 공종별 수주공사 현황

(단위: 미화 백만달러, 건)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 액	5,684	5,556	193	6.8	12.6	6.0	-90
건 수	41	34	2	2	1	2	0
토목	금액	2,739	2,703	31	0	0	5
	건수	4	4	0	0	0	0
건축	금액	169.8	56	163	0.7	12.3	31.3
	건수	15	12	2	0	0	1
산업 설비	금액	2,716	2,743	-1.3	0	0	-25.7
	건수	8	8	0	0	0	0
통신	금액	0.1	0	0	0	0	0.1
	건수	0	0	0	0	0	0
용역	금액	59.6	54	0	6	0.2	0.2
	건수	14	10	0	2	1	1

(출처: 해외건설협회, 2022.12.15.)

- 토목과 산업설비 공사 수주가 비중이 크지만 2018년 이후 대형 토목, 산업설비공사 수주는 없었음

-

○ 한국건설업체 주요 완공 공사

(단위:미화 천달러)

업 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SK에코 플랜트	투판베일리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에너지사	614,938	2011/03/18 2015/02/18
	보스포루스 해협 유라시아 해저터널공사	ATAS	571,300	2014/10/23 2017/10/26
	튀르키예 정유공장 복구공사 용역	Roberto and Co SA	250	1999/11/05 1999/11/30
	튀르키예 3차 보스포루스 해협 교량	ICA Ictas Astaldi JV	700,000	2013/06 2016/11
	튀르키예 다르다넬스 해협 차나칼레 대교(현수교)	KGM	미공개	2017/04 2022/02
	튀르키예 이스탄불 도로	DLH	미공개	2012/01 2016/07
포스코 건설	포스코-아산 TST 스테인레스 냉연공장 신설	포스코아산 Tst Celik Sanayi AS	164,500	2011/06/08 2013/04/30
	아산 갈바니즈 칼라코팅라인 프로젝트	키바르 홀딩	18,927	2011/02/14 2012/09/13
삼성물산	Kalekoy 철로이설 프로젝트	튀르키예 철도청	118,653	2012/01/01 2018/11/01
DL이앤씨	튀르키예 차나칼레 교량	KGM	미공개	2017/04 2022/02
GS건설	키리칼 정유공장 증설공사	튀르키예 국영석유공사	111,013	2004/12/01 2007/06/30
	투프라스 이즈미르 개질공장 및 탈황공장 프로젝트	튀르키예 국영석유공사	80,784	2003/08/01 2006/04/30
삼환기업	KT&G 튀르키예 공장 신축공사	KT&G	21,067	2007/06/16 2008/03/15
현대Eng	코일센터 신축공사	하이스코 튀르키예법인	11,494	2012/10/01 2013/08/30
	모비스 모듈공장 신축공사	현대모비스 튀르키예법인	10,040	2012/06/18 2013/03/31
	현대자동차 프레스공장 증축공사	현대자동차 튀르키예법인	3,756	2012/03/12 2012/12/31
영동건설	주튀르키예대사관 신축공사	주튀르키예 한국 대사관	9,864	2017/09/25 2020/07/17

업 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인천 공항공사	이스탄불 신공항 운영 컨설팅	IGA SPC	5,943	2015/06/17 2022/04/07
우리중건	2016 튀르키예 안탈리아 엑스포 한국정원	2016 튀르키예 안탈리아 엑스포 에이전시	775	2016/01/26 2016/04/15
토펙Eng	주튀르키예대사관 신축공사 CM	주튀르키예 한국 대사관	643	2017/09/25 2020/07/30
월비 커뮤니	2013 이스탄불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장치 및 전시운영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515	2013/07/03 2013/09/03
삼보 기술단	이스탄불 도로해저터널 기본설계	SK에코플랜트	454	2008/01/01 2009/04/25
	이스탄불 3층터널 FS	KIND	340	2019/04/26 2019/11/11

(출처: 해외건설협회)

## 나. 현지 지사 및 법인 설립현황

구 분	업체명	소재지
지 사	삼보기술단	이스탄불
지 사	한국비계	이스탄불
법 인	H&K Eng	이스탄불
법 인	SK에코플랜트	이스탄불
법 인	극동건설	이스탄불
법 인	남광토건	이스탄불
법 인	디엘이앤씨	이스탄불
법 인	삼환기업	이즈미르, 이스탄불
법 인	송학건설	이즈미트
법 인	한신공영	이스탄불
법 인	현대Eng	이즈미트



## 다. 교통인프라 분야

### ① 다르다넬스 해협 차나칼레 대교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가 준공되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함

- 2018년 4월 착공 후 총 48개월 동안 공사 진행, 총길이 3,563m,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이 2023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임
  - 현수교의 기술력 순위는 주경간장의 길이로 결정되며, 이전까지 세계 1위 현수교는 1998년 준공한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주경간장 1,991m)임
-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뉜 차나칼레주의 랍세키(아시아측)와 젤리볼루(유럽측)를 연결함
- 차나칼레 대교 사업은 국내 최장·세계 8위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를 함께 건설했던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팀 이순신을 구성, 입찰에 참여해 2017년 일본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함
  - 이순신 대교를 완공하면서 현수교 기술 자립화를 성공한 DL이앤씨의 기술력과 튀르키예와 영국 등 유럽 사업 경험이 풍부한 SK에코플랜트의 시공 기술 및 사업관리 역량의 시너지가 수주의 원동력이 됨
- DL 이앤씨는 이순신 대교로 세계에서 6번째로 현수교 기술 자립을 완성한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1위 현수교를 성공적으로 준공함
  - 글로벌 1위 기술력과 디벨로퍼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글로벌 디벨로퍼 시장을 집중공략해 나갈 것
-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 BU(사업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해협 유라시아 해저터널과 보스포루스 제3교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함
  - 한국 건설회사의 높은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 차나칼레 대교는 세계 해상 특수교량 시장에서 기술적 한계라고 여겨졌던 주경간장 2km를 뛰어넘은 최초의 현수교로 최첨단 토목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인정받고 있음
-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는 3.6km 현수교와 85km의 연결도로를 건설하고 약 12년 운영한 후 튀르키예 정부에 이관하는 BOT방식의 PPP사업임
  - 두 회사는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사업발굴 및 기획부터 금융조달, 시공, 운영까지 담당하며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함 (출처: 열린뉴스통신, 2022.03.20.)

## ② 보스포루스 해협 유라시아 해저터널

- SK에코플랜트는 터널 등 지하 공간 공사에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함
  - 세계 최고 수준의 발파 공법인 수펙스컷(Supex-Cut)을 개발했고, 원통형 굴착기계인 TBM(Tunnel Boring Machine) 전문가로 구성된 팀도 운영 중
  -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중동은 물론이고 서유럽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
- 이미 SK에코플랜트는 2016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튀르키예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성공적으로 개통함
  - ※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해저를 관통하는 5.4km짜리 자동차 전용 복층 터널이며, 육지 접속도로까지 포함 시 총길이가 14.6km에 달함

-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밀집된 유럽 지역과 주거지가 있는 아시아 지역이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갈라짐
  - 보스포루스 제1교와 제2교에 양쪽을 오가는 전체 교통량의 60%가 집중되어 출·퇴근시간에 다리에서 1시간 넘게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음
  - 해저터널을 놓는 SK에코플랜트는 이런 교통체증의 해결사 역할을 맡음


- 이는 튀르키예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초대형 해외 인프라 민관협력 사업으로 SK에코플랜트가 튀르키예 건설사인 야피 메르케지(Yapi Merkezi)와 함께 시공을 맡음
- SK에코플랜트는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뚫기 위해 단면 직경만 아파트 5층 높이(13.7m)에 총길이 120m, 무게 3,300t에 달하는 초대형 TBM을 투입함
  - 이 기계는 대기압의 최대 11배에 이르는 수압을 견디며 하루 평균 6.6m씩 17개월 동안 굴착을 진행함
  - 원활한 시공을 위해 TBM 커터헤드와 암반·토사를 파쇄하는 70개의 커터에 교체 주기와 마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됨
  - 커터 뒤에는 수심 100m의 높은 수압에서도 작업자가 언제든지 대기압과 같은 환경에서 마모된 커터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됨
  - 지진에 대비한 터널 벽체의 내진 설계도 이뤄짐
- 유라시아 해저터널 프로젝트는 국내외 우수 금융회사의 투자를 이끌어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모범사례로도 주목받음
  - SK에코플랜트는 2012년 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세계 10개 금융기관과 총 9억6,000만 달러(약 1조464억 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함
  - 영국 금융전문지 PF(Project Finance) 매거진으로부터 ‘2012년 올해의 프로젝트’로 선정되기도 함
- 유라시아 해저터널은 국내외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음
  - 2016년 국제터널지하공간학회(ITA)로부터 올해의 프로젝트 상을 수상함
  - 같은 해 세계적 권위의 건설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주는 2016년 터널·교량 분야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상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수상함
  - 2017년에는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건설 환경공학 분야 최고의 프로젝트로 선정됐고, 국제도로연맹이 주관한 글로벌 도로 프로젝트 시상에서는 ‘건설기술’ 분야 대상을 수상함

-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에코플랜트는 영국 템스강에 하저터널인 실버타운 프로젝트를 수주해 착공을 준비 중임
  - 서유럽에서 한국 건설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인프라 사업임
  - 영국 런던의 실버타운 지역과 그리니치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템스강 하부를 통과하는 총연장 1.4km, 직경 12.4m의 편도 2차선 도로터널 2곳을 신설함 (공사비 약 10억 파운드 / 약 1조 5,000억 원)
- SK에코플랜트는 강점인 터널 등 지하공간의 차별화된 공사 기술력과 개발형 사업 역량을 살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임(출처: 동아일보, 2020.03.31.)
- SK에코플랜트가 카타르 국부펀드인 카타르투자청(QIA)의 계열사에 튀르키예 유라시아 해저터널 우선주 지분 전량을 매각함
- 2022.6.19.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분 매각은 카타르투자청 계열사가 유라시아 해저터널 투자법인(ATAS) 지분 가운데 특수목적법인 SK홀드코(Holdco)의 우선주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이뤄짐
  - SK홀드코의 지분은 SK에코플랜트(56.5%), SK가스(36.4%), SK메나(7.0%) 순으로 높음
  - SK에코플랜트는 우선주(5.5%)보다 보통주(51.0%)의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SK가스와 SK메나의 보유 주식은 모두 우선주임
  - SK홀드코에서 우선주 보유 비율이 가장 낮은 SK에코플랜트의 이번 지분 매각액은 약 200억원으로 가장 적음
- 이번 거래 이후에도 SK에코플랜트는 ATAS 전체 지분의 약 26%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카타르투자청과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임
- PPP 사업은 기존의 단기 시공이익 관점의 도급공사에서 나아가 자금 조달과 지분 참여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 연합뉴스, 2022.06.19.)

### ③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제3대교 건설

- 튀르키예는 1973년 제1교(영국과 독일이 수주), 1998년 제2교(이탈리아와 일본이 수주)에 이어 보스포루스 해협 제3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함
  -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건설업체가 합작 발주한 것을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수주하여 착공에 들어감
- 지분은 각각 60%와 40%이며 총 건설비 약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설계부터 자재조달,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수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공사기간은 주탑 기초공사 완료 후 29개월로 2015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6년말 완성함
-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수주한 튀르키예 제3대교 건설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사장교와 현수교 방식의 교량으로 지어짐
  - 현수교 방식으로만 지으면 다리가 많이 흔들려 기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단점을 사장교 방식으로 보완함
  - 이는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고난도 기술이며 첨단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완벽한 조화가 필요함
- 제3대교 두 개 주탑의 높이는 세계 최대인 322m이며 교량의 폭과 길이는 각각 60m와 1,408m로 총 길이는 2,164km이며 대교 위로 왕복 8차로의 도로와 2개의 철로가 다닐 예정임
-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3번째 다리이자 이스탄불의 최대 국책사업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이스탄불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중동 및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물류이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제3대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프로젝트명: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제3대교 건설 프로젝트</li><li>○ 위치: 튀르키예 이스탄불 북부 유럽 지역 사르예르 가립체 - 아시아 지역 베이코즈</li><li>○ 규모: 약 7억 달러</li><li>○ 프로젝트 내용: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제3대교 건설</li></ul>
---	---

## 라. 에너지 분야

### ① 키리칼레 복합화력발전소(Kirkalle CCPP)

삼성물산이 튀르키예에서 6,300억원(5억 9,700만 달러) 규모의 발전플랜트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며 국내외 민자 발전 시장에서 위상을 다짐

- 삼성물산은 2014년 10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민간개발업체 아크와 파워 인터내셔널(ACWA Power International)과 튀르키예 키리칼레(Kirikkale) 복합 화력 발전플랜트 프로젝트의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힘
- 삼성물산은 설계·구매·시공(EPC)을 단독으로 일괄 수행하며, EPC 계약 금액은 5억9,700만달러임
- 키리칼레 복합화력 발전플랜트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키리칼레 지역에 950MW 규모의 민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짓는 공사로, 삼성물산은 201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수행할 예정
- 삼성물산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국내외에서 총 5개의 민자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개발과 EPC수행, 관리운영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요구하는 민자 발전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됨

- 삼성물산은 대규모 발전플랜트 수행 역량과 기술력,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기반 한 자금조달 및 개발 역량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민자 발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 이외에도 삼성물산은 올초 1,450MW와 1,165MW급 알제리 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북아프리카 발전시장에 진출했고, 이번 튀르키예 프로젝트까지 따내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기반을 강화함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물산은 중동지역 최대 민자 발전프로젝트 개발업체인 아크와와 3 번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두 회사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게 됨
    - 삼성물산은 2011년 4,000MW급 민자 복합화력 발전프로젝트인 사우디 쿠라야 복합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한데 이어, 2013년에는 2,100MW급 사우디 라빅2 가스복합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임
    - 삼성물산 측은 아크와와 연이은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전함
  - 이날 아크와 두바이 본사에서 진행된 계약식에서 삼성물산은 이번 키리칼레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튀르키예 전력수요 해소 및 튀르키예의 에너지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쌓아온 사업수행 역량과 기술력에 대한 고객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이라 밝힘 (출처 : 국토일보, 2014.10.24.)
  - 국토교통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튀르키예 키리칼레 복합화력발전 사업에 약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2015.6.24) 하고 7.20.(월)에 투자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는 지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2011년 7월)과 “포르투갈 리스본 태양광발전사업(2012년 5월)” 에 이은 세 번째 투자임
  - 투자대상사업은 삼성물산과 ACWA Power International\*이 튀르키예 키리칼레에 926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투자개발사업으로, 2017년 6월, 완공 및 상업운전이 개시될 전망이다
- \* ACWA Power International: 사우디 국영기업이며 중동 2위의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발전사업자로 주로 전력 생산 및 해수담수화 플랜트 전문기업이며,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자겸 O&M사업자임

- 삼성물산은 주주 및 시공사로, 한국수출입은행(K-EXIM)은 대주단\*으로 참여하며, 글로벌인프라펀드는 후순위대출을 지원할 계획임
- \*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등이 함께 참여함
- 특히, 이번 투자는 정부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편 조성한(2014. 6.) 글로벌인프라 1호 펀드(운용사: KDB 인프라운용)의 최초 투자임
- 향후, 글로벌인프라 1호·2호 펀드를 통해 2015년~16년 투자를 목표로 A국 풍력발전, B국 수력발전, C국 정유플랜트 등 약 20억불 규모 사업에 대해 약 1,600억원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펀드의 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
- 국토교통부는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 글로벌인프라펀드의 본격적인 투자로 민간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투자펀드 조성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함
- 더불어 정부는 타당성조사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지원과 펀드의 투자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출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2015.07.07.)



## 마. 보건 분야

### ① 가지안텡 병원 (Gaziantep Hospital) 프로젝트

#### I. 프로젝트 개요

- 본건은 BLT방식의 PPP 사업으로 튀르키예 보건부가 프로젝트 회사 앞 리스료 (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형태
- \*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예상금액 : 1.7억 유로 (대출기간 18년)

구분	세부내용
사업내용	튀르키예 가지안텡(Gaziantep) 병원 건설 1,875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총 6개 병동)
발주처	튀르키예 보건부 PPP국 (Departmen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주	삼성물산, Kayi(튀르키예), Salini(이태리), 재무적투자자* * 지분율 및 펀드투자자 등 협의 중
총사업규모	약 7.3억 유로
EPC	삼성물산(33%), Kayi(34%), Salini(33%)
O&M	O&M JV(Kayi, Salini), 튀르키예 보건부(의료)
사업기간	총 28년 (건설 3년, 운영 25년)
자금조달	자본금 1.5억 유로(20%), 차입금5.8억 유로(80%)*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EIB, EBRD 등
채권보전	PF 방식 채권보전: 튀르키예 보건부 리스료 (시설 사용료, 서비스 이용료) 지급 등

#### II. 진행 경과

- 2012. 1월 25일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발급
- 2012. 11월 삼성물산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삼성물산(한국), Kayi(튀르키예), Salini(이태리)
- 2013. 6. 28. SPV 설립 및 사업계약(Project Agreement) 체결
- 2014. 3~4분기 대주단 법률(A&O)/기술(Mott MacDonald)/ 환경(ERM) / 보험(JLT) 자문사 선정
- 2015. 7월 대주단 Kick-Off 미팅 (튀르키예 이스탄불)
- 2015. 11월 대주단 미팅 (영국 런던)
- \* 펀드참여 관련 사업구조 논의, 금융 Term Sheet 협상
- 2016. 하반기 금융계약 체결 예정

### Ⅲ. 사업 진행상황

#### □ 설계변경 관련 추진 경과

- 2015. 9. 4. Land Transfer가 발효되어 6개월 내(2016. 3. 3)에는 제반 허가를 받아 본 공사를 시작해야 하나, 현재 건설 허가 절차 진행 중
- 튀르키예 보건부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건설허가 발급이 지연된 바, 건설허가 지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계약상 불이행(Default)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사업주측 법률자문사 YKK 의견), 대주단은 이에 대한 튀르키예 보건부의 입장확인서 발급 요구함
- 설계 내용은 대주단 기술자문사(“LTA”, Mott MacDonald 社) 앞으로도 송부되었으며, LTA는 EPC 가격 및 Lifecycle Cost 등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진행 중임
-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2016년 4월 중 대주단 앞 제공 예정

#### □ 공사 진행 경과

- 튀르키예 보건부는 사업주가 제출한 기본설계(Schematic Design)를 승인(2016. 4. 11), 최종 건설허가는 2016년 4월말 발급될 것으로 예상
- EPC社(삼성물산, Kayi, Salini)들은 튀르키예 EPC 업체 MCN社\*와 하청 계약을 체결(2015. 12월)하였으며, 현재 부지 정리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MCN社 : 튀르키예 보건부가 발주한 병원 PPP 사업 시행경험이 있음 (Bilkent : 3,660병상, Mersin : 1,253병상)

#### □ 한국 O&M 진출

- 삼성물산은 O&M 경험부족으로 O&M 사업권을 Salini와 Kayi에 양도함
- 현재 삼성 가전제품 (30-40억원), x-ray, HIMS(Hospit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중외CIT) 진출 예정임

\* 한국수출입은행 대출로 인하여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야 하는 명분이 있었으나, 그 당시 한국 기업(삼성의료원, S1, 에버랜드 등)의 진출 의지/타당성 없었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6.04.29)

- 삼성물산이 10년을 끌어온 튀르키예 가지만택병원이 정상궤도에 오름

- 삼성물산은 2022.9.23.(현지시각) 튀르키예 건설 대기업 르네상스홀딩 산하 투자회사 르네상스헬스케어투자와 프랑스 투자회사 메르디암, 튀르키예 사업관리 회사 이스탄불포트폴리오와 함께 가지안텝 시립병원 건설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함
-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위빌드, 튀르키예 카이인사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안텝시립병원 민관협력(PPP) 사업을 수주했다.
  - 삼성물산이 지분 26.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KDB인프라자산운용 펀드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함
  - KDB산업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기관투자자도 일부 자금을 대출함
- 가지안텝병원 PPP 사업은 병원 본동과 서비스동 등 9개동, 1,875개 병상을 가진 병원 본동과 서비스동 등 9개 동을 짓는 사업임
- 튀르키예 정부가 대출 보증 연장과 의료진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이 25년간 병원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 2016년 한국수출입은행이 무역보험공사,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사업에 1억4,300만유로(약 1,980억원)를 수혈했지만, 튀르키예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공정률 40%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됨
- 위빌드와 카이인사트는 사업에서 퇴각을 위해 지분 매각을 추진함
- 결국, 르네상스홀딩과 메르디암이 나서 지분 51%를 확보하고 사업 재추진을 결정함
  - 삼성물산 등 나머지 사업자가 지분 49%를 보유함
- 총 사업비 규모는 처음보다 25% 이상 늘어난 8억300만유로(약 1조1,000억원)로 2023년 5월 완공, 6월 1일 진료 시작이 목표임
- 전체면적 63만8000㎡, 1875병상 규모의 가지안텝 병원이 개원하면 하루 1만8,000명의 환자 외래 진료가 가능해짐
- 2022년 9월 23일 열린 재(再) 착공식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글로벌 오프레이션 실장)과 에르만 일리각 르네상스홀딩 회장, 데부트 굴 가지안텝 주지사 등이 참석함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 <https://www.straightnews.co.kr>, 2022.09.24.)

## 2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 가. PPP 시장 현황

(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http://www.engdaily.com>), 2019.03.26.)

- 2014년 8월 튀르키예 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력한 인프라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를 이끌었으며 2018년 7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두번째 임기를 맡음
- 그는 또 2030년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2011년 비전 2023 계획을 발표하여 도로, 철도, 항만, 메트로, 공항, 운하 등 인프라 시설 및 의료시설을 BOT와 같은 민관협력사업(PPP) 모델 방식으로 5,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등과 105억 달러 규모, 60여개의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등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건설산업의 부흥을 이끌었고, 관련 분야도 확대되면서 고용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끔  
- 비록 최근 금리인하나 미국과의 반목 등 경제위기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는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유라시아 터널 및 차니칼레 교량을 PPP사업으로 수주하여 완성함
- 튀르키예에서 사용하는 PPP Law는 아직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법들이 적용 가능함

입법 연도	법령명칭	PPP 적용여부
1910	Concession Law	유효하지만 적용가능한 프로젝트는 제한적임
1984	법률 제3096호(전력산업 BOT)	유효하지만 적용가능한 프로젝트는 제한적임
1994	법률 제3996호(BOT)	적용 가능
1994	법률 제4046호(민영화법)	적용가능하나 민영화는 PPP는 아님
1997	법률 제4283(전력산업 BO=BOO)	유효하지만 적용가능한 프로젝트는 제한적임
2013	법률 제6428호(의료산업BLT)	적용 가능

- BOT는 1980년대 초반 튀르키예에서 최초로 적용된 PPP 모델로 뒤이어 BO(BOO), TOR (Transfer of Operational right)방식이 도입됐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BLT 계약 방식이 등장해 대부분 의료산업에 적용됨
- 튀르키예의 PPP사업모델별 사업진행 현황은 아래와 같음

PPP Model	프로젝트 수	비율
BOT	101	48%
TOR	87	41%
BLT	18	9%
BO(BOO)	5	2%
합 계	211	100%

(출처: Global PPP Guide 2017, 2017년까지 PPP 모델별 프로젝트 계약현황)

- 튀르키예에서는 많은 산업군에 PPP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에너지, 교통, 의료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이나 하수처리, 수자원 관리, 철도와 같은 산업도 곧 PPP가 적용 가능한 Sector로 편입될 예정
  - 튀르키예의 PPP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튀르키예 정부의 PPP 추진 의지가 Framework에 담겨있기 때문임
  - 거의 모든 민관협력사업(PPP)는 Project financing 기법을 사용하며 기법의 특성상 미래의 현금흐름의 확실성,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리금 상환의 가능성은 대주단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됨
  -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지불보증(Payment Guarantee)을 제공하는데 크게 3종류임
- 1) 최소 운영수익 보증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 차나칼레와 유라시아 터널 및 의료산업 PPP에서는 최소한 수준의 사용량을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줌
  - 2) Debt Assumption Agreement(채무인수약정) : 프로젝트가 중도 타절되면, 사건 발생 시 원리금에 대한 채무를 정부 나 재무부가 인수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줌

### 3) 재무부에 의한 보증

- TL 1 Bil(십억리라) 이상의 BOT 사업이나 TL 500 Mil(5억 리라) BLT로 진행되는 의료/교육사업의 타절시 재무부가 프로젝트 회사로부터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 채무를 인수함
  - 금융 지원 타당성(Bankability)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요소가 됨
  - \* 근거 : 특히 Law No. 4749 (Public Financing and Debt Management)
- Framework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기타혜택
  - 타절시 보상금 (Termination payment, 계약해지 지급금),
  - 세금 혜택 (Decree No. 2012/3305, No. 2012/1 등 적용)
  - 대주단과 정부가 직접 계약을 맺는 3자 계약(Direct agreement)를 통한 대주단 개입권(Lender' s step-in right)
  - 타절시에 주무관청이 따라야 할 절차
  - 타절시 보상금을 직접 받을 권리 등
- 프로젝트 분야별 PPP사업현황은 아래와 같음

<튀르키예 PPP 프로젝트(1986년~2018년)>

분야	상태	모델	프로젝트 수	투자 및 TOR 가치 (십억달러)	투자금액 (십억달러)	TOR의 가치 (십억달러)
공항	운영중	BOT	9	5.58	2.23	3.35
		TOR(TOOR)	8	12.62	1.44	11.18
	건설중	BOT	2	53.1	14.97	38.13
	소계		19	71.3	18.64	52.66
고속 자동차도로 및 서비스시설	운영중	BOT	28	5.05	5.05	
		BO(BOO)	8	0.23		0.23
	건설중	BOT	6	16.30	16.30	
	소계		42	21.58	21.35	0.23
항만	운영중	BOT	4	0.13	0.13	
		BO(BOO)	18	2.08		2.08
	건설중	TOR(TOOR)	1	0.58		0.58
	소계		23	2.79	0.13	2.66
보건	운영중	BRT	8	3.14	3.14	
	건설중	BRT	12	8.16	8.16	
	소계		20	14	14	

에너지	운영중	BOT	25	4.88	4.88	
		TOR(TOOR)	61	19.39		19.39
		BO(BOO)	5	4.42	4.42	
	소계		91	28.69	9.3	19.39
마리나 및 관광시설	운영중	BOT	10	0.97	0.97	
		TOR(TOOR)	1	0.12		0.12
	건설중	BOT	5	0.82	0.82	
		TOR(TOOR)	1	0.75		0.75
	소계		17	2.66	1.79	0.87
세관소 및 시설	운영중	BOT	12	0.37	0.37	
		TOR(TOOR)	2	0.07		0.07
	건설	BOT	4	0.13	0.13	
	소계		18	0.57	0.50	0.07
철도	운영중	BOT	1	0.27	0.27	
문화 및 관광시설	건설중	BOT	1	0.14	0.14	
산업시설	운영중	BOT	2	1.42	1.42	
광산	운영중	TOR(TOOR)	8	0.36		0.36
총계			242	141.08	64.84	76.24

(출처: an overview on PPP Projects: a case of Turkiye, 2019.12.)

- 이러한 내용은 차나칼레 BOT(건설-운영-이전)사업의 입찰서에서도 보여지는데, 입찰서의 실시계약(Implementation Contract) 초안 27조항에는 계약해지(Termination)와 채무인수(Debt Assumption), 29조항에는 교통량 보증(Traffic Guarantee) 등이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함
  - 그뿐만 아니라 입찰 사양(Tender Specification)에는 입찰의 절차 및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초기 통행료 상한선(Initial Cap toll fee tariff)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입찰 당시 리스크를 분석하고 충분히 반영할 여지를 만들어줌
- 해외 PPP 사업 입찰에 있어서, 우리는 PPP가 ‘민관협력’ 사업임을 상기시켜야 함
-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 정부 및 주무관청의 PPP 담당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리스크의 부적절한 할당의 결과, 대부분의 리스크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어 있고 정작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 이런 경우 민간사업자는 그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대주단의 금융 적격성(Bankability)에도 적절한 신뢰감을 주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 튀르키예처럼 Framework상에 정부의 PPP 추진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경우에만 민간사업자가 모이고 적절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어 정부 입장에서도 민자 적격성(VfM, 민자 사업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짐
- 다만 이 경우 입찰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수주가 어려워지겠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사업을 큰 리스크를 안고 수주하여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두는 것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임

## 나. PPP 진출 리스크

구 분	리스크 요인	리스크 평가
마켓리스크 (시장 리스크)	물가변동	2022.11. 물가상승률 85%로 매우 높음
	환율변동	금리인하로 환율 폭증
	금리변동	금리인하, 대규모 현지금융 한계
	제품판매위험	시장 수요분석 철저 필요 유효 구매력 분석 판단 의무인수계약(Take or Pay),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
재무적 리스크	사업성 부족	좋은 사업발굴 애로
	수요 위험	MRG, MTG로 극복
	계약 해지	계약해지보상, 채무인수약정
	수익률 미달	건설자금이자 증대 우려
원료조달 리스크	발전연료	가스조달은 용이함
운영리스크	운영비 초과	유럽의 전문 운영회사 활용가능
	서비스 저하	유럽의 전문 운영회사 활용가능
사업주체 리스크	사업주 신용, 사업실행능력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에서 경험 많은 디벨로퍼 찾기 쉬움
건설리스크	준공지연	인허가로 인한 준공지연 예상
	공사비 초과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초과 우려 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초과 우려
환경사회 리스크	생태계, 민원	이주, 환경, 사회 민원 발생 우려
정치적 리스크	전쟁, 내란, 테러, 재산몰수	강력한 대통령제에 의한 안정적인 정치
	계약불이행	정부의 PPP 의지가 강함
	환전/송금 불가	환율인상으로 환전손실 우려
legal framework	PPP법과 제도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PPP 법이 수립되어 활용가능
정부보증	최소수익보증(MRG), 최소 교통량보증(MTG)	정부 보증 제공됨



## 다. 진출 전략

- 2022 튀르키예 진출전략
  - 수출 증가·제조업 회복 기반 경제 성장 기대
  - 튀르키예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따른 수입 대체 산업 육성 확대
  - 디지털 전환, 그린 뉴딜 관련 정책 추진 관련 기회 요인 상승
  - 높은 환율변동성, 대외관계 긴장감 고조는 경제 성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
- 튀르키예 비즈니스 환경분석
  - (정치) 행정기관 수장 임명권 및 예산 통제권을 대통령이 보유한 대통령 중심국
  - (경제) 수출 수요 상승, 제조업 생산 회복 기반 튀르키예 경제 상승 전망
  - (산업) 자동차, 가전, 섬유, 철강 중심 완성품 제조업 발달
  - (정책) 중간재, 디지털,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정책 확대
- 튀르키예 시장분석
  - 풍부한 내수시장 및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중동 최대 소비국
  - 완성품 위주의 제조업 발달로 인한 높은 대외의존도
  - EU국가로부터 FDI 유치 활발, 서비스업 투자 확대 중
  - 경제협력, 역사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
- 튀르키예 주요 경제협력 의제
  -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대응을 위해 양국이 과학기술 및 R&D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2018. 5. 정상회담)
  - 그린 산업 협력 강화 논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및 투자 촉진에 대한 필요성 대두
  - 한-튀르키예 교통협력에 따른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 진행

내용	일시
한-튀르키예 교통협력회의 및 협력 MOU 체결	2017.3.
튀르키예시장 고속차량 수출 및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 지원 및 철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등 양국 협력기반 강화	2020.9.

-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따른 제3국 공동 진출 방향 모색 : 튀르키예는 방위산업 국산화, 2023년까지 시장규모 270억 달러 규모 달성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임

→ 한국 소재·부품·장비 및 방산 제조기업의 현지 방산 가치 사슬(Value Chain) 참여, 방위산업 협력을 통한 중동 및 제3국 공동 진출 방향 모색 필요

○ 튀르키예 진출전략

- 튀르키예는 젊은 인구층, 탄탄한 내수 소비 시장을 갖춰 매력적인 시장
- 강경외교정책, 통화정책 예측 불가능성은 진출 시 위험으로 작용
-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정책 및 소비자의 변화 예의주시 필요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2.31.)

## 라. 성공 사례

□ 차나칼레 대교

- 사업자 : DL이앤씨 와 SK에코플랜트
- 특 징 : 세계 최장 현수교,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경간장이 세계에서 가장 긴 2023m,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총 길이는 3563m
- 2018.04. 착공, 2022.03. 개통
- 사업수행능력 : 한국 건설회사의 기술과 국산 자재로 세계 최장 현수교 완성
  - 세계 8위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를 건설한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팀 이순신’ 을 구성
  - 이순신대교를 완공하면서 현수교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DL이앤씨의 기술력과 튀르키예·영국 등 유럽 사업 경험이 풍부한 SK에코플랜트의 시공 기술·사업관리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인포그래픽 /사진=DL이앤씨)

○ 한국산 자재 우수성

1) 케이블

- 세계 최고 강도, 1960MPa(메카파스칼)급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인장강도 (케이블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를 보유함
- 강선은 직경 5.75mm로, 강선 한 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데, 이 케이블은 강선 1만8288 가닥을 촘촘하게 엮어 만들어짐
- 두 개의 케이블에 들어간 강선의 총 길이는 16만2000km이며 총 중량은 33,000톤에 이르며, 케이블 하나의 직경이 881mm로 일반 승용차 6만여대의 무게에 해당하는 10만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인 초속 91m까지 견딜 수 있는 내풍 안전성을 갖추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는 기차가 옆어지고, 초속 50m는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붕괴될 정도의 위력임
- 앵커리지 : 케이블의 힘을 다리 양 끝에서 지지해주는 구조물인 앵커리지도 초대형으로 설계됨
- 차나칼레 대교는 길이 92m, 폭 80m, 높이 50m의 콘크리트 구조체가 약 4만톤에 달하는 케이블 장력을 지지함
- 유럽과 아시아 지역 양쪽에 설치된 앵커리지를 만들기 위해 부피 15만2700m<sup>3</sup>, 약 38만톤의 콘크리트가 투입됨
- 주탑 기초 케이슨 : 주탑을 지지하는 기초인 케이슨은 속이 빈 사각형 격자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두 개의 원통형 철강재가 올라간 형태로, 주탑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함  
작업의 핵심은 설계상 정확한 위치의 해저면에 케이슨을 안착시키는 것  
DL이앤씨는 이를 위해 예인선 4대로 케이슨을 끌고 해상으로 이동한 후 GPS와 경사계를 이용해 시공오차 기준치인 ±200mm 범위를 뛰어넘어 ±20mm 범위까지 좁히며 획기적인 정밀도로 시공함

2) 투입인력, 자재 규모

- 동원된 인력은 약 1만7000명, 소요된 시간은 263만430일로 투입된 콘크리트 양은 일반 아파트 2247가구를 지을 수 있는 21만3448m<sup>3</sup>임

- 1톤 트럭으로 3만5000대가 넘는 철근과 A380 기종 항공기 154대를 제작할 수 있는 강판이 투입됨
- 케이블을 구성하는 강선의 길이는 16만2000km로 지구(약 4만km) 4바퀴 돌 수 있는 거리 (출처: 머니투데이, 2022.10.31.)

□ 유라시아 해저터널

- 토목건축기술대상 / 해외토목 최우수상 수상

SK에코플랜트 “튀르키예 유라시아 해저터널” 유럽~아시아 ‘해저 실크로드’... 2041년까지 운영수익 확보

- 사업개요 :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 5.4km를 복층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저터널 접속 도로를 포함한 공사 연장 구간은 14.6km에 달함
- SK에코플랜트는 2041년까지 유지보수와 시설운영을 맡아 운영 수익을 받음
- 기술적 도전 : 최고 수심 110m 해저에 대기압 11배에 달하는 높은 수압과 무른 해저 지반이라는 까다로운 작업 환경을 극복하고, 규모 7.5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안정적 터널로 조성된 점이 높게 평가됨



(자료원: 입찰부터 금융종결과정, SK에코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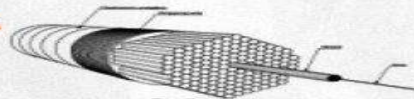
- 기여효과 : 2016년 12월 26일 개통한 유라시아 해저터널은 2017년 9월 말까지 차량 1200만대가 이용함
- 터널 개통으로 이스탄불 전역의 차량 운행 시간이 연간 5200만시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약 82,000t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차나칼레 대교

## 1915 Canakkale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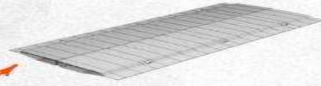


**A 주 케이블**  
직경 5.75mm의 강선 1만8,288가닥을 엮어 제작



**B 주탑**  
334m 세계 최고 높이 철골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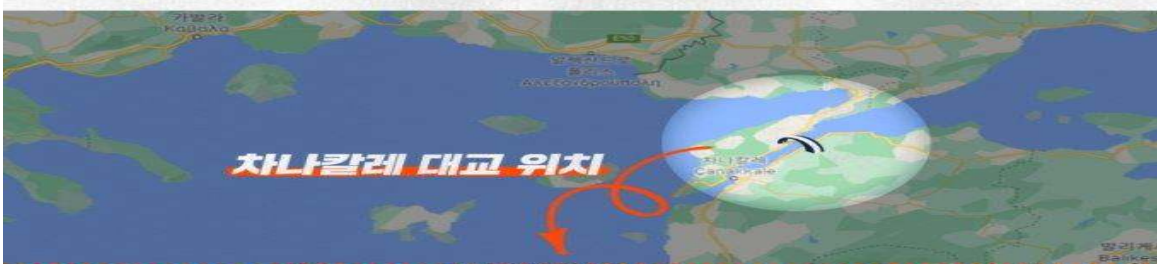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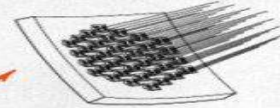
**C 트윈 박스 거더**  
비행기 날개모양의 유선형 거더 중간에 바람 길을 내주어 초속 91m/s까지 견딜 수 있는 획기적 내풍 안정성



**D 상판 높이**  
바다에서 상판까지의 높이는 최대 86m, 다리 아래로 높이 70m의 초대형 선박이 운항 가능

**E 세계 최대 주경간장**  
2,023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주경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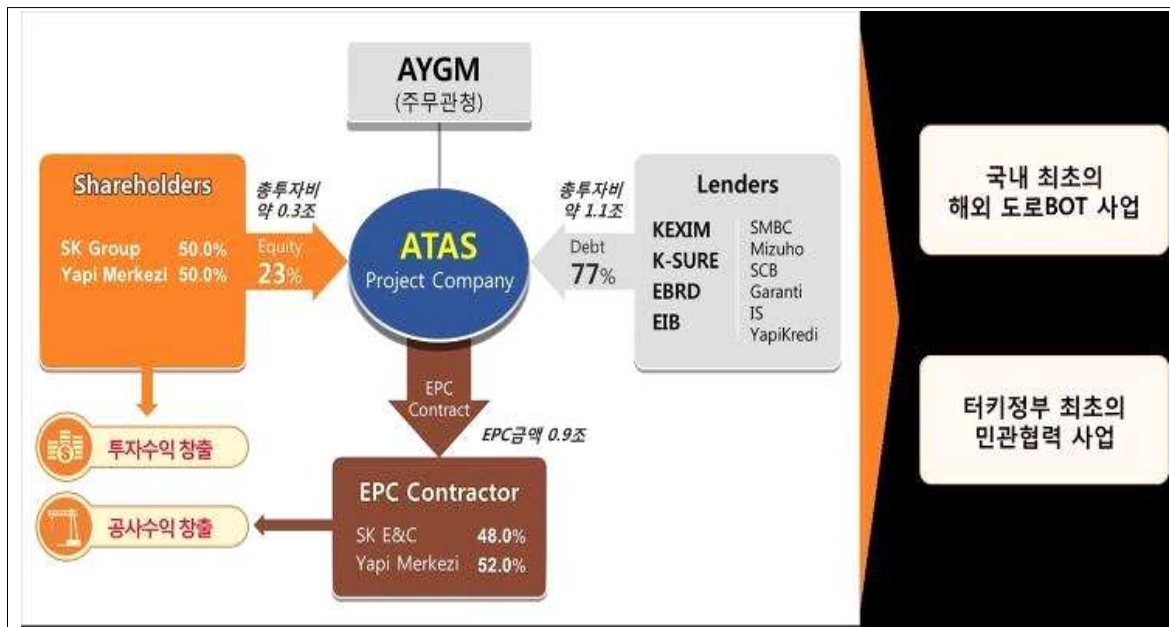
**F 앵커리지**  
전체 교량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유럽 : 64,000m<sup>3</sup>, 아시아 : 88,700m<sup>3</sup>



1915 Canakkale Bridge

DLO이엔씨, SK에코플랜트 제공

- 수상실적 : SK에코플랜트는 유라시아 해저터널로 국제도로연맹이 주관한 2017 글로벌 도로 프로젝트 시상에서 '건설기술' 분야 대상을 수상함
  - 국내 건설사 중 국제도로연맹의 글로벌 프로젝트상을 수상한 것은 SK에코플랜트가 최초
- \* 국제도로연맹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도로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함



(자료원: 사업구조, 자금조달구조, SK에코플랜트)

- 사업자 :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는 SK 에코플랜트를 포함한 SK그룹 계열사와 튀르키예 기업인 야피메르케지가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한, 총사업비 12억 4,000만 달러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임
  -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야피메르케지가 공동으로 진행함
- 금융약정 : SK에코플랜트는 2012년 말 국내외 굴지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체결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함
  - 금융약정 체결은 2008년 말 국내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을 획득한 지 4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
  - 특히 경색된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무역보험공사,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세계 10개 금융기관 참여를 이끌어내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다 평가됨

- 자금조달 규모는 총 9억 6천만 달러로 이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2억 8천만 달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억 8천만 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참여함
- 금융약정 체결 성공에는 튀르키예 정부와 대주단 간 채무인수 보증약정을 통해 튀르키예 최초로 민관협력사업(PPP)을 이끌어낸 것이 주효했음
- 이 보증약정은 이번 사업의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튀르키예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 6개월에 걸쳐 SK에코플랜트를 포함한 사업주와 튀르키예 정부, 대주단 등 3자가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가 이뤄짐
- 그 결과 SK에코플랜트의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는 세계 우수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낸 PF사업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매거진의 '2012년 올해의 프로젝트'로 선정됨
- 본 사업의 의의 : 유라시아 터널 건설사업은 2008년 말 사업권 획득 당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저터널 사업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과 유럽과 대륙 간 해저터널 공사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음
  - 1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초대형 해외 개발사업으로는 드물게 프로젝트 발굴에서 운영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으로 추진돼 주목받음
- 기술적 특징 : 유라시아 터널 공사에는 터널굴착장비(TBM) 공법이 사용됨
  - 굴착과 동시에 터널 구조물 건설이 가능해 공기 단축과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첨단 공법임
  - 이 TBM은 단면 직경이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13.7m에다 총길이 120m, 무게는 3300t에 달함



(유라시아 해저터널 조감도, 이투데이 2016.08.10.)



(자료원: 유라시아 해저터널 연장, SK에코플랜트)





(유라시아 해저터널 TBM 관통식, 이투데이 2016.08.10.)



(유라시아 해저터널 콘크리트 벽체 세그먼트 운반, 이투데이 2016.08.10.)

- TBM(Tunnel Boring Machine)은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터널 단면과 현장의 지질·지반·지하수 등 작업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됨
- 유라시아 해저터널에 사용되는 TBM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됨
- SK에코플랜트는 정확한 지질조건 파악을 위해 두 달간 해저물리탐사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해협의 빠른 유속을 버티고 최대 해저 100m가 넘는 지층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석유개발에 사용되는 시추선도 투입됨
- 해저탐사 후에는 3차원 물리탐사를 진행해 시추 간격 사이의 지반 상태를 재확인함 (출처: 매일경제, 2017.11.30.)

□ 보스포루스 해협 양단 잇는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 3.34km 해저구간 관통 성공

- 해저구간 3.34km 연결, 2015년 8월 22일 터널 굴착 관통식 수행
  - 세계 최초의 복층형 해저터널로, 지난 2014년 4월에 공사 개시한 후 16개월만에 관통, 동쪽 아시아 측과 서쪽 유럽 측을 연결하는 데 성공
  - 단면 지름이 13.7m, 총길이 120m, 무게 3,30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터널 굴착장비(TBM)를 사용해 최고 수심 110m에 이르는 최고난도의 공사를 진행
  - 접속된 도로를 포함해 총 길이 14.6km에 이르는 총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보스포루스 해저 3.34km 구간을 관통해 연결

숫자로 본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 총길이	터널 총 길이	해저터널 총 길이	가장 깊은 수심
14.6km	5.4km	3.34km	106.4m



(튀르키예 정부와 SK에코플랜트 현장 임직원들이 '유라시아 해저터널'의 바다 밑 구간을 관통한 뒤 터널굴착장비(TBM) 앞에서 기념촬영. 사진 SK에코플랜트 제공, 한겨레, 2015.08.24.)



(자료원:SK에코플랜트)

- BOT(Build-Operate-Transfer) 모델을 이용해 사업 시작
  - 도로 · 항만 · 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일정 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
  - 프로젝트 완성 후 24년 5개월간 터널의 운영권을 갖게 됨

(자료원: Daily Hurriyet News 2015년 7월 15일 · 8월 25일 자, SK NEWS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출처: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09.03.)

## 마. 실패 사례

### □ 가지안텝 병원 프로젝트

- 한국수출입은행이 삼성물산의 튀르키예 가지안텝 종합병원 건설 · 운영 사업에 총 1억4,300만유로(1억6000만달러 상당)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지원
  - 대출 7200만유로, 국내금융기관(삼성생명 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보증 7100만유로 등
- 삼성물산이 사업주 및 EPC(설계 · 구매 · 시공)로 참여. 삼성물산을 최대주주로, 이탈리아 살리니(Salini)와 튀르키예 카이(Kayi) 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 (출처: 머니투데이, 2016.09.20.)



(튀르키예 가지안텝병원 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미,2021.11.17)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추진 중인 튀르키예 가지안텝 종합병원 공사 현장. /사진=CCN Insaat 출처 : 비즈니스플러스(<https://www.businessplus.kr>), 2021.09.16.)

- 삼성생명, 튀르키예 투자 1천500억...보증으로 손실 우려 제한적
  - 미국과의 갈등으로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펀드와 KDB인프라자산운용(키암코)가 운용하는 펀드에 1천500억 원 가량을 투자함
- 가지안텝 병원사업은 종합병원과 어린이병원, 심장혈관병원, 암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구성됨
- 총 사업규모는 7억3천만 유로(약 9천430억 원)로 지분 투자 2억 9천만 유로(3천745억 원)와 대출 4억4천만 유로(5천682억 원)이며, 이 가운데 키암코를 통해 삼성생명과 글로벌 인프라펀드가 FI로 참여함
  - 대출의 경우 KDB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약 1천272억 원,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172억원 가량씩 투자함

- 두 펀드 모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등에서 보증을 받고 있어 손실 우려는 제한적임
- 삼성자산운용 펀드는 수출입은행이 보증하고 무역보험공사가 해외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부보에 가입했으며 키암코 펀드도 국제투자보증기구에서 부보를 제공함
  - \* 국제투자보증기구: 세계은행이 제안한 해외투자 관련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보험기관
- (출처: 연합뉴스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 2018.08.13))
- 삼성물산, ‘10년 골칫덩이’ 풀었다…튀르키예 가지안텝병원 정상화
  -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위빌드, 튀르키예 카이인사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안텝시립병원 민관협력(PPP) 사업을 수주함
  - \* 삼성물산은 지분 26.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참여함
- 튀르키예 정부가 대출 보증 연장과 의료진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이 25년간 병원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 2016년 한국수출입은행이 무역보험공사,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사업에 1억4300만유로(약 1980억원)를 수혈했지만, 튀르키예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공정률 40%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됨
- 위빌드와 카이인사트는 사업에서 빠지기 위해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르네상스홀딩과 메르디암이 나서 지분 51%를 확보하고 사업 재추진을 결정함
  - 삼성물산 등 나머지 사업자가 지분 49%를 보유함
- 총 사업비 규모는 처음보다 25% 이상 늘어난 8억300만유로(약 1조1000억원)로 내년 5월 완공, 6월 1일 진료 시작이 목표임
  -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삼성물산이 10년을 끌어온 튀르키예 가지안텝병원이 정상궤도에 오름
  - 삼성물산은 튀르키예 건설 대기업 르네상스홀딩 산하 투자회사 르네상스 헬스케어투자와 프랑스 투자회사 메르디암, 튀르키예 사업관리 회사 이스탄불 포트폴리오와 함께 가지안텝시립병원 건설사업을 재진행하기로 함
-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2022.09.24.)

## 바. 성공 요인 및 실패 요인

### □ 성공 요인

- 사업주의 뛰어난 사업수행능력, 기술력 및 경험 보유
- 최저운영수익보장(MRG) 확보
- 경색된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세계 10개 금융기관 참여 유도
- 세계 우수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낸 PF사업의 모범 사례
- 튀르키예 정부와 대주단 간 채무인수 보증약정
- 사업주와 튀르키예 정부, 대주단 등 3자가 치열한 협상 및 합의
- 튀르키예 제1호 민관협력(PPP) 사업이자 대한민국 제1호 해외 PPP 사업인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로 튀르키예 정부의 강력한 PPP 의지를 활용한 협상으로 요구사항 관철
- 굴착과 동시에 터널 구조물 건설이 가능해 공기 단축과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첨단 터널굴착장비(TBM) 공법 채용
- 정확한 지질조건 파악을 위해 두 달간 해저물리탐사를 수행
- 해저탐사 후에는 3차원 물리탐사를 진행해 시추 간격 사이의 지반 상태 재확인 등

### □ 실패 요인

- 튀르키예의 경제위기로 리라화 가치가 폭락, 부채부담 증가
- 차입은 유로화인데, 상환은 리라화로, 리라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 높은 물가 인상, 환율 상승, 금리 변동성 존재
- 사업주의 이탈, 교체, 파트너 신뢰도 및 협업 마인드 부족
- 정부 재정 부족
- 예비비 반영 부족
- 거시경제변수 간과 등

## VI. 인적 정보

### 1 PPP 관련 발주기관 현황

PPP 프로젝트들 입찰 수행 이행기관

연번	기관명
1	에너지천연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2	운송인프라부(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3	보건부(Ministry of Health),
4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5	민영화 행정부(Privatization administration),
6	국가공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tate Airports),
7	고속도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Highways)
8	국가철도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ate Railways)

에너지천연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본사 : 앙카라
- 장관 : Fatih Dönmez
- 웹사이트 : [enerji.gov.tr/homepage](http://enerji.gov.tr/homepage)

운송인프라부(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http://www.uab.gov.tr/>

재무부

- 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 <https://www.treasury.gov.tr/>

대통령실 산하 전략예산실

- Presidency of Strategy and Budget: <http://www.sbb.gov.tr/>

민영화 행정기관

- Privatization Administration: <http://www.oib.gov.tr/>

보건부

- Healthcare Investments (Ministry of Health) :  
<http://www.saglikyatirimlari.gov.tr/>

- 튀르키예 보건부의 병원건축 및 운영 민관협력사업 (PPP) 추진(~2026년)
    - 튀르키예 보건부가 추진중(계약 또는 건설 단계)인 17개의 병원건설PPP 사업 및 향후 입찰 진행 예정인 7개의 사업 관련 정보확인(출처: 보건산업진흥원, 2016.04)
    - 한국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관계자로부터 한국 의료기관의 튀르키예 PPP 병원 사업 진출 제안을 받음(2016.02)
  - 튀르키예 보건부와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의 병원 건설 PPP 사업 관련 제안
    - EBRD는 입찰이 예정된 프로젝트에 금융투자자-건설-병원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 기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의료시스템 부분\*\*에 참여 제안
      - \* Mersin(1260병상), Bilkent(3800병상)등의 O&M을 담당하고 있는 Bozlu와 협업 체계구상
      - \*\* 튀르키예 보건부와 제안한 것과 같이 경영 컨설팅, 조달, 일부 임상영역 등에 참여
  - 튀르키예 PPP 병원 진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 (평가) 튀르키예 보건부, EBRD의 제안내용에 의하면, 튀르키예 병원건설 PPP 사업은 사업성과 투자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 튀르키예 보건부는 본 사업에 대한 재무보증, EBRD 대출 및 금융 자문 제공 예정으로 투자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출처: 튀르키예 보건부, Updated: 06/02/2018)

○ 튀르키예 보건부 병원 PPP 관련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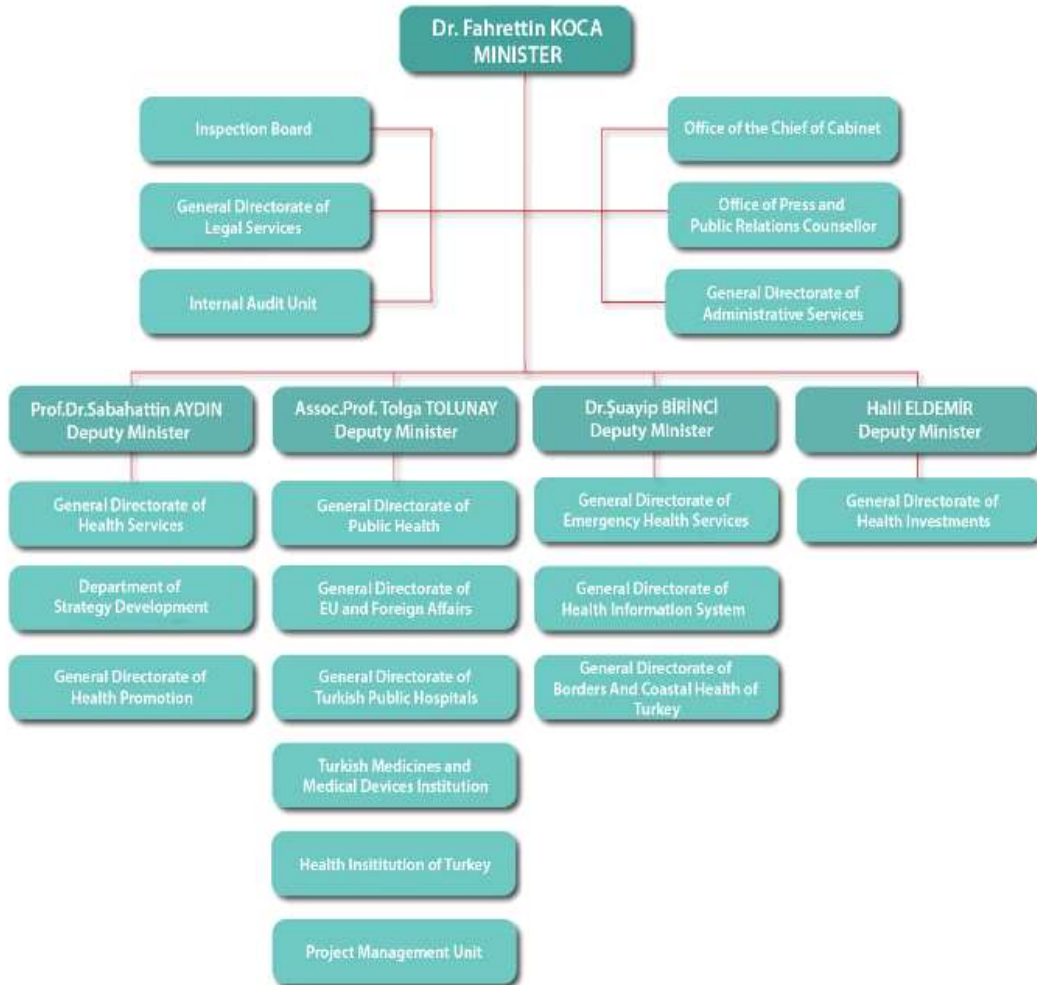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saglik.gov.tr/EN,15609/ministerial-organization.html>)

- PPP 이사회 부장(General Manager, PPPs Directorate)
- PPP 부서장 (Department head for PPPs)
- 금융 전문가(Finance Expert)
- 금융 및 법 부서장(Head of Finance and Law)
- 보건부 컨설팅 및 관리부 부서장(Head of consultancy and controlling, MOH)
- 의료부장(Head of Medical Department)





**CENTRAL ORGANIZATION WORK DISTRIBUTION**



Updated: 19/04/2022

**<튀르키예 보건부 조직도>**

- 튀르키예 보건부의 PPP 병원 사업 참여에 대한 제안 내용
  - 직접투자자, 재무투자자(FI)로 참여 : 지분 투자, 2016.4. 기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10개가 필요하며, 한국 금융자본의 투자 제안
  - \* 2016.04 기준 튀르키예 PPP 병원사업 중 금융계약을 체결한 병원은 17개이며, 정부의 재무보증, IFI(국제금융기관)·EBRD와 협업체계로 사업성이 확보된 상태

- \* 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국제금융기관)이며, IMF, World Bank 등 지역의 경제 성장과 경제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적인 금융기관
- \* 금융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FI 참여보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금융투자자 - 건설-병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권유
- 의료장비 경제특구(Medical Free Zone)참여 제안: 2013년 채택된 법규에 의하면 PPP로 건설되는 병원의 의료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20% 이상이 튀르키예 국내 생산품을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한국 의료기기 장비 업체가 튀르키예의 의료장비 경제 특구에서 제조, 판매, 개발, 보수하며 PPP 건립 병원에 공급을 제안함
- \* 의료장비 경제특구는 2017년까지 4개 지역에 설치하고 2023년까지 10개 지역에 설립할 계획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혜택 수여될 예정 (KOTRA 자료)
- \* 튀르키예 보건부는 PPP 병원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기 구매계획 진행중에 있음
- 병원컨설팅 참여: 한국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및 물류 구매 컨설팅, 병원 O&M 관련 컨설팅, O&M 등에 참여를 제안함
- \* 외국자본이 O&M 참여한 케이스는 Adana, Elazig 병원의 르네상스(튀르키예 건설) :메르디안(프랑스)
- 대형병원 운영 참여 제안: 튀르키예에는 현재 공공 대형병원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며 PPP 병원 사업은 대형 병원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관계로 한국의 대형 병원 운영 노하우에 관심이 있음
- \* 현재 공사중이거나 금융계약 체결중인 16개의 병원 중 4곳(Konya, Yozgat, Ispara, Manisa)을 제외한 병원이 1,000병상 이상인(평균 1,896 병상) 대형병원임
- O&M 참여제안: 재무투자자(FI) 또는 대출자로 사업에 참여할 시 의료 관련 컨설팅 및 O&M 동반진출을 제안함

- EBRD(유럽개발부흥은행)의 튀르키예 PPP 병원 사업 참여 제안
  - 발주 예정인 프로젝트에 재무적 투자자, 건설사, 의료기기회사, 병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를 제안함
  - \* EBRD는 한국이 재무적 투자자-EPC시공회사-병원 O&M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하여 협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음
  - 튀르키예 보건부는 공공 대형 병원 경영 경험이 적으며 EBRD는 튀르키예 보건부가 한국의 대형·공공병원 경영 노하우 컨설팅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

- 한국이 병원 O&M을 수주할 경우 수익 보장을 위해 지불 구조논의
  - (튀르키예 보건부) 병원 운영단계에서 처음 6개월을 적응기간(Learning Curve)으로 지정하여 병원 O&M 서비스 수준이 핵심성과지표(KPI) 목표 미달 시 서비스 지급금액이 차감되는 것을 방지함
  - (EBRD) 현재로서는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나 이후에 사양(Specification)이 활발하게 개발될 것
  - (합의) 병원 O&M 영역은 5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게 market testing\*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함
  - \* Market testing : 의료기자재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시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EBRD는 PPP 계약 이행 ·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담 조직 운영 계획
  
- 한국의 금융자원 투자 방법 및 리스크 경감 방안에 대한 EBRD 의 제안
  - S&P 등급은 ‘A-’ 이상인 국제상업은행은 EBRD의 검토 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가 가능함
  - \* 가지안텝 PPP 프로젝트에서 삼성생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 공사는 B-lender\*로 참여한 경험이 있음(2016.04 현재 금융계약 중)

- B-lender\*로 참여할 시 EBRD의 재무리스크 경감방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 환차 리스크, 물가변동 리스크, 보건부 계약 파기나 채무불이행 시,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보상 등
- \* EBRD의 A/B Loan
  - (정의) A/B Loan Agreement에 대주는 EBRD가 대표로 나서되, 대출자금 일부를 국제상업은행이 참여하도록 함. EBRD의 부담분(A-Loan)을 제외한 국제상업은행 부담분을 B-Loan이라고 함
  - (장점) EBRD측은 대출 리스크(Default Risk)를 관리, 가용자금 조달을 확대/다양화, 대출 수익률을 보장, 금융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 등을 이행
  - 튀르키예 보건부는 여러 상업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 가지만텝 PPP 사업 지연 이유에 관하여
  - 튀르키예 보건부의 PPP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발주된 모든 프로젝트(가지만텝 포함)의 수익성 (bankability) 보장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
  - 2014년 Adena 프로젝트가 처음 금융계약을 한 이래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었고, 가지만텝도 금융계약 진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 계속되는 PPP 법령 개정, 튀르키예 보건부 실무진이 PPP 사업에 대한 지식, 경험 부재로 인하여 사업 지연
  - 금융계약 이전에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자체 자본으로 공사를 시작하나 외국 업체들에게는 적용되기 불가능함
  - 특히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국내 대형 건설 업체는 튀르키예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음
  - \* 튀르키예 건설사는 한국 건설사보다 가격 경쟁력 높으며 삼성물산 가지만텝 프로젝트도 상당부분 튀르키예 하청 업체가 건설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 튀르키예 보건부가 PPP 사업 관련하여 추진 중인 정책 문의  
 Q1. 튀르키예의 대형 인프라프로젝트 중심의 건설산업육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논의

A1. 튀르키예 개발부는 2016년부터 정부 사업들을 PPP 모델 (BOT, BTL)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시작, 튀르키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재정보증을 조건으로 제시함

\* PPP 법령 개정과 더불어 BTL과 BOT사업 모델들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수정들이 잘 진행되어 지금은 정부와 민간업체 차원의 사업 참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됨

- (튀르키예 사업 문화) 튀르키예 보건부 및 비즈니스 문화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유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한국의 대형 건설 회사는 내부 규율에 준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대형건설회사의 참여는 어려울 수 있음

→ 유연성이 있는 한국 중견 건설사의 투자, 건설개입을 추천

○ 2016 이스탄불 소재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면담

- 발주 후 금융조달 방식에서 선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한 PPP사업으로 변화, 국내외 상업금융기관 등 민간참여 및 프로젝트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
- KEXIM은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해 금융 자문 및 주선, PPP 사업에 대한 복합금융 제공(SPV 또는 참여기업 앞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자금 또는 기타 수출금융 지원)

○ 튀르키예 PPP 병원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이해

- 튀르키예 PF 신용평가 시 주요 검토 사항은 프로젝트 내용, 경제성, 완공위험 및 운영위험, 현금흐름, 민감도, 정부의 책임 의지, 부의 정치적 위험, 재정의무 사항 보증, 대출관련 출자자의 의무, 기술적 평가, 법적 분쟁 리스크, EPC 공사 및 구매(조달), 보험 관련 리스크 등이 있음
- 현재 튀르키예 정부의 책임 의지 높으며 정치적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튀르키예 PPP 병원 사업 관련 질의응답

Q1. 튀르키예 PPP 병원 건축 프로젝트의 60개 병원은 수요-공급예측에 벗어난 숫자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A1. 현재 4만개 목표 병상은 기존 2만6천 병상, 신규 1만4천에 해당함  
기존 병상은 Quality Beds로 충족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게 신규 PPP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이동 후 OECD 평균 병상 수와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Q2. 새로 건설하는 병원에 공급될 의료진 충당 방법

A2. 현재 튀르키예 정부는 간호대학, 의과대학에 많은 지원 중이나  
경험 부족 인력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 있음  
- 외국인 의사는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국가에서  
의대생이 연수를 오기는 하나, 튀르키예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아, 튀르키예 의료 교육과정을 재이수해야 함

Q3.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노력

A3. 벨라루스, 러시아 의료 관광객이 튀르키예 공공의료 서비스를  
찾고 있으며 벨라루스, 러시아 현지 보험수가의 3배를 받지만  
튀르키예 민간 병원수가의 2/3이므로 수요가 있음

Q4. 병원정보화 시스템 정도

A4. 보건부의 노력에 따라 EMR\*, PACS\*\*는 매우 보편화되어있음

\*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병원에 내방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존 종이에 기록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의무기록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PACS는 의학용 영상 정보의 저장(Archiving),  
판독 (Reading) 및 검색(Viewing)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2016 튀르키예 Healthcare PPP Summit 컨퍼런스 참여 결과  
- 병원 PPP 사업 임대형 (BLT, Built-Lease-Transfer) 모델로 1만  
5천여 병상을 새로 공급하기로 결정

**<신규 병원 건축 목표 병상 수>**

순번	사업명	개	병상수
1	재활병원(Rehabilitation Hospital)	16	2,750
2	정신과병원(Psychiatry Hospital)	9	1,298
3	높은 보안 법의학 정신과 병원 (High Security Forensic Psychiatry Hospital)	15	1,700
4	재소자병원(Hospital for Prisoners)	1	50
5	이스탄불 산카테페시 병원 (Istanbul Sancaktepe City Hospital)	1	3,800
6	이스탄불 바삭세히르시 병원 (Istanbul Basaksehir City Hospital)	1	2,682
7	그 외 지역병원	9(추정)	2566
합 계		52	14,846

- 민간이 금융 조달, 프로젝트 관리, 설계 및 시공, 건설, 병원 시설 유지 관리, 비임상 병원경영을 담당하며 공공(튀르키예 보건부)은 임상 서비스와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형태
- 사업설계 및 건설 기간은 3.5년이며 25년 운영 후에는 보건부에 소유권 이전
- 현재 17개의 사업이 계약 또는 건설 단계에 있으며, 7개의 입찰 예정 프로젝트가 있음
- 튀르키예 보건부는 지진 대비 내진 설계된 병원 건물 건설, 스포츠센터, 육아 보육원이 제공될 수 있는 의료 복합 단지 제공을 목표로 함
- 정부는 PPP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도입, 민간은 정부와 협력해서 프로젝트 관리 및 인프라 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

○ 국제금융기관(IFI) 향후 대출 계획 및 정책 변화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는 튀르키예 정부와 2013년부터 정책 협의 등을 통해 보건부와 튀르키예 병원 PPP사업 체계, 수익성 향상, 금융계약 컨설팅 지원, 정책 수립, PPP 사업 타당성 조사(Value for Money), 사업 모니터링, 전문팀 실사 등에 대해 지원
- 또한 튀르키예 병원 PPP 사업 모든 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보건당국의 장기적, 지속 가능한 예산 집행을 확인(비용 지급을 위해 재무 건전성 평가)
- 아울러 EBRD는 튀르키예 PPP 병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8개의 병원에 총 6억 유로 투자를 승인
- \* EBRD가 대주로 참여한 사업 중 3개의 프로젝트가 금융계약을 체결함, 총 3.15억 유로 대출, 3.11억 유로는 국제금융기관의 B-lender 형태로 조달 가능하게 함

### <EBRD 투자 승인 병원사업(8개)>

PIPELINE						
SERVICES	SPONSORS	BED CAPACITY	EBRD TICKET SIZE	LENDERS GROUP	SIGNING	
Adana Hospital PPP	Rönesans Meridiam Şam Sila	40% 40% 10% 10%	1,550	€115 m	EBRD, IFC Commercial Banks	2014 Dec Signed
Etilik Hospital PPP	Astaldi- Turkerler	51% 49%	3,560	€125 m	EBRD, IFC BSTDB, SACE Commercial Banks	2015 June Signed
Elazig Hospital PPP	Rönesans Meridiam Şam Sila	40% 40% 10% 10%	1,038	€60 m	EBRD, Commercial Banks	2015 Expected
Konya Hospital PPP	YDA	100%	838	€75 m	EBRD, BSTDB, IsDB, Commercial Banks	2015 Dec signed
Izmir Hospital PPP	Gama Turkerler GE	45% 45% 10%	2,060	€75 m	EBRD, OPIC, EDC, Commercial Banks	2016 expected
Kocaeli Hospital PPP	Gama Turkerler GE	45% 45% 10%	1,185	€50 m	EBRD, OPIC, EDC, Commercial Banks	2016 expected
Gaziantep Hospital PPP	Samsung C&T Salini Kayi	29% 35% 35%	1,860	€50 m	EBRD, EIB, KEXIM, K-SURE Commercial Banks	2016 expected
Eskisehir Hospital PPP	Akfen	100%	1,060	€50 m	EBRD, Commercial Banks	2016 expected
<b>TOTAL</b>			<b>13,151</b>	<b>€600 m</b>		

(출처: EBRD)

- PPP 병원사업의 최적화 방안 논의(병원 건설 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려할 점)
  - 운영 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 PPP 병원 중 운영 단계인 사업이 없어 (대부분 공사 또는 금융 계약 단계) 현재로서는 리스크 예측 및 경감 방안 마련 중
  - (SPV 협업체계) SPV 구성원이 O&M 계약 업체, 비임상 서비스 제공업체의 PPP 사업 능력에 대하여 검증, 협력 체계를 구성
  - (기술) 병원 운영에 적합한 건축 설계, 시공하였는지 평가함
    - \* 건축 방법, 건설 마일스톤에 맞는 시공, 장비 설치, 시범 가동, 건물 주변 교통 및 환경, 철거 및 유해물질 관리 등을 고려함
  - (재무 구조) 보건부는 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리스크료, 서비스료)을 지급해야 하며 서비스 지표 사양 확립, 지표 미달 시 차감되는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적절한지 평가



- (Life-cycle 관리) 병원 건물과 의료기기를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 감가상각 적용, life-cycle 관리를 포함.
- (서비스 관리) 서비스 관리를 위한 지표를 개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계획, 인력계획, 인력 교육, 리스크 예측, 리스크 경감 방안을 마련.
- (O&M 계약 관리) O&M이 여러 계약 업체를 통하여 제공될 경우 Interface Agreement를 통하여 협업 체계를 구축함
- (환자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통하여 환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조사함

○ O&M 최적화를 위한 방안 연구

- SPV는 General Services Company를 통하여 건물관리, 자재관리, 청소, 보안, 주차, 침구, 폐기물, 식당, 세탁, 폐기물 처리, 가구 납품, Help Desk를 관리하며 Clinical Support Services 회사를 이용하여 영상, 물리치료, 병리진단, HIMS, 소독을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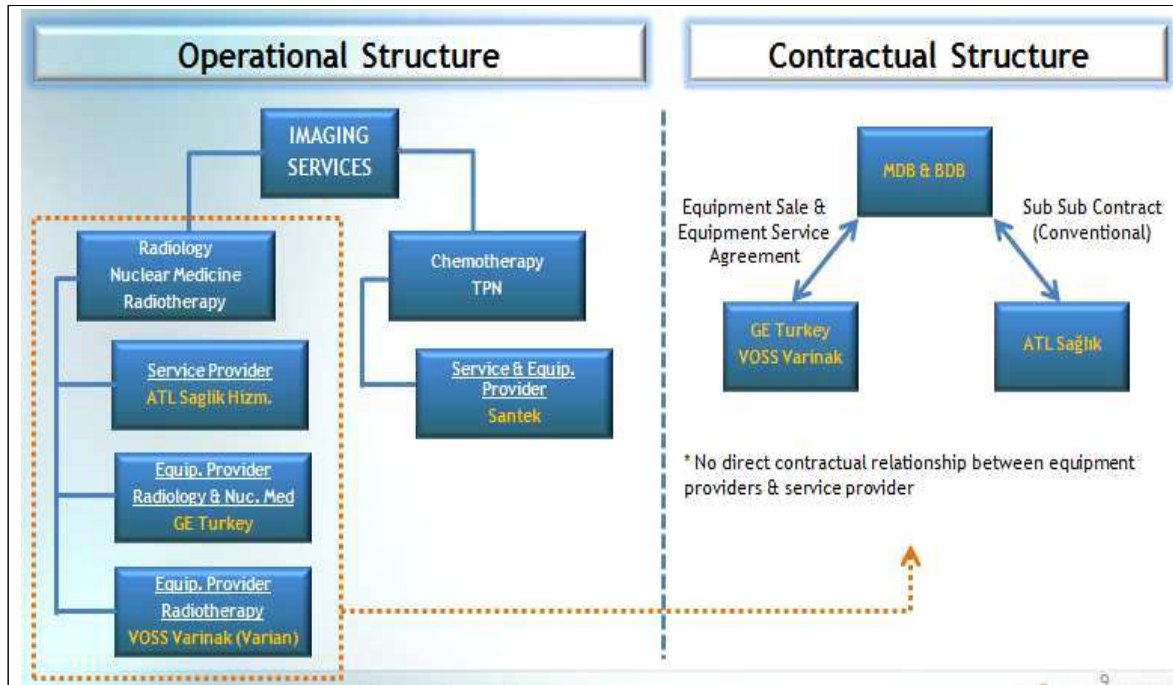
(출처 : Mersin Integrated Health Campus, Bilkent Integrated Health Campus 등의 O&M을 담당하게 될 O&M 전문 회사 Bozlu)

- 영상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의료장비, 기기조달 및 관리하는 경우가 드물어, 장비의 조달과 서비스를 서로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계획함 (2016년4월 기준 / 출처 : O&M 전문 회사 Bozlu)
- 건설 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O&M 회사는 입찰 준비 단계부터 SPV에 O&M 관련 컨설팅을 제공함

\* (설계단계) 병원설계단계에서 임상서비스 동선, 효율적인 O&M 활동을 위한 자문 제공

\* (건설 단계) 의료기기 조달 지원 및 구매, 의료기기 구매 계획에 관한 자문, 의료 인력교육 및 계획, 이외 효율적인 임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O&M 관련 리스크 경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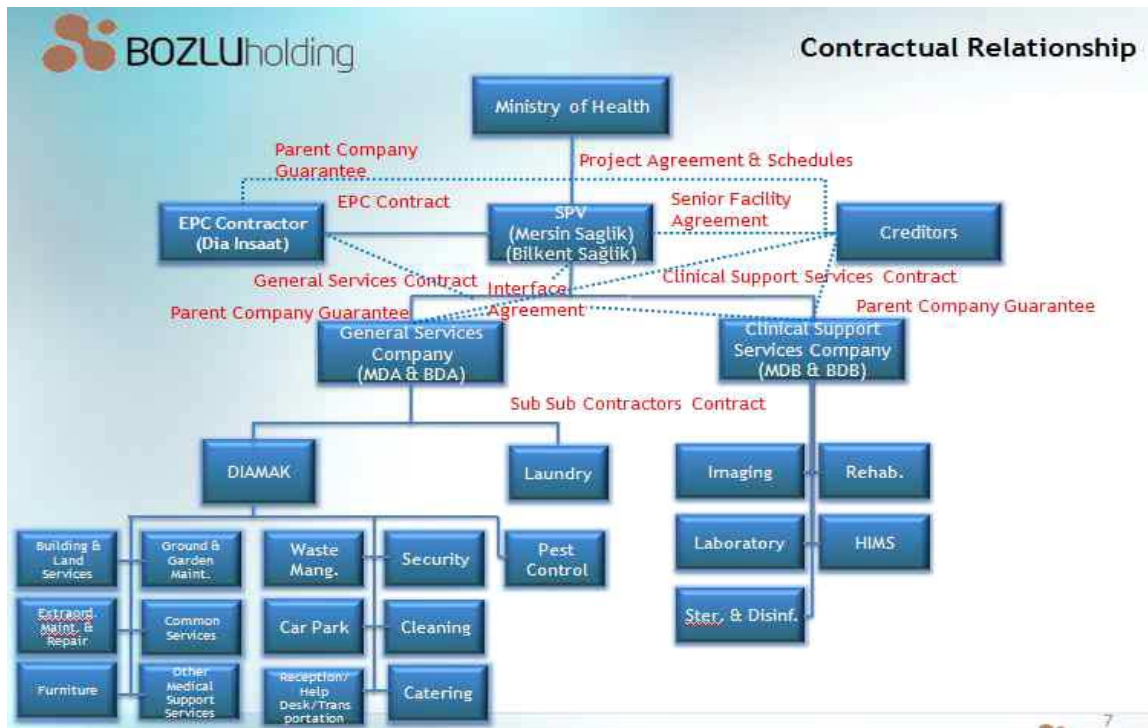
○ 법률 업데이트 및 튀르키예 의료 PPP 사업 최신 법적 프레임워크 소개



- 2014년까지 지속적인 PPP 법령개정으로 인해 금융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으나 2016년 이후 법령개정이 활발해짐
  - 튀르키예 정부는 2008년 이후 PPP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PPP 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튀르키예 보건부의 PPP경험, 노하우 부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됨
  - 사업을 수주한 SPV가 변호인단을 통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따라 법령개정도 이루어짐
  - 튀르키예 개발부는 2016년부터 정부사업을 PPP 모델로 적용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시작했으며 개발도상국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리스크에 대비하고 정부 금융보증 조건을 제시함
- (현황) 현재 PPP 법령개정과 더불어 BTL과 BOT사업모델들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수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PPP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법령개정과 금융계약 체결 이전 튀르키예 건설업체 출자로 착공하는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이 있으나 이는 외국업체들은 불가능하며 국제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음

- 튀르키예 정부는 PPP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체들과의 계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인력 부재(현재 외부 업체가 담당)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 계약전문팀이 필요
- 튀르키예 정부는 PPP병원 사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PPP 법령이 수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으며 향후 성공적인 PPP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튀르키예 계약관계 도식



### □ 결론 및 시사점

- 튀르키예의 PPP 병원 건립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확인
  - (현황) 금융계약 체결을 위한 활발한 법 개정, 정부, EBRD의 노력이 있으며 병원 O&M 및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움직임 시작
  - (예정 사업) 7개의 사업이 입찰 예정
- 한국 의료 및 금융, 건설 시스템 참여 방안 모색
  - 튀르키예 정부는 재무적 투자(FI, 국제상업은행 B-lender)를 전제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진출을 제안함
  - 재무 계약(금융종결, financial closing) 진행 중인 프로젝트보다 입찰 예정 프로젝트에 금융투자자-건설-병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권유

- 기존 진행 중 프로젝트에 의료시스템 부분(경영 컨설팅, 의료기기 조달, 일부 임상영역 등)의 한국 의료기관 참여가능성 있음
- \* Ronesans, Bozlu 등 튀르키예의 병원건설투자 회사들은 1,000병상 이상의 운영경험이 많은 한국의료기관의 운영컨설팅 및 의료정보시스템(HIS)에 관심 표명
- \*\* 병리진단서비스, 영상의학, 소독, 재활의학 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 향후 계획

- 튀르키예 PPP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금융기관, 건설사, 의료기기 업체, 병원 대상 간담회 및 사업 참여 타당성 조사 필요
- 튀르키예 보건부 및 사업 관계자 10여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 의료산업 전반, 병원시설, 병원정보시스템, 대형병원 투어 계획
- 튀르키예 PPP 사업 진출 희망 기업, 의료기관의 튀르키예 방문 및 현지 실사(예정)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튀르키예 병원 PPP 사업 참여를 위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2016.04.)


## 2 해당 기관별 Key Person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abinet\\_of\\_Turkey](https://en.wikipedia.org/wiki/Cabinet_of_Turkey))


### □ 대통령

성명	Recep Tayyip Erdogan (레셉 타입 에르도안)	
생년월일	1954년 2월 26일 이스탄불 Kasimpasa 출생	
교육	Marmara 대학 경제경영학과 졸업	
업무 경험	<a href="#">Recep Tayyip Erdoğan - Wikipedi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대 대통령(2014년 8월 28일부터)</li> <li>○ 정의개발당 대표(2001~2014, 2017~현재)</li> <li>○ 총리(2003-2014)</li> <li>○ 이스탄불 시장(1994-1998)</li> <li>○ 정의개발당 창당(2001)</li> </ul>	

### □ 부통령

성명	Fuat Oktay	
생년월일	1964년	
교육	Cukurova 대학 경영학(1985년 졸업), 미국 디트로이트 Wayne State 대학 경영 및 제조공학 석사, 산업공학 박사(자동차공학 및 통신 전공)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실 차관(2016~2018)</li> <li>○ Beykent대학 부학장, 관리부장</li> <li>○ 국영 및 민간 회사 컨설턴트 및 고문(부장)</li> <li>○ 튀르키예 항공 판매영업부 및 전략기획 사업개발부, 정보기술부(차장)</li> <li>○ 튀르키예항공 우주산업 이사회 임원, 투르크 텔레콤 부사장</li> <li>○ 재난 및 응급관리 회장</li> </ul>	

□ 법무부 장관

성 명	Bekir Bozdog	
생년월일	1965년 4월 1일 Yozgat주 Akdagmadeni출생	
교 육	Uludag대학 이슬람이론 학사, 기독교 사상역사 석사, Selcuk 대학 법학 학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르드계 정치인</li> <li>○ 변호사</li> <li>○ 국회의원 4선</li> <li>○ 부총리</li> </ul>	

□ 가족사회보장부 장관

성 명	Derya Yanik	
생년월일	1972년 Osmaniya 출생	
교 육	이스탄불대학 법학 학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 변호사</li> <li>○ 이스탄불 시의회 여성 최초 의장</li> <li>○ 이스탄불 부시장</li> <li>○ 여성 민주재단 이사</li> <li>○ 정의개발당 당원, 중앙결정집행위 위원</li> </ul>	

□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b>성 명</b>	Vedat Bilgin	사진 없음
<b>생년월일</b>	1954년 9월 22일 Bayburt주 Aydintepe 출생	
<b>교 육</b>	Hacettepe대학 사회관리학 학사, 이스탄불대학 경제학 석사 및 박사	
<b>업무 경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학자</li> <li>○ 작가, 관료, 예술원 회원, Gazi대학 노동경제학부장</li> <li>○ 영국 요크대학 박사후 연구원, 미시간대학 객원 교수</li> <li>○ 총리 고문, 국영철도회사 사장</li> </ul>	

□ 환경도시화부 장관

<b>성 명</b>	Murat Kurum	
<b>생년월일</b>	1976년 앙카라 출생	
<b>교 육</b>	Selcuk대학 토목공학 학사	
<b>업무 경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지니어</li> <li>○ 기술 관료</li> <li>○ 건설현장 소장, 기술 코디네이터 근무</li> <li>○ 대량주택개발관리 앙카라 이행부서 전문가</li> </ul>	

□ 외교부 장관

성 명	Mevlut Cavusoglu	
생년월일	1968년 2월 5일 Antalya주 Alanya 출생	
교 육	앙카라대학 정치학 학사, 뉴욕 롱아일랜드대학 경제학 석사, 앙카라 Bilkent대학 박사과정 수료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관, 정치인</li> <li>○ 국회의원</li> <li>○ 정의개발당 창당회원</li> <li>○ 유럽의회 의장</li> </ul>	

□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성 명	Fatih Donmez	
생년월일	1965년 Bilecik 출생	
교 육	Yildiz 기술대학 전자공학 학사, 경영학 석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지니어, 정치인</li> <li>○ 이스탄불시에서 관리하는 IGDAS 부사장, 이사회 임원</li> <li>○ 에너지천연자원부 차관</li> </ul>	




□ 청소년스포츠부 장관

성 명	Mehmet Kasapoglu	
생년월일	1976년 12월22일 이stanbul 출생	
교 육	Marmara대학 경영학 학사, 지방행정분권 석사,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아틀란틱 대학 경영학 학사, 이스탄불대학 지방고용 박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전문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li> <li>○ 비정부조직 근무</li> <li>○ 민간회사 국제무역부 근무</li> <li>○ 총리 고문</li> <li>○ 노동사회,국립교육,청소년스포츠부 근무</li> </ul>	

□ 재무부 장관

성 명	Nureddin Nebati	
생년월일	1964년 1월1일 아랍계, Sanliurfa주 Viransehir출생	
교 육	이스탄불대학 정치학, 공공행정학사, 이스탄불대학 국제관계석사, Kocaeli 대학 박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개발당 당원</li> <li>○ 국회의원</li> </ul>	

□ 내무부장관

성 명	Suleyman Soylu	
생년월일	1969년 11월21일 이stanbul 출생	
교 육	이stanbul대학 경영학 학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li> <li>○ 정의개발당 부대표</li> <li>○ 노동사회보장부 장관</li> </ul>	

□ 문화관광부 장관

성 명	Mehmet Nuri Ersoy	
생년월일	1968년 이stanbul 출생	
교 육	이stanbul대학 경영학 학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가</li> <li>○ 관광회사 설립운영</li> </ul>	

□ 국가교육부장관

<b>성 명</b>	Mahmut Ozer	
<b>생년월일</b>	1970년 5월5일 Tokat 출생	
<b>교 육</b>	이스탄불기술대학 전자통신공학 학사, Karadeniz 기술대학 전기전자공학 박사	
<b>업무 경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laman 공항 전자엔지니어 근무</li> <li>○ 국가공항청 이사</li> <li>○ 대학 교수, 부총장, 총장</li> </ul>	

□ 국방부 장관

<b>성 명</b>	Hulusi Akar	
<b>생년월일</b>	1952년 3월 12일 Kayseri 출생	
<b>교 육</b>	튀르키예 군사아카데미 졸업, 튀르키예보병학교 졸업,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퀸즈대학 국제외교 석사, 중동기술대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앙카라대학 국제관계학, Bogazici 대학 정치학 박사	
<b>업무 경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군 사령관 군사보좌관</li> <li>○ 공보장교, 육군 사령관, 소장, 중장, 육군 군수 사령관, 육군 참모차장</li> <li>○ 지상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li> </ul>	

□ 보건부 장관

성 명	Fahrettin Koca	
생년월일	1965년 1월2일 Konya주 Kulu 출생	
교 육	이stanbul대학 의학, 의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과의사, 정치인</li> <li>○ 소아과 의사, 보건기관 의사, 의료 지도자</li> <li>○ Istanbul 메디폴대학 이사회 의장</li> </ul>	

□ 산업기술부 장관

성 명	Mustafa Varank	
생년월일	1976년 1월1일 Trabzon 출생	
교 육	양키라 중동기술대학 정치공공행정학 학사, 플로리다 주립대학,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 컴퓨터공학사, 인디애나대학 석사	
업무 경험	○ 연구원, 시스템 엔지니어	

□ 농업산림부 장관

성 명	Vahit Kirisci	
생년월일	1960년 12월4일	
교 육	Cukurova대학 농업학 학사, 영국 Cranfield대학 박사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li> <li>○ 농업농촌업무부 기술직 관료,</li> <li>○ Cukurova대학 부교수, 교수, 저자, 비정부기구 활동</li> <li>○ 국회의원 2선</li> </ul>	

□ 무역부 장관

성 명	Mehmet Mus	
생년월일	1982년 5월1일	
교 육	자료 없음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 경제학자</li> <li>○ 이스탄불 의회 부의장</li> </ul>	

□ 교통인프라부 장관

<b>성 명</b>	Adil Karaismailoglu	
<b>생년월일</b>	1969년 Trabzon 출생	
<b>교 육</b>	Karadeniz 기술대학 기계공학사, Bahcesehir 대학 석사	
<b>업무 경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 엔지니어, 공무원</li> <li>○ 이스탄불 시청 교통조정부 근무, 시청 도시버스회사 엔지니어 근무</li> <li>○ 이스탄불 시장 사무국장 보좌관</li> <li>○ 교통인프라부 차관</li> </ul>	

주)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Ulaştırma ve Altyapı Bakanlığı, UAB)는 교통, 정보통신 서비스를 책임지는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 부처실. 교통인프라부 본사는 앙카라에 있음

□ 교통인프라부 중앙총국 및 부서(Central Directorates-General and Departments)

연번	부서
1	교통서비스 규제총국 (Directorate-General of Transport Services Regulation, DGTSR)
2	해양총국(Directorate-General of Maritime Affairs, DGMA)
3	조선소 및 해안구조물 총국(Directorate-General of Shipyards and Coastal Structures, DGSCS)
4	통신총국(Directorate-General of Communications, DGC)
5	인프라투자총국(Directorate-General of Infrastructure Investments, DGII)
6	유럽연합업무 및 외교관계총국(Directorate-General of European Union Affairs and Foreign Relations, DGEUFR)
7	법무서비스 총국(Directorate-General of Legal Services)
8	인사총국(Directorate-General of Personnel)
9	전략개발부(Strategy Development Department)
10	검사서비스부(Inspection Services Department)
11	교통, 해사업무 및 통신연구센터(Directorate of Transport, Maritime Affairs, and Communications Research Center, DoTMCRC)
12	교통안전조사센터(Directorate of Transport Safety Investigation Center, DoTSIC)
13	리볼빙펀드부(Revolving Funds Department)
14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ies Department)
15	지원서비스부(Support Services Department)


연번	부서
16	내부감사실(Internal Audit Office)
17	언론홍보실(Office of Press and Public Relations)
18	개인비서실(Office of the Private Secretary)

□ 자회사, 산하 및 관계기관(Subsidiaries, Affiliated and Related Institutions)

연번	부서
1	고속도로총국(Directorate-General of Highways, DGH)
2	민간항공총국(Directorate-General of Civil Aviation, DGCA)
3	튀르키예국영철도총국(Directorate-General of Turkish State Railways, DGTSR)
4	국영공항청총국(Directorate-General of State Airports Authority, DGSAA)
5	튀르키예우편회사총국(Directorate-General of Turkish Post Company)
6	해안안전총국(Directorate-General of Coastal Safety)
7	정보기술통신청(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 Authority)
8	Turksat 위성 통신 및 케이블 TV 운영 회사(Turksat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Cable TV Operations Company)

□ 보건부

○ 보건부 차관

<b>성 명</b>	PROF.DR. SABAHATTİN AYDIN (사바하틴 아이딘 교수, 박사)	
<b>생년월일</b>	1959년 Bolu주 Göynük 출생	
<b>교 육</b>	이스탄불대학 의과대학 졸업, Trakaya대학 의과대학 비뇨기과 전공의	
<b>업무 경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5~1987년 국가교육부 산하 Gümüşhane Health Education Center에서 개업의사</li> <li>○ 1992 ~ 1994년 Sakarya Geyve State Hospital에서 전문의</li> <li>○ Yüzüncü Yil대학 조교수(1994), 부교수(1996), 교수(2003)</li> <li>○ 부주임 의사, 부서장, 외과학과장, 부학장을 역임. 2003년에 임상 미생물학 박사 학위 취득</li> <li>○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스탄불 메트로폴리탄 시의 의료 서비스 국장 역임</li> <li>○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부 차관</li> <li>○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에서 튀르키예를 대표</li> <li>○ 2010년부터 이스탄불 메디폴 대학교 총장을 역임, 2020년 11월 18일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li> </ul>	

○ 보건부 산하 기관

연번	기관명
1	검사위원회(Inspection Board): Davut EKER
2	언론 및 홍보 상담관실(Office of Press and Public Relations Counsellor): Gözdenur KIRIŞÇIOĞLU
3	법률서비스 총국(General Directorate of Legal Services) Av. Hüseyin DÜNDAR
4	내부감사부서(Internal Audit Unit): Emin UYAR
5	튀르키예 보건기관(Health Institution of Turkey): Prof. Dr. Erhan AKDOĞAN
6	전략개발부(Department of Strategy Development):Engin KARABAŞ
7	응급보건서비스 총국(General Directorate of Emergency Health Services): Dr. Eray ÇINAR
8	보건촉진총국(General Directorate of Health Promotion): Prof. Dr. Mustafa TAŞDEMİR
9	행정서비스총국(General Directorate of Administrative Services): Mehmet İSLAMOĞLU
10	보건투자총국(General Directorate of Health Investments): Hüseyin İNCEÖZ
11	보건정보시스템(General Directorate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Dr. M. Mahir ÜLGÜ
12	EU 및 외무총국(General Directorate of EU and Foreign Affairs): Dr. Selami KILIÇ
13	보건서비스총국(General Directorate of Health Services): Prof. Dr. Ahmet TEKİN
14	튀르키예 국경 및 해안 보건총국(General Directorate of Borders And Coastal Health of Turkey): Dr. Osman KAN
15	튀르키예 의학 및 의료장비기관(Turkish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Institution): Dr.Tolga KARAHAN
16	튀르키예 공공병원총국(General Directorate of Turkish Public Hospitals): Dr. Avni Uygur SEYHAN
17	공공보건총국(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Health): Doç. Dr. Fatih KARA

(출처: 튀르키예 보건부, Updated: 2021.11.12.)



### 3 현지 Developer 현황

#### 가. 튀르키예 Developer

오늘날, 튀르키예의 건설회사들은 지역과 세계적인 수준에서 최고의 회사와 부문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자들은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경쟁함

##### (1) 튀르키예 Yapi Merkezi 그룹

- 1965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탁심에 설립된 야피 메르케지 홀딩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에 주요 활동 분야를 가진 그룹회사
- 야피 메르케지 그룹의 제일 큰 회사인 야피 메르케지 건설과 산업은 다양한 건축, 철도 시스템 및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함
- 1980년대 이후 이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 수단, 에티오피아, 슬로베니아 등에서 공사계약을 수행함
- 교통 시스템, 철도 시스템, 터널, 교량, 도관, 산업 및 일반 서비스 빌딩, 대규모 주택, 도시계획, 물 수집 및 공급 시스템, 복구공사, 수리 및 보강 공사 등의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 프로젝트를 수행함

- 건축실적 : 마르마라(Marmara) 포럼 쇼핑센터, 시슬리(Sisli) 플라자, 안카말(Ankamall) 쇼핑센터, 212 쇼핑센터, 수단 와हत 알 카르툼(Sudan Wahat Al Khartoum) 쇼핑센터, 예드파(Yedpa) 무역센터, 노바티스(Novartis) 제약 플랜트, 로체(Roche) 제약 플랜트, 프리토레이(Frito-Lay) 공장, 덴소(Denso) 공장, 이식(Isik) 대학 캠퍼스, 아르케온/투스칸 밸리/소쿨루 하우스, 클럽 아쿠아마린 홀리데이 빌리지, 보스포러스 포시즌즈 호텔 등
- 운송(교통) 시스템 실적 : 유라시아 터널, 두바이 메트로, 앙카라-콘야 고속철도, 이즈미르 메트로, 카바타스-탁심 푸니쿨라, 카디코이-카르탈 메트로 시스템, 카이세리 트램웨이, 에스키세히르 트램웨이, 부르사 경전철 시스템, 카사블랑카 트램웨이, 이스탄불 메트로, 이스탄불 노스탈직 트램, 안탈야 트램웨이, 이스탄불 현대 트램, 엘살바도로 산 살바도르 메트로, 세티프 트램웨이, 탄자니아 표준궤 철도, 다르에스살람-모로고로, 모로고로-마쿠투포라, 니카라과 마나과-레온-코린토 철도, 니카라과 마나과-마사야산 후안 델 수르 철도, 에티오피아 아와쉬-웰디아 철도, 슬로베니아 디바카-코퍼 고속철도 등
- 교량실적 : 수단 엘 맥 님르 교량, 수단 알 할파이아 교량, 소곳루세스메와 메르테르 철도 교량 등 실적을 보유함

## (2) LIMAK GRUBU

- 리막 그루브(리막 그룹)는 공항, 항만, 고속도로, 댐, 발전소, 산업 및 호텔 시설, 식품 시설, 파이프라인 등을 포함한 모든 인프라 및 상부 구조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 회사임
  - Limak은 9개 분야(에너지, 관광, 식량, 건설, 인프라 등)에서 운영중인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적인 회사로 본사는 튀르키예에 위치함
- 1976년에 설립된 Limak 건설은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시공회사이며, ENR(Engineering News-Record) 250대 국제 건설회사에 해당함
  - 모든 인프라 및 건조물 프로젝트에 전문화 되어 있음(공항, 항만, 고속도로, 댐, 수력발전소, 처리 플랜트, 공장, 산업 플랜트, 식량 설비, 파이프라인, 다용도 복합 구조물, 호텔 등).
-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로 이스탄불 공항 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로, 50만㎡가 넘는 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축물로 선정된 사비하 공항이 있음
  - 이 회사는 애초에 튀르키예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항 건설로 알려짐
    - \* 발칸공항, 이집트 카이로공항 터미널 건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며 쿠웨이트에서 튀르키예 건설회사가 수주한 계약가치가 가장 큰 쿠웨이트 국제공항 등 유명 공항의 건설공사에 참여함

## (3) RÖNESANS HOLDİNG

- 1993년 건설, 도시 개발, 산업 및 보건 시설 등의 분야에서 도급 및 투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 ENR 목록 23위를 차지함
- 튀르키예에서 9번째로 큰 건설 회사이자 유럽에서 건설도급 회사임
- 독일, 호주, 러시아, 알제리, 네덜란드 등 전 세계 14개국 이상에서 운영됨

### 튀르키예 주요 건설 프로젝트

- 앙카라의 대통령 전용 건물, 이스탄불의 알리안츠 타워, 이스탄불의 은행 관리 종합 빌딩, 이즈미르의 고즈테페 경기장, 이스탄불의 최적 할인 센터, 바사크세히르 병원, 아다나 병원 등 여러 병원 건립
- 튀르키예 내외부에 분산된 대형 프로젝트 등

#### (4) ENKA İNŞAAT

- 1957년 이스탄불 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생 2명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스탄불 베식타스 지역에 본사를 둔 튀르키예에서 가장 오래된 건설 회사 중 하나
- 당시 회사의 규모가 작음에도 주요 사업, 특히 고속도로 건설 분야에서 직접 업무를 시작해 회사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고위 관리들의 관심을 끌
- 1970년대 초, 회사는 35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튀르키예 국경을 넘었고, 그 중 10개는 튀르키예 밖에 있었음
- 오늘날 이 회사는 3000개 이상의 건설 장비와 기계로 구성된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40,000명 이상의 직원과 건설 노동자를 고용 중

#### (5) TEKFEN İNŞAAT

- TEKFEN İNŞAAT는 1956년에 시작된 튀르키예의 건설 및 도급계약 활동에서 가장 큰 선두 기업 중 하나
- 이 회사는 광범위한 성과와 튀르키예 내외의 주요 파트너십을 통해 품질 표준에 대한 여러 국제 인증을 획득함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모로코, 카타르 등 유럽과 아랍 국가들에서 많은 국제 프로젝트와 협력 관계를 맺음

##### **튀르키예 주요 건설 프로젝트**

- 아타튀르크 올림피아드 경기장, 이스탄불 메트로, 철펜 타워스, 튀르키예와 이라크 사이의 해양 터널 노선

#### (6) İÇTAŞ İNŞAAT

- İÇTAŞ İNŞAAT 기업의 활동은 건설, 산업, 관광, 발전 분야에 따라 다양하며, 모두 인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경영 접근법에 따름
- 사업에서 품질과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유럽, 아시아, 중동과 같은 튀르키예 밖에 여러 지점을 두고 발전하고 성장함
- \* (아랍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 수행

##### **튀르키예 주요 건설 프로젝트**

- 이스탄불의 술탄 아부즈 셀림 다리, 이즈미르 마리나, 보몬티 컨벤션 센터 및 기타 호텔 체인과 관광객 건물

## (7) MAPA GROUP

- 마파는 건설, 재생에너지, 공항 등 5개 이상의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힘들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가나, 유럽, 아랍 걸프 국가들에서 110억 달러 이상 가치의 프로젝트를 200개 이상 튀르키예 밖에서 완료한 튀르키예 다국적 기업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섬
- 설립 후 첫 10년간 마파는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으로 첫 번째 발전소 및 앙카라에 있는 (힐튼) 체인의 첫 번째 호텔을 건설함

## (8) KIPTAŞ

- 이스탄불시는 건축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해외 금융 파트너십을 구축함
- 킵타스는 1987년 튀르키예에 İMAR WeidlePLAN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됨
- 킵타스의 첫 번째이자 주요 목표는 이스탄불의 미적 외관을 강조하는 자격을 갖춘 주거 단지 내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임
  - 주거용 건물, 가로등, 도시 조경, 조림,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시장 등의 분야뿐 아니라 수도와 빗물 수로, 식수, 송전선, 전력선, 천연가스, 전화 등을 전문적으로 건설 중임
- \* 이는 튀르키예 시민들에게 경제적 가격과 편리한 할부 옵션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줌

## (9) NEF

- “왜 최고가 되지 않는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NEF 회사는 2007년 튀르키예에서 건설 회사인 티무르 게이리멘쿨에 의해 설립됨
- 네프 체인은 튀르키예의 여러 지역에 수십 개의 주거 단지를 소유함
- 첫 번째 프로젝트는 캄보르가즈의 네프 4와 레벤투의 네프 163으로,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판매가 시작됨
  - 네프 프로젝트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거주자들에게 모든 사회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제공하는 (폴드 홈)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한다는 것
  - 영화관, 회의실, 무도회장, 어린이 놀이터, 체육관 등이 있음
- 네프 프로젝트 대부분은 이스탄불의 주요 거리와 중요한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튀르키예 내외부의 무역업자, 투자자,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지점이 됨

## (10) OFTON İNŞAAT

- OFTON İNŞAAT 회사는 국제 품질 표준에 따라 안전하고 현대적인 주거 및 주거 공간 개발 작업을 수행하며, 1980년에 건설 분야에서 활동함
- OFTON İNŞAAT는 특히 이스탄불에서 유명하며, 메테르, 베요글루, 시슬리, 오르타코이 등의 지역에서 독특한 표시로 자리잡음
- 관광 부문과 협력하여 호텔 및 주거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브랜드의 관리 하에 시행함

## (11) NUROL İNŞAAT

- NUROL İNŞAAT(1966)는 전세계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최초의 선구적인 기업임
- 많은 대규모 및 하이테크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름을 만든 국제적인 건설도급회사임
  - 주요 건설 프로젝트 : 누롤 라이프, 누롤 파크, 누롤 타워, 바체세히르 코누틀라르, 주메이라 마을, 로타나 호텔
- 이외에도 2021년 ENR 상위 250개 글로벌 계약업체 중 40개 튀르키예 기업들이 있음
- 튀르키예가 엔지니어링뉴스레코드(ENR)의 2022년 국제 건설계약자 순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튀르키예 건설계약자 협회(TMB)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 78개와 미국 41개의 계약자에 비해 튀르키예는 40개의 회사가 목록에 있음
- 튀르키예의 건설계약자 7회사가 추가로 1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됨
- 매출 183억 달러로 튀르키예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4%임

(출처:<https://www.hurriyetdailynews.com/40-turkish-firms-among-top-250-global-contractors-167350>, 2021.08.26.)

\* 2021 ENR Top 250대 국제건설업체에 진입한 40개 튀르키예 건설업체들  
(출처: <https://www.enr.com/toplists/2021-Top-250-International-Contractors-Preview>)

연번	ENR 순위	업체명	2020년 총매출(억불)	주요 부문
1	28	RENAISSANCE Construction	45.3	종합건축, 운송교통, 발전, 산업플랜트
2	56	LIMAK INSAAT SANAYI VET TICARET AS	39.9	운송교통, 종합건축
3	57	ANT YAPI INDUSTRY & TRADE INC	16.6	종합건축
4	68	YAPI MERKEZI INSAAT VE SANAYI AS	12.1	운송교통
5	70	ENKA INSAAT VE SANAYI AS	12.6	발전, 종합건축
6	80	Tekfen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 Inc	10	산업플랜트, 운송교통
7	92	ONUR TAAHHUT TASIMACILIK INSAAT TIC VE SANAYI AS	8.4	운송교통
8	101	TAV Construction	6.6	운송교통, 종합건축
9	102	NUROL Construction and Trading Co Inc	9.0	종합건축, 오폐수처리, 상수도
10	115	ESTA INSAAT SANAYI LOJISTIK VE DIS TICARET AS	4.6	종합건축, 산업플랜트
11	122	GULERMAK	6.0	운송교통
12	125	ASLAN YAPI VE TICARET AS	4.2	종합건축
13	133	SEMBOL ULUSL ARARASI YATIRIM TARIM PEYZAL INSAAT	4.3	종합건축
14	136	KUZU GROUP	4.3	종합건축, 오폐수처리
15	137	KOLIN INSAAT TURIZM SANAYI VE TICARET AS	16.1	운송교통
16	144	YUKSEL INSAAT CO INC	3.3	오폐수처리, 상수도, 종합건축
17	145	ESER CONTRACTING	3.2	종합건축, 운송교통
18	151	IC ICTAS INSAAT SANAYI VE TICARET AS	8.8	운송교통, 종합건축
19	157	CALIK ENERJİ SANAYI VE TICARET AS	2.4	발전사업
20	158	ILK CONSTRUCTION	2.4	운송교통, 산업플랜트
21	162	GAP INSAAT YATIRIM VE DIS TICARET AS	2.6	종합건축

연번	ENR 순위	업체명	2020년 총매출(억불)	주요 부문
22	163	POLAT YOL YAPI SAN. VE TIC. AS	3.0	운송교통
23	165	ALARKO CONTRACTING GROUP	43.0	운송교통
24	168	DEKINSAN GRUP INSAAT AS	2.2	종합건축
25	181	GURBAG GROUP	1.9	종합건축,운송교통
26	183	TEPE INSAAT SANAYI AS	2.2	운송교통,종합건축
27	185	MAKYOL INSAAT SANAYI TURIZM VE TICARET AS	7.0	운송교통
28	188	METAG GROUP	1.7	상수도,운송교통
29	198	USTAY YAPI TAAHHUT VE TICARET AS	1.6	산업플랜트
30	201	YENIGUN INSAAT SANAYI VE TICARET AS	1.4	종합건축,운송교통
31	203	SUMMA TURIZM YATIRIMCILIGI AS	1.2	종합건축
32	204	GAMA	1.6	발전사업
33	205	NATA INSAAT TURZ. TASIMACILIK TIC. VE SA. AS	5.2	운송교통
34	206	CENGIZ CONSTRUCTION INDUSTRY & TRADE CO INC	8.3	운송교통
35	212	MBD INSAAT SANAYI VE TICARET AS	1.3	종합건축
36	215	FEKA INSAAT SANAYI TICARET AS	0.9	운송교통,발전
37	222	IRIS INSAAT TURIZM SANAYI VE TICARET AS	0.8	운송교통
38	223	SMK GROUP	0.8	산업플랜트,발전
39	238	STFA CONSTRUCTION GROUP	0.5	운송교통
40	239	DOGUS INSAAT VE TICARET AS	2.1	운송교통

주: 2021 ENR 순위는 2020년 총매출실적이 아니라 해외 매출이 주요 영향을 미침

## 나. 외국 Developer

### (1) 프랑스 방시(VINCI)

- Vinci와 Limak이 Antalya Airport 25년 운영 양허 입찰 추진
- 방시는 양허,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거의 120개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리더임
  - 1899년 설립되어 직원수는 약 22만명이며,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방시 건설과 방시 에너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 (2) 스페인 페로비알(Ferrovial)

- 2022년 2월 Ferrovial이 2014년 이후 현지 YDA 그룹에서 운영해왔던 튀르키예 Dalaman International Airport 지분 60%를 €140 million에 취득함
- 교통 인프라 및 도시 서비스의 설계, 건설, 자금 조달,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여하는 스페인 다국적 기업
  - 1952년 설립되었고 직원수는 약 96,000명이며 본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함

### (3) 호주 맥쿼리(Macquarie)

- 맥쿼리는 자산 관리, 소매 및 비즈니스 बैं킹, 부 관리, 리스 및 자산 금융, 시장 접근, 상품 거래, 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가 자문, 자본 조달 및 주요 투자의 34개 시장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그룹
- 강력한 자본 입지와 강력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결합된 다양한 운영 덕분에 53년간 지속적인 수익성을 달성함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그룹으로 세계 최대의 인프라 자산 관리자이자 호주 최고의 인수 합병 자문자이며 자산이 7,370억 호주 달러 이상임
  - 1969년에 설립되어 상장된 Macquarie는 33개 시장에 17,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호주에 본사를 둠

### (4) ACWA

- ACWA Power는 현재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10개국에 진출한 발전 및 담수 생산 플랜트 포트폴리오의 개발자, 투자자, 공동 소유자 및 운영자임
  - 2004년 설립되어 사우디 아라비아에 본사를 두고 직원수는 3,000명임



## (5) Inframed

- InfraMed Infrastructure는 2010년 5월에 설립된 장기 투자 법인이며 3억 8,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지중해 지역의 인프라를 전담하는 가장 큰 투자 법인
- 에너지 및 운송인프라, 지중해 남동쪽에 집중, 그린필드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함
- \* 도시기반시설(보건, 교육 및 통신 기반시설, 위성 및 지상 또는 해저 케이블망) 교통 기반시설(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항만, 철도, 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주차시설 및 기타 교통관련 활동)  
에너지 및 물 인프라(송전, 저장, 처리, 위생 및 유통을 포함하여 가스, 물, 전기와 같은 지역사회에 기본적인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 (6) OHL(스페인)

-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되는 OHL은 아나톨리아 중부 도시 코냐에 폐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앙카라-이스탄불 고속철도 1단계 노선을 건설함
- 현재 이 회사는 보스포루스 강을 가로지르는 수중 터널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마르마라이 지하철에 이 철도를 건설하고 있음

## (7) Grupo ACS

- ACS 그룹은 2020 및 2021 ENR 1위 업체로 이리듐을 통한 ‘그린필드’ 인프라의 촉진, 개발, 건설부터 유료도로 관리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애버티스를 통해 수행되는 ‘브라운필드’ 부분에 이르기까지 컨버전스 사업의 가치 사슬 전체를 망라함
- 따라서 ACS 그룹은 가치 사슬의 통합을 강화하고 인프라 관리의 핵심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송 양보 산업의 세계적인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건설 영역은 모든 유형의 토목 건설 프로젝트(고속도로, 철도, 해양 프로젝트 및 공항 등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활동), 건축 프로젝트(주거용 건물, 사회 기반 시설 및 시설) 및 인프라 서비스(철도, 교통, 통신 및 테트기술, 에너지, 자원, 물 및 국방 부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8) STRABAG SE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트라벡은 튀르키예 무라티 (Muratli) 수력발전소 참여함
  - \* 이 댐은 코루 강과 조지아 공화국의 주 경계에 있는 로어 코루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2개의 도로 터널(길이 235m + 180m), 전환 터널(2 x 350m)의 굴착, 지지 및 콘크리트 라이닝, 밸브 챔버, 그라우팅(주입)을 포함함

## (9) Webuild

- 이탈리아 밀란에 본사를 두고 있는 Webuild는 튀르키예에서 5억 3천만 유로에 고속 ‘오리엔트 특급’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전 이름은 Salini Impregilo임
  - Salini Impregilo가 이스탄불과 불가리아 국경 사이 튀르키예에서 ‘오리엔트 특급’ 의 153km 구간을 건설하는 5억 3천만 유로의 계약을 따냄
  - 이번 계약은 도시 및 도시 외 이동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고속 철도 건설에 대한 그룹의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음
- 1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살리니 임프레길로는 2011년 튀르키예 교통해양부 고속철도 콰세콰이게브제 구간의 재건을 완료한 튀르키예 대표 건설업체 투리즘 사나이브 티카레 A.SH.의 콜린 이엔사와의 합작회사 지분 50.01%를 보유함
- Tions. Salini Impregilo는 걸프 지역의 다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음
  - 살리니 임프레길로는 1966년부터 튀르키예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프라테스 강에 케반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같은 상징적인 작품을 건설함
  -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살리니 임프레길로는 키날리-사카리아 고속도로와 보스포루스 강 위에 놓인 두 번째 다리를 포함하여 총 25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개발함
- Webuild는 가지안텝 통합 보건 캠퍼스를 건설 중이며, 한국의 삼성 등의 기업들과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이 튀르키예 병원 건설에 사용된 4억 8,350만 유로 (5억 9,000만 달러)의 대출금에 대한 재협상을 모색할 예정임

- 튀르키예의 카이엔샤트와 액투스자산운용 등 이들 기업은 유럽재건개발은행(EBRD)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부단에 18년 만기 대출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함

- 삼성은 이 프로젝트의 지분 26.5%를, 나머지 기업들은 각각 24.5%를 보유함
- 그들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채권단과의 대화를 관리할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회사측은 말함
- 이 컨소시엄은 2016년 남동부 가지안텝에 있는 6억 유로 규모의 병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돈을 빌림

- 보건부에 따르면, 1,875개의 병상이 있는 이 시설은 2023년 완공될 예정임
- 삼성과 위빌드는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촉발된 재정난에 휘말린 최근의 외국기업으로, 이로 인해 외화표시 부채상환 비용이 더 비싸짐

- \* 튀르키예 경제는 2018년 외환위기에 휘말렸고 지난해 리라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약 20% 하락하는 등 또다시 급락함
- \* 리라화의 문제로 2015년 이후 17개 병원 프로젝트 중 몇 개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총 10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민관협력 모델로 진행되고 있음
- \* 튀르키예 야당과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국가 대출과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들이 튀르키예에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비판함

- 블룸버그통신은 튀르키예의 감마 홀딩과 튀르케를러 이언샤트 등 또 다른 컨소시엄이 지난해 12월 이즈미르와 북서부 코카엘리에 병원을 짓는 데 사용한 9억 유로의 부채를 구조조정했다고 전함
- 제너럴 일렉트릭은 약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함

#### (10) Astaldi

- Astaldi S.p.A.는 로마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다국적 메이저 건설 회사
  - 토목 공학, 수력 공학, 전기 기계 공학 및 운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함
  - 1929년 설립되어 직원 수 11,500명을 보유한 회사임

□ 보건 분야 참여기업들

업체명	업체 소개
	<p>-21개의 국가에서 부동산 개발, 에너지, 보건 분야에 건설 및 투자하는 지주회사</p> <p>-글로벌 37위, 유럽 10위, 현재 쇼핑몰, 사무실, 호텔, 주택, 복합 구조, 중공업 플랜트, 인프라 프로젝트, 제조업, 화학공장, 제약 공장, 식품 및 음료 가공 공장, 자동차 공장, 정부 건물, 병원 복합 단지 등을 조성한 경험이 있음</p> <p>-2014년 자산액은 65억 TL</p> <p>-현재 튀르키예 병원 PPP 프로젝트 중 Ikiteli(2천7백 병상), Adana(1천5백 병상), Bursa(1천4백 병상), Elazig(1천병상), Yozgat(2천4백 병상)에 건설 및 지분출자</p>
	<p>-공항관리 및 운영, 건설, 항만 운영, 해양 운송, 물류, 수자원 관리, 에너지, 부동산 등에 투자, 관리함.</p> <p>-다국적 기업인 Tepe İnşaat Sanayi A.Ş., PSA International, Souter Investments LLP, Kardan N.V.와 JV 형성, ACCORSA 와 협업하여 튀르키예의 노보텔, 아이비스 건축함</p> <p>-현재 튀르키예 병원 PPP 프로젝트 중 Ispara City Hospital, Eskisehir City Hospital에 참여</p>
	<p>-Mersin Integrated Healthcare campus는 1,253병상의 PPP 건립 병원이며 종합병원, 산부인과, 소아과, 심장혈관질환 병원, 정신 병원, 암센터로 구성되어 있음</p> <p>-사업 참여자인 Dia 홀딩스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순위 건축부분의 124위, 건축 디자인 155위인 건설회사임</p>
	<p>-Bilim Healthcare Services 는 의료, 교육, 섬유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의료기기를 17개의 병원에 공급하고 있음</p> <p>-Bilim은 임상, 비임상, 운영 컨설팅을 담당하며, 의료 서비스의 품질 관리, 프로젝트 관리, 타당성 조사 등을 이행함</p> <p>-튀르키예 PPP 병원 프로젝트에서는 방사선 및 핵의학, 영상의학 서비스 분야에 참여하고 있음</p>
	<p>-Mott MacDonald는 튀르키예 PPP 사업에서 대주단과 SPV의 이익과 PPP 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기술자문, 컨설팅을 수행함</p> <p>-튀르키예보건부가 LTA(대주단 기술자문)로 선정한 회사 중 하나</p>
	<p>-Bozlu 홀딩스는 O&amp;M 전문 기업으로 Clinical Support Services, General Services를 제공함</p> <p>-튀르키예 PPP 병원 프로젝트 중 Mersin(1,260병상), Bilkent (3,800병상)의 O&amp;M을 담당하며 영상의학 회사로, Eczacibasi, Monrol, Mol-Image 회사와 협업, 의료기기로는 Capintec Inc, DDD, Epsilon, Varinak과 협업체계 구현 중임</p>
	<p>-Meridiam은 파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투자자이자 자산 관리자로서 장기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 자금 조달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함</p> <p>-2005년에 설립된 Meridiam은 유럽, 북미 및 아프리카의 공공 인프라에 투자함</p> <p>-직원수 350명</p>

## 다. 한국 Developer

### (1) SK에코플랜트

- 2013년 유라시아 해저터널(Eurasia Subsea Tunnel) 프로젝트 390백만 달러; SK에코플랜트 지분 50%, 튀르키예 Yapi Merkezi 그룹 지분 50%, 총사업비 1,250백만 달러에 참여
  - 2017년 차나칼레 대교사업(Canakalle bridge) 1,434백만 달러; SK에코플랜트 지분 25%, DL이앤씨 지분 25%, 튀르키예 Yapi Merkezi 그룹 지분 25%, Limak 지분 25%, 총사업비 3,200 백만 유로에 참여
  - 1962년 설립, 업력 61년, 직원수 3,441명, 토목건축업(플랜트, 인프라, 건축·주택 등)을 하는 EPC 건설회사로 PPP 사업을 수행하는 Developer,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음
  - 2021년 5월,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ESG경영을 교감하기 위해 친환경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 구현에 힘쓰고 있음
  - 사용자의 건강과 친환경을 위한 에코스마트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친환경 Solution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간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사용자의 건강과 친환경을 위한 제균환기시스템,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 SK에코플랜트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글로벌 EPC 기업에서 글로벌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추구하고, 세계 일류 도시개발 및 Infra 구축 회사의 비전을 향해 도약하고 있음

### (2) DL이앤씨

- 2017년 차나칼레 대교사업 1,434백만 달러에 참여
  - DL그룹 계열사, 2021년 디엘이앤씨로 사명 변경, 종합건설업 수행, 직원수 5,500명, 매출 약 5조 2000억원, 사업분야는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석유화학 등
  - 주요교량 : 춘천대교, 서해대교, 인천대교, 이순신대교, 거가대교, 틸부롱 대교(브루나이에 건설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긴 다리)
  - 지주사 체제로 공식 출범한 대림이 그룹 명칭을 ‘DL(디엘)’ 로 변경(2021.1.1)
- \* 舊 대림산업은 지주회사와 건설사, 석유화학회사로 분할됨

\* 신설된 지주회사 사명은 DL(디엘)이며 舊 대림산업 건설사업부는 디엘 이앤씨(DL E&C), 석유화학사업부는 디엘케미칼(DL Chemical)로 분할됨

- DL이앤씨는 1939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총 14개의 회사로 이루어진 DL그룹의 모기업임
- DL이앤씨는 건축, 토목, 플랜트 등 건설 분야와 석유화학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DL이앤씨는 창립 이래, 경부고속도로, 국회의사당,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등 대한민국 대표 건축물을 건설함
- 또한 1966년 베트남에 최초로 진출한 이래, 세계 각지에서 건축, 토목, 플랜트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3) 삼성물산

- 2018년 가지안텝병원 프로젝트(Gaziantep Hospital) 163백만 달러; 삼성물산 지분26.5%, Salini-Impregilo 지분 24.5%, Kayi 지분 24.5%, KTGH PEIF 지분 24.5%으로 참여
- 키리칼레 복합화력발전(Kirikalle CCPP); 삼성물산 지분 10%, Inframed 지분 20%, ACWA 지분 70%, 총사업비 1,600백만 달러, 950MW 발전설비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22조 5,640억 원으로 2014년부터 8년 연속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시공능력평가 1위를 달성함
- 1963년 창립, 종업원수 약 8,820명, 토목,건축,플랜트, 주택사업을 수행함
- 건축에는 UAE 부르즈 칼리파,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와 같은 초고층 빌딩 건축에 경쟁력 보유
- 토목에는 인천대교, 항만, 철도, 플랜트 복합개발 프로젝트 호주 Roy Hill, 국내 최대 규모 항만시설 부산 신항만, 지하철, 철도, 교량, 항만, 댐 등 대단위 사업에 참여하여 대형토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함
- 플랜트사업에서는 Global EPC Contractor로서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다공종 고급기술이 집약된, 경제적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의 고수익 사업임
- 세계 최대규모인 사우디 쿠라야(Qurayyah) 복합화력발전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LNG 터미널, UAE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Global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함.